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국어영역 **문학**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문학

차례

I. 교과서 개념 학습

		제재	쪽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붉은 고양이로대(이장희) / 울타리 밖(박용래)	8
2강	시의 내용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작자 미상)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 (작자 미상)	12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성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14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박씨전(작자 미상)	18
5강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정직한 사기현(오영진)	22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조침문(유씨 부인)	26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유리창 1(정지용)	28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춘향전(작자 미상) / 수정가(박재삼)	29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무너진 극장(박태순)	33

II. 적용 학습

		제재	쪽
고전 시가	01	찬기파랑가 (총담사) / 제망매가(월명사)	38
	02	서경별곡(작자 미상)	42
	03	월곡답가(정훈)	45
	04	짚방석 내지 마라 ~ (한호) / 청초 우거진 골에 ~ (임제) / 곡구룡 우는 소리에 ~ (오경화)	47
	05	사랑이 거짓말이 ~ (김상용) / 임이 헤으시매 ~ (송시열) / 남은 다 자는 밤에 ~ (송이) / 어이 못 오더냐 ~ (작자 미상)	50
	06	누항사(박인로)	53
	07	자도사(조우인)	56
	08	덴동 어미 화전가(작자 미상)	60
	09	유산가(작자 미상)	63
	10	본조 아리랑(작자 미상) / 신고산 타령(작자 미상)	65
	11	습수요(이달) / 산민(김창협)	71
	12	어부단가(이현보)	74
현대시	01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김소월) / 산곡 - 함주시초 5(백석)	76
	02	님의 침묵(한용운)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80

Contents

	제재	쪽	
현대시	03 황혼(이육사) /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84	
	04 낙화(조지훈) / 플라타너스(김현승)	88	
	05 도봉(박두진) / 그리운 그 사람(김용택)	92	
	06 향아(신동엽) / 폐가에 부처(김관식)	96	
	07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 길(신경림)	100	
	08 누룩(이성부) / 얼은 강을 건너며(정희성)	104	
	09 바다와 나비(김기림) / 안개의 나라(김광규)	108	
	10 참깨를 털면서(김준태) / 배를 매며(장석남)	112	
	11 이별 이후(문정희) / 강변역에서(정호승)	116	
	12 파발 가에서(김수영) / 별을 굶다(김혜순)	120	
	고전 산문	01 주몽 신화(작자 미상)	124
		02 용소와 머느리바위(작자 미상)	128
03 국선생전(이규보)		131	
04 이생규장전(김시습)		134	
05 서재야회록(신광한)		138	
06 설생전(오도일)		142	
07 송반궁도우구복(작자 미상)		146	
08 소현성록(작자 미상)		149	
09 황새결송(작자 미상)		153	
10 적벽가(작자 미상)		157	
11 계우사(작자 미상)		160	
12 제석본풀이(작자 미상)		164	
현대 소설	01 달밤(이태준)	168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172	
	03 서투른 도적(현진건)	176	
	04 논 이야기(채만식)	180	
	05 진등(허준)	185	
	06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189	
	07 후송(서정인)	193	
	08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197	
	09 겨울 나들이(박완서)	201	
	10 명량한 밤길(공선옥)	204	
	11 아주 느린 시간(최일남)	207	
	12 도도한 생활(김애란)	211	
극·수필	01 양주 별산대놀이(작자 미상)	215	
	02 수레 제도(박지원)	219	
	03 통곡헌기(허균)	223	
	04 낙치설(김창흠)	226	

문학 차례

		제재	쪽
극·수필	.05	알(이강백)	229
	.06	불모지(차범석)	233
	.07	장마(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237
	.08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박상연)	240
	.09	산촌 여정(이상)	244
	.10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신영복)	247
갈래 복합	01	열하기유(서호수) / 연행가 (홍순학)	250
	02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 (작자 미상) / 사씨남정기(김만중)	256
	03	익산문답(홍대용) / 추사 글씨(김용준)	261
	04	존재의 테이블(나희덕) / 구부러진 길(이준관)	265
	05	금 따는 공발(김유정) / 토막(유치진)	270
	06	최척전(조위환) /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윤홍길)	277
	07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성격 / 정시자전(석식영암) / 소전(박제가)	285
	08	강호사시기(맹사성) / 상춘곡(정극인) / 곡목설(장유)	291
	09	산은 적적 월황혼에 ~ (작자 미상) / 민언새(안도환) / 세 선비의 꿈(성현 익음)	297
	10	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적 경험 / 고개(정한숙) / 산은 알고 있다(신석정)	302
	11	'낮설게 하기'와 시의 표현 / 조강(황인숙) / 종소리(이재무)	310
	12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 탈향(이호철) / 눈길(이청준)	316

III. 실전 학습

		제재	쪽
1회	[01~04]	고공가(허전) / 용사음(최현)	326
	[05~08]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 / 시(박목월) / 살림(이병률)	332
	[09~11]	소대성전(작자 미상)	337
	[12~15]	삼대(염상섭)	341
2회	[01~03]	도산십이곡(이항)	346
	[04~08]	이름 없는 꽃(신경준) / 웅고집전(작자 미상)	349
	[09~11]	아마존 수족관(최승호)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김기택)	356
	[12~15]	산거족(김정한)	360
3회	[01~04]	빌려줄 몸 한 채(김선우) / 맨발(문태준)	364
	[05~08]	잉여 인간(손창섭) / 불신 시대(박경리)	368
	[09~12]	정과정(정서) / 개아미 불개아미 ~ (작자 미상) / 애오잠병서(이달충)	374
	[13~15]	옥단춘전(작자 미상)	377

2023학년도 수능특강, 어떻게 공부할까?

효율적인 연계교재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을 생각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품과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는 신경향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EBS 연계교재에 담긴 작품과 자료의 수록 의도, 출제 포인트를 분석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와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지문·자료 분석력 UP 프로젝트”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연계교재에 숨은 뜻,
‘무엇을·어떻게’ 풀고 찾아야 할까?
그 숨은 길을 보여 드립니다!

1단계

연계교재 감상 포인트

연계교재 수록 작품에 대한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등을 소개합니다. 제시된 작품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미리 방향을 안내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단계

수능특강 작품 분석

수능특강에 제시된 작품의 모든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작품 분석과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해서 풍부한 해설과 ‘문제 해결 키’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의 밀착 지도를 받는 듯한 생생한 학습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것만은 꼭!

수능특강에 제시된 작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포인트’로 정리하여 작품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고, 수능특강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더 알아보기 / EBS Q&A

‘더 알아보기’에서는 제시된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EBS Q&A’에서는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던 질문과 예상되는 질문을 모아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기다렸던 교재

- 연계교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과 자료를 그대로 실고 개념의 이해를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 수능특강의 어려운 내용과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여 연계교재 학습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들이 기다렸던 교재

- 연계교재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 오개념 전달, 검증 안 된 변형 문항 등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교재입니다.
-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과 자료에 대한 쉬운 설명, 개념 자료, 심화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I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봄은 고양이로다_이장희 / 울타리 밖_박용래
2강	시의 내용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_작자 미상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_작자 미상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성	메밀꽃 필 무렵_이효석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박씨전_작자 미상
5강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정직한 사기한_오영진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조침문_유씨 부인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유리창 1_정지용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춘향전_작자 미상 / 수정가_박재삼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무너진 극장_박태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봄의 느낌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봄의 느낌을 하나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양이라는 대상에 종합적으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분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하나의 대상에 투영해 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제

고양이로 형상화되는 봄의 다양한 느낌

고양이가 가진 부드러운 이미지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직유를 통한 부드러움의 형상화
 고흔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봄이 가진 부드러운 이미지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각 연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내는 이미지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미지가 어떻게 변주되며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감상할 필요가 있음.

▶ 1연: 부드러운 고양이 털과 봄의 향기

고양이가 가진 호젓한 이미지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직유를 통한 시각적 형상화
 맞친 봄의 불길(火氣)이 흐르도다.
 봄이 가진 역동적 이미지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각 연에서 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남.

▶ 2연: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과 봄의 기운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고양이가 가진 정적인 이미지
 폭은한 봄줄음이 떠돌아라.
 봄이 가진 부드러운 이미지

▶ 3연: 고요한 고양이의 입술과 봄의 나른함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고양이가 가진 예리한 이미지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봄이 가진 역동적 이미지

▶ 4연: 날카로운 고양이의 수염과 봄의 생기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반복 속의 이미지 변주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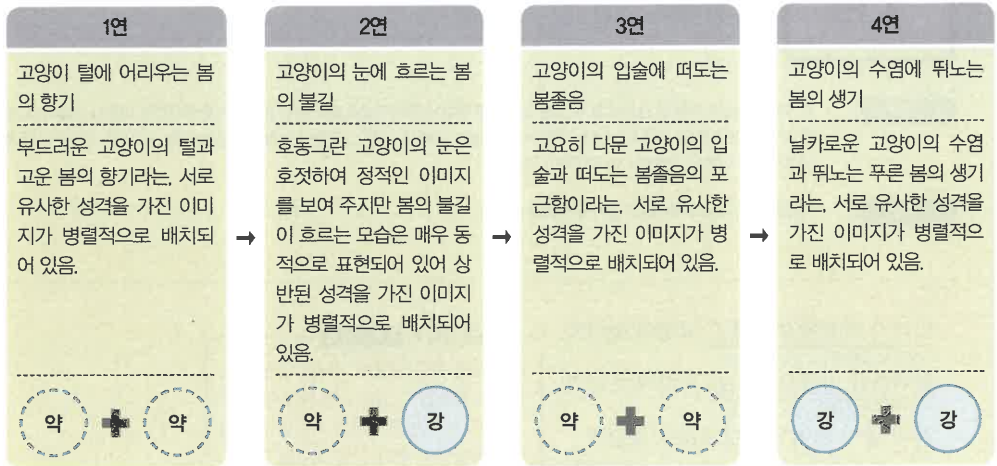
	고양이		봄	
	시어	성격	시어	성격
1연	부드러운	정적 / 유순함	고흔	정적 / 유순함
2연	호동그란	정적 / 유순함	맞친	동적 / 예리함
3연	고요히	정적 / 유순함	폭은한	정적 / 유순함
4연	날카롭게	동적 / 예리함	생기(生氣)	동적 / 예리함

포인트 2

반복 속의 형식 변주 문항 2 관련

- 각 연은 고양이의 특징과 봄의 특징을 연결 짓는 방식을 반복함.
-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상의 변주들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봄의 생기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봄은 고양이로다」의 시상 전개



→ 강렬한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가 전개되다가 강렬한 이미지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 봄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복합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 「봄은 고양이로다」의 표현 변주

구분	1연	2연	3연	4연
종결 어미	-도다.	-도다.	-아라.	-아라.
고양이에 대한 직유 표현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이미지 성격의 유사 / 인접 여부	유사 / 인접	불일치	유사 / 인접	유사 / 인접
'봄의' 표현 사용 여부	사용	사용	미사용	사용

단면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경우 놓칠 수 있는 봄의 다양한 성격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전개됨으로써 봄의 생기를 더욱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Q. 시상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각 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문항 1 관련

A. '문항 1'은 작품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공통된 모습과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작품이 단조로운 형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품을 열핏 보면 1연부터 4연까지는 모두 동일한 서술 구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바라보는 고양이나 봄은 결코 평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상이 가지는 성격은 각각 고양이와 봄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일로 어우러집니다. 즉,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다면적인 성격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시상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이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자연 그대로의 성격을 보이며, 이후 묘사되는 마을의 공동체적 모습이 전혀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과 본래성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소녀의 천진하고 소박한 모습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소년의 천진하고 소박한 모습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통사 구조상 2행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인위적으로
 있다 행을 구분하여 제시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이 작품은 문장 성분들 사이의 호흡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음. 그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어떻게 연결하여 읽는 것이 전체 맥락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감상에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1연: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을 담은 들길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태양이 타듯':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움직임과 현상들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2연: 들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천연(天然)히

앞 연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다음 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가지는 성격을 강조함.

▶ 3연: 강조되는 대상의 특성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인위적인 소유의 구분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모습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밝은 모습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생활로 인해 얻게 되는 것

▶ 4연: 자연스러운 섭리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이것만은

꼭
 의하자
 핵심 개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행위의 의미 문항 2 관련

일반적인 관점	작품의 관점	작품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표현들
내가 가진 것은 내 영역 안에 고정되어야 함.	내가 가진 것은 일시적이며 늘 흘러가는 것임.	• '아지랑이가 피듯': 공기의 이동처럼 자연스러움. 따뜻할 때 나타나는 현상 • '태양이 타듯': 절대적인 당위임. 따뜻한 이미지를 제공함.
나와 남은 '울타리'를 통해 뚜렷하게 구분됨.	'울타리'는 나와 남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음.	• '제비가 날듯': 한곳에 머무르지 않음. •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이 작품에서 '길'은 천진한 사람들이 있는 '사랑스러운' 곳이며 물은 한곳에 고여 있지 않고 그들을 향해 흐름.
	나누며 사는 삶은 따뜻함을 안겨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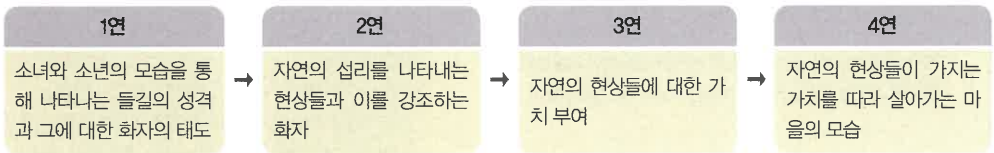
주요인
2

분리된 연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 문항 3 관련

- 「봄은 고양이로다」가 서로 분리된 연들이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하면서도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그 이미지들이 통합되는 방식을 통해 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울타리 밖」은 각 연이 서로 이어지는 형식을 갖추으로써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이 하나로 집약되는 효과를 거둬.
- 2연에서 제시된 자연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길'은 바로 앞 연에서 제시된 '소녀'와 '소년'이 있는 길임.
- 2연에서 '~듯'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는 '그렇게'와 3연의 '천연히'와 연결되어 4연에 나타나는 행위 및 현상들을 수식함으로써 작품 전체가 긴밀한 관련을 맺는 구조를 형성함.
- 2연은 3연에서 제시하는 '천연히'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3연은 2연의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가지는 가치를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울타리 밖」의 사상 전개



■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과 지향(유치환의 「깃발」과 비교)

- 「울타리 밖」에서 화자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마을'은 자연의 섭리처럼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화자는 '사랑스러운 들길', '천연히' 등의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1연에서 나타나는 '낮이 설어도'는 다른 표현들에 비해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언제나 이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기보다 그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상향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상향을 꿈꾸지만 이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유치환의 「깃발」과 비교해 본다면, 「깃발」은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울타리 밖」은 그 이상향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BS
Q&A**

Q. 「행간 걸침」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항 2 관련

A. 「울타리 밖」에는 자연스럽게 않은 행 구분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소녀와 같이」를 「소년과 / 같이」로 행을 나누는 부분, 「들길이 있다」로 한 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들길이 / 있다」로 행을 나누는 부분, 「그렇게 그렇게」를 별도의 한 행으로 둘 수 있었지만 「그렇게 / 그렇게」로 행을 나누고 앞의 「그렇게」를 윗행에 붙이는 부분들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통사 구조의 구분 단위와 다르게 행을 나누는 것을 「행간 걸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간 걸침이 하는 역할은 구체적인 작품들마다 다르기에 작품 전체의 맥락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읽기 흐름에 변화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독자가 쉬어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여 앞 행의 마지막이나 뒤 행의 첫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자체로 어지러운 진행을 만들어 작품 전체의 혼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가슴이 답답할 때 열고 닫을 목적으로 가슴에 창을 내었으면 하는 발상을 독백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화자가 왜 답답한 일을 겪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이 노래의 개성은 인체를 건축물로 상징하여 거기에 창을 낸다는 기이한 발상에 있다.

주제

가슴에 창을 내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창 내고자'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 초창: 가슴에 창을 내고 싶은 소망
의성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을 나열함. 열거법

초창의 동일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창을 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거듭 강조함.

내고자

▶ 중창: 가슴에 창을 내는 구체적인 장면

이따금 하 답답할 제면 여달아 불까 하노라

화자가 마음에 창을 내고자 했던 이유를 제시함.

▶ 종창: 답답할 때 가슴에 낸 창을 여달고 싶은 소망

- * 장지: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 * 들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현대어 풀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아주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까 하노라.

이것만은
꼭
의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운율 형성 방법 문항 1 관련

반복	초창과 중창에서 '창 내고자'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율격을 형성함.
열거	중창에서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와 같이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을 나열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함.

포인트 2

화자의 태도

현재 화자는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비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창 내고자'라는 구절의 반복은 마음의 창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로 볼 수 있다.

EBS Q&A

Q.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문항 1'은 특정 구절이 아닌, 작품 전체에 걸쳐 어떤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작품을 읽으면서 수사법적인 요소에 주목하면서 선지에 제시된 각각의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이 작품은 초창과 중창에서 '창 내고자'가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마음에 창을 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기다리던 임이 올 때의 마음가짐을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바람도 구름도 매도 모두 쉬어 넘을 정도로 높고 가파른 고개라 하더라도 자신은 임이 온다고 하면 쉬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과장된 표현과 맞물리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바람과 구름도 쉬어 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 대구법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개

▶ 초장: 바람도 구름도 쉬어 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

고개를 한 번에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함.

그 너머 임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 중장: 매들도 쉬어 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

기다림의 대상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냄.

▶ 종장: 높은 고개를 한걸음에 넘어가더라도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마저도 쉬어 넘을 정도로 높은 '장성령 고개'이지만, 임이 온다면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현대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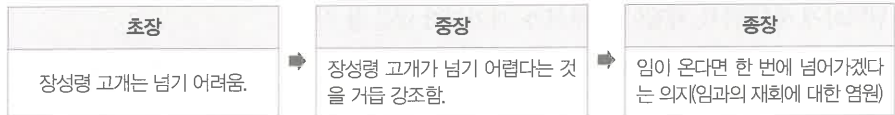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봉우리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시상 전개 방식 문항 2 관련

초장에서 화자는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고개를 언급한다. 이 구절은 너무나 높고 험한 고개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어서 중장에서는 그 고개의 이름을 장성령 고개라고 명시하면서 이 고개가 여러 매들도 쉬어 넘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고 험준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종장에서는 임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고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함을 드러낸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상황과 표현의 불일치가 나타난 사실시조

넘이 오마 허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회 치두라 안자 이수로 가역
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머핍들 서 잇거늘
저야 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꿈뵈
넘의 넘의꿈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준 디 무른 디 골희지 말
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 말 허려 하고 곁눈을 흘긔 보
니 상년 칠월 열 사흘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망정 횡여 낮이런들 놀 우일 번혀과라

현대어 풀이

임이 오마 허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바빠 나가 앉아 이마
에 손을 얹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검어 희
독한 것이 서 잇거늘 저야 임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
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꿈뵈넘의 임바꿈뵈 천방지방 지
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이 있는 말 허려 하고 곁눈을 흘긔 보니 작년 칠월
열 사흘날 껌질을 벗긴 삼대 줄기 살뜰히도 날 속였다.
마침 밤이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다.

→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 행동을 통해 해학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중문을 나서고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임이 오는지 바라본다. 하지만 임이라고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삼대 줄기로 드러나며 화자는 계면적어한다. 여기에서 상황은 심각하지만 표현은 해학적인 작품의 특성이 드러난다.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효석이 1936년 『조광』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작가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봉평, 대화 등을 배경으로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장편이 끝난 후 서로 다룬 허생원과 동이가 대화까지 범길을 함께 걸으며 혈육의 관계를 서서히 확인해 가는 이야기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작품이 구사하는 토속적인 어휘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는 한국 근대 소설의 백미로 평가된다.

주제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

전체 줄거리

원손집이 장돌뱅이 허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춧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린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허생원은 장돌뱅이 친구인 조 선달과 함께 범길을 걸으면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 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낮의 일을 사과하던 허생원은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동이의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허생원은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재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춧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발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춧집에 대한 허생원의 호감이 드러남.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빨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인용의 표지는 없지만 동이에 대한 허생원의 생각을 서술자가 거의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 그 꼴에 우리들과 한뫼 보자는 썸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뻔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껍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껄었다. 어디서 좃어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버 어미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허생원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이 말은 동이에게 가슴 아픈 말이었다는 점이 추후 두 사람이 산길을 걸으며 화해하면서 밝혀짐.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풀 치우.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테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짓해졌다.

▶ 충춧집을 두고 갈등하는 허생원과 동이 (중략)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허생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3인칭 시점의 서술자임. 하지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서술자가 허생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이 소설의 서술자가 대체로 허생원의 시각에서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때문임.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허생원이 평생 잊지 못하고 추억하는 사건임.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 달밤에 허생원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작용함.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꼬집어내려는 것이다. 허생원에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남.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젊으나 보름을 가제 아름다운 달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함.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 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째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 달빛에 감동하면서 놀상 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허 생원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만나는 사건 전체의 필연성을 부여함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뎡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성 서방네 처녀가 우는 이유는 그녀의 집안이 처한 어려운 형편과 관계가 있음.

“제천인지로 출행량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러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윈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핑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 들 잇을 수 있겠나.”

어떠한 일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이르는 말

허룻밤의 인연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함.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창철 두벽두벽 걷기란 여간이래야 장돌뱅이 삶의 고단함이 드러남. 지.”

장돌뱅이로서의 삶

장돌뱅이의 삶을 마무리하려는 조 선달과는 다르게 허 생원은 과거의 추억과 자연을 의지 삼아 평생 장돌뱅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함.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 허 생원이 들려주는 성 서방네 처녀와의 사연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걷는 위치가 바뀌면서 허 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에 동이가 끼일 수 있게 됨.

옛 인연에 대한 허 생원의 미련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소설의 결말에서 동이의 어머니에 대한 허 생원의 기대와 연결됨.

“총각두 꿩됐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죽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풀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맡게.”
허 생원이 동이를 크게 나무란 일 동이에 대한 허 생원의 사과
 “처, 천만예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낮에 있었던 다름에서 아비, 어미를 거론한 허 생원의 말에 동이가 상처를 받음.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음.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 동이에게 사과하는 허 생원과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이

- * 짜장: 과연 정말로
- * 가재: 갯
- * 대궁: '대'의 방언. 꽃을 받치는 줄기
- * 정확히: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 * 장도막: 한 장날로부터 다음 장날 사이의 동안을 세는 단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이 작품에서 배경의 역할 **문항 3 관련**

이 소설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칠십 리의 산길로, 인물들은 달밤에 메밀밭이 펼쳐지는 산길을 걷는다. 이 길은 달빛과 메밀꽃의 어울림으로 인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허 생원이 과거를 추억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배경은 장터와 장터를 잇는 현실의 공간이자 장돌뱅이의 고된 삶을 견디어야 하는 인물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환상의 세계이다.

배경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칠십 리의 산길

-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재의 사건과 결합하도록 함.
- 장돌뱅이 인물들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함.

포인트 2 문체의 특성 **문항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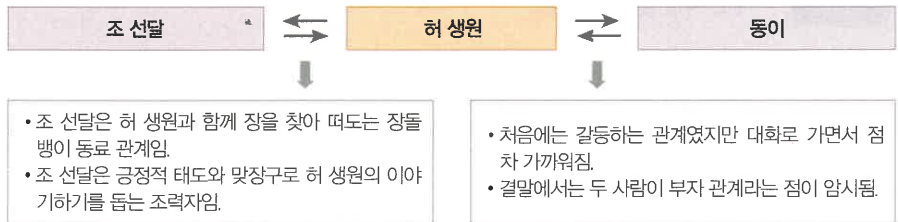
인물들이 걷는 대화행 산길이 자아내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시간이나 달빛, 메밀밭 등의 소재뿐만 아니라 이를 묘사하는 문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의 푸른색, 메밀밭의 흰색, 대궁의 붉은색 등 다양한 소재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처럼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결합하면서 산길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한다.

다양한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이미지의 혼합: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의 푸른색, 메밀밭의 흰색, 대궁의 붉은색 등 여러 색채가 뒤섞임. • 비유법: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 공감각적 표현: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여하는 시적 문체가 두드러짐.
- 산길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함.

인물들의 관계 [문항 2 관련]

이 소설의 독법 중 하나는 허 생원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관계이다. 이 소설은 이 둘의 갈등에서 시작하여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 즉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한편, 허 생원과 조 선달의 관계도 서사의 진행과 전달에서 중요하다. 조 선달은 허 생원이 여러 번 들려주는 '달밤에 격에 맞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며 적절하게 맞장구를 친다. 이런 점에서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장돌뱅이 동료이자 이야기하기의 조력자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허 생원’과 ‘나귀’의 관계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간났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체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인구?”

“알 수 있으나,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뚱이 떠돌아 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건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으나 흘렀었다. 옷째 풀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어린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렇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거이고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따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이 소설의 중요 소재 중 하나는 나귀이다. 나귀는 장돌뱅이인 허 생원의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허 생원의 동반자 이면서 허 생원과 여러 측면에서 닮아 있다. 예를 들어, 나귀의 까스러진 목 뒤 털과 눈곱 간 것은 눈은 곧 허 생원의 외양이며, 암나귀를 향한 나귀의 호감은 충춍집에 대한 허 생원의 감정과 닮아 있다. 이런 점에서 강릉집 피마에게 새끼를 보게 된 나귀를 생각하느라 발을 헛디뎠다는 허 생원의 말에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나귀는 허 생원에게 단순히 기르는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이 둘의 유사성과 관계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는 이 소설의 주제 의식과 맞닿는다.

4강 박씨전_작자 미상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이시백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박 씨라는 가공인물을 여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설정했고, 인물도 남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하여 인조 대왕, 원두표, 임경업, 김자점, 그리고 호왕, 호장 용골대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특이하다.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한 가정 내의 갈등을,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제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전체 줄거리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무를 겸전하여 명망이 높았던 이시백은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박 처사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인을 알고 실망하여 박 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 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거처한다. 박 씨는 여러 가지 신이한 일을 드러내 보이지만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한다. 때가 되어 박 씨가 허물을 벗고 절세기인이 되자, 시백은 크게 기뻐하여 박 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이때 중국의 호왕이 용골대 형제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박 씨는 신이한 능력으로 호왕을 막아 낸다.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사방에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했다. 호국 군사들이 우의정 집 후원을 침범함.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해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

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매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

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박 씨의 영웅적 활약을 실현하는 인물 호국 군사들 중 화염에 싸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가 이루 헤아

릴 수 없더라. 여성 영웅의 영웅적 활약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 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

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십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뵈겠는가?” 박 씨를 지칭함.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했다. 호국의 임금과 왕비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해 낼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

도 급히 행군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박 씨와 계화

호국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 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조선에서 호국으로 끌고 가는 인물들

“무지한 오랑캐 놈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해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

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모셔 가지 마라.” 관련 사자성어: 구상유취(口尙乳臭)

호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하찮고 가소롭도다. 우리가 이미 네 국왕에게 항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

이로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계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박 씨의 말을 대신 전함.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우선 내 재주부터 보아라.”

계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어 번 외우니,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비가 억

수로 쏟아져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붓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 개화(박 씨)의 재주를 통해 호국 군사를 무찌름: 전기성, 비현실성, 과장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의 말굽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호장이 그제
 야 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 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 병자호란의 치욕과 원한에 대한 심리적 보상, 대리 만족의 경험을 줌.
 하셨다.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하여 십만 대
 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뵈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
 었으니, 지금이라도 박 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 앞으로 나
 아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사망을 돌아다녔
병자호란에서 청나라가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함.
 으되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그러고는 또 애걸했다.

“부인의 말씀이 왕비는 데러가지 말라 하시니,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
호국, 청나라
 가게 해 주소서.”

호장들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니, 박 씨가 그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려 했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
 해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 가려 하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 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나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사건 전개: 세자만 끌려감.
 라.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 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
심리적 보상과 대리 만족을 위해 허구적 요소가 개입함.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을 모두 함몰하겠노라.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기 바라노라.”

▶ 호장과 호국 군대가 박 씨에게 항복함.

호국 군사들에 대한 복수의 의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함.

[중략 부분 줄거리] 박 씨는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보내며 의주에 있는 임 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한다. 마침 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 장군은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만나게 되고 임 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른다.

이때 임 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를 드렸
호국 군대를 보내 주라는 명령이 담긴.
 다. 장군이 북향 사배하고 받들어 보니 이리했다.

“오호라, 국운이 불행해 모월 모일에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함에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실
 의 십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하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구
 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

조선이 호국과 이미 강화를(항복을) 하였으니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호장의 말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나타나는 부분임. 호
 국 왕비가 조선에 출병하여 '우의정 집 후원'을 범하지 말
 라고 하였으나 호장이 그 분부를 어겨 화를 당하게 되었다
 는 하소연을 통해 사건 전개에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음.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박 씨의 말을 통해 왕비는 모셔 가지 말고 부득이 세자를
 모셔 간다고 하니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고전 소설의 사실 일치 문항을 해결할 때에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과 관련한 부분을 꼼꼼히 읽고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함.

임 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아아, 슬프다.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은 어찌 이토록 무심하시오?”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어뜨리며 꾸짖어 말했다. 심리적 보상, 대리 만족을 위한 허구적 요소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네놈들을 씨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 보내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셔 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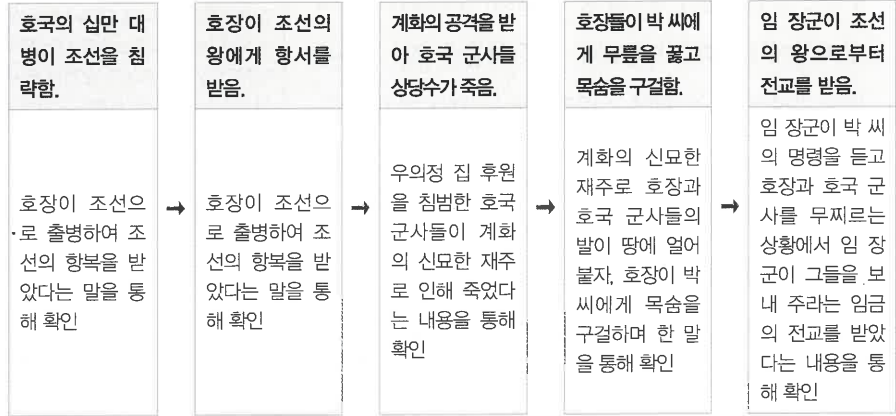
임 장군은 한 번 통곡한 뒤 문을 열어 호국 군사들을 내보냈다.

▶ 임 장군이 호국 군대를 돌려보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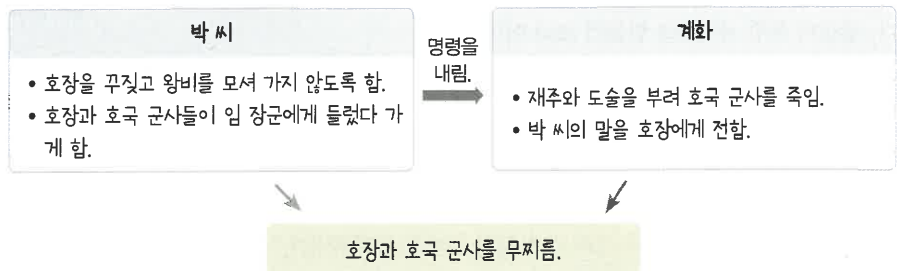
포인트 1

사건 전개 순서 **문항 2 관련**



포인트 2

박 씨의 영웅적 활약상 **문항 1, 3 관련**



「박씨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

소설의 요소	호국 군대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으로 출병함.	호장 옹골대	왕비는 모셔 가지 않고 세자만 호국으로 데리고 감.	임 장군
역사적 사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함.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장수	조선의 패배로 청나라가 조선의 세자를 볼모로 데려감.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장수 임경업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고전 소설의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비범한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전쟁에 나가 외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후,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담 소설은 크게 역사 군담 소설과 창작 군담 소설로 나뉜다. 역사 군담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소설화한 것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영웅의 활약을 통해 민족의 원한과 치욕을 씻어 내고 심리적 보상과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역사 군담 소설로는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 등이 있다. 창작 군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가공의 인물과 허구의 전쟁을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로 「유충렬전」, 「소대성전」, 「용문전」 등이 있다.

■ 여성 영웅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은 주로 17세기 이후 창작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 의식과 성장한 여성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대표작으로는 「박씨전」, 「금방울전」, 「방한림전」, 「홍계월전」 등이 있다.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은 남장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펼치게 되며 특히 전쟁에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승리하고 공을 세우게 된다. 그 결과 남성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성취를 얻게 되며 행복의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BS Q&A

Q. 고전 소설의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항 1 관련

A.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에 비해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에 비해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에서도 ‘박 씨’를 ‘박 부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조선의 ‘왕비’와 호국의 ‘왕비’가 모두 ‘왕비’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 관계나 사건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벼슬을 가진 경우나, 가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전 소설의 인물 관계나 사건의 흐름을 잘 파악하려면,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계도나 인물망을 메모해 가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나는 경우, ‘박 씨(박 부인)’와 같이 메모해 두며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정리하며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이나 내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상 포인트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통해,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혼란하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배금주의 풍조, 타락한 양심의 일단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주제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전체 줄거리

가난을 면해 보려고 지폐 위조단이 된 한 가족은 빌딩에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사원 모집 광고를 낸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정직하고 순박한 청년이 유령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된다. 사기단 가족은 청년에게 달리를 월급으로 미리 주며 달려 사용을 권한다. 이후 청년이 사용한 달리가 가짜임이 밝혀지자 가족은 청년을 채용한 사실조차 부인한 후, 사기극을 중단하고 도망치게 된다. 사기단 가족 대부분은 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이들로 인해 청년은 결국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던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로 연행된다. 이후 일가족은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건물 관리인 몰래 도망친다.

[앞부분 줄거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가족이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 옛 애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 회사로 찾아온다.

청년: 그럼 저를, 저 같은 전과자라도 채, 채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청년이 전과자임을 알 수 있으며, 전과자임에도 자신을 채용해 주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사장: 자네 사정이 그러니 난들 오불관연으로 내버려 둘 순 없잖어, 헛헛……. 난 자네의 정직하구 착실한 게 마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음, 모든 제할'을 뜻하는 말로, 청년의 딱한 사정을 모든 제할 수 없어 채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음에 든단 말야.

청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사장: (사무실로 나오며) 자, 이리 나오게. 사원들을 소개할 테니. (갑, 을, 병, 정을 차례로 가리키며) 이분이 전무, 이분이 무역과장, 이분이 회계과장, 이분이 타이피스트……. 군의 이름은 뭐랬지?

청년: 이창수라고 불러 주십시오.

사장: 어, 이창수. 오늘부터 우리 사원이니 그리 아슈. 그러구 회계과장. / 사원 병: 네.

사장: 당장 용돈도 필요할 테니 이달 월급일랑 선불하도록 하쇼. 우리 회사 외국인 상대라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 청년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년을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거든. 우선 양복두 한 벌 짓구 구두두 매게구.

사원 병: 현금은 딸라 지폐밖에 없는뎁쇼.

사장: 더욱 좋지. 왜 딸라 못 쓴댜?

청년: (사원 정에게) 아씨, 염려하신 덕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원 정: 참 잘됐군요.

사원 병: 그럼 이게 이달 월급입니다. 백 딸라.

▶ 청년을 채용하고 백 달러를 선불로 지급함.

사기단 가족이 청년에게 건네는 선불 월급으로, 청년을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를 알 수 있음.

청년: 백 딸라! 이렇게 많이 주셔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니까?

취직에 성공하고 월급까지 선불로 받는 등 뜻하지 않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사원 병: 호호……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청년에 대한 진정한 호의로 보기는 어려움. '그래야 우리도 산답니다.'와 더불어 청년이 사용할 위조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되기를 바람.

사원 갑: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두 관찮소. 별로 일도 없으니까.

사원 을: 양복점하구 양화점은요, 길가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사원 병: 어디 미끈하니 갈아입어 보쇼. 예뻐이가 뭐라고 허나.

청년: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복도로 퇴장)

사원 정: 꼭 성공하세요. 위조지폐라는 것을 숨긴 채 청년에게 백 달러를 준 상황에서, 위조지폐 사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지폐 위조단인 자기들에게도 좋다는 뜻을 알 수 있음.

사원 병: (사원 정의 목소리로) 그래야 우리도 산답니다.

▶ 기뻐하는 청년과 청년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원들

(중략)

사원 병: 아버지, 왔어요, 왔어.

사장: 누가 왔다고 야단들이냐?

사원 정: 아네요, 아버지. (콧속말) 청년의 순수하고 순박한 성격을 사장은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즉 자신들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 것과 달리 정직함과 순박함을 오히려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장: 글썽 그럴 줄 알았지. 사람 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애들아, 실수했다 안 된다. 자칫하다 아버지 아들 할 짓 없이 다야 떼 가구 밀천 놓는 판이다. 정신 바짝 채리구 아예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선 못쓴다.

일동: 네, 아버지.

(청년과 형사, 복도로 등장)

형사: 여기냐? / 청년: 네.

형사: 틀림없지?

청년: 틀림없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노크)

여기서 달러를 받았음이 확실하다고 형사에게 말하고 있음.

사장: 너, (사원 갑에게) 가서 문을 열어라. 그러구 너희들은 살림방을 꾸미는 척하고 있어.

사장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거짓으로 행동할 것을 지시함. 이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원 을: 아버지, 난, 난 자꾸만 떨려. 그냥 달아나 버리죠. 아버지.

형사가 자신들을 찾아온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달아나고 싶어 함.

사장: 애끼 못난 자식! 사내 녀석이 그래가지구서야 어데다 쓰겠니?

(사원 갑, 왼쪽에 있는 도어를 연다. 형사와 청년, 들어선다.)

▶ 청년과 형사의 등장에 긴장하며 거짓을 도모하는 사장과 사원

형사: 사장 계십니까? / 사원 갑: 사장이요?

형사: 회사 책임자 말어요.

사원 갑: 우리 아버지 말씀이오? 세대주는 아버지올시다만 어데서 오셨죠?

형사: 용산사원인데요, 저 여기가 간편무역사죠?

청년의 말을 바탕으로 자신이 방문한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려 함.

사원 갑: 간편무역사?

처음 들어 보는 말인 듯 의아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임.

청년: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무입니다. 그러구 회계과장이 제 지장을 찍구 돈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전 무 선생님?

형사: 지금 말이 옳습니까?

사원 갑: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사기꾼 아버지의 지사대로 청년의 말을 부정하며 사치미를 뽐.

청년: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형사: 헛헛……. 이 젊은 친구가 아직두 발악을 합니다그러. 저, 사장을 잠깐…….

청년의 말을 믿지 않고 청년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함.

사원 갑: 그런 분은 없습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청년의 말과는 달리 '사장'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

형사: 참, 사장이 아니라 춘부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사원 갑: 네, 그러시죠. 아버지, 손님 오셨습니다.

사장: 오나, 침대 맡긴 것 가져왔느냐? (나온다.)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청년과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

청년: 오! 사장님! / 형사: 선생이 간편무역 사장이십니까?

청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장: 잘못 아시구 오신 모양이군. / 사원 갑: 용산서에서 오셨어요.

사장: 나한테? 무슨 일루?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의외의 일에 놀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형사: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 취직했다는데요.

사장: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 청년을 알지 못한다며 거짓말을 하는 사장과 사원들

청년: 아닙니다. 사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
원이에요, 사장.

형사: (뺨을 갈기며) 임마,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청년: 아네요. 나오리는 몰라요, 나오린! 아씨! 회계과장 증인이 있습니다. 아씨!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 주시구, 양복을 사 입으라구 딸라 지폐를 주셨어요!

형사: 임마, 떠들지 말어. 글썽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 보겠다고 백 불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구 백주에 서
청년을 붙잡아 데리고 온 형사의 말로, 자신이 받은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쓰고 다녔던 청년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음.
을 네거리를 횡행합니다고려. 헛헛……. 그러군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임마, 뭐 양복을 짓겠다
청년의 말보다는 사장 일가의 말과 태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의 말을 무시하고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남.
구?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두 그럴듯하게 맨들어. 진짜 백 불짜린 구경도 못 했을 자식이. 가자, 임
마. 실례 많았습니다.

사장: 원. 천만예요.

▶ 청년의 말보다는 사장 일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형사

청년: 사장! 나오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으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일 어떻게 허라구 이러십니까? 이러시길. 사장! 구두두
사서 친구 양복두 새로 맡기구 추천서두 일없고 신원 보증두 일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장! 아씨를
청년이 취직을 하고 사장 일가로부터 호의를 받은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함.
만나게 해 주세요, 아씨를.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아씨!

형사: 임마, 떠들지 말어, 가자! (역지로 끌고 나간다.)

청년: (복도로 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며) 회계과장, 아씨, 사장. 왜 제게 취직자리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 상황으로, 역지로 끌려 나가며 억울해하는 청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음.

감옥에도 안 가고…… 감옥엘, 감옥엘…… 저 사자양…… 너무합니다. 사자양!

▶ 자신의 상황을 억울해하며 사장과 사원들을 원망하는 청년

(사장과 사원 갑, 사장실로, 사원 정은 복도로 가서 청년이 간 뒤로 물끄러미 바แล다.)

사장: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느냐?

청년의 상황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사장 일가의 물인정함과 물신주의를 잘 보여 줌.

사원 갑: 시험 삼아 삼백 장만 찍었어요.

사장: 흥, 삼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며) 어디가 다른가 좀 자세히 보아라.

사원 갑: 도안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 위조지폐 유통의 실패를 아쉬워하는 사장과 사원들

* 사기한(詐欺漢):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사기꾼.



이것만은
꼭
읽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 모순 허용의 방식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함.
-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드러남.
- 대비되는 인물들을 통해 돈에 대한 욕망과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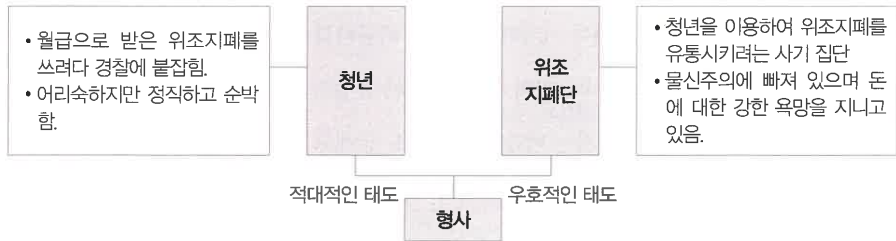
포인트
2

법의 기능 면에서 본 형사의 역할

「정직한 사기한」은 1953년 4월 '사상계'에 발표된 희곡으로, 광복 이후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사회 상황과 천박한 배금주의 풍조, 타락한 양심의 일단 등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법'의 기능과 역할인데, 원래 법의 존재 가치는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법은 그러한 역할을 오히려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형사가 오히려 죄가 없는 정직한 청년을 징벌하려 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형사는 청년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사기단 가족을 의심하지 못한다. 정직한 것이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고, 거짓과 위선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포인트
3

등장인물들의 관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 오영진,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는 광복 직후의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친일파 사기꾼인 이중생의 치부와 몰락을 다룬 희곡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광복 후에도 친일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병든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정직한 사기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강한 욕망과 팽배한 물질주의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이중생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비윤리적인 인물이다. 자신이 저질러 온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발각되어 감옥에 갇힌 이중생은 이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자살극까지 꾸미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이중생은 결국 전 재산을 잃게 되고, 징용에서 돌아온 아들 '하식'은 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한다. 이후 이중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작가는 이중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과 새롭고 정의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글쓰기가 오랜 세월 동안 애용하다가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기록한 글이다. 바늘을 의인화하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데 대한 애듯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유려한 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주제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도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
 '이 해의 차례'라는 뜻으로, 조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귀요한 것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유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 *과 나의 회포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 글을 쓰게 된 동기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계웁서 동지상사(冬至上使) *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몇 해 전 조선 시대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 임금이 이조에서 추천된 세 후보자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던 일
 씬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씬 씬이 날날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
 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니 오
 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
 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凶頑) *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
 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
 결하니, 오호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다. ▶ 바늘과의 인연과 안타까움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 중의
 바늘이 부러진 것을 슬퍼하는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바늘의 뛰어난 품질
 쟁쟁(鏗鏘)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끈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
 하는 듯하고, 두렵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孔雀)을 수놓을 제, 그 민
 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한지,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오.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
 고, 비복(婢僕)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바늘이 자식이나 비복보다 낫다. 품질이 뛰어난 은
 노리개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
 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술술이 붙어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재(嗚呼哀哉)라, 바늘이여.
 머리과 꼬리 바늘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 바늘의 재주와 가치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冠帶)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곤동 부
 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
 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扁鵲) *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쏜가?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실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오호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 바늘이 부러진 사건에 대한 심회

무죄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누구를 한하며 누구를 원(怨)하리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가 삭막하다.** 네 비 **눈에 보이는 듯 뚜렷하고** 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통재라.

▶ 바늘에 대한 추도와 기원

- *행장: 죽은 이의 평생 내력을 적은 글. *동지상사: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에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 *홍안: 흥익하고 모짚. *편작: 중국 춘추 시대의 이름난 의사.
-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백인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네.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작품은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로서, 조문(弔文)의 형식을 빌려 왔음. 조문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사후에 저승에서 명복(冥福)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글로, 해당 형식에 따라 작품에서도 바늘의 공덕이 자세하게 드러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서술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바늘의 의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 •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두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슬픔의 과장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극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조침문」에서 조문의 형식이 드러나는 부분

조문	「조침문」
'유세차(維歲次)'라는 말로 시작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나타냄.('유세차'는 '이번 해로 말하면'이라는 의미임.)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도의 뜻을 나타냄.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찬양하고,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슬픔을 드러냄.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상향(尙響)'이라는 말로 끝을 맺음. ('상향'은 '적지만 제물을 받아 드시옵소서'라는 의미임.)	'오호통재라'로 끝을 맺으며, 후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 「규중칠우쟁론기」

바늘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조침문」과 기법상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는 「규중칠우쟁론기」가 있다. 「규중칠우쟁론기」는 바늘, 실, 끝무 등을 의인화하여 공치사만 일삼는 인간 세대를 풍자한다.

척 부인	자	자 없이는 어떤 옷감도 짤 수 없음을 자랑함.
교두 각시	가위	옷감을 잘 재도 자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음을 자랑함.
세요 각시	바늘	바늘이 없이는 옷감을 바느질할 수 없음을 자랑함.
청홍 각시	실	바늘이 있어도 실이 없으면 옷을 만들 수 없음을 자랑함.
감투 할미	끝무	바느질하는 여인의 손을 책임진다는 것을 자랑함.
인화 남자	인두	바느질을 못하는 자가 바느질을 해도 솔기를 정리하여 질뚝을 지울 수 있음을 자랑함.
을 남자	다리미	구겨진 옷을 다리미를 이용해 펴 수 있음을 자랑함.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어린 자식을 잃었던 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죽은 어린 자식의 모습을 '언 날개', '산새'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이승의 아버지와 저승의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밤', '별' 등으로 표현하여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 눈물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물먹은 별', '보석'으로 표현하거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와 같은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적 표현에는 죽은 아이의 영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죽은 아이와 만났을 때의 심정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표현했는데, '외로운'은 자식을 잃은 상황을 인지한 데서 오는 부정적 심리, '황홀한'은 우리 너머로 죽은 아이를 볼 수 있는 데서 오는 긍정적 심리를 드러냄.

죽은 아이의 모습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허탈감이 담겨 있음.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 1~3행: 유리창에 어린 차고 슬픈 것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행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죽은 아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사라지는 입김 → 죽은 아이의 모습을 사라지는 것을 형상화함.

죽은 아이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눈물이 고인 화자의 눈에 비친 별 ▶ 4~6행: 창밖 밤의 풍경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죽은 아이를 만나기 위한 행위
외로운 황홀한 심사(어니,
▶ 7, 8행: 유리를 닦으며 느낀 모순적 감정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가 죽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비애감의 표출 — 죽은 아이
▶ 9, 10행: 자식의 죽음을 인식한 데서 오는 탄식

역설적 표현 → 죽은 아이의 모습을 만났을 때의 심정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시에 쓰인 비유적 표현 문항 1 관련

차고 슬픈 것	입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비유한 것
언 날개	사라지는 입김을 의미하며,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죽은 아이를 의미함.
새까만 밤	죽은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공간으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함.
물먹은 별	눈물 어린 화자의 눈에 비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비유한 것
산새	화자 곁에 잠시 머물다 간 아이를 비유한 것

포인트 2

'우리창'의 이중적 의미 문항 3 관련

안	막혀 있음. → 단절	밖
• 화자가 있는 공간 • 이승, 삶	우리창 만날 수 있음. → 소통	• 죽은 아이가 있는 공간 • 저승, 죽음

'우리창'은 잠시나마 죽은 아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개체, 곧 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창 너머의 아이와 직접 만나는 못하고, 이로 인해 화자가 아이가 죽었다는 상황을 재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절을 의미한다.

EBS Q&A

Q.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준거는 내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 등 다양한데, 수능에서 외적 준거는 <보기>로 제시됩니다. 결국 이런 문항의 <보기>는 다양한 외적 준거 중 작품을 감상하는 특정 준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항 1'은 작가의 삶과 연관 지어 작품을 해석하라는 표현론적 관점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작가의 삶, 생각, 감정 등이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강 개춘향전 _작자 미상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판소리게 소설 중 하나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조선 시대에 증식했던 유교 이념 중 하나인 열(烈)이 주인공인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당대 민중들이 지녔던 사회적 염원이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대한 징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고 현재까지도 현대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재창작되고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속종 대왕 즉위 초, 전라도 남원에 퇴거 월매와 성 참판은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한 선녀가 청학을 타고 오는 꿈을 꾸 뒤, 춘향을 낳게 된다. 효행이 지극하고 예의와 정절을 일삼던 춘향은 어느 봄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여 한양으로 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몽룡을 그리워하던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한편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사출모하여 부사를 파직한 뒤 춘향을 구해 낸다. 남원의 공무를 다한 이몽룡은 춘향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백년해로한다.

사령과 관노가 뒤섞여서 춘향 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관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여 우는데,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오. 남편 읽고 독수공방하는 계 집이 이라 청승이 들어 자연히 슬픈 목소리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 인들 아니 상할 쓰나. 넙 그리워 설 운 마음,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 자 리가 불안 하여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 오래 되어 마음이 상 했으니 피골이 상 접이 라.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란 울음이 되어,

『갈까 보다 갈까 보다 / 님을 따라 갈까 보다

『 : 대구법, 반복법
천 리라도 갈까 보다 /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비바람도 쉬어 넘고 / 날진수진[※],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산꼭대기 동선령 고개라도 / 님이 와 날 찾으면

나는 발 벗어 손에 들고 / 나는 아니 쉬어 가지

한양 계신 우리 낭군 / 나와 같이 그리는가

『 : 이몽룡을 가리킴.
『무정하여 아주 잊고 / 나의 사랑 옮겨다가

『 : 이몽룡이 변심할까 봐 근심함.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이별의 슬픔,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읊은 노래

이렇게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목석이 아니 거든 어찌 감동 하지 않겠 느냐.
『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사랑을 강조함. ▶ 춘향이 이몽룡과 이별 후 진양조로 슬퍼 울음. (중략)

“저 계집은 무엇인고?” /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운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 : 춘향의 신분이 직접 드러난 부분

“무슨 죄인고?” / 형리 아뢰되,

『 :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의미함.

“본관 사포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 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포 에게 악을 쓰며 달려 든 춘향 이 로 동을 반복 을 통한 언어 유화. 수절은 정절을 지킨다는 의미 임.
『 :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의미함.

소이다.” / 어사또 분부하되,

“네가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나. 죽어 마땅하되 내 수정도 거역할까?”

이몽룡이 춘향의 절개를 시험함.

▶ 어사또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함.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반어적 표현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하며,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꿈은 절개가 드러난 부분. 여기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춘향의 절개를, ‘바람’과 ‘눈’은 시련을 상징함.

“향단야,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 춘향이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의 절개를 드러냄.

어사또 분부하되, /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걸인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
극적 반전(어사또의 정체가 이몽룡임이 드러남.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 임행어사가 되어 돌아옴.)
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 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본관 사또(변학도)의 학정(虐政)을 의미함.

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중의적 표현으로, 봄바람과 이몽룡을 의미함.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라. ▶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

편지자적 논평, 춘향의 절개를 예찬함.

를 서울로 데려갈새, 위의(威儀)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라.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새,

영귀(榮貴)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一喜一悲)가 아니 되랴.

지체가 높고 귀하게

영귀하게 된 기쁨과 고향을 떠나는 슬픔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인용된 시를 통해 춘향은 서울로 가면 고향인 남원으로 심사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다시 보기 기약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임.

놀고 자던 부용당야 /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 오작교며 / 영주각(瀛州閣)도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시(詩)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 각기 이별할 제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 다시 보기 기약 없네

▶ 춘향이 이몽룡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감.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
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

조선 시대에,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뵈오니 성은(聖恩)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

춘향이 이몽룡과 혼인하여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부분

조 판서, 호조 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百年同樂)할

새, 정렬부인에게 삼남삼녀(三男三女)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

어져 길이 전하더라.

▶ 춘향이 이몽룡과 백년동락함.

* **진양조**: 국악의 한 곡조. 느리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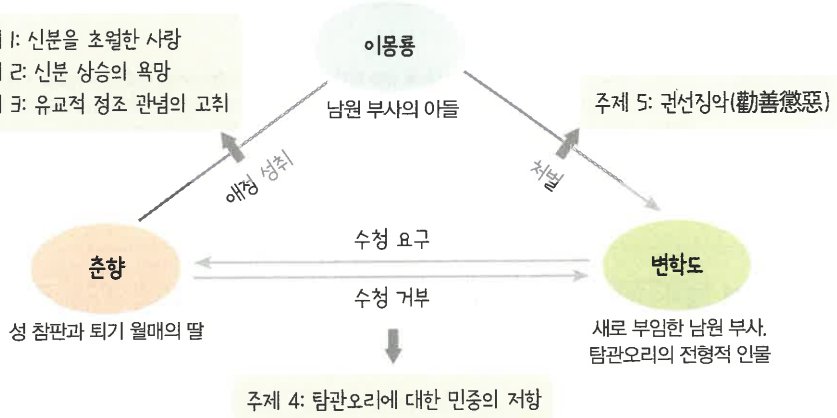
* **날진수진**: 날진은 아쟁의 매, 수진은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나 새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포인트 1

인물들의 특성 및 주제의 다양성 문항 1, 3 관련

주제 1: 신분을 초월한 사랑
주제 2: 신분 상승의 욕망
주제 3: 유교적 정조 관념의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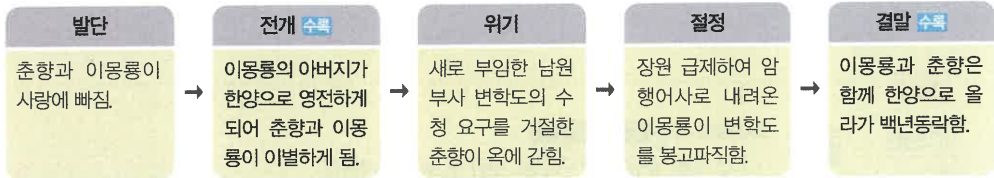
포인트 2

표현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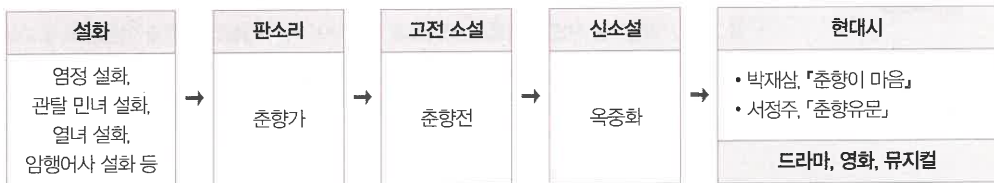
-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음.
- 평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한자어가 함께 사용됨.
- 평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함.
- 각 계층의 특성을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 제시함.
-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나타남.
-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이 돋보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춘향전」의 전체 구조



■ 「춘향전」의 형성과 재창작 과정



EBS Q&A

Q. 「춘향전」에 반영된 사회상은 무엇인가요?

A. 「춘향전」의 배경은 조선 숙종 때입니다. 이때는 정절을 중시하던 시기로, 정절은 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은 춘향이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말하는 모습,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조선 영·정조 때에 이르러 민중 의식이 확대되면서 민중들은 봉건적 지배 이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의 변화상은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몽룡에 의해 부패한 관리인 변학도가 붕고파직을 당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시는 박재삼의 첫 시집인 「춘향이 마음」에 실린 연작시 중 하나이다. 전통 문학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특히 춘향의 '서방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의 길이가 긴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올레', '-올까나'와 같은 종결형의 반복을 통해 춘향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춘향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

○: '-올레'의 반복을 통해 춘향의 마음을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
춘향이 마음을 집으로 치면 비유적 표현, 원관념 - 춘향의 순수한 마음 이몽룡을 의미함.
 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았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가라앉은 비유적 표현, 원관념 - 서방님(이몽룡) 엄매임이 없이 자유로운 이미지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春香)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 1연: 순수한 춘향의 마음

△: '-올까나'의 반복을 통해 춘향의 마음을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그리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함.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서방님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 기원의 대상
 흐느껴 몰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흐느끼는 춘향의 모습 서방님을 향한 춘향의 사랑을 빛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언덕들의 만 리(萬里) 같은 몰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는 춘향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 수정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서방님을 향한 춘향의 변함없는 사랑
 서방님에 대한 춘향의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부분

▶ 2연: 임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2, 3 관련]

- 고전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을 소재로 차용함.
- 고전 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 이별 후, 그리워하는 장면만 선택하여 춘향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그려 냄.
- '물', '집', '바람' 등 자연과 사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인 춘향과 이몽룡의 특성을 강조하고 주제를 형상화함.
- '-올레', '-올까나'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춘향의 마음에 대해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포인트 2

사구의 의미 [문항 3 관련]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4월 26일과 그 전날인 25일을 배경으로 4·19 혁명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아울러 혁명의 중심에 있던 데모 군중의 창조적인 힘과 공동 무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4·19 혁명의 의미를 날카롭게 찾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4·19 혁명의 진정한 의미 모색

전체 줄거리

4·19 혁명의 혼란한 상황에서 '나'는 친구들과 그날의 데모로 희생당한 친구의 무덤과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누워 있는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서 나온 그들은 술을 마시며 시국을 통탄하다가 거리로 나와 부정을 규탄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원효(元曉)이 경영하는 극장에 들어간다. 시위대는 점점 흥분 상태가 되어 극장을 파괴하고, 결국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인들을 피해 극장을 빠져나간다. '나'는 시위대가 빠져나간 극장에서 혁명에 대해 생각한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마약 닿았을 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해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차 있었다. **볼타 버린 건물들, 탄흔(彈痕)이 남아 있는 포도(鋪道)**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한 듯한 느낌이였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이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엄자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노(老)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총한 군인들**은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 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 지대를 벗어났다. ▶ 데모대와 군경의 대치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내의 풍경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에,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탁지탁지 붙어 있었다. 죽음은 **다만 광물성(鑛物性)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부정 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 버린 **스물한 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한 시간 이상이나 헤매어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라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 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屍體)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 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움이 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훔쳤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死者)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 데 만원이 되어 있었다.**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도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를 사

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핑길이의 무덤에서 죽음과 긴장을 살감하지 못한.

[중략 부분 줄거리]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인 임회수가 운영하던 극장으로 가지는 구호와 함께 평화 극장으로 향하고, 데모대에 끼어 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한다.

○: '나'가 있는 공간이 극장임을 알게 해 줌.

그때 나 또한 무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미 막이며 스크린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있었으며, 무대의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하여 서 있었다.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쳐진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아래층이고 이 층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 깹깹 고풍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 마치 이 세계에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 가고 있었다.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겹쳐 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탁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일지도 모른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에로의 해방 상태. 이런 본능이야말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 갔고 대열을 만들어 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데모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는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 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취,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었다.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 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번져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가세되어 있었다.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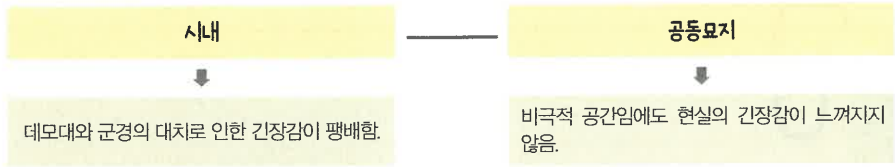
작품 속에 4·19 혁명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억압적 분위기	바리케이드, 게임사의 포고문, 집중한 군인들
민중들의 감정 상태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우울하게
비극적 단면	탄흔이 남아 있는 포도, 스물한 살짜리 청년의 시체
드러난 사회 모습	오류에 빠진 질서, 부정부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공간의 분위기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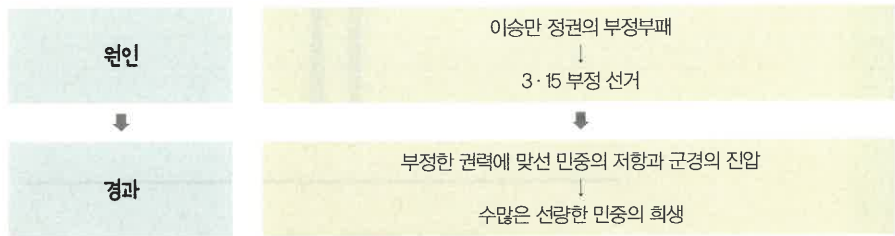
포인트 2

데모 군중의 이중적 심리 문항 2 관련



포인트 3

4·19 혁명의 배경과 작품 속 반영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4·19, 무질서의 형식: 「무너진 극장」

4·19를 증언한 작품은 많지만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1969)처럼 그 본질을 날카롭게 짚어 올린 것은 찾기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있었던 1960년 4월 26일의 전날 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임화수가 운영하던 한 극장이 파괴된 사건을 다루었다. 르포 작가와도 같은 냉정한 시선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관찰·보고하는 사이사이에 작가의 비평적 분석이 섞여 드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요점은, 군중들의 파괴 행위가 만들어 내는 무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본능적인 해방 욕망과 공포이다. 해방의 욕망을 좇아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그 같은 질서에 구속당하고 억압당한 데서 생긴 '슬픔'과 '분노'를 해소하는 생명의 적극적·창조적 실천이니 '묘한 쾌감'조차 동반한다. 4·19를 무질서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이 같은 창조성을 포착해 내는 작가의 눈길은 날카롭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점이다. 그 알 수 없는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중

EBS Q&A

Q. 소설에서 배경은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나요? 문항 1 관련

A. 소설에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2.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분위기 형성: 시·공간이 갖는 상징적 의미나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3. 향후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 역할: 시·공간의 상징성이나 분위기는 이후 일어날 사건의 성격이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II

적용 학습

■ 고전 시가

■ 현대시

■ 고전 산문

■ 현대 소설

■ 극·수필

■ 갈래 복합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총답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달, 물가, 수풀, 잣나무 등의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품을 형상화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광명과 염원을 상징하는 달을 통해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잣나무는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련, 역경 등을 상징하는 눈과의 대비를 통해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흐느끼며 바라보매

대상을 볼 수 없어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냄.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
일오내 자갈 벌에서
화자가 머무르는 공간
낭이 지나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기파랑의 뜻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기파랑의 고고한 이미지를 환기함.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곁같이여.
시련, 불의 등
화랑의 우두머리를 상징함

9행의 김탄사는 10구체 향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눈겨곰 브라매

이슬 빛간 드라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耆郎)의 즈시올시 수프리아.

1~5구: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일오(逸鳥)나릿 지벼괴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막스막 ㄱ을 좇노라져.

6~8구: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아야 자섯가지 노포

누니 모들 두폴 곳가리여.

9, 10구: 기파랑의 강직한 인물 예찬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마음의 갓'은 화자가 좇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을 파악해야 함.

<김완진 역>

현대어 풀이

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 모래 가른 물가에 /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여.
일오 냇물의 자갈 벌에서
낭이 지나시던 / 마음의 끝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기파랑'과 관련된 상징적인 시어 문항 3 관련

기파랑의 인물 예찬	달	높은 곳에 떠 있는 달은 우러러보는 존재인 기파랑을 상기시킨.
	모래 가른 물가	깨끗한 물가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냄.
	잣나무 가지	겨울에도 당당히 높이 솟아 있는 모습을 통해 기파랑의 드높은 가상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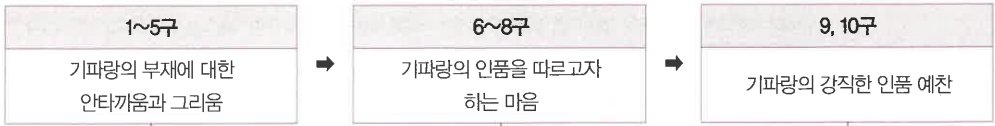
포인트
2

대조적 의미를 지닌 '눈' 문항 3 관련

- 시련, 역경, 불의 등을 나타냄.
- '젓나무 가지'와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찬기파랑가」의 시상 전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하면서 기파랑의 높은 기상을 예찬하고 있음.

■ 해독에 따른 의미의 차이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해석은 해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김완진은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보았지만, 양주동은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보았다. 양주동의 해독에 따르면, 1~3구는 화자가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묻는 내용이고, 4~8구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9, 10구는 화자의 독백으로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이다. 비록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파랑을 찬양하는 주제 의식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열차매

나토얀 두리

흰 구름 조조 떠 가는 안디하.

▶ 문사: 화자의 물음

새파란 나리여히

기랑인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시 직혁히

낭(郎)이 디니다사온

묵수미 궂홀 좇누아져.

▶ 답사: 달의 대답

아으 젓나무 가지 노파

서리 몬누올 화반(花判)이여.

▶ 결사: 화자의 독백(깨달음)

(구름을) 열어젓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서쪽으로)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나시던

마음의 끈을 따르고자.

아아, 젓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여.

- 양주동 해독

■ 10구체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유사성

10구체 향가에서 낙구인 9, 10구는 작품의 주제가 나타나는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낙구의 첫머리인 9구의 처음에 나타나는 ‘아으(아아)’와 같은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사용되는 ‘어즈버’, ‘아희야’, ‘아서라’ 등과 같은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와 더불어 10구체 향가의 1~4구, 5~8구, 9, 10구라는 3단 구성이 시조의 종장, 종장, 종장이라는 3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

■ 「모죽지랑가」와 비교하여 감상하기

「모죽지랑가」는 신라 효소왕 때 화랑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가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어 부른 향가이다. 주제 의식 면에서 화랑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점이 「찬기파랑가」와 유사하다. 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10구체인 「찬기파랑가」와 달리 「모죽지랑가」는 8구체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예찬하는 태도가 주를 이루지만, 「모죽지랑가」는 인생무상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봄이 전부 지나가니

살아 계시지 못해 울어 말라 버릴 이 시름

진각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험어 가는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

만남을 어찌 이루리

녕이여 그리워할 마음의 모습 가는 길

다복 구렁에 잘 밟았으니

- 김완진 해독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재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지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한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누이의 죽음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며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유발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재회에 대한 염원

생사 길은

살과 죽음의 갈림길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선뜻 행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

나는 간다는 말도

죽은 누이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함.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함.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함.

가는 곳 모르온지,

사별로 인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담겨 있음.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는다 말사도

몰다 니르고 가느닛고, ▶ 1~4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어느 2갈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뿌러덜 잎곰,

흔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론더.

▶ 5~8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삶의 무상감

아아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 9, 10구: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염원

〈김완진 역〉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머뭇거리고’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현대어 풀이

생사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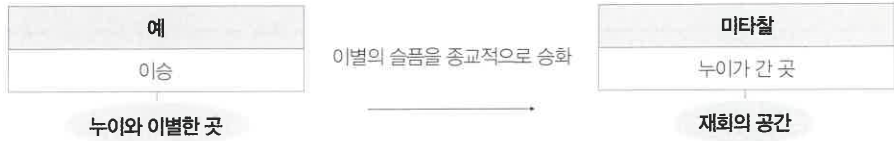
포인트
1

사구의 비유적 의미 **문항 3 관련**

사구	비유적 의미
이른 바람	일찍 찾아온 시련 → 젊은 나이에 죽음(요절)
떨어질 잎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 죽은 누이
한 가지	같은 가지 → 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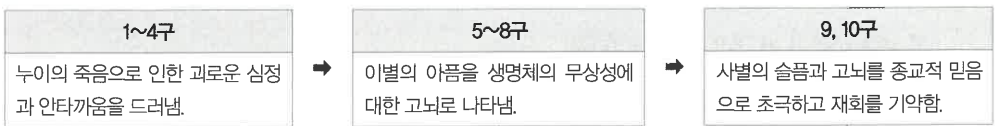
포인트
2

'에'와 '미타찰'의 대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제망매가」의 시상 전개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하여 극복함.

■ 배경 설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재(齋)를 올리며 「제망매가」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재식(齋式)에 사용된 지전(紙錢)을 서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월명사는 늘 사천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의 큰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月明里)라 했고, 월명사 또한 이로서 이름이 났다. 월명사의 행적을 기리는 한시가 있다.

바람은 지전을 날려 저세상 가는 누이 노자로 삼게 하고
피리 소리는 밝은 달을 흔들며 향아가 발을 멈추게 하네
도솔전이 하늘 저 끝에 멀다고 하지 마라
큰스님 꽃 한 가지, 한 곡조의 노래로 즐겨 맞으리라.
-「삼국유사」-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삶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2연에서는 천 년을 혼자 살아도 변치 않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끈'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3연에서는 대동강 건너편으로 임을 보내는 데 일조한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과, 이별 후에 임이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가사가 세 마디로 나누는 율격과 동일한 후렴구를 통해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이어 가려는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김단사. 음률을 맞추기 위한 소리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고려 시대 서경 가운데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후렴구. 여음구. 북소리를 흉내 낸 소리로 보기도 함.

닭은 곳 아즐가 닭은 곳 소성경* 고외마른*

당시 수도였던 송도에 대하여, 기반을 닭아 놓은 작은 서울(도시)로서 평양을 이르는 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이별할 바엔* 아즐가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

길쌈과 베, 길쌈하는 베, 화자를 여성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됨.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대* 아즐가 괴시란대 울면서 좇겠나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1연: 이별을 거부하는 마음과 연모의 정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임과의 인연.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드러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이야 아즐가 신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2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믿음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느냐 사공아

대동강이 넓어서 건너가기 힘든데, 사공이 배를 내어 놓아서 임이 떠나 버렸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함.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사공의 아내를 비난하는 말로, 임이 떠나가는 데 일조한 사공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는 구절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가는 배에 아즐가 가는 배에 었었느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대체로 '꽃'을 여인의 상징으로 보고, 다른 여인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함.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배 타 들면 아즐가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 나난
'강을 건너고 나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다.'라는 의미로 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3연: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의 변심에 대한 염려

- * 소성경: 작은 서울
- * 고외마른: 사랑하지마는
- * 과사란대: 사랑하신다면
- * 나난: 의미 없이 흥을 일으키는 어음구.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떠나려는 임의 상황'과 이를 마주한 '화자의 처지와 심리, 태도'를 확인하면서 1연과 2연이 각각 어떠한 내용과 정서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함.



이것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알려 주는 시어술 문항 1, 2 관련

서경 (평양)	서울이지마는	당시 수도는 송도.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평양이 송도에 준하는 도시임이 드러남.
	뒤은 곳 소성경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재건한 후 소성경이라고 불렀다고 함. 다른 곳에 비하여 기반이 잘 닦여 있음이 드러남.
	고외마른	화자가 '서경'이라는 공간을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남.
길쌈베	'길쌈베'의 뜻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고, 베는 '삼실, 무명실 따위로 짠 천(옷감)'을 뜻함. 그러므로 '길쌈베'는 '길쌈과 베', 혹은 '길쌈하던 베'로 해석할 수 있음.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	'길쌈베'는 여성 화자의 생업이나 본분과 관련된 것인데, 화자는 이것을 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음. 다만 임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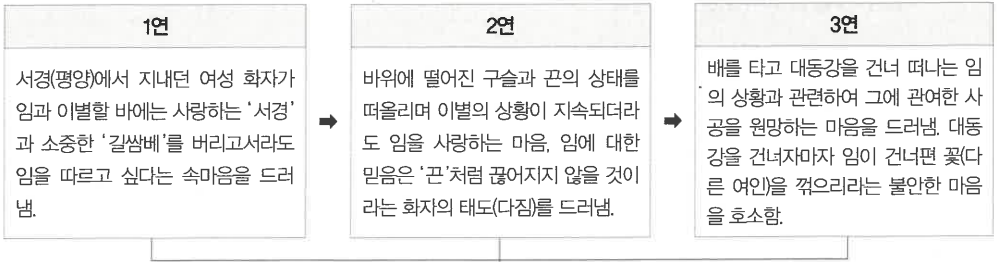
2연에 나타난 화자의 다짐과 약속 문항 1 관련

- '구슬'과 그것을 묶고 있는 '끈'의 이미지를 빌려 와 바위에 떨어졌을 때 부서지는 '구슬'과 바위에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의 성격을 대비함.
-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에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信)'을 빚대어 그러한 믿음 또한 천년을 외로이 산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성격의 것임을 드러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서경별곡」 각 연의 구성



사랑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 떠나려는(서경을 떠나려는) 상황 속에서, 입을 따라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과 입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켜 나가리라는 다짐을 드러내는 한편, 이별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임의 변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래임.

■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 삽입가요에 대하여

「서경별곡」 2연의 가사는 고려 가요 「정석가」의 6연(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리까 /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 신(信)이야 끊어지리까)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창작 시기에 유행하던 독립 가요의 가사가 두 작품 모두에 삽입된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때 삽입 주체와 수용 계층이 누구인지를 따져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서경별곡」에서의 독립 가요(2연)는 입과의 분리 불안에 처한 화자의 무의식적 심리의 표출 및 불안의 해소라는 전체 의미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 3연과의 계열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정석가」에서의 독립 가요(6연)는 앞에서(2~5연) 펼쳐 낸 발놀이의 과정에서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음으로써 경중흔을 통해 공식적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서경별곡」을 남녀 간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노래로, 「정석가」는 임금을 향한 충심을 특정 상황에서 드러내는 노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공통 삽입가요의 위치와 구성에 따라 「서경별곡」의 가사를 편집한 사람을 서민층으로, 「정석가」의 가사를 편집한 사람을 상류 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BS
Q&A**

Q.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때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항 3 관련

A. ‘문항 3’은 <보기>에서 설명한 ‘방어 기제’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나 화자의 발화, 혹은 발화와 관련한 심리를 평가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적 준거로 제시되는 <보기>의 내용은 작품과 관련된 내재적·외재적 정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학 용어 혹은 개념을 설명하거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기>에 제시된 용어나 개념은 작품과 관련되어 편집되기 때문에, 설명한 용어나 개념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을 활용하여 ‘방어 기제’를 찾아보면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1894년 프로이트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기>에 제시된 ‘합리화’나 ‘전위’ 말고도 부경, 억압, 투사, 승화 등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기> 속 핵심 개념인 ‘방어 기제’를 관련 개념으로 확장하면 특정한 상황에 처한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나, 그 인물들이 선택한 행위의 의도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로,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하며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1569~1621)'이라는 설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월곡은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당대 지배층과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을 보살피고, 전란 후에는 초야에 은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제

벗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옛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는가

지금도 옛 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옛 사람』과 같이 화자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을 지닌 사람이 있으니
▶ 제1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청송(靑松)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나타냄.
초옥(草屋) 삼간(三間)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벗의 소박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나타냄.
홍중(鴻中)에 진념(塵念)*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 제4수: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에 대한 예찬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화자와 벗과의 물리적 거리감 ①
용추동 밖이요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화자와 벗과의 물리적 거리감 ②
벗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벗을 만날 수 있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동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
▶ 제5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되는 첩첩(疊疊)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화자가 벗을 볼 수 없는 이유
고인(故人)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현실에서는 찾아갈 수 없기에 마음오로만 그리워하는 답답함이 드러남.
▶ 제7수: 고인이 된 벗에 대한 그리움

상산(商山)의 채지(採芝)하러 부디 벗이 갈 것인가*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제9수)
속세와 관련된 일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들도 보도 마옵시다 (제9수)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바람과 의지를 드러냄.
▶ 제9수: 벗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싶은 마음

* 진념: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 상산의 채지하러~벗이 갈 것인가: 한나라 고조 때 네 사람의 백발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어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고사를 가리킴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바라봐도 볼 수 없다』라는 구절을 통해 『백운』과 『구름』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가옵시다, 마옵시다』의 앞부분에 나오는 『따라올 이 없는데』와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통해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바라봐도 볼 수 없다 / 마음만 길 알아 두고』를 통해 『고인의 집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파악해야 함.

현대어 풀이

〈제1수〉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의 이목구비는 같지만 나는 혼자 어찌하여 옛날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지금도 옛날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 사람이 나의 벗인가 하노라.

〈제4수〉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흰 구름으로 장막을 둘러 세 칸 초가집에 숨어 계신 저 나의 벗님 가슴속에 나쁜 뜻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5수〉
벗님이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곳은) 용추동 밖이요 구름 다리 위로구나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는구나.

〈제7수〉
산은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옛 벗의 집터를 바라봐도 볼 수가 없구나 마음만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오락가락하는구나.

〈제9수〉
상산에 버섯을 캐러 일부터 벗이 갈 필요가 있는가? 따라올 이들도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옵시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 하노라	영탄적 표현을 반복하여 벗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청송으로 ~ 장 두르고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을 멀리하는 벗의 태도를 드러냄.
• 되는 ~ 잦았으니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벗과 화자와의 거리감을 드러냄.
• ~ 부디 넷이 갈 것인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함.
• ~ 우리 둘이 가옵시다 • ~ 들도 보도 마옵시다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

포인트
2

'백운'과 '구름'의 상징적 의미 문항 2 관련

백운	'장(帳)'은 둘러쳐서 가리게 되어 있는 장막, 휘장, 방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임. '백운으로 장 두르고 /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다는 표현을 통해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벗의 심정을 나타내는 자연 물임을 알 수 있음.
-----------	---

구름	'되는 첩첩'과 관련지어 볼 때 '고인의 집터'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구름'은 벗과 화자와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미수록된 '월곡답가' 소개

제2수	내 양주 하 험하니 비노 성격 아니 하니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돈니거든 엇츠재 지나간 훈이 호자 곱다 호노라	내 모습 너무 험해 비노 화장 아니 하네.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건만,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호노라.
제3수	게서 유신(有信)하면 내 호자 무신(無信)홀가 백 년 전의란 돌히 다 미사이다 세상 운우인정(雲雨人情)이야 비흘 주리 이시랴	그쪽이 믿음이 있으면 나 혼자 믿음 없을까? 백 년 되기 전일랑 돌이 다 믿읍시다. 세상에 비 구름 같은 인정이야 배울 리가 있으랴?
제6수	둘이 볼근 제는 잔을 들고 침각하고 시절(時節)이 도흔 제는 경(景)을 보고 그리노라 살음이 덜 괴운 타스로 니칠 저기 저거라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어 생각하고, 시절이 좋을 때는 풍경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8수	예서 그리는 뜻을 제서 아니 모로논가 무던히 고은 님 덧업시 녀희을 덧 하로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호노라	이쪽에서 그리는 뜻을 저쪽에서 아니 모로논가? 무던히 고운 님 덧없이 여의올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호노라.
제10수	방장산(方丈山)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엇부시 보와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靑鶴)을 나도 툃다 엇더 호리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셨나? 어렴풋이 보시거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탄다 어떠하리.

■ '월곡'은 누구일까?

우리 역사 속의 인물 중 '월곡'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은 대략 6명쯤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까지 헤아린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비교적 행적이 드러나 있는 6명의 인물 중 정훈의 생몰 연대(1563년~1640년)와 일치하지 않는 생몰 연대의 인물들을 제외하고 나면 오직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월곡 우배선(1569년~1621년)이다. 정훈과 우배선은 임란, 병란의 양난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우배선은 임란 시 대구 지방 최고의 의병장으로서 지금까지 그를 기리는 역사 박물관이 남아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다. (중략) 월곡 우배선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4세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켰는데 화원 달성 최정산에서 왜군과 싸워 연전연승하며 위용을 떨친 바 있다.

- 나경순, 「17세기 초의 사상적 전개와 정훈의 시조」

강상 포인트

이 시조는 다양한 자연물을 동원하여 자연 친화의 정서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대표적인 한정가(閑情歌)이다. 달빛 아래 낙엽을 방석 삼고 앉아 한 잔의 술에 만족하는 화자의 소박한 모습에는 자연과 하나 되어 탈속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안빈낙도를 표방하는 옛 선비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풍류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앉으라

인공적 소재

▶ 초장: 낙엽 위에 앉아도 좋다는 마음

어제 진 달이 다시 돌아 올 → 자연의 순환과 영원성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관술불: 소나무 송진이 얻긴

자연적 소재

▶ 중장: 달빛 비치는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

아이야 박주산채(薄酒山菜)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돈호법,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 종장: 술 한 잔으로 누리는 안빈낙도

현대어 풀이

짚방석은 내놓지 말아라. 낙엽엔들 앉지 못하겠느냐.

술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진 달이 떠오른다. 아이야! 맛이 좋지 않은 술과 산나물일랑정 없다고 하지 말고 내오너라.

맛이 좋지 않은 술과 산나물 → 소박한 음식(대유법)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인공적 소재와 자연적 소재의 대조 문항 1, 3 관련



포인트 2

대유법 문항 3 관련

비유법 중의 하나로 대상의 일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사물이나 관념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예 •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 빵: 음식 전체를 뜻함.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요람: 태어남, 무덤: 죽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람의 인생 전체를 뜻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고전 시가 작품에서 '술'의 의미

고전 시가에서 나타나는 술은 단순한 소재로 언급되기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정황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적 수단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고전 시가 작품에서 술이나 음주 행위는 화자의 흥과 이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인간의 유한함, 인생 무상 등 인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시름과 허무감을 잊거나 초월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별된다.

고려 가요 「청산별곡」 8연	'설진 강수(술) ~ 내 어찌 하리잇고'	→	한계 의식과 체념
윤선도의 시조 「만흥」 〈3수〉	'(술)잔 들고 ~ 반가움이 이리할까'		자연 친화와 몰아일체의 정서

EBS Q&A

Q.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항 3 관련

A.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작품 속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맥락은 주로 소재와 관련된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를 보면 술불에 대해서는 '켜지 마라'라는 말을 통해 화자의 거부하는 태도를, '달 돌아 온다'에서는 술불을 거부하는 이유와 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시조는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풍류객이었던 작가가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황진이에게 묻는 말로 시작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삼고 청, 홍, 백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과 비감, 애도의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과 애도의 마음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푸른 풀, 무덤가의 분위기

▶ 초장 대상의 부재에 대한 인식

홍안(紅顏)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죽음의 이미지

혈색이 좋은 여성의 얼굴, 젊은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 모습

▶ 중장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고독, 공허감, 허무감을 환기

▶ 종장 대상의 부재로 인한 허무감

현대어 풀이

푸른 풀 우거진 무덤에서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곱고 아름답던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이냐.

잔을 잡아 술 한 잔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색채 대비와 그 효과 [문항 1, 3 관련]

홍안: 여성의 젊은 모습 ↔ 대조 백골: 죽음의 이미지

청초: 푸른 풀 (무덤이 있는 곳)

인생무상

포인트 2

부재하는 대상에게 묻는 방식과 그 효과

문항 1 관련

초장: 자느냐 누웠느냐

중장: 묻혔느냐

→ 독백이 되며 허탈감 강조

포인트 3

'잔 잡아 권할 이 없'음의 의미 [문항 3 관련]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

→ 대상의 부재와 그로부터 오는 고독감과 공허감을 표현
인생의 유한성과 그로부터 오는 비애(悲哀)를 표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 창작의 배경

작가 임제는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호방한 풍류객이었다. '청초 우거진 골에 ~'는 작가가 평안도 임지로 가는 길에 유명한 기녀 황진이(黃眞伊)의 묘를 찾아가 읊은 시조이다. 작가는 개성을 지나다가 황진이가 겨우 석 달 전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술 한 병을 가지고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면서 아쉬운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EBS Q&A

Q.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인데, 문항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묻는다면 일단 시어들을 잘 살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이미지를 찾을 때는 색채어에 주목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찾을 때는 의성어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시조는 삼대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을 담담하게 읊은 작품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한 기쁨과 정겨운 풍경들이 잘 나타나 한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한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시조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시조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과 일상의 여유

곡구름(谷口暎)*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청각적 이미지

여유로운 분위기

▶ 초창: 피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낮잠에서 깨어남.

작은아들 글 읽고 며느라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

▶ 중창: 평화롭고 여유로운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

마침내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마침

아내가 술을 걸러 남편에게 권함. → 부부간의 정

▶ 종창: 아내가 잘 빚어진 술을 권함.

*곡구름: 피꼬리가 우는 소리의 한자 표현

현대어 풀이

피꼬리 우는 소리에 낮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은 책을 읽고, 며느리는 베를 짜고 있는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침 아내가 술을 거르면서 맛을 보라고 한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단란한 가족의 정경 문항 2, 3 관련

가족 구성원	행위
화자(지아비)	낮잠을 깬.
작은아들	글을 읽음.
며느리	베를 짤.
어린 손자	꽃놀이를 함.
지어미	술을 거르고 맛보기를 권함.

↓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화를 이룬 모습

↓
가정의 화목 → 인간의 현실 보편적 이상

포인트 2

사실시조의 형식과 효과 문항 2 관련

장시조(長時調) 또는 장형 시조(長形時調)라고도 하며 평시조의 기본 틀인 3장 6구에서 두 구 이상이 틀을 벗어나 글자 수가 늘어난 시조를 말한다. 3장 중에서 2장이 평시조보다 긴 것도 있지만 대체로 중장이 길며, 중장은 첫 구만이 시조의 형태를 띤다.

↓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간 생활의 사실적인 모습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담아내기에 적합하며 실제 사실시조의 내용적인 양상도 그러하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타난 평화로운 일상에의 동경

携幼入室	어린이와 손잡고 방에 들어가니
有酒盈樽	항아리에는 향기로운 술이 가득
引壺觴以自酌	술병을 끌어당겨 잔에 따라 마시며
眄庭柯以怡顏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며 웃음 짓는다. (중략)
悅親戚之情話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樂琴書以消憂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근심을 달래려나.

『귀거래사』는 중국 진(晉)나라의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담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도연명의 인생관과 태도는 후세 사람들의 사상과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곡구름우는 소리에 ~」에서도 유사한 주제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사랑이 거짓말이 ~ _ 김상용

나 임이 혜오시매 ~ _ 송시열

다 남은 다 자는 밤에 ~ _ 송이

라 어이 못 오더냐 ~ _ 작자 미상

감상 포인트

가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용이 지은 평시조이다.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임을 탓하고 있다. 특히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욱 거짓말인데, 그 이유는 자신처럼 그리움에 뒤척이노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므로 꿈에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임의 부재(不在)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작가인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왕족을 모시고 강화로 피란했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손절했던 인물임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임구에 대한 충성의 노래로 보기도 한다.

나 이 작품은 노론의 영수이자 성리학의 대가였던 송시열이 지은 평시조이다. 표면상 남녀 간의 사랑과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시기에 임금의 지지를 잃은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다 이 작품은 『가람본 청구영언』에 기녀 송이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시조이다. 화자는 남들 다 자는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정은 그 임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서 임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라 이 작품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강렬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사실시조이다. 반복, 연쇄, 열거, 설의 등의 표현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특히 장형화된 중장에서 일상적 제재들을 연쇄적으로 열거하며 과장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되 비탄에 빠지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나 임의 변심으로 인한 슬픔과 서러움
-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
- 라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가 사랑이 거짓말이 임 날 사랑 거짓말이

연인 또는 임금

꿈에 와 봐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 점층법, 반복법

그것이 설의법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비리오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 전전반측(顛轉反側)

- ▶ 초장: 화자를 사랑한다는 임의 거짓말
- ▶ 중장: 꿈에 와서 본다는 임의 거짓말
- ▶ 종장: 임이 그리워 잠 못 드는 화자

나 임이 혜오시매 나는 전혀 믿었더니

생각하시매 완전히

날 사랑하던 정(情)을 누구에게 옮기시고

임의 변심

처음에 피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설우라

미워하시던 이토록 서러우라, 설의법

- ▶ 초장: 임의 사랑과 화자의 신뢰
- ▶ 중장: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임
- ▶ 종장: 임의 변심으로 인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서러움

다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전전불매(顛轉不寐)하고 입 둔 입을 생각는고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룸, 전전반측(顛轉反側)

차라리 내 먼저 식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죽어서 임이 나를 그리워하게

- ▶ 초장: 홀로 잠 못 들고 있는 깊은 밤
- ▶ 중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 ▶ 종장: 먼저 죽어서라도 임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라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 초장: 못 오는 이유에 관해 입에게 던지는 물음

입이 오지 않는 까닭을 물음.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께를 놓고 께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곶새**에 **용거목** **자물쇠**로 깊이깊이 잠갠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움직일 수 없도록 단단히 묶어

□: 입이 화자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 중장: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 제약 때문에 못 오느냐는 물음

한 달이 서른 날이더니 날 보리 올 하루 없으랴

▶ 중장: 자신을 보리 올 여유가 정말로 없었느냐는 원망

설의법

- *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가는 쇠.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화자의 태도, 어조, 정서 문항 1, 3 관련

「사랑이 거짓말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사랑한다는 입의 말이 거짓말이고,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움에 뒤척이느라 잠을 잘 수 없으므로,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욱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면서 입을 탓함. • 투정하는 듯한 어조를 구사하여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함. • 작자인 김상용의 삶과 연관 지을 때 이 작품의 입을 입금으로 해석하기도 함.
「입이 해오시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의 사랑을 굳게 믿던 화자가 입의 변심으로 인해 서러움을 느낌. • 작자인 송시열이 노론의 영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자신이 이끄는 집단에 대한 입금의 총애가 사라져 노론이 정치적으로 쇠한 것과 관련된 노래로도 해석됨.
「남은 다 자는 밤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입을 혼자서 그리워하느라 잠을 못 이루고 서러워하고 있음. • 먼저 죽어서라도 입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애달픈 사랑에 시달리고 있음. • 작자인 송이가 기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랑으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어이 못 오더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타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야속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냄.

포인트 2

표현상 특징과 효과 문항 2 관련

「사랑이 거짓말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 중장에서 시구의 점층적인 반복을 통해 입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부각함. • 중장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그리움을 강조함.
「입이 해오시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에서 설의법을 통해 입의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강조함.
「남은 다 자는 밤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로움 없이 자고 있는 남들과 입 생각에 잠 못 들고 있는 자신을 대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입과 그 입만을 그리는 자신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함.
「어이 못 오더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에서 과장법, 열거법, 연쇄법을 활용하여 입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을 표현함으로써 답답한 원망의 심정을 부각함. • 중장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야속한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

세부 갈래	형식상 특성
평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마디가 2개의 구를 이루고, 2개의 구가 1개의 장을 이루며, 한 작품은 3개의 장(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대개 45글자 안팎이지만 글자 수에 엄격한 제한은 없음. • 종장 첫 번째 마디는 3음절로 고정됨.
사설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장으로 구성되고 종장의 첫 번째 마디가 3음절로 고정된다는 점은 평시조와 같으나, 어느 장의 어느 마디, 어느 구든지 자유롭게 길어질 수 있는 파격성을 특징으로 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시조(時調)의 명칭에 관하여

시조라는 명칭은 ‘시절가조(時節歌調)’에서 나온 것이며, ‘시절가’란 ‘요즘의 노래’라는 뜻으로 여기에 곡조를 뜻하는 ‘조(調)’가 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옛 가락’ 또는 ‘본디의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고조(古調)’에 상대되는 개념을 지녔다고 해서 ‘때’를 나타내는 한자 ‘시(時)’가 굳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조를 가리켜 ‘단가(短歌)’라고도 하는데, 이는 노래의 길이가 짧은 데서 연유한 명칭이다. 다만 판소리의 허두가(虛頭歌)를 가리켜서도 단가라고 부르는 까닭에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조의 명칭으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조의 명칭이 이처럼 ‘가락’ 또는 ‘노래’와 연관이 깊은 것은 시조가 노래로 향유되었던 사정과 관계가 깊다. 오늘날 우리가 시조라고 부르는 것은 예전에 ‘가곡(歌曲)’이라고 부르던 음악의 노랫말이었으며, 똑같은 노랫말을 엮어 가곡을 단순화한 음악인 ‘시조(時調)’로 노래하였다.

- 조동일 외, 『한국 문학 강의』

■ 상사(相思)의 정이 담긴 기녀의 노래

기러기 우는 밤에 나 홀로 잠이 없어
잔등(殘燈) 동워 켜고 전전불매하는 차에
창밖의 굵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茫然)하여라.

- 평남 맹산의 기녀 강강월(康江月)

야심오경(夜深五更)토록 잠 못 이워 전전(轉轉)할 제
곳은비 떨어지는 소리에 상사로 단장(斷腸)이라.
뉘라서 이 행색(行色) 그려다가 임의 앞에

- 경남 진주의 기녀 매화(梅花)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고향에 내려와 살던 작가가 그의 친구인 이덕형이 시골에서의 생활상을 읊은 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 쓴 조선 후기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가난한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인빈낙도하며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대부의 어려운 처지와 가난한 생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조선 전기의 가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곤궁한 현실과 인빈낙도의 삶 추구

어리고 우활(迂闊)*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길흥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말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고르지 못한 날씨에

닷 흙 밥 서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벌여 줄 밀듯 나아오니
굶주린 자식들이 밥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인정천리(人情天理)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덜 데운 승냥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을 강조하여 드러냄.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음.

웁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 누항에서 인빈낙도를 바람.

가을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냄.

주머니 비었거든 병(瓶)에는 담겼으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強盜)로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碩鼠三章)*을 시시(時時)로 음영(吟詠)하며

탄식(歎息) 무언(無言)하며 머리 굽을 뿐이로다

이 중(中)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음.

(중략)

현대어 풀이

어리석고 우활한 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흥화복을 하늘에 말겨 둔 채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두고

아침저녁 비바람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닷 흙 밥, 서 흙 죽에 연기도 많고 많도다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판에서 즐이 밀고 나오듯 나아오니

인지상정에 차마 혼자 먹겠는가

덜 데운 승냥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활이 이렇다고 해서 장부 뜻을 바꾸겠는가

안빈의 굳은 신념 적을망정 품고서

웁게 살려 하니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에 (식량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해서

낙낙하며

주머니 비었는데 병에는 담겼으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로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을 때때로 읊조리며

말없이 탄식하며 머리 굽을 뿐이로다

이 중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

였구나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괴로워도 일편단심

잊겠는가

(중략)

▶ 곤궁한 삶을 노래함.

강호(江湖) 한 꿈^꿈을 꾸어 지 오래러니

화자가 오랫동안 추구한 목표

먹고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색(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 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로서 '강호 한 꿈'과 관련 있음.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가라 하라

다툼 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다툼 사람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연뿐이라는 생각을 드러냄.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자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렇 낚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싫게 여겨
남의 부귀(富貴)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부럽게 여겨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百年) 살라

원헌(原憲)* 이는 몇 날 살고 석송(石崇)* 이는 몇 해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은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單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생활을 의미함.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라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다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의미함.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할 이 뉘 있으리

그르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냄.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충효, 화형제, 신봉우 등과 같은 유교적 도의와 관련된 것 외의 일

- * 우환: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 석서삼장: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함을 큰 죄에 비유하여 풍자한 시.
- * 유비군자: 문채(文彩)가 나는 군자라는 뜻으로,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 * 원헌: 공자의 문하에서 가난을 감내하며 성리학적 수양에 힘썼던 인물.
-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호.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강호 한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화자가 그 꿈을 잊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함.

현대어 풀이

오랫동안 강호에 은거하려는 꿈을 꾀는데 먹고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 많기도 많구나
 점잖은 선비들이 낚싯대 하나 빌려자꾸나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오라 하며 가라 하라
 다툼 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변변찮은 이 몸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마는
 두세 이렇 낚논을 다 묵힌 채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내 빈천 싫다며 손 치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으랴
 가난하다고 지금 죽으며 부유하다고 백 년 살라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송이는 몇 해 살았는가
 가난해도 원망 없기가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렇다고 해도 서러운 뜻은 없노라
 가난한 생활이지만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배부름과 따뜻함에는 없노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형제간 화목 친구 간 신의 그르다 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김 대로 살렸노라

▶ 성리학의 가르침을 받들며 살기를 다짐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그 밖에 남은 일'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주제 의식과 관련된 시어 이해 **문항 3 관련**

안빈일념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빈이무원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곤궁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의미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충효, 화형제, 신봉우	유교적 도의와 관련된 덕목으로, 유교적 도의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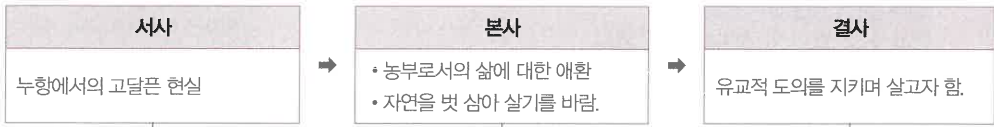
포인트 2

개성적인 표현 **문항 1 관련**

- 한자 어구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적 언어를 빈번히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함.
- '명월청풍', '풍월강산', '백구' 등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부각하여 드러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누항사」의 사상 전개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유교적 도의를 지키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램.

■ 작품에 반영된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 **문항 3 관련**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후 피해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이전과 달라진 사회적 변화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기의 엄격한 신분제에 따른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양반 사대부도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가 화자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갈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화자는 작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처지에 있는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피해해진 나라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가사의 서사화 경향

이 작품에는 화자가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 있다. 화자의 독백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자 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요소는 조선 후기 가사가 서사화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 한번 주마 하고 탐탁잡게 한 말씀 /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큰기침 헛기침을 오래도록 한 후에,
 “어와, 게 뉘신가?” “염치없는 저물시다.” / “해도 저문 늦은 밤에 그 어찌 와 계신가?”
 “해마다 이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마는 /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소이다.”
 “공짜든가 값을 받든지 줄 수도 있지마는 /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평을 기름지게 구워 내고 /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는데 /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값졌는가.
 내일 주마 하고 굳게 언약하였기에 / 약속 깨기 불편하니 변명이 어렵구려.”
 “정말 그러하면 어찌할지 난감하네.”
 헌 번거지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오니 / 초라한 모습에 개 짖을 뿐이로다.

- 박인로, 「누항사」 중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시화(詩稿)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고

▶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

주렴(珠簾)을 손수 걷고 옥계(玉階)에 내려가
「.」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함.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안개문 구름창 천리만리 가렸구나
화자가 입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달 속에 있다는 상상의 궁전, 임이 옥황상제임을 알 수 있음.
외로운 청란(靑鸞)으로 광한궁(廣寒宮) 날아올라
봉황과 비슷한 전설상의 신조(神鳥)
듣고서 못 뵈던 입 첫날에 잠깐 뵈니

내 입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능할까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입을 만난 화자의 반가움을 드러냄.
이렇게 뵈고 다시 뵈 일 생각하니

삼천 명의 미인들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입을 모시는 수많은 하급 관리들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벌였는데
입을 모시는 높은 벼슬아치들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 가 자랑하며?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표현 ①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화자를 대하는 임의 태도 - 화자가 입에게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음.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도가(道家)에서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 곧 천상 세계를 이르는 말
옥경(玉京)을 떠나서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자신의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 가 자랑하며' / 입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대하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까'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인생 박명(薄命)이 이처럼 생겼던가

쓸쓸한 십 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입은 내 입이라 날을 어찌 버리시는가
자신을 버린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남.
생각하시면 그 아니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뵈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입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 리 약수(弱水)*에 청조사(靑鳥使)* 건너오니

▶ 입과 이별한 슬픔

현대어 풀이

인생은 몇 날이나 되며 이내 몸은 어이할 것인가?

구슬발을 손수 걷은 후 섬돌에 내려가서 오색구름이 깊은 곳에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안개문과 구름창이 천리만리를 가리고 있구나.

임과의 인연이 없지는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으로 임이 계신 광한궁으로 날아올라

소식만 듣고서 뵈지 못하던 입을 처음에 잠깐 뵈니

내 입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뵈고 다시 뵈 일을 생각하니

삼천 명의 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입을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은 임의 좌우에 벌여 있는데

수줍은 나의 빛바랜 화장을 어디에 가 자랑을 하며

나를 향한 임의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난간에 기대어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입이 계신 옥경을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니

박명한 인생이 이를 말하는 것인가?

쓸쓸한 십 년 세월 그림자를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서 하는 말이

"입은 내 입인데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는가?

입을 생각하면 그 아니 불쌍한가?"

입에 대한 정조를 지키며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가 돌아오면 입을 다시 뵈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입이 나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어 삼천 리 약수를 파랑새가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꽃고

『』: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표현 ②

두 눈의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긋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 지어내니

화자를 모함하는 무리들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나와

하늘에 해가 있어 임이 짐작 안 하실까

화자의 억울함을 밝혀 줄 존재, 임금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백 년 인생에 이내 임 만나 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사랑이 산이나 바다처럼 영원불변함을 가리키는 말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변치 않는 의(義)를 말함.

그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 버려두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사랑이 싫증 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중략) 의로운 신하들이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아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가는 상황을 가리킴.

풍상(風霜)이 섞여 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 ①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해 피었으며

절개와 지조 있는 신하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 ②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朔風)이 몹시 부니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 ②

하루를 별을 찢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 ③

『은침(銀鍼)을 빼내어 오색(五色)실 꿰어 놓고

『』: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 연군지정(戀君之情)

임의 터진 옷을 길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임금이 계신 곳, 궁궐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

『』: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표현 ③

음력 설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임의 떨어진 옷을 기워서 드리려고 하나 추운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허사가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될 것을 안타깝게 여겨 표현한 구절임.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다른 이들과 대비되는 화자의 행동. 임이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서러움의 표현임과 동시에 임에 대한 지조와 정절을 지키기 위한.

현대어 풀이

임의 소식을 반갑게 듣는구나.

여러 해 동안 빗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를 틀어서 집어 비녀를 꽃고

두 눈의 눈물 자국에 분도 바르지 않고

먼 길을 마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워하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긋은 시샘을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무늬를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들듯이

이

옥돌 위의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나와

하늘에 해가 있기에 임이 짐작하지 않으실

까?

그것들은 던져두고 마음속에 있는 서러운

뜻을 말하려고 하니

백 년 인생에 이내 임을 만나 보아

사랑의 맹세를 굳건히 믿었더니

그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하고 있는

가?

사랑이 싫증이 났던가? 내 인생이 박복한

탓이런가?

말을 하면 목이 메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끔찍하구나.

(중략)

바람과 서리가 섞여 치고 수많은 꽃이 떨어

지니

여러 송이의 국화는 누구를 위하여 피었으

며

하늘과 땅이 얼어붙어 겨울 찬 바람이 몹시

부니

하루를 별을 찢들 열흘의 추위를 어찌할 것

인가?

은 비늘을 빼내어 오색실을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길고자 하건마는

임이 계신 궁궐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의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 것인

가?

음력 설달이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더라도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 '갈 길이 아득하니', '임이 언제 살피실까'
→ 화자는 '천문구중'까지 가는 길이 멀어 임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생각함.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 』: 밖에 나가지 않아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음을 알기 어려움.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함.

간장(肝腸)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심정이 드러남.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청등’은 ‘푸른빛을 내는 등’으로, 늦게까지 화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냄.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조나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언어에 공교(工巧)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재주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음.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황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화자의 노력

거문고 줄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얽어 놓은 물동이 밑바닥까지 비추지는 못한다.’라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함.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말. 백야(伯牙)가 자신을 알아준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이를 탄식하며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차라리 죽어서 자규(子規)의 녀이 되어

밤마다 이화(梨花)의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五更)에 잔월(殘月)을 쉬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임에 대한 원망의 표출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 곧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를 이르는 말

임금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하소연하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남.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으로, 길이가 삼천 리나 되며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을 정도로 물의 부력이 약하여 건널 수 없다고 함.

* 청조사: 피랑새.

*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황후 진야교가 당시의 문장가인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부를 짓게 하여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제의 마음을 돌려 총애를 받게 된 일을 가리킴.

현대어 풀이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가 피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나 되는 눈물은 피가 되어 솟아나고
벽에 걸린 푸른 등은 빛조차 어둡구나.

황금이 많으면 부나 살까 하련마는
밝은 해가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치겠느냐?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언어에 재주가 없고 눈치 없이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창에 비친 매화, 달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한숨을 짓고

아쟁을 꺼내어 입을 원망하는 노래를 슬피
연주하니
거문고의 줄이 끊어져 다시 잇기가 어렵구나.

차라리 죽어서 두견새의 녀이 되어
밤마다 배꽃의 피눈물을 울어 내어
오경에 새벽달을 쉬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아쟁’을 꺼내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파악하면 ‘거문고 줄’이 끊어졌을 때의 화자의 심정과 그 줄을 다시 잇지 못할 때 화자가 느꼈을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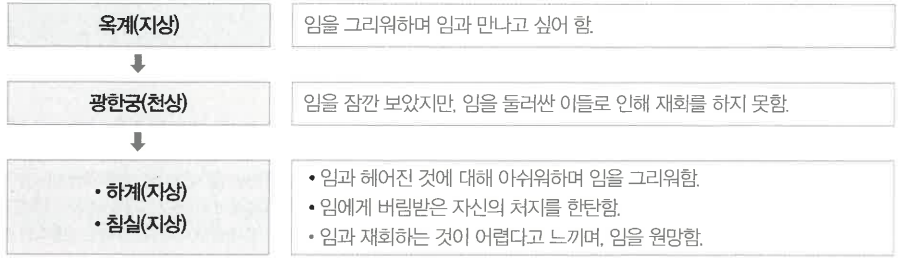
핵심 개념



시어를 통해 이해하는 화자의 상황과 현실 인식 [문항 1 관련]

눈 위의 서리, 뜰가의 매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연물로, 화자가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고 있음.
반벽청등	임이 돌아오기를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음.
뒤집힌 동이	자신의 억울함을 임이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조물주의 처분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함.
거문고 줄 끊어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해 절망함.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와 태도 **문항 2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미수록된 '자도사' 소개

본문 수록 앞부분	<p>임 향한 일편단심 하늘에서 타고났으니 / 삼생에 맺은 인연이요, 꾸민 마음 아니외다. 내 얼굴 내 못 보니 볼 직하다 할까마는 / 민낯이 곱건 민건 생긴 대로 지녀서 연지와 흰 분도 쓸 줄을 모르는데 / 단순호치를 가졌노라 하오리까. 이 임 만나 뵈고 섬길 일 생각하니 / 흥안을 민자 하니 고운 얼굴 얼마 가며 조물주가 시기하니 임의 사랑 기약할까 / 꽃다운 심오 세에 배운 일이 전혀 없어 부상의 명주실을 은하수에 씻어 내어 / 원앙 무늬 베를 위에 봉황 무늬 수놓으니 내 손의 가진 재주 옹하다 할까마는 / 잘라서 옷 만들면 임의 몸을 감싸려니, 임은 모르셔도 나는 임을 믿어서 / 머지않아 좋은 때를 손꼽아 기다리니 규중의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간다.</p>	<p>→ 임의 옷을 짓는 상황을 언급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함.</p>
	(중략) 부분	<p>지척의 장문궁이 얼마나 가렸기에 / 무정한 유랑은 꿈에도 아니 보며 조비연의 노랫소리는 예 들던 소리로되 / 장신궁 문을 닫고 아니 연단 말인가.</p>

■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의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은 자신들의 반대편인 소북 세력이 선조의 적자인 영창 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주장하며, 영창 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옥사(獄事)를 일으키는데 이를 '계축옥사'라고 한다. 그 결과 영창 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하고, 영창 대군의 어머니인 인목 대비는 폐위된다. 이때 많은 선비들이 인목 대비의 폐위에 반대하고,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데, 조우인 역시 인목 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불경스러운 마음을 시를 통해 드러냈다는 이유로 3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BS
Q&A

Q. 「자도사」와 다른 유배 가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문항 3 관련**

A. 「자도사」는 앞서 창작된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도사」의 화자와 임의 관계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발상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도사」에서 조우인은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당한 선녀에 비유하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며 임금에 대한 충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도사」에서 조우인은 화자가 임과 헤어진 이유를 다른 이들의 모함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화자의 입장을 드러내며 자신을 모함한 간신배들을 비난하는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도사」에서 조우인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도사」만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민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노래한 규방 가사로,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의 감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경상북도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덴동 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덴동 어미가 거둬된 재가와 상부(남편의 죽음)로 인한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청상과부들에게 개가를 하지 말기를 권유하는 대목이다. 작품에는 대화의 전개 방식, '두견새'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의 상징적 활용, 살기 어려운 운명과 그 현실에 대한 덴동 어미의 대응 및 극복 방식 등이 주요 특징으로 잘 나타나 있다.

주제

덴동 어미의 비극적인 삶의 노정과 신세 한탄

덴동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불에 덴 아이 불변하는 자연사와 변화한 인간사를 대조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썩대말이 되었구나 /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살의 기반 상실 → 현실의 고난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 1~5행: 덴동이를 업고 본고향에 돌아옴.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알려 주는 표지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등등 떠서 /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

'한(恨)'의 관습적 상징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입의 녀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문제 해결 키 문학 1, 3 관련
소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면 소재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음.

두견새가 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 임의 녀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화자가 두견새를 죽은 서방의 현신으로 확인하는 계기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로다 반가워라 / 근 오십 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a-a-b-a 구조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 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옹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 6~22행: 덴동 어미가 자신에게로 날아온 두견새를 죽은 남편의 현신으로 여김.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 첫째 낭군은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개가(改嫁)의 이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첫째 낭군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거나 /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개가를 후회하는 이유 ①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이 악귀로다 /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 남이라도 육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개가를 후회하는 이유 ②

잔디밭에 떨어져서 않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싫게 우나

덴동 어미를 위로하는 역할 안노인의 목소리 → 대화체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 보세 /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워하나 / 노인계선 들어가오 내 설움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삶은가 / 간 곳마다 그러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중략)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러라

▶ 33~46행: 덴동 어머니 자신의 서러웠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안노인과 나눔. (43행: 중략)

영송이 밤송이 다 찌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 / 살기도 억지로 못 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 하겠네

덴동 어머니 겪은 고난의 삶을 집약적으로 나타냄.

운명론적 인식 ①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운명론적 인식 ②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그려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 고생 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청춘과부들의 개가를 막으려는 의지

개가를 만류하는 이유

이팔청춘 청상들이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 아무 동네 화령택은 스물하나에 혼자되어

개가를 만류함

개가한 후 불행해진 사례 ①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림택은 갓 스물에 청상 되어 / 제가 춘광*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개가한 후 불행해진 사례 ②

실제 지명 언급 → 사실성, 신빙성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앓은뱅이 되었다데

▶ 47~마지막 행: 청상과부들의 개가를 만류함.

*춘광: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두견새의 기능과 관습적 상징으로서의 의미 **문항 3 관련**

두견새

- 서방님 죽은 녀의 환신
- 화자에게 반가움과 서러움이라는 양가적 정서 유발
- 화자에게 후회와 부끄러움의 정서 유발



개가를 후회하는 계기로 작용

두견새는 촉나라 망제(望帝)의 녀이라고 한다. 촉나라에 이름이 두우(杜宇)인 망제(望帝)라는 왕이 있었다. 별령이라는 간신의 음모와 공작으로 망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 망제는 원통해하다가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밤마다 불어귀(不如歸)라고 울며 목에 피가 나도록 울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새가 망제가 죽어서 환생한 것이라 말하고 그 새를 가리켜 두우(杜宇), 귀촉도(歸蜀途), 불어귀(不如歸), 망제혼(望帝魂)이라 불렀으며, 이 전설 때문에 한(恨)과 애상을 상징하는 새로 시문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포인트 2

개인 성장 관점에서 본 '덴동 어머니'의 삶 **문항 4 관련**

통과 의례(通過儀禮)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의식이나 사건 등의 계기를 통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을 뜻한다. 통과 의례는 기존의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분리', 격리된 공간에서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전이', 사회로 환원하여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의 단계로 구성된다. 고향을 떠나 거듭된 상부와 개가를 통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다가 다시 본고향으로 돌아와 화전놀이를 즐기면서 삶을 달관하는 덴동 어머니의 인생 역정은 통과 의례의 과정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덴동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은 통과 의례를 거쳐 새롭게 변화된 자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덴동 어미 화전가」의 시상 전개와 주제 의식

서사
화전놀이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전놀이의 권유와 준비 •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



본사
화전놀이를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예전의 아전 집안에 시집가나 단옷날 남편이 그녀를 타다가 죽음. • 경북 상주의 이방의 후취로 개가하나 파산하고 남편이 괴질로 죽음. • 울산의 황 도령에게 개가하나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남편을 잃음. • 옛장수 조 서방에게 개가하나 옛을 만들다가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이는 화상을 입음. • 덴동이를 업고 고향인 순흥으로 돌아와 화전놀이에 참여함.



결사
화전놀이 마무리와 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춘과부의 깨달음 •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김 • 내년 놀이를 기약



덴동 어미의 비극적 삶과 그에 대한 운명론적 수용



달관과 신명

■ 「덴동 어미 화전가」에서 덴동 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수절을 권유하는 이유

덴동 어미는 자신이 경험한 후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청춘과부의 개가를 만류한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개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개가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차라리 수절하여 남들의 칭찬이라도 듣는 게 낫다고 덴동 어미는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덴동 어미의 삶을 두고 당대의 유교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선택을 해도 고생을 겪게 된다는 것은 중세 가부장제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간 여성들의 삶을 인식하는 단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화전가'는 어떤 문학 장르이며 어떤 기능을 가진 노래였나요?

A. 화전가는 영남 지방에서 구전으로 유행하던 내방 가사의 일종입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을 맞아 유교적 가부장제 속 시집살이에서 잠시 벗어나 경치가 좋은 곳에서 화전놀이를 즐기며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표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요. 여인들은 화전가를 부르면서 풍류를 즐기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은 물론 그들 사이의 공동체적 연대 의식도 고양할 수 있었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희 공간에서 널리 가창되며 유행했던 12장가의 하나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네 마디 율격의 연속을 기반으로 한 점으로 보아 가사 갈래에서 영향을 받은 잡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으로 생동감을 더한 점, 대구나 열거, 비유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인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제

봄의 아름다움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즐거움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장(萬化方暢)이라

봄 성에 꽃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자라 흐드러진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 서샤 봄을 맞은 산천 경치의 구경 권유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대지팡이와 짚신 간편한 차림새 한 개의 표주박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봄고 푸른 것이 온 산에 가득함. 일 년에 한 번씩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 선명한 색채 대비 보기 드문 아름다운 꽃과 풀이 흐드러진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버드나무 위로 나는 피꼬리는 금 조각 같고 꽃 사이에 춤추며 나는 나비는 분분설(紛紛雪)이라 → 대구와 은유, 색채 이미지로 흥날리는 눈발과 같다.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만발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

봄철 석 달의 좋은 시절 봄송이꽃이 활짝 피어 점점이 붉음. 이로구나

어주축수에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에 아니나

설의법, 경치가 지극히 아름다워 이상향을 떠올리게 함. 양류세지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당춘절(黃山谷裏當

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에 아니나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충천(沖天)에 높이 떠 두 날개 훨훨 펼 펼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같고 슬피 운다. ▶ 본사 1: 봄날의 화려한 경치가 지난 아름다움 「」 작품 전체적 정서와 이질적인, 가치가 축축 늘어진 모습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쭈랄 활활 춤을 춘다

의인화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수정으로 만든 발에 빚댄 직유법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로 합수(合水)하여

현대어 풀이

봄을 맞은 성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따뜻한 봄날 온갖 생물이 흐드러졌구나.

때가 좋구나 벗님네야 산천 경치 구경을 가세.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에 표주박 하나 들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온 산에 가득한 봄고 푸른 것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

봄색을 자랑하느라고 색마다 붉었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운 꽃과 풀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자취 없이 날고 있다.

버드나무 위로 날아다니는 피꼬리는 금 조각 같고, 꽃 사이에 춤추며 날아다니는 나비는

흥날리는 눈발과 같구나.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을시고 북송

아꽃이 만발하여 점점이 붉었구나.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나.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나니 도연명이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놓고 지냈다는 곳

이 여기가 아니나. 제비는 물을 차고 오르며 날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하늘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펼 펼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같게 하고 슬피 운다. 먼 산은 첩첩하고, 태산은 주춤 서 있고,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구부러져 성난 바람에 흥이 겨워

우쭈랄 활활 춤을 춘다. 층층 바위 절벽 위의 폭포수는 팔팔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드리운 듯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르 저 골짜기 물이 살살 열 골짜기의 물이 한데로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음성 상징어 활용, 역동적 이미지 구사 등으로 폭포와 물살의 모습을 묘사함.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나

설의법, 속세와 먼 산속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투영됨.

일년풍(一年豊)이라*

▶ 본사 2 봉닐 산의 장관과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였으니 경개무궁(景概無窮)이 좋을시고

▶ 결사: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

* 어주축수에삼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 '어주축수에산춘(魚舟逐水愛山春.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의 오기인 듯함.

* 양류세지사서록한데 황산곡리당춘철: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르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안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요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주곡새 우는 소리는 천고의 절개요 소쩍새가 우니 일년 농사 풍년 들겠네.

현대어 풀이

천방지방 솟구치고 퍼져

넌출이 되고 방울져서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흘러지니

소부와 허유가 문답하던 은거지인 기산의 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냐.

주곡새가 우는 소리는 천고의 절개요, 소쩍다며 소쩍새가 우니 일년 농사 풍년 들겠네.

해 뜨고 해 지는 경치가 눈앞에 벌였으니 아름다운 경치가 무궁토록 좋을시고.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표현상 특징 **문항 1, 2 관련**

- 색채 대비를 통해 숲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드러냄.
-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열거법 등을 활용하여 자연의 경치를 생생하게 묘사함.
- 설의법을 활용하여 경치에 대한 경탄과 만족감을 드러냄.
- 의인법을 통해 봄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소나무의 모습을 묘사함.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을 높임.



잡가(雜歌)의 갈래 특성 **문항 3 관련**

- 발생: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희 공간이 확대되면서,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창작하여 가창하고 전승하기 시작함.
- 향유층 확대: 도시의 신흥 상공인 계층 → 서민과 상류 양반층으로까지 확대됨.(이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도 변화함.)
- 형식적 측면의 연원: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갈래에서 음.('유산가는 네 마디 울격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때 가사 계열의 잡가임.)
- 작품 경향: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띰.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잡가의 내용

잡가의 내용은 애정, 삶의 무상함, 취락(醉樂),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류, 세상살이의 애환, 익살, 희언(戲言) 등 다채로 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세속적·쾌락주의적 지향이 두드러진다. 대다수의 잡가는 철저한 현세적인 관점에서 삶의 여러 욕망과 그 성취, 지연, 좌절에 따른 감흥과 비애를 노래하며, 비록 덧없는 것일망정 이 세상 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장 확실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물, 산, 나무, 꽃, 새와 같은 자연 현상 또한 잡가에서는 우주적 질서의 표현이나 처사적 관조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유한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감각적 사실 내지 일락(逸樂)의 대상으로 형상화된 예가 많다. 이 점은 잡가가 사대부적 미의식과 품격을 지닌 시가류로부터 엄격히 구별되는 동시에 생활 현장의 절실한 경험에 근거한 민요와도 또 다른, 시정의 유희(遊樂) 가요라는 데에 기인하는 특질이다.

- 김홍규, 『한국 문학의 이해』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근간으로 형성된 신민요로,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불린다.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가사에 반영되어 있어 적용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이 겪는 불우한 상황을 풍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중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풍자 정신이 돋보이며,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개화기, 일제 강점기의 변화에 대한 풍자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이씨의 사춘이 되지 말고

조선의 왕족인 이씨의 친인척을 이룸.

민씨의 팔춘이 되려무나

당시의 왕비였던 명성 황후의 집안인 민씨의 친인척을 이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연>

▶ 1연: 외척의 권력에 대한 풍자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서울시 중구 남산에 있는 장춘단을 이룸.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흥만 한다

장춘단에서 예식이 벌어지는 상황을 드러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2연>

▶ 2연: 신식 군대에 대한 비판

밭은 헐러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러서 정거장 되네

신작로나 정거장이 건설되는 개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5연>

▶ 5연: 개화만을 중시하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림.

말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재주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드러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6연>

▶ 6연: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의 보편적 가사를 차용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0연>

▶ 10연: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풍년이 와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러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1연>

▶ 11연: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구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본조 아리랑」은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 사이에 창작된 민요로 여겨지는데, 명성 황후와 관련하여 외척인 '민씨의 팔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남산 밑'에 '장춘단'을 지은 시기가 1900년도라는 것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당시 백성들이 호소하려고 했던 상황과 정서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개화기의 시대적 변화 문항 2 관련

개화기

이씨의 사촌 < 민씨의 팔촌

조선의 왕족인 이씨 집안의 친인척보다 왕비의 세력인 민씨 집안의 친인척이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 외척의 권세가 대단했음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됨.

- 남산 장춘단
- 군악대 장단

장춘단에서 군악만 울리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식 군대를 언급하며, 개혁을 통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버렸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함.

- 밭 → 신작로
- 집 → 정거장

신작로와 정거장이 건설되며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전통적 삶의 기반을 흔들며 버리는 상황을 언급하여 안타까움을 표출함.

재판소와 공동산

재판소는 의견 차이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게 됨을 뜻하고, 공동산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는 것을 의미함. 사람들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 시대적 상황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아리랑 가사의 차용 문항 3 관련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10연의 가사는 기존 아리랑(경기 아리랑)의 가사를 그대로 차용한 것임.
- 10연의 내용은 1연, 2연, 5연, 6연 등에 언급된 당시 시대적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노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창자 또는 청자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익숙한 가사(내용)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1연의 경우, 「본조 아리랑」의 마지막 연으로, '풍년이 온 삼천리강산'을 희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당시 민중의 바람이 투영된 연이라 할 수 있음.

■ 「본조 아리랑」의 전체 구성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를 온몸으로 마주하는 당시 민중들의 고통과 염원을 표현한 노래임.

■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한 이해

이 민요는 1949년 성경린, 장사훈이 공저한 『조선의 민요』에 실려 있는 신민요로 「본조 아리랑」, 혹은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불린다. 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창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 일가의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1873년경이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이 1874년, 전차가 개통되어 처음 정거장이 생긴 것이 1898년이며, 장충단을 지은 것이 1900년이다. 1910년 이후 일제 강점의 현실로 인해 민족의 삶이 황폐화되고 전도된 개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데, 5연부터 8연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다채롭게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이 노래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와 가사가 비슷하다. 다만 후렴구의 내용과 위치가 다른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대신에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라는 후렴구가 본문 앞이 아닌 뒤에 붙어 있다. 흔히 경기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들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래에도 경기도 민요에 흔히 나타나는 가사가 차용되고 있다.

Q. 풍자적 성격의 작품은 어떻게 읽어 내는 것이 좋을까요? 문항 2, 3 관련

A. 흔히 풍자를 ‘새로운 사회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나 불합리한 권력의 가치관이나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태도가 나타나는 점에서 아이러니(Irony)와 비슷하지만 보다 날카롭고 노골적인 공격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풍자적 성격의 작품들은 주목한 대상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모욕, 경멸, 조소 등을 통해 빈정거리거나 웃음을 통해 비판적 측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대상을 교정하거나 개량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풍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읽을 때에는 풍자하는 주체가 풍자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어 내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조 아리랑」의 1연에서는 외적인 ‘민씨의 팔촌’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있는 것이고, 2연과 3연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변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읽을 때에는 불만을 느끼는 현실의 지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속내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함경도 지역의 노래로 '어랑 타령'으로도 불린다. 가사의 내용으로 볼 때, 기차역이 세워지는 20세기 초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 제목 중 '신고산'은 강원선 기차역의 이름이다.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달라지고 시골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버린 상황을 푸념하는 내용이 많다.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이 있으며 선후창 형태로 가창되었다. 애절하면서도 씩씩한 곡조를 지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고 한다.

주제

함흥 차 지나가는 신고산 지역의 변화와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로인 경원선에 생긴 기차역 주변의 중심지

신고산 우루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

손에 들 만한 작은 봇짐. 봇짐이란 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꾸민 짐을 말함.

구고산 큰애기 반봇짐만 싣다

신고산이 형성되기 이전의 고산 마을 중심지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연>

▶ 1연: 함흥 차 소리에 반봇짐을 싣는 구고산 큰애기

어린아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경기 민요의 하나.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삼박자의 흥겨운 노래임.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3연>

▶ 3연: 생계는 행기지 않고 양산도에만 빠진 영감님

정든 님을 다리고 산나물을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탈까

봉천은 중국의 선양 지방으로 보기도 함.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5연>

▶ 5연: 봉천 차를 타고 떠난 우리 오빠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모질고 거센 세상살이의 어려움

언제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9연>

▶ 9연: 걱정 면할 일이 없는 이내 몸

시집갈 나이의 처자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고산 지역의 지명

푸룻푸룻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0연>

▶ 10연: 임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개굴 큰애기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곳없구요

무심한 기차 푹 떠나자 우리 님 간곳없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1연>

▶ 11연: 기차를 타고 떠나 버린 '우리 님'

부령 청진 가신 님 돈 벌면 오고

함경북도 지역의 지명. 청진은 원래 부령군의 작은 어촌이었지만 1908년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공동묘지 가신 님 언제나 오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되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2연>

▶ 12연: 돈 벌러 떠난 임, 죽어서 문헌 임에 대한 그리움

문제 해결 키 문항 3, 4 관련

회자가 시적 상황 안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털어놓고 있으나, 시적 상황 밖에 존재하면서 혼잣말을 하듯 외부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나에 따라 장내 연술과 장외 연술을 구분할 수 있음. 병렬적으로 구성된 각 연에서 회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회자의 심리를 서술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요약문 1

기차역이 생기며 시작된 변화 문항 1 관련

구고산 VS 신고산



- 함흥을 향해 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함.(경원선과 함경선이 연결됨)
- 기차역 주변의 중심지가 새롭게 발달함.
- 구고산에 살던 큰애기가 고향을 떠나려 함.
- 우리 오빠는 봉천으로, 우리 님은 부령 청진으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남.

요약문 2

회자가 주목한 시적 대상과 정황 문항 4 관련

1연, 3연, 10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사람들(시적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여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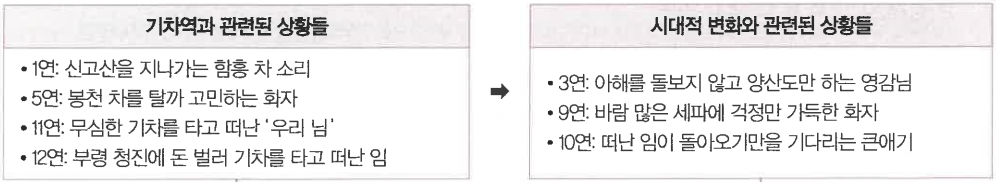
5연, 9연, 11연, 12연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회자의 구체적 체험이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함.



급격하게 변화하는 당시의 상황을 적절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정황을 선택하여 제시함.

■ 「신고산 타령」의 내용 구성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철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별의 상황과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으며, 고산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냄.

■ 공간적 배경인 '신고산'과 경원선

이 민요의 공간적 배경인 신고산은 서울 청량리에서 북한에 있는 강원도 원산시를 잇는 경원선의 철도역 중 하나인 고산역 주변을 이른다. 경원선은 후후 함경선과 연결되는데, 본문에 나온 '함흥 차'는 함흥의 청진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원선은 추가령구조곡의 지구대(단층 운동의 결과, 단층 사이에 함몰된 낮은 지대가 길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형, 교통로로 많이 이용함.)를 따라 건설되어 고산 협곡의 험준한 지형적 장애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령 산지를 비껴 넘어야 하였고 기존 도로가 불비하였기 때문에 공정 전반이 쉽지는 않았으며 특히 경술국치(1910년) 직후에 건설되어 의병들의 저항과 습격이 잦았다고 한다. 경원선이 완공된 것은 1914년 이고, 함경선이 연결된 것이 1924년이므로 이 노래의 창작 시기는 1920~1930년대로 추정된다. 경원선은 동해안 북부의 풍부한 자원을 수송하고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측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EBS
Q&A

Q. 외적 준거로 제시된 <보기>의 핵심 내용을 지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문항 4 관련

A. '문항 4'의 <보기>는 민요의 사설을 '장내 언술'과 '장외 언술'로 구분하여 두 가지 언술의 서술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언술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내'와 '장외'라는 말은 결국 화자가 서술하려는 상황 안에 존재하느냐, 서술하려는 상황 밖에 존재하느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화자가 장면 안에서 자신의 처지나 심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장면 밖에서 다른 대상의 행동이나 모습을 관찰하여 드러내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언급한 개념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이삭을 줌은 시골 아이의 말을 인용하여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이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대 사회에 대한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비판

밭에서 이삭을 줌은 어린애들 말이

향촌 어린아이들의 말을 인용하여 향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함.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야 소쿠리도 안 차요

관리들의 탐학의 결과: 피해자인 향촌

올해는 벼 베는 이 썬씨 하도 좋아

백성: 수탈당하는 대상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수탈하는 대상 = 관리

『』: 어린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쿠리를 채울 수 없는 원인이 제시됨.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삶의 원인이 관리들의 수탈 때문임이 드러남.

田間拾穗村童語

전 간습수촌동어

盡日東西不滿筐

진 일종서불만광

今歲刈禾人亦巧

금세에화인역교

盡收遺穗上官倉

진수유수상관창

▶ 가: 이삭 줌은 시골 아이의 말을 들음.

▶ 승: 이삭 줌에 데에 어려움을 느낌.

▶ 전: 농민들이 교묘히 벼 베기를 함.

▶ 결: 관가에 벼를 몽땅 바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현실을 알게 됨.

*관창: 예전에, 관가의 창고를 이르던 말.

이것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3 관련

이삭 줌은
어린애들

백성들이 관창에 벼를 몽땅 바치고 있기 때문에 온종일 돌아다녀도 이삭을 주울 수 없다고 하소연함.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보여 줌.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이삭을 줌에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하여,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포인트 2

이 작품의 소재의 기능 문항 2 관련

소쿠리

이삭 줌은 어린애들의 입장

벼 이삭을 소쿠리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함. 그러나 벼 베는 사람이 관창에 벼를 바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한 톨도 남김없이 벼를 베어 내어 소망을 이룰 수 없음. → 결핍을 느끼게 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게

■ 작가에 대한 이해

손곡 이달(1539~1612)은 조선 선조 때의 시인으로, 다양한 삶의 감정을 한시(漢詩)에 담아내었다. 그는 서얼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자신에 대한 연민을 고독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었다.

외진 정원 인적 없이 버들만 죽 늘어섰고, / 이른 조희 막 끝나서 궁문 저쪽 흠어진 뒤,
고독한 공간

단청 들보 이 귀퉁이 쌍쌍 나는 제비들만, / 옛날처럼 봄바람 속 옛 등지를 찾는구나. - 이달, 「장신궁사시사·춘(長信宮四時詞·春),
소외된 채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탄식

또한 그는 탈속적인 삶을 사는 인물을 내세워 그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절집이 흰 구름 속에 있어, / 흰 구름을 증은 쓸지 않네.
속세와 단절된 삶 시각적 이미지 자연과 일체되어 사는 삶

나그네 왔기에 비로소 문 열고 보니, / 골짜기마다 솔 꽃가루만 흩날리네. - 이달,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세월의 흐름을 알려 주는 존재 물이 지나감(세월의 흐름)-세월의 흐름도 모르고 사는 탈속적인 삶

그리고 변방을 유랑하며 백성들의 삶의 정서를 시에 담아내었다. 「습수요」처럼 향촌에 사는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것이다.

김창협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시이다. 백성들이 편안한 평지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토록 없는 산골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 그리고 먹도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모두 가혹한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산골에 사는 아낙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 산골과 평지라는 두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양반이 지은 것이지만, 백성의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하던 기존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시적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이 드러남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 : 부인의 행동을 묘사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함. 순박한 인정을 지닌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남.』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시적 화자의 질문 ①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 : 부인의 대답 ①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 : 산골 부부의 어려운 생활을 통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드러남.』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 : 산골의 특성 ②: 인적이 드물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공간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 : 산골의 특성 ③: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공간
나뭇을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산골 부부의 궁핍한 삶이 드러남.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 시적 화자의 질문 ②

산골 부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남.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평지와 대비되는 공간이자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공간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탐욕한 관리들이 있기에 산골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공간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오.』 : 부인의 대답 ②

백성들이 산골에서 사는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남.

비판의 대상

下馬問人居

하마문인거

婦女出門看

부녀출문간

坐客茅屋下

좌객모옥하

爲客具飯餐

위객구반찬

丈夫亦何在

장부역하재

扶犁朝上山

부리조상산

山田苦難耕

산전고난경

日晚猶未還

일만유미환

四顧絕無隣

사고절무린

鷄犬依層巒

계견의층만

中林多猛虎

중림다맹호

采蕨不盈盤

채곽불영반

哀此獨何好

애차독하호

崎嶇山谷間

기구산곡간

樂哉彼平土

낙재피평토

欲往畏縣官

욕왕외현관

▶ 기(1~4행):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모습

▶ 승(5~8행): 산골의 고달픈 삶

▶ 전(9~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 결(13~16행): 관리들의 횡포 비판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백성들이 사는 '가파른 산골짜기'와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고을 관리가 있는 '저 너머 평지'라는 공간이 대비되고 있음. 이를 통해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부각되고 관리들의 탐학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나, 관리들의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님.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산민」
↓

- 인물(산골에 사는 부인의 말을 인용하여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 대립되는 공간(산골, 평지)을 제시하여 백성들에게 탐학을 일삼는 관리들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방식을 통해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냄.

포인트 2

시어의 의미 파악 문항 2 관련

- 초가집** — 백성들의 궁핍한 삶의 공간
- 개, 닭** —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의 삶을 보여 주는 소재
- 호랑이** — 산골에서의 어려운 삶을 보여 주는 소재
- 광주리** —
 -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
 - 백성들이 노력해도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끼는 곁핍을 부각하는 소재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현실을 한시(漢詩)로 기록하다

「산민」은 김창협이 만 27세 때인 1678년(숙종 4)에 전라도와 충청도를 지나 한양으로 올라오는 여행길에 들른 산촌의 모습을 보고 지은 작품이다. 폭정을 일삼는 관리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탕히 노는 저 많은 고관들 더위를 모르거니
얼음 깨는 백성 노고 뉘라서 말해 줄까?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버린 백성들이
대부분 이 강에서 얼음 깨던 사람들임을.

滿堂歡樂不知暑
만당 환락부지서
誰言鑿氷此勞苦
수언 작빙차로고
君不見
군불견
道傍喝死民
도방 갈사민
多是江中鑿氷人
다시강중작빙인

- 김창협, 「작빙행」 중

이 작품에서 김창협은 백성들의 노고와 관리들의 환락(歡樂)을 대비하여 백성을 돌보지 않는 관리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김창협은 당대 사회의 어두운 면과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한시(漢詩)에 담아내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함께 강호가도를 노래한 대표적인 연시조로서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어부단가」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임금과 조정을 생각하며 근심하기도 하는 화자의 모습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 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 한자어를 통해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훗날 고산 윤선도가 「어부단가」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전한다.

주제

자연을 벗하여 사는 어부의 풍류적 삶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가어옹으로서 화자의 현재 삶을 집약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화자의 위치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인간 세상, 속세 ▶ 제1수: 세사사를 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푸른색의 이미지와 천, 만 등의 표현으로 속세와의 거리감 및 차별적 속성 부각,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대구적 표현, 상투적 표현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자연의 밤 정경

욕심이 없음

▶ 제2수: 속세와 단절된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 청색 이미지 - 자연의 이미지 소박한 삶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 자연의 분위기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자연의 참된 의미

▶ 제3수: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가 난다

구름과 갈매기: 백색 이미지 - 무심의 정서와 연결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욕심이 없고 다정함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자연 친화와 물아일체의 의지

▶ 제4수: 평생토록 자연과 친화하며 살고 싶은 마음

복귀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한양

임금이 계신 궁궐

어주(魚舟)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어부로서의 삶을 표상

속세에 대한 걱정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제5수>

화자가 시름을 덜어 내는 계기가 됨

▶ 제5수: 나뉠일에 대한 걱정과 세상을 구할 현인(賢人)의 출현에 대한 기대

시조의 상투적 표현, 미련과 걱정을 떨쳐 버리려고 함.

- * 노적 화총: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 * 일반 청의미: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 인물.

현대어 풀이

<제1수>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한 척의 작은 배를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놓고 인간 세상의 일을 모두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제2수>

아래로 굽어보면 깊고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은 얼마나 가려져 있는 것인가 강호에 달이 밝거든 더욱 욕심이 없구나.

<제3수>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에 배를 묶어 두니,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4수>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물 위에는 하얀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욕심 없고 다정한 것은 이 둘뿐이로다. 한평생의 시름을 잊고 너희들과 함께 놀고 싶구나.

<제5수>

한양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 리나 되는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그곳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할 일이 아니로다 세상을 건져 낼 현인이 없겠느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어부단가의 사상 전개와 정서 변화」 문항 2, 3 관련

	<1수>	<2수>	<3수>	<4수>	<5수>
주요 소재	만경파에 일엽편주	천심 녹수 만첩청산 강호, 월백 대조	→ 심장 흥진	청하, 녹류 노적 화총	산두에 한운 수중에 백구
정서	탈속의 경지	무심(無心)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앎.	무심과 다정 → 물아일체	어주 ↔ 장안 대조 북궐 시름 잊으려 함. ↓ 제세현 ↑
	자연에의 몰입과 그 즐거움			속세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단념	

포인트 2

「가어옹(假漁翁)」으로서의 화자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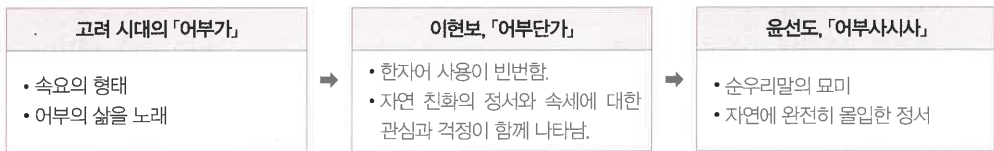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지 않고 자연을 벗하면서 취미로 고기를 낚으며 유희자적하는 선비이자 풍류객으로서의 어부를 말함.

↓
생계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이 없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어부가」의 문학사적 흐름

「어부가(漁父歌)」은 어부의 생활을 담은 노래로서 일찍이 고려 때부터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로 전해 왔는데, 조선 시대에 이현보가 9장의 장가와 5수의 단가로 개작했다. 이현보의 「어부가」의 특징은 자연에 은거하는 가운데 어부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후 효종 때에 이르러 고산 윤선도는 이현보의 「어부가」가 옛 시를 모으는 데에만 얽매인 탓에 웅색해지는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뜻을 덧붙이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연시조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된다. 「어부사시사」는 4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로 이루어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자연 속에서 여유와 흥취를 즐기는 가운데 물아일체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EBS Q&A

Q. 시가에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문항 1, 3 관련

A. 시가는 노래이지만 노랫말은 언어 예술이며 언어는 곧 말입니다. 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말투, 즉 어조를 파악하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시의 어조는 어휘의 의미, 이미지, 문장 구조 등 언어의 모든 요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주로 감정을 표현한 어휘(슬픈, 기쁜, 눈물, 웃음, 외로운)를 살펴되거나 종결 어미(평서, 명령, 청유, 의문, 감탄)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보면서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_ 김소월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김소월의 작품 중 현실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집도 없고 농사지를 땅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로, 일제 강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하던 당대 조선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보습 대일 땅'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이 실현되는 상상의 공간이다. 시인은 이를 통해 삶의 최소 조건마저 상실된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까지 드러내며 사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땅을 잃은 농민의 슬픔과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거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
즐거이, 꿈 가운데,
▶ 1연: 화자가 꿈꾸었던 행복한 삶의 모습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감탄의 종결 어미나 느낌표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이나 심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꿈꾸었노라	'-노라'를 사용하여 화자가 소망했던 바를 강하게 드러냄.
있었더라면!	느낌표를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함.
이 심정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냄.

화자(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냄.

그러나 **집 잃은 내 꿈이여**,
사상의 전환: 소망(꿈) → 절망(현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농사를 지을 땅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유랑하는 삶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하루 종일)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새로움의 강조

▶ 2연: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현실

동이라, 남북이라,
유랑하는 삶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희망이 멀리 있는 절망적인 상황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여.

▶ 3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닐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사상의 전환: 현실(절망) → 미래(희망)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미래 지향적 의지의 표출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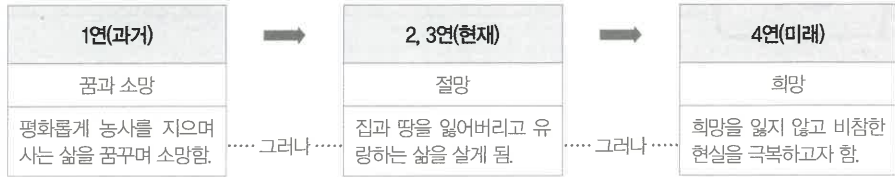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미래를 개척할 벗, 우리 민족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

▶ 4연: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 보습: 쟁기, 곡쟁이 등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직한 삼 모양의 쇠조각.

포인트 3

시상의 전환 **문항 3 관련**



포인트 2

시어의 의미 **문항 2 관련**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처지와 그 극복에 대한 소망을 그린 작품으로 감상하면 시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집 잃은 내 몸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
보습 대일 땅	국권을 되찾은 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기늘은 길	힘난하지만 언젠가는 국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삶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김소월의 현실 의식이 드러난 작품들

김소월을 한(恨)의 정서를 노래한 서정 시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작품 중에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도 여러 편 있다. 「봄」, 「무덤」 등에는 민족주의 이념이 담겨 있고, 「인종」, 「웃과 자유와 밥」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자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은 일제 강점기에 땅을 잃은 농민의 슬픔과 불의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EBS Q&A

Q. 영탄법과 영탄적 표현은 어떤 관계인가? **문항 1 관련**

A. 문학 선지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 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기쁨·슬픔·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용례로 ‘아아!’, ‘오!’, ‘보았는고!’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쉽게 말해 감탄사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탄적 표현은 이보다 더 폭넓게 쓰입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강조할 때뿐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낼 때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고 합니다. ‘-구나’, ‘-노라’ 등의 감탄형 어미가 쓰인 표현은 물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표현도 넓게는 영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함경남도 함주 지방에서의 기행을 제재로 한 연작시 중 하나로, 산골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한겨울이 되면 '바스런한 백성들'로 표현된 '벌들'도 '제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처럼, 자신도 '골안'에 있는 집으로 와서 호젓하게 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이 작품은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 쓰인 토속적 시어는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주제

시골의 한적한 집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은 소망

돌각담에 머루 송이 깔하니 익고
돌을 모아 놓은 큰 돌무더기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별바른 골짜기다
포근하고 아늑한 안식처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화자가 산곡을 찾은 이유

▶ 1연: 골짜기에 있는 집을 구하려 다님.

집이 맺 집 되지 않는 골안은
'골짜기'의 방언(함남)
모두 터알*에 감장감이 퍼지고
계절적 배경: 늦가을
뜨락에 잡곡 낱가리가 쌓여서
'어느'의 평안도 방언
어니 세월에 뷔일 듯한 집은 봐이지 않았다
빈집을 찾기 어려움. 자꾸 골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
나는 자꼬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 2연: 한겨울을 날 집을 찾아 골안으로 깊이 들어감.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산대배기, 산꼭대기'의 방언 돌능에집, '너와집'의 평북 방언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양지바른

▶ 3연: 골짜기 끝 돌능와집의 마당 풍경

낮 기울은 날을 햇벌 장글장글* 한 뒷마루에 걸어앉아서
'트릭'의 일본어식 표현
지난여름 도라구를 타고 장진(長津)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돌능와집 안주인의 말 인용 우리 백성을 상징하기도 함.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이
겨울이 되어
바스런한 백성들도 다 제집으로 들은 뒤에 이
벌들, 백성들의 안식처
골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고 싶은 곳

▶ 4연: 한겨울 골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

- * 잠풍하니: 잔풍(殘風)하니,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 * 터알: 집의 울안에 있는 작은 밭.
- * 남길동: 저고리 소매뒤편에 이어서 대는 남색의 천
- * 장글장글: 바람이 없는 날에 해가 살을 지질 듯이 조금 따갑게 계속 내리쬐는 모양.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시간적·계절적 배경과 시적 상황에 주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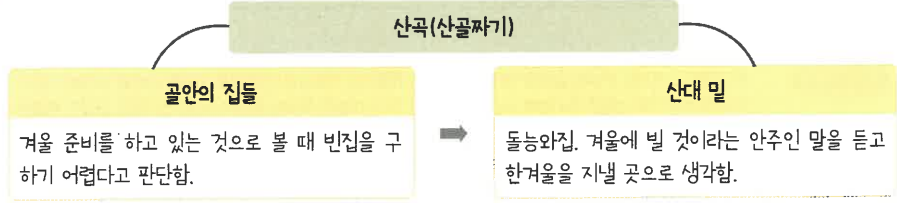
현재(늦가을)	'머루 송이 깔하니 익고', '감장감이 퍼지고', '잡곡 낱가리가 쌓여서'
↓	
미래(겨울)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 늦가을 어느 날에 화자가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지낼 곳을 찾기 위해 산곡을 찾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지 않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공간의 이동 **문항 2** 관련



포인트 2

화자가 골안에 집을 구하려는 이유 **문항 2** 관련

표면적 이유	이면적 이유
화자가 구한 돌농외집의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볼 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려 한다고 볼 수 있음.	'벌들'을 보며 '바쁘려한 백성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볼 때, 한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대 현실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백석의 기행시

백석은 감각적 이미지와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이고 향토색 짙은 서정시를 창작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일제의 지배 정책이 강화되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담은 많은 기행시를 남겼다. 연작시 「함주 시초」도 이에 해당하는데, 함주는 함경북도 함흥시를 둘러싼 지역으로 「북관(北關) - 함주 시초 1」, 「노루 - 함주 시초 2」, 「고사(古寺) - 함주 시초 3」, 「선우사(膳友辭) - 함주 시초 4」, 「산곡 - 함주 시초 5」 등에는 변방의 독특한 풍습과 향토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

EBS Q&A

Q. 현대시들을 묶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문항 2** 관련

A. 대개 현대시는 두 작품이 묶여 나오는데, 이는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제가 유사한 경우, 화자의 처지와 현실 대응 방식이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경우, 특정 창작 방식이나 표현법이 쓰인 경우,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순하게 표현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을 때에는 첫 번째 문항에 선지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제나 화자의 현실 인식 등은 <보기>에 작품을 묶는 이유를 제시하는 형태로 출제되곤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 상황을 제시하며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별은 화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깨닫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생각이 역설적 표현과 경어체 문장의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갔습니다'의 반복을 통해 임의 부재를 강조함.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

어서 참여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대조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구를 통해 화자의 상황 변화를 나타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1~4행: 임과 이별한 화자

의도적으로 심표를 배치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부각함.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임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

회자정리(會者定離)의 불교적 세계관

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5, 6행: 임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화자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사상의 전환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 7, 8행: 이별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화자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순 형용(역설적 표현)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9, 10행: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화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관념적 대상의 감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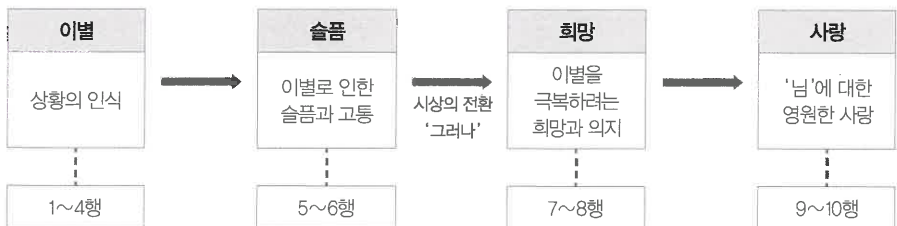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푸른 산빛', '굳고 빛나든', '향기로운', '꽃다운' 등과 같은 긍정의 감각적 이미지와 '깨치고', '차디찬', '침묵' 등과 같은 부정의 감각적 이미지를 구분하고, 사상 전개와 의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이해하여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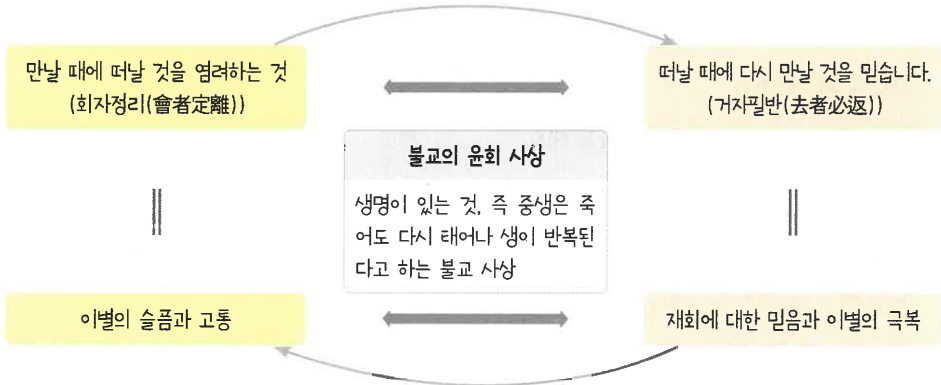
사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문항 4 관련



비유와 상징	'님', '침묵', '푸른 산빛', '황금의 꽃', '차디찬 티끌', '말소리', '얼굴' 등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푸른', '황금', '굳고 빛나든', '차디찬', '말소리', '곡조', '노래' 등
관념적 대상을 물리적 대상으로 표현함.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듭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님의 침묵」에 드러난 역설적 인식과 불교의 윤회 사상



■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와 「님」의 의미

1920년대 일제의 극심한 탄압,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시의 고유한 표현 방식인 비유와 상징을 통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를 밝힌 「군말」에서 “해저른 벌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고 헤매는 어린양이 괴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님만 님이 아니라 괴룬 것은 다 님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님」은 단순히, 이별한 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인일 수도 있지만, 「길 잃은 어린양」, 즉 일제 강점하에서 방황하는 우리 민족, 빼앗긴 조국, 실현되지 못한 종교적 이념이나 진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님의 침묵」을 비롯해 이 시집에 담겨 있는 다른 작품 「알 수 없어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복종」 등에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그의 이러한 시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임과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만남을 통해 생성과 극복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EBS
Q&A

Q.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4 관련**

A. 현대시 관련 문항 세트에서는, <보기>로 제시된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기 전에 먼저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항 4」의 <보기>를 살펴보면,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님의 침묵」을 감상하며 화자가 「님」이 부재한 상황에 있으며, 「맹세」와 「티끌」, 「만남」과 「헤어짐」, 「눈물」과 「희망」 등의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음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에게 '모란'은 단순히 하나의 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나 내면적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화자의 삶은 오로지 '모란이 피는 순간'만을 지향하며,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맞이한 봄은 지나가야 하는 봄이고, 봄이 지나가면 모란이 피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환희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봄은 찬란하기만 한 봄이 아니라 슬픔의 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 형용은 이와 같은 환희와 그 소멸로 인한 슬픔이 한데 섞인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는 계절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음성 상징어의 사용 → 화자의 상실감 강조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 떨어져 버린 슬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봄에서 여름이 되어 가는 시기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떨어진 슬픔

모란이 피기까지는

「」: 1, 2행의 변주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도치법

▶ 1, 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봄을 여윈 설움',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자취도 없어지고' 등을 통해 '모란'이 저 버린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보람'이 무너지고 화자가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는 슬픔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수미상관

▶ 3~10행: 모란을 잃은 설움

▶ 11, 12행: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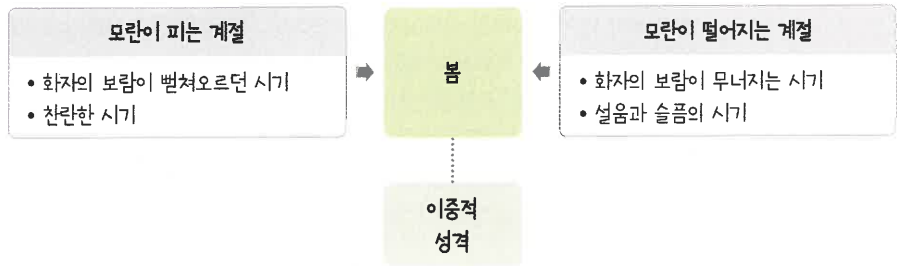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봄'은 화자의 보람인 '모란'이 피는 환희의 계절이면서, 짧은 순간 피었던 모란이 지며 '슬픔'을 느끼게 하는 이중적 시간임을 알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봄'의 이중적 성격 문항 4 관련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삼백예순 날)

모란이 피었다 집.
(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표현상 특징 **문항 3 관련**

역설적 표현의 사용	수미상관의 구조와 변주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찬란한 슬픔의 봄	1, 2행 ≙ 11, 12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 떨어져 버린 • 섬섬해 우습네다
봄의 이중적 의미를 드러냄.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함.	모란이 떨어진 절망감과 상실감을 표현함.

■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드러난 김영랑의 시 세계

김영랑은 박용철, 정지용 등과 더불어 1930년대 순수시 운동을 주도했던 시문학파의 일원이었다. 시문학파는, 1920년대 카프(KAPF)를 중심으로 문학의 정치적, 사상적 경향성이 짙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순수 서정시를 지향하였다. 이에 그동안 내용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문학 경향을 비판하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시구의 음성 구조와 의미 구조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며, 언어의 조각(彫琢: 언어를 매끄럽게 갈고 다듬음.)은 물론 시적 언어의 운율적 특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에는 김영랑의 시문학파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 ‘모란’, ‘~ 태요’와 같은 시어,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ㄴ, ㄹ, ㅁ, ㅇ’과 같은 울림소리를 사용함.
- 짧은 행과 긴 행을 교차하는 시상 전개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과 운율감을 형성함.

EBS
Q&A

Q. 현대시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문항 1 관련**

A. 현대시 관련 문항 세트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항이 종종 출제됩니다. 현대시 작품 세트를 구성할 때에는 각 작품이 묶여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작품의 주제나 의미와 관련된 심층적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요소는 <보기>와 함께 제시되는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문항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로 두 작품 간의 공통점을 묻는 ‘문항 1’의 정답지는 작품의 심층적 주제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1줄 내외의 선지로 서술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화자의 처지, 표현상의 공통점, 시상의 전개 방식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강에 제시된 「님의 침묵」과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태도와 순환의 구조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가 정답지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골방'에서 맞이하는 '황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과 타자 지향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황혼'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황혼'의 품 안에 안긴, 소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소외된 존재에 대한 화자의 포용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황혼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이를 통해 골방과 외부 세계가 연결됨.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화자가 있는 현실적 공간. 방: 외부와 단절된 공간(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이들이노니

공정적인 대상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함.

외로운 존재 색채 이미지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1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

의문형 문장 표현을 통해 인간이 고독한 존재임을 부각함.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남.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소외된 것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

▶ 2연: 소외된 아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소외된 존재 ①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옥에 갇힌 사람

소외된 존재 ②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소외된 존재 ③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소외된 존재들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에게나

소외된 존재 ④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소외된 존재 ⑤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소외된 이들이 사는 지역을 상징함.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

▶ 3, 4연: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

공간적 배경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골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 부분

시간적 배경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감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

▶ 5연: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처음 이 시가 발표된 잡지에는 '정정(淸淸)히'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오식으로 보고 '암암히'로 교정한 초판본 시집의 표기에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상기는 『육사시집(1946)』 초판본에 따라 표기한 것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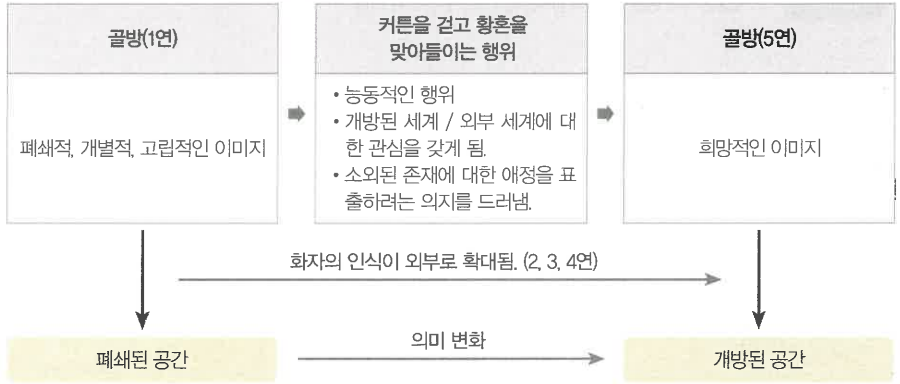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 다오'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소외된 존재를 열거하여 그들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냄.
-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인식을 심화하는 모습을 나타냄.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 '황혼'을 의인화하여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보여 줌.

포인트 2

'골방'의 의미 변화와 시상 전개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육사의 「황혼」, 그리고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시인이 「황혼」을 발표했던 1930년대는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의 삶이 더욱 비참해진 시기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희망을 노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황혼」이다. 시인은 자신과 같이 약하고 소외된 존재가 세상에 많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을 '행상대', '토인들', '수인들' 등으로 형상화하여 모두가 맞이하는 황혼의 시간만은 이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망을 표출한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十二星座) 그 솔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 우리들과 아 - 주 친(親)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未來)를 꾸며 볼 동방(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地球)를 갖는 것 / 아롱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낯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地球)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 목 안에 핏대를 울려가며 마음껏 불러 보자
-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중

→ 위 시에서 '한 개의 별'은 시인이 지닌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아롱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마음껏 불러 보자'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육사는 현실이 암담해질수록, 희망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지니고 이를 자신의 시(詩)를 통해 노래하였다.

EBS Q&A

Q. '방'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방'은 문학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선 백석의 「여우난 굴족(族)」에서 그려진 '방'의 이미지는 유년 시절 고향 집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공간입니다. 또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방'은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으로 형상화됩니다. 경현종의 「자기(自己)의 방(房)」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공간이자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서의 '방'의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하며 하숙방에서 쓴 시로,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떠나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 시인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밤비'로 연결지어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현실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을 거친 시인은 밝은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결심을 밝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현실적 자아와 이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의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

자아 성찰의 시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화자가 놓여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 주는 부분
'욕 첩 방은 남의 나라.'
마루방에 끼는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 6장을 깔아 놓은 방
「.」: 화자가 현재 타국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가 암담한 현실에 직접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를 표출함.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 1연: 타국에서의 슬픈 현실 인식

▶ 2연: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 인식

담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 — 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시대 현실과 괴리감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

▶ 3, 4연: 조국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현재 삶에 대한 회의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상실한 동무들

현실적 자아(무기력한 모습)

나는 무얼 바라

기분 따위가 가라앉음.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아 성찰, 현재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남.

▶ 5, 6연: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자아 성찰의 결과로 얻어진 감정(부끄러움), 자신에 대한 반성

▶ 7연: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인식

욕 첩 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연의 시행을 반복하면서도 변화를 주어 현실을 재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줌.

▶ 8연: 현실 재인식

미래에 대한 희망,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망, 조국의 광복을 위한 암울한 현실(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빈도시 올, 화자의 확신이 드러남.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상적 자아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 현실 극복의 의지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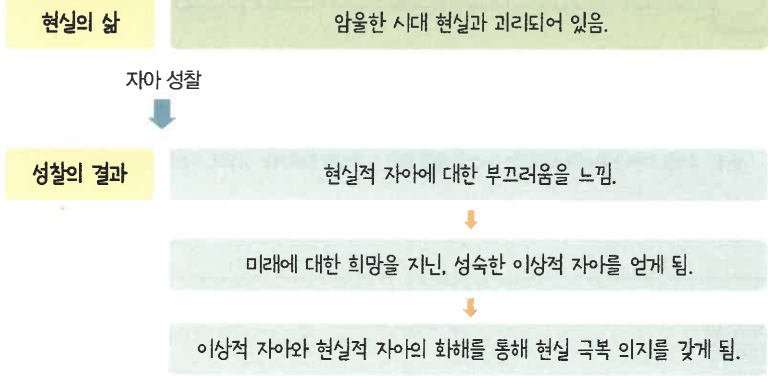
'최초의 악수'에서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어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음.

▶ 9, 10연: 현실 극복 의지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두 자아의 화해 **문항 3 관련**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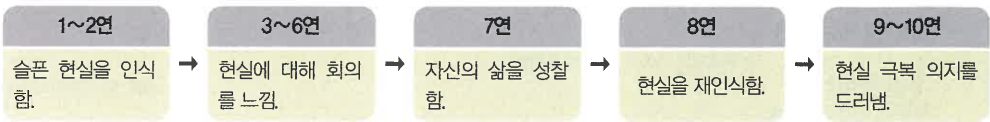
'방'의 의미 **문항 3 관련**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어둡고 고립된 곳으로, 방 안의 모습과 방 밖의 풍경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 중이라는 자신의 처지)	의미 변화 ↓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 부끄러운 일이다.	자아 성찰을 하는 공간(시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최초의 악수.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는 공간(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함), 이전보다 밝아진 공간	

→ 따라서 이 시에서 '방'은 화자가 홀로 있는 고립된 공간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쉽게 씌어진 시」의 시상 전개 방식



EBS Q&A

Q. 운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가 지닌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인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삶이 억압되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참된 삶을 열망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작품은 송고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살아가는 화자가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동을 무렵, 화자는 미달이창에 은은히 붉게 비치는 꽃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꽃이 떨어지면서 드러내는 은은한 붉은빛은, 세상을 피해 꽃과 함께 살아가는 화자의 서글픔이 담겨 있는 빛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내면 상태로 시선을 돌려,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상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주제

낙화에서 느끼는 삶의 비애

꽃이 지기로소니

하강적 이미지

바람을 탓하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태도, 설의법

드문드문 있는

주렴 밖에 성긴 별이

구슬을 꿰어 만든 발

하나둘 스러지고

새벽이 가까워짐(시간의 경과)

귀촉도 울음 뒤에

한(恨)의 상징,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머언 산이 다가서다.

날이 밝아 옴, 활유법

▶ 1~3연: 꽃이 지는 적막한 분위기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아름다운 낙화의 모습, 색채 대비

우련 붉어라.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 4~6연: 방 안에서 느끼는 낙화의 아름다움

문혀서 사는 이의

현실과 단절된 채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

고운 마음을

화자의 관심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함.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염려하고 두려워하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화자의 심정을 직접 드러냄. - 애상감

▶ 7~9연: 꽃이 지는 아침에 느끼는 서글픔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화자가 관조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 결과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해야 함.

관조의 대상 낙화하는 모습 → 아름다움



관조의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함. → 서글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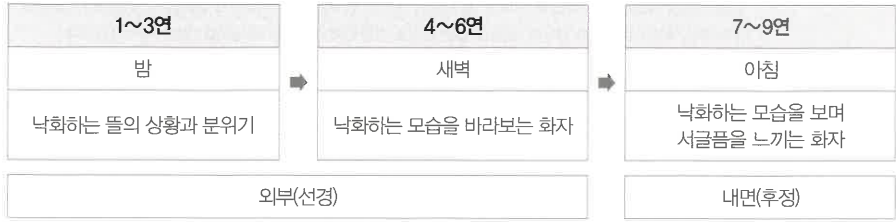
▶ 7~9연: 꽃이 지는 아침에 느끼는 서글픔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시상 전개 방식 문항 1, 2 관련

이 작품은 날이 밝아 오면서 보게 된 낙화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또한 화자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을 관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전통적 시상 전개 방식 중 하나인 선경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인트 2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심정 문항 3 관련

화자는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외부의 힘, 즉 바람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또 화자는 현실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삶이 외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며 '울고 싶어라'라고 자신의 심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서글픔이나 애상감일 수도 있고, 삶의 근원적 무상감과 비애감일 수도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문학 작품에 쓰이는 관습적 상징 - 귀족도

문학 작품에는 특정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 사회 구성원이 널리 알고 있는 표현인 관습적 상징이 사용된다. 우리 문학 작품에 쓰이는 관습적 상징 중 하나가 바로 '귀족도'이다. 귀족도는 두견과의 새로, 동양 문학에서는 자귀, 두우, 망제, 불여귀 등으로 불리며 애상을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김소월, 서정주 등의 시에도 자주 인용된다. 조지훈의 「낙화」 3연에 나오는 '귀족도 울음'은 삶의 우수와 무상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고조하고, 쓸쓸하고 어두운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EBS Q&A

Q.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미적 범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항 2 관련

A.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미적 범주, 즉 미의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아미'는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각으로 느끼고 순응하려는 자세에서 오는 감정과 관련 있는 미의식이고요, '송고미'는 그 대상이 지닌 바람직한 특성을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오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미의식입니다. 또 '비장미'는 대상에서 발견한 특성을 추구하고자 하나 현실적 여건으로 좌절될 때 나타나는 감정과 관련한 미의식이고, 마지막으로 '골계미'는 대상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고의로 추락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의식입니다. 조지훈의 「낙화」에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인 '우아미'와 그 장면을 보며 화자가 떠올린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는 슬픔인 '비장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반려(伴侶)로 삼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하며, 그러한 플라타너스를 외로운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시어를 구사하여 사상을 압축하고 있으며, 리듬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시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청자, 의인화 - 친근감의 표현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꿈과 이상을 지닌 플라타너스

▶ 1연: 꿈을 가진 존재인 플라타너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가치나 힘 타인을 위해 그들을 만들어 주는 넉넉한 사랑을 지닌 플라타너스

▶ 2연: 넉넉한 사랑을 주는 플라타너스

먼 길에 올 제,
화자가 살아온 날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화자와 힘든 길을 함께 걸어온 플라타너스

▶ 3연: 외로운 '나'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화자와 플라타너스의 유한성 인식

▶ 4연: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 플라타너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자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죽음, 무덤, 영혼의 인식처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곳

▶ 5연: 영원한 반려자로 삼고 싶은 플라타너스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해야 함.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나'라고 표면에 직접 드러내고,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는 '너'로 플라타너스임. 이렇게 지언물인 플라타너스를 '너'로 칭하며 말을 건네는 의인법을 사용한 것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플라타너스'가 지닌 덕성 **문항 2, 3 관련**

파이란 하늘에 젖어 있다.	파이란 하늘은 꿈과 이상으로, 플라타너스가 그 하늘에 젖었다는 것은 꿈과 이상을 지닌 존재임을 표현한 것임.
그늘을 늘린다.	그늘은 어려운 처지의 타인을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플라타너스가 그늘을 늘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넉넉한 사랑을 지닌 존재임을 표현한 것임.
나와 같이 걸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와 같이 걸었다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화자에게 동반자와 같은 존재임을 표현한 것임.

포인트 2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생관 **문항 2, 3 관련**

화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는 인간이 신과는 달리 유한한 존재임을 인지한 것으로, 결국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고 싶다는 것은 외로운 인생에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에 나오는 물음의 의도

이 시의 첫 연과 둘째 연에서 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청자인 플라타너스에게 직접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음 뒤에는 곧바로 '플라타너스'를 호명하며 화자가 관찰한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로 볼 때 화자의 이런 질문에는 화자가 주목한 플라타너스의 모습에 독자 또한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무정물(無情物)인 플라타너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정도로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 5연에도 다시 한번 의문문의 형식이 활용되는데, 이는 질문의 대상인 플라타너스를 영원한 동반자로 삼아 살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BS Q&A

Q. 시에 나오는 자연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항 3 관련**

A. 시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흔히 쓰이는 것이 자연물입니다. 시에 나오는 자연물은 화자의 처지나 감정을 드러낸 존재일 수 있고,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투영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미적 충일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제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화자가 자연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작품에서 자연물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자연물을 통해 시인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가을 도봉산을 배경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 무렵부터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까지의 시간 변화를 바탕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화자는 '가을 산'을 통해 고독과 적막, 쓸쓸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내며 사상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주제

적막한 가을 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과 그리움

산(山)새도 날아와 / 우짚지 않고,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구름도 떠가곤 /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 홀로 앉은

「: 외롭고 고독한 시적 분위기의 형성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해 공허함을 부각함.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정각적 이미지를 통해 적막감과 공허함을 형상화함.

산그늘 길게 늘어지며 / 붉게 해는 넘어가고

낮이 지나고 밤으로 접어드는 무렵, 소멸의 이미지

황혼과 함께 /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 고독하고 괴로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남.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게 하는 대상

긴 밤과 슬픔을 갖거나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 그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냄.

어느 마을에서 쉬는노.」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을'이며,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어스름'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배경은 생명의 이미지에서 소멸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또 공간적 배경은 '가을 산'으로 '울림'이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공간임.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화자의 처지와 조응하여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3연: 가을 산의 적막한 정경

▶ 4, 5연: 적막한 산에서 느끼는 '나'의 외로움

▶ 6~8연: 생과 사랑에 대한 '나'의 자각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9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 긴 밤과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그대'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또 10연에서는 화자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그대'는 외롭고 고독한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견디도록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 9, 10연: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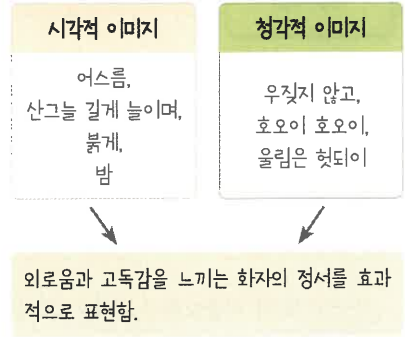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배경 문항 2 관련

화자의 정서가 시·공간적 배경에서 느껴지는 시적 분위기와 조응하며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포인트 2

감각적 이미지의 효과적인 사용 문항 1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도봉」의 창작 배경과 의의

「도봉」은 1940년 무렵 박두진도 도봉산에 올라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 느낀 심경을 읊은 서정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도봉」이 창작되던 시기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가혹해질 무렵이었으며, 시인은 이러한 비극적인 민족의 처지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줄곧 도봉산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봉」을 창작한 후에도 시인은 울적할 때면 혼자 휘파람을 불며 「도봉」을 읊조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 알 정도로 자주 읊조렸다고 한다.

「도봉」은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을 산의 적막감과 응답 없는 부름으로 표현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기에 시인의 절망감과 고뇌를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을의 적막한 도봉산을 바라보는 시인의 사색적인 태도는 인생을 관조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현실 도피의 폐쇄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개방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EBS Q&A

Q. 현대시를 공부할 때,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시인의 경향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문항 4 관련

A. 기본적으로 현대시를 특정한 관점이나 고정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는 독자의 상황과 처지,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독자에 따라 창조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될 때 그 의미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의 감상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창작된 배경이나 시인의 작품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사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문학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던 우리 문학의 경우, 작품의 창작 배경과 시인의 작품 경향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전후, 산업화, 민주화 시기 등에 창작된 작품들이나 이 시기에 뚜렷한 작품 경향을 보인 시인이 있다면, 이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주된 작품 경향을 가진 시인이 창작한 작품이거나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해서 이러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이해하거나 특정한 관점의 해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사람'은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을 찢고 피어날 대상으로, '그 사람'의 부재는 곧 화자가 경험하는 슬픔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곳저곳을 헤매며 '그 사람'을 찾는 노력은 모두 무위에 그치고 화자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주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반복을 통해 '그 사람'이 부재한 상황을 강조함.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끈 눈물로 숨은 그 사람 / 오늘도 보이지 않네

▶ 1~5행: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드러남.

모낸 눈 가득 개구리들 울어 / 저기 저 산¹만 어렵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 6~8행: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

의인법,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개구리의 울음과 거센 들불 속에서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

들을 밝히지만 /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사람'이 부재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함.

언젠가, 아 언젠가는 / 이 칙칙한 어둠²을 찢으며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나타남.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예찬적 태도

▶ 12~15행: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 사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부정적 현실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저문 들길에서도 /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 16~20행: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시·공간적 배경: '그 사람'이 부재한 부정적 상황을 상징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개구리들 울어', '칙칙한 어둠'과 같은 시구에서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는 '그 사람'이 부재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함.

▶ 9~11행: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저기 저 산'이 '어깨 들먹이며 울고'라는 표현을 통해 의인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음.

이것만은 꼭 의하자 핵심 개념

포인트

'그 사람'의 의미 문항 3 관련

저문 들길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숨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불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

현실 속에 부재한 사람

그 사람

기대림과 그리움의 대상

하루 종일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사람

어두운 현실을 증식할 사람

2

반복을 통한 강조의 효과



3

이미지의 활용 **문항 1 관련**

시각적 이미지	'보이지 않네', '착칙한' 어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의 부재 • '그 사람'이 부재한 암울한 상황
촉각적 이미지	'뜨건 눈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
들불의 이미지	'들을 뚫고 치솟아'	➔	치열함, 뜨거움
꽃의 이미지	'꽃처럼 피어날', '남산 꽃 같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움, 향기로움 • 밝음, 희망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그리운 그 사람」의 창작 배경 **문항 4 관련**

「그리운 그 사람」은 1988년 발간된 시집 『꽃산 가는 길』에 수록된 작품이다. 1982년 「섬진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용택 시인은 절제된 서정적 시어를 통해 문학성 높은 시들을 창작하면서도, 1980년대에 등장한 신군부의 집권과 농촌의 퇴락을 비판과 풍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그의 작품 속에 담았다. 1988년 발간된 시집 『꽃산 가는 길』에 시인이 남긴 후기에서, 그는 '시대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며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조금씩 깨달아 간다.'라고 말하는 한편, 1987년 6월 혁명으로 인해 발표했다던 신군부의 6·29 선언을 '속이는 비'라고 규정하고 '참으로 비가 쏟아져 타들어 가는 곡식을 적실 날이 올 것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운 그 사람」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종식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과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BS
Q&A

Q.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반복법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현대시를 공부하다 보면, 유사한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전 시가에서도 반복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리듬감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시의 의미와 관계없이 읊음, 시어, 시구 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현대시의 반복법은 리듬감의 생성뿐만 아니라 의미 요소와 관련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그리운 그 사람」에서 반복되는 '그 사람'이라는 시구는 독자로서 하여금 '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해석하고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 '보이지 않네'라는 시구의 반복은 '그 사람'이 부재한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시의 반복법은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대시를 감상할 때 특정 시어나 시구가 반복된다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상 포인트

195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현재와 대조되는 과거의 순수한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현대 문명을 '회유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으로 형상화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의 병폐가 없었던 순수했던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그려 내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세계인 과거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향아'라는 특정한 청자를 호명하며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

시적 청자: 순수한 존재를 의미함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아침과 저녁으로

비지던

◇: 청유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순수한 세계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냄.

▶ 1연: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기를 소망함.

○: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의미함.

수련거리는(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수선스럽게 자꾸 지껄이는)

걸쭉한

수수룩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

정각적 심상,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 냄.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그려 냄. 직유법

▶ 2연: 행복했던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

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 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그려 냄. 직유법

▶ 3연: 전설 같은 풍속이 있는 옛날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상층적 이미지, 빙빙 맴돌아 타래 모양으로 올라가게 하는

□: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시적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줌.

노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유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낯 빼앗기지 말고

순수했던 과거 고향의 모습을 담은 노동자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

평화롭고 소박한 농촌 공동체의 삶의 공간을 보여 줌.

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생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

▶ 4연: 문명에 병들지 않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교만 내자

물질문명을 모방하는 행위, 가식적인 행위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

소박한 삶을 살던 고향에서의 삶의 모습

절 밤 비단 치마를 나누끼며 때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의 모습

돌아가자.

▶ 5연: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 허식: 실속이 없이 겉만 꾸밈.

* 콩바심: 거두어들인 콩을 두드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3연과 5연에서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과거의 삶이 지닌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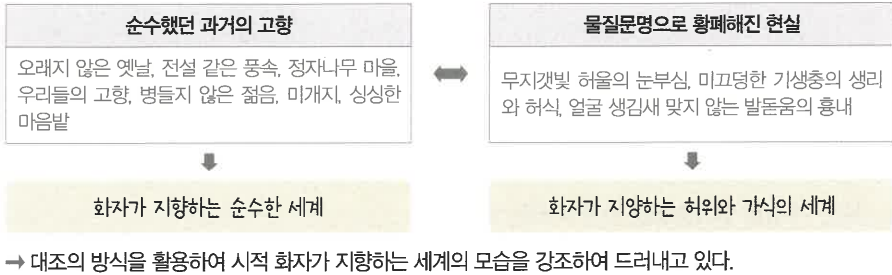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시적 청자인 '향아'를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청자와 공유한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킴.
- 청유형의 문장 표현과 특정 시구의 반복을 활용하여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지양하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 냄.

포인트 2

시어의 대조와 그 효과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신동엽 시에서의 '고향'의 의미**

「향아」는 신동엽이 갓 등단한 1959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현대 문명이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순이 사라진 유토피아적 세계를 실현해야 함을 역설하는데, 이때 「향아」에서 유토피아적 세계로 내세운 것이 과거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고향'인 것이다.

신동엽 시에서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난 이유는 그가 지닌 외세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타락한 현대 문명이 외세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이 위기에 놓였다고 여겼다. 또한 그는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분단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세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신의 시를 통해 드러내었는데, 아래의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봄은 / 남해에서도 북쪽에서도 △: 외세
오지 않는다.
남북 통일

너그럽고 /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통일의 기운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 국토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겨울은, /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분단의 현실
이제 울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
우리들 가슴속에서, 통일, 우리 국토
움트리라.
우리 민족, 통일의 주체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마음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후물후물 / 녹여버리겠지,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대립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

- 신동엽, 「봄은」

→ 이처럼 신동엽은 외세와 그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상황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그의 시에서 표출하였다.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자연물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자연물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 주는 양
심심풀이

저 혼자 재재거리다 말고 간다.

씨는 말복(未伏) 절 저녁 셋째

귀창 터지거라

「 」: 감정 이입, 몰락한 농촌의 현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이 드러남.
쓰르라미만 쓰르라리게 울고 있더라.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씨는 말복 절'과 같이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폐가를
보며 느끼는 화자의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음.

▶ 3연: 폐가를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움

* 연착: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색은새: 오래되어 색은 이영

* 오쟁이: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을 가리킴



이것만은
꼭
악히자
핵심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함.
-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찰한 대상을 현장감 있게 묘사함.
- '폐가'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농촌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활용하여 농민의 삶을 보여 줌.

포인트
2

액자식 구조

[1연, 3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의 모습을 묘사함.

[2연]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농민의
사연을 짐작함.

→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외딴집'의 상징적 의미 문항 3 관련

이 시에서 '외딴집'은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되어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로 그려지고 있다. 보통 '외딴집'이 고독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이 시의 '외딴집'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시인은 농민이 이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문명과 도시 개발에 의한 자연 파괴로 인해 보금자리를 상실한 채 쫓기는 신세로 전략해 버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성북동 산에까지 문명이 침투하면서 본래 그곳에 살던 비둘기는 보금자리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다. 결국 비둘기는 가는 곳마다 인간 문명에 쫓기며 인간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누리던 옛날을 그리워하게 된다. 화자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도시 문명의 부작용과 해악을 절제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주제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인간의 삶의 터전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연을 대표함 비둘기의 삶의 터전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청각적 이미지)
가슴에 금이 갔다
비둘기의 슬픔과 괴로움(시각적 이미지)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 인간과의 공존을 바라는 비둘기의 태도를 형상화함.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 1연: 자연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문명에 의해 파괴된 식막한 공간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문명의 폭력성(청각적 이미지)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과거를 그리워함.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에 입을 댄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위

▶ 2연: 인간과 어울려 살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문제 해결기 문항 2 관련

이 작품에서 '비둘기'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외받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시적 맥락에 따라 자연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폭력적인 인간 문명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소외받는 인간들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처지로 전략했는지를 살펴야 함.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과거의 비둘기의 모습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인간과도 공존할 수 없게 됨.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현재의 비둘기의 모습

▶ 3연: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잃어버린 비둘기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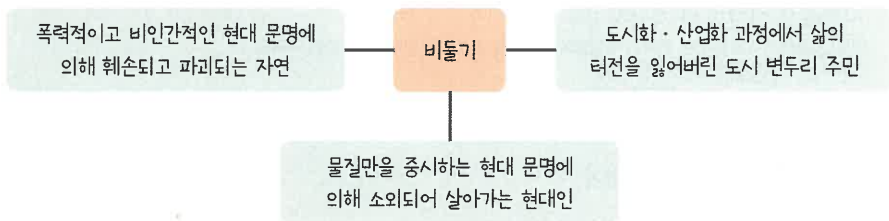
포인트
 1

작품에 활용된 표현 방법 문항 1, 2 관련

- 대비의 방식: 1연에서는 인간의 번지가 생기며 비둘기의 번지가 사라짐, 3연에서는 과거의 비둘기의 모습과 현재의 비둘기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비둘기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함.
- ‘둘 깨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 등의 청각적 이미지, ‘금이 갔다’, ‘지붕에 올라 앉아’ 등의 시각적 이미지, ‘굴뚝 연기’ 등의 후각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문명의 폭력성과 이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된 비둘기의 모습을 형상화함.
- 비둘기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비둘기가 인간과 밀접한 존 재임을 나타냄.

포인트
 2

시어의 함축적 의미 문항 2 관련



번지	▶ 자연과 인간이 각각 살아온 삶의 터전
마당	▶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산울림, 포성	▶ 폭력적인 문명의 횡포
사랑과 평화	▶ 자연이 파괴되기 이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던 시절에 지녔던 사상

EBS
Q&A

Q. 우화적(寓話的)과 우의적(寓意的)은 어떤 관계인가? 문항 2 관련

A. 우화적 표현이란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의적 표현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화적 표현은 설정만 동식물이지만 실제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우의적 표현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물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화도 우의적 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화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밖으로 나 있는 보이는 길만 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내면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사람들'은 오만하여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만 안다고 여기는 이들로,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자세로 길을 바라본다. 하지만 '길'은 순순히 그런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고 인간의 오만이 그릇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길'을 의인화하여 인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인생길,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사람들이 길을 만든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길을 주체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함. 의인법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삶에서 겪게 되는 시련, 고난의 상황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일부러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오만함을 일깨워 주는 길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길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슬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믿는 사람들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시련을 겪음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교훈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 1~6행: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길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의 문물을 경험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함.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 이치를 가르치는 것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외부 내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자아 성찰, 자아 탐색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길이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진정한 길의 의미를 아는 사람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 길이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들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맘을 식히게도 한다,

▶ 7~15행: 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겸손해진 모습,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

▶ 16~21행: 깨달음을 얻은 후 겸손해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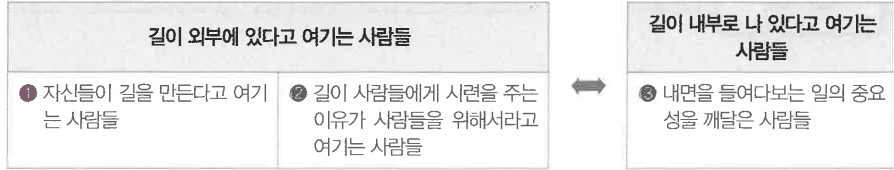
문제 해결기 문항 3 관련

화자는 '길'의 종류를 '밖으로 나 있는 길'과 '안으로 나 있는 길'로 구분함. 화자는 전자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길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여기는 반면, 후자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지닌 이들로, 진정한 길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라 밝히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화자가 인식하는 '사람들'의 종류 **문항 1, 3 관련**



포인트 2

'길'의 상징적 의미 **문항 3 관련**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하는데, 이 작품도 인생, 혹은 삶의 방법을 '길'에 빗대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만든다고 오만을 부리기도 하고, 혹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으면 이 시련이 다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위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적 성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아는 이들에게 인생은 진정한 혜택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길과 사람의 관계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작품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사람인 자신들이 주체이고 길은 그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오는 객체로 인식한다. 하지만 후자는 주체가 길이고 객체인 사람은 그저 길의 뜻대로 따라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나아가 후자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길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 주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화자는 마지막 사람들이 진정으로 길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자세로 자아를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다.

EBS Q&A

Q. 시의 주제를 파악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인은 짧은 글 속에 화자의 경서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공간의 이동일 수도 있으며, 대상의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말한다'와 '말하지 않는다'가 대비되고 있는데, 이 서술어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면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처럼 작품을 빠르게 읽고 구조화하면 주제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올라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시인은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려 하였다.

주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중의 지력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동일한 어미의 반복 → 누룩(민중)의 속성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파편화된 민중의 무력함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누룩이 뜨거워지는 계기, 민중의 인식이 각성되는 계기
살며시 더운 가슴 / 그 사랑을 알겠느냐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민중의 고통을 상징함

지 혼자서 찾는 길이 /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민중의 동료의식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냄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민중의 자기희생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민중의 자기희생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또 다른 민중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¹을 알겠느냐

민중의 연대 의식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민중의 기쁨과 환희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 냄새 퍼지나니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드러남.

▶ 5연: 발효하여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각 연에서 '느냐'라는 의문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룩', 곧 민중의 속성이 강조됨. 또 이는 특정한 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서 독자들에게 중심 소재인 '누룩'에 초점을 두고 시를 감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문제 해결기 문항 2 관련

'누룩'이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다고 하였으므로, '물'은 '누룩'이 떠 발효되도록 촉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의인법을 통해 드러나는 '누룩'의 의미 **문항 1 관련**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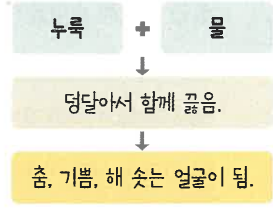
상징적 표현의 사용 **문항 1, 2 관련**

시어, 시구	상징적 의미
누룩, 물	민중
알맞은 바람	민중이 일어서는 계기, 동기, 사건
더운 가슴	민중의 열정과 사랑
밤새도록 우는 울음	민중의 고통
엄동설한	엄혹한 현실
(퍼지는) 냄새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민중의 승리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누룩」에 나타난 민중의 연대 의식 **문항 2, 3 관련**

이 시에서 민중을 상징하는 누룩은 물을 만나 함께 열정적으로 끓어오름으로써 기쁨과 환희의 상태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1980년대 초반에 창작되었고, 민중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담은 시를 많이 창작했던 시인의 작품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누룩과 물의 결합은 곧 억압적 정치 현실을 민중의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러한 민중의 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970, 1980년대의 민중시

민중시는 폭압적인 정치 현실과 산업화로 비롯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면서 민중의 삶과 경험적 진실을 노래했던 시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의 민중시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폐쇄성에 저항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민중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주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소외된 민중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의 실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경향으로 발전하였으며 다소 과격한 시어와 이념적인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민중시를 창작했던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신경림, 이성부, 조태일, 정희성, 김지하, 박노해, 백무산 등이 있다.

EBS
Q&A

Q. 「누룩」의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떠한가요?

A. 「누룩」을 감상할 때에는,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연은 아직 누룩이 뜨지 않은 상황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 누룩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연은 뜨거워지던 누룩이 삭기 시작하고, 3연에서는 이렇게 누룩이 부서지며 발효의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4연에서는 누룩이 물속에서 발효되어 술이 되고, 5연에서는 누룩의 발효로 빚어진 술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누룩」은 곧 「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은 곧 평상시에 무기력하고 보잘 것없던 민중이 어떤 계기를 통해 뜨거워지며 자기희생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 민중에 대한 시인의 믿음과 애정,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얼어붙은 강물'로 표현된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얼은 강물이 녹아 물이 되어 자연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민중이 서서히 생명력을 회복하고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기대가 형상화되어 있다. '얼음', '강', '물', '풀잎'과 같은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아희들'이라는 칭자를 설정하여 억압적 정치 현실을 극복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작가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의 극복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

얼음을 깬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
강에는 얼은 물

꽤수룩 청정한

맑고 깨끗한, 상상하고 푸르른
소리가 난다

▶ 1~4행: 얼은 물을 깨는 행위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 5, 6행: 스스로 녹아 소리를 이루는 강물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혹독하고 부정적인 현실 생명의 태동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화자가 설정한 청자,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풀잎에 생명이 깃들.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물'은 '얼음'이 녹거나 깨지며 흐르는 상태가 된 것으로,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풀잎에도 운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음.

▶ 7~10행: 얼은 물이 녹아 회복되는 자연의 생명력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부정적 현실이 극복된 상태를 의미함.
아희들아

▶ 11~15행: 얼은 물을 깨며 강물이 흐르기를 고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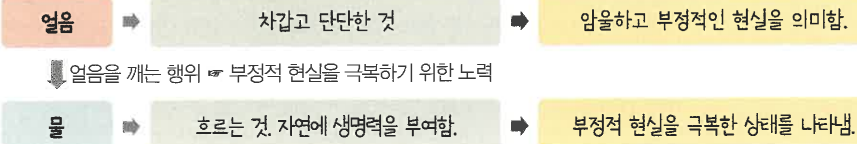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또한'이라는 시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물'은 '죽은 땅'의 목청을 틀 뿐만 아니라 '풀잎에도 운다'고 하였음. 그러므로 '또한'은 '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생명의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라고 볼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얼음'과 '물'의 상징적 의미 문항 2 관련



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의미 전달

청정한 소리	➔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얼음이 깨어지는 소리로 맑고 깨끗한 소리, 싱싱하고 푸르른 소리를 연상하도록 하여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는 양상을 드러냄.
물소리	➔	얼은 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로 차갑고 단단한 얼음이 변화하여 죽은 땅과 풀잎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소리로 볼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아희들'을 부르는 행위의 의미 **문항 1 관련**

「얼은 강을 건너며,에서 화자는 '어린 아희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1974년은 유신 독재로 억압적인 정치 현실 속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현실은 이 작품에서 '얼음', '얼은 물', '겨울', '죽은 땅'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죽은 땅'과 '풀잎'이 생명을 회복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얼음을 깬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행동은 곧 '이 나라'에서 살아갈 미래의 주역인 '아희들이' 더 이상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또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는 것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희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 1970년대 정희성의 작품 경향

정희성의 초기 시들은 전통적인 것, 신화적인 것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품들이었으며, 언어적 압축, 절제와 균형미, 서정성 등을 추구하는 작품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 맞서는 시인의 시대적 사명감을 중시하며, 사회적 신념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와 밀착된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그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형상화하였으며, 시적 형식의 자유로움과 역동적인 감성을 통해 민중의 건강함과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 같은 그의 작품 경향으로 인해 정희성은 1960년대에 참여시를 개척했던 김수영, 신동엽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BS
Q&A

Q. 시어나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항 3 관련**

A. 학생들이 현대시를 공부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어나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징은 대부분의 시에서 시적 의미와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같은 표현이나 시어라고 해도 그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시에서는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알아 두면 다른 시에 등장하는 시어나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얼은 강을 건너며」에 등장하는 '얼음'이나 '겨울'이라는 시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혹독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형적 상징에 해당합니다. '물' 또한 많은 시에서 생명의 원천 또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형적 상징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하는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시를 감상하며, 이러한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되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알아 두고 이를 다른 시의 감상에 적용해 보면 시의 해석과 감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가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연약한 나비가 바다 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좌절을 시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나비의 순진함과 현실의 냉혹함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비애감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흰나비를 가리킴. 바다의 깊이 냉혹한 현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나비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나비의 순수성을 강조함. 냉혹한 현실

▶ 1연: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나비가 동경하는 공간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연약한 나비의 모습을 보여 줌.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냉혹한 현실을 경험함.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데서 오는 연약함과 무기력함

▶ 2연: 바다로 내려갔다 지쳐서 돌아온 나비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바다의 무생명성 좌절된 꿈으로 인해 나비가 느낀 비애감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 냉혹한 현실로 인해 나비의 꿈이 좌절됨.

▶ 3연: 냉혹한 현실 속에 좌절된 나비의 꿈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색채의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 세계에 좌절하는, 순수한 나비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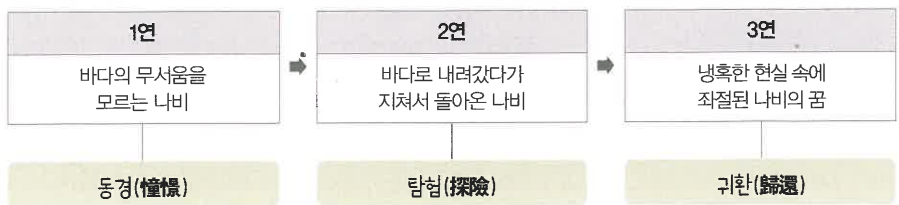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나비'의 여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무섭지 않다', '시리다'와 같이 '-다'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순수한 '나비'가 냉혹한 현실로 인해 꿈이 좌절된 상황을 객관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게 그려 냄.
-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비'의 순수한 모습과 '나비'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형상화함.
-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비의 꿈이 좌절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려 냄.

시의 구조 2



포인트
3

시구의 의미 **문항 2, 3 관련**

나비	대조	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바다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함. • '어린 날개': 어리고 약한 존재 •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탐험으로 알게 된 냉혹한 현실로 인해 비애를 느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무우발인가': 나비가 기대하는 공간이자 나비에게 익숙한 공간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나비의 기대와는 다른 냉혹한 현실

→ 꽃밭을 날아야 할 나비가 바다 위를 비행하는 내용을 통해 나비의 힘겨운 모험을 부각하고 있다.



■ '초생달'의 의미

힘겨운 비행으로 지쳐 버린 '흰나비'가 마주한 계절은 '꽃이 피지 않'은 '3월'이다. 비행에서 돌아온 나비에게 휴식을 취할 만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비의 비애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비 허리'를 시리게 한 '새파란 초생달'은 바로 나비의 비애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바다와 나비'에 대한 평가 **문항 3 관련**

'바다와 나비'는 1939년 4월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이 작품이 수록된 시집 『바다와 나비』(1946)의 머리말이다.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벌써 피할 수 없는 '근대' 그것의 파산의 예고로 들렸으며 이 위기에선 '근대'의 초극이라는, 말하자면 세계사적 변민에 우리들 젊은 시인들은 마주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윤여탁과 이승원은 '나비'에 대해 시인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던 3월에 현해탄을 건너며 느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말한다. 또는 '나비'를 시인과 같은 지식인으로 보고, 이 시는 그들 자신이 추구한 근대적 가치의 허구성을 깨닫고 느낀 비애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 시는 당대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Q. 알레고리가 활용된 작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항 3 관련**

A. '문항 3'은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에 활용된 알레고리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란 'allos'와 'agoreuein'이 합쳐진 말로서, '다르게 말하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알레고리 구조가 활용된 작품을 감상할 때에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규명해 내야 합니다. 우선 발화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의 행위, 배경을 정리하며 표면의 이야기를 파악해 보세요. 다음에는 작가의 삶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참고해 이를 표면의 이야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작가가 직접 발화하지 않은 이야기, 즉 이면에 감춰진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도 성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허위로 가리는 당대 정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완전히 극복해 낼 수 없는 상황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허위로 가득 찬 현실과 현실 순응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당위가 들어 있다.

주제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언제나 안개가 짙은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보여 줌.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 않는다'의 표현을 반복하여 안개의 나라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냄.

어떤 일이 일어나도

'.' : 억압적 정치 현실로 인해 삶에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을 의미함.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 :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안개의 나라'의 상황을 드러냄.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즉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 1~9행: 안개의 나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 :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귀는 자꾸 커진다.

▶ 10~14행: 안개의 나라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 15~17행: 안개의 나라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의 모습

'.' : '하얀 안개의 귀'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한 노력으로도 그 상황을 완벽히 극복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남. 이는 그 정도로 암담한 당대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작품에서는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안개의 나라'와 그곳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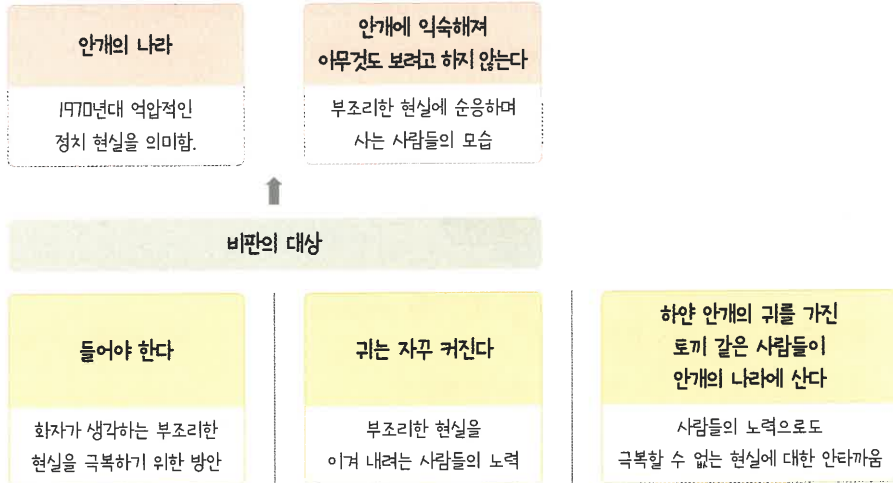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운항 1 관련**

-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현재 시제의 표현을 활용하여 '안개의 나라'의 상황을 보여 줌.
-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안개의 나라'와 '토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함.

포인트
2

시구의 의미 **운항 2, 3 관련**



→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낼 수 없었던 시기에 시인은 알레고리의 방식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김광규 시인과 역사 의식**

역사의식이란,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을 말한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언제부터인가 / 4월은 해마다 오기만 하고 / 가지 않는다
진달래 개나리 곳곳에 피어나고 / 라일락 향기 깊어지면
찢어져 바랜 깃발 다시 펴려고 / 옛날에 다친 허리 뜨끔거린다
- 김광규, 「사오월」 중

→ 시인은 4·19 혁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바라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
어디선가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
희망은
절대로
외래어가 아니다
부정적인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
- 김광규, 「희망」 중

→ 시인은 「희망」에서 '절망의 시간에도 /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이라 말하며 부정적인 현실이 변화하기를 소망했다. 이처럼 그의 시에서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인 것이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도시에서 사는 '나'와 농촌에서 사는 할머니의 대조적 삶의 자세를 참깨를 터는 상황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조금하게 힘을 주어 참깨를 터는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술술 막대기질을 하여 참깨를 터는 할머니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인물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꾸짖하는 할머니의 말에는 성급해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주제

참깨를 털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순리에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터다.

시간적·공간적 배경 살의 연륜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한 인물
보아하니 할머니는 **술술 막대기질을 하지만** ○ 음성 상징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
조바심을 내는 이유 삶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인물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 1~4행: 할머니와 달리 힘을 다해 참깨를 터는 '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태도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왜감이

도시에서의 삶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 작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음.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까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댄다.

▶ 5~11행: 한 번에 많은 양의 참깨를 털며 쾌감을 느끼는 '나'

한 번을 내리쳐도 수많은 알맹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이 난.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이 반영된 생각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성급해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충고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짖음**을 듣기도 했다.

▶ 12~16행: '나'의 행동에 대한 할머니의 꾸짖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

문제 해결 키 문항 2, 3 관련

화자는 조금하게 서두르며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할머니는 느긋하게 순리를 따르려고 함. 이처럼 이 작품에서 화자('나')와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행위가 대비되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태도에 담긴 삶의 가치관을 파악해야 함.

할머니	술술 막대기질을 함.
↑ ↓	
'나'	힘을 더해 내리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할머니'와 '나'의 대조적 삶의 방식 문항 2, 3 관련

할머니	↔	'나'
슬슬 막대기질을 하며 느긋하게 찜개를 타심.		조급하게 서두르며 힘을 더해 찜개를 톺.

↓	↓
조급해하지 않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함.	작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 순리를 거스르려고 함.

→ 빨리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순리를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진리를 깨달은 할머니와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나'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려 한다.

포인트 2

대비되는 공간의 설정 문항 2, 3 관련

도시	↔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 사는 공간 • 조급하고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는 공간 • 결과만 중시되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가 계시는 공간 •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 •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되는 곳

→ 도시의 삶에 젖어 있는 '나'가 할머니가 사는 농촌에서 농촌 체험을 하는 내용이 형상화되어 있다.

포인트 3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음성 상징어의 사용	인물의 말 인용
슬슬, 쇠아쇠아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	↓
'슬슬'은 할머니가 찜개를 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조급해하지 않고 순리대로 찜개를 타는 할머니의 태도를 형상화함. '쇠아쇠아'는 찜개를 톺 때 나는 소리로, 찜개를 타는 화자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음.	할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화자의 잘못된 행위,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생각을 지적하고 있음.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됨.

EBS Q&A

Q.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주제 의식은 무엇일까요? 문항 2 관련

A. 표면적으로 보면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라는 할머니의 꾸중에 작가의 주제 의식이 담겨 있어요.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할머니와 '나'로 대표되는 농촌과 도시, 전통과 현대의 대비를 통해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을 비판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과 인연의 의미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배를 밧줄로 매는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사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사랑이란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시작되며, 배를 맬 때 배를 둘러싼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이 사랑 또한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배'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제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음성 상징어 사랑, 인연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사랑이 시작됨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의 대상

▶ 1연: 배를 매어 본 경험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고요한, 쓸쓸하고 외로운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닢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 :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사랑(사랑의 불가항력성)

배를 매게 되는 것

문제 해결 키 문항 2, 3 관련

배를 매는 일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파악해야 함. 곧 배를 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본질을 유추해야 함.

▶ 2연: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 사랑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사랑을 둘러싼 주변 환경

떠 있는 배

▶ 3연: 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발견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받아들이는 것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4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애정과 행복 설렘과 떨림

온종일을 떠 있다

온종일 사랑의 감정에 싸여 있는 상황을 나타냄.

▶ 5연: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배를 매는 일'과 관련된 사랑의 본질 표현 문항 2, 3 관련

배를 매는 일
아무 소리나 말도 없이 등 뒤로 밧줄이 날아옴.
배가 아주 천천히 조용히 멀리서부터 달음.
우연히 던져진 밧줄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배를 맨.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짐.
빛 가운데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음.

사랑의 본질
➡ 사랑은 갑작스럽게 시작됨.
➡ 사랑하는 대상이 조심스럽게 다가옴.
➡ 사랑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며, 그런 사랑은 운명적인 것임.
➡ 사랑은 그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
➡ 사랑이 시작되면 설렘과 떨림으로 온종일을 보내게 됨.

포인트 2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배가 처음 달기 시작할 때부터 배를 맨 후 온종일 배가 떠 있는 상태까지 표현함.
유사한 사구의 반복	'~ 없이', '~ 것'의 사구를 반복하여 운율의 효과를 얻음.
음성 상징어의 사용	'탈색'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사랑이 시작된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포인트 3

시어에 담긴 화자의 태도 문항 3 관련

뛰어가 밧줄을 잡았다	기다리던 사랑의 상대가 다가오자 반가운 마음으로 상대를 맞이하려는 태도를 나타냄.
별 그릴 일도 없으면서 놔 놓고 앉았다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있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사랑의 우연적 속성을 나타냄.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사랑의 경험을 통해 화자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냄.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	하루 종일 설렘과 떨림으로 지낼 만큼 사랑이 깊어졌음을 나타냄.

EBS Q&A

Q.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항 3 관련

A. 시어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 해석의 시작과 끝은 시어의 함축적,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는 의미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나 추상적 개념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시를 빠르게 읽은 후 시인이 작품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정서나 생각을 파악한 후 맥락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작품에서 배를 매는 일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는 일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밧줄이 사랑임을, 부딪기가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 곳임을, 구름과 빛과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별로 인한 아픔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임이 잊혀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너'와 이별한 열흘을 마치 심년을 지내 온 것처럼 여기며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고 언젠가는 이러한 고통과 열정의 시간마저 망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고통과 안타까움

너 떠나간 지

실제 경과한 시간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함.

내 피의 달력으론 십 년 되었다

▶ 1연: 이별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너'가 부재한 부정적인 상황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너'가 없음에도 변함없이

끼니 오면 반복되는 일상

입안 가득 밥알 떠 넣는 일이다

▶ 2연: 일상 속에서 잊혀 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

옛날 옛날 적

'너'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무덤덤한 대상이 되어 감.

그 사람 되어 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 3연: 사랑과 이별이 섞여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비록 아프지만 '너'를 잊지 않은 채로 있으면

그래서 숨 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 4연: 이별한 임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2연의 '슬픈 것'보다 더 큰 이별의 아픔을 자칭함.

언젠가 너와 내가

미래의 시간을 나타냄.

이 뜨거움 까맣게

'너'와 '나'의 사랑

있다는 일이다

▶ 5, 6연: 무덤덤하게 잊혀 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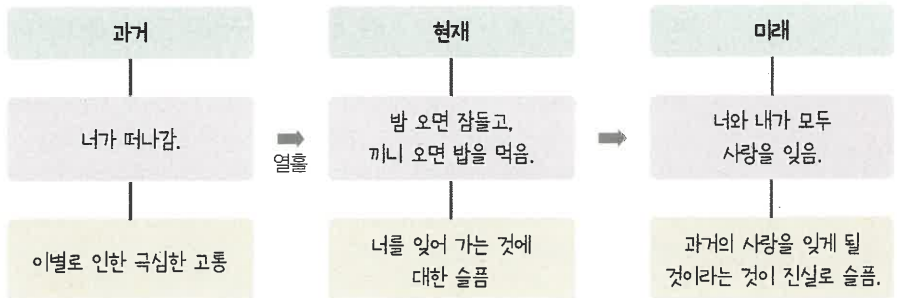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1연에서는 열흘 전에 화자와 '너'가 이별했고 이로 인해 화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 2, 3, 4연에서는 이별한 이후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상과 생각이 제시되어 있고, 5, 6연에서는 '언젠가'라는 미래의 시간에 과거의 사랑을 모두 잊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이처럼 이 작품에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본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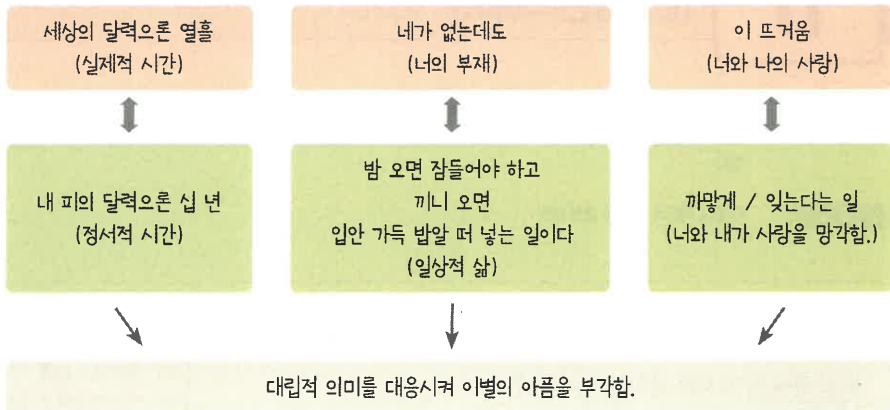
포인트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문항 1, 3, 4 관련



포인트
2

대립적 의미의 병치 **문항 2, 4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별과 사랑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 인식 **문항 4 관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과 이별은 시 창작의 주된 동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이별을 소재로 창작된 시 작품은 대개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거나, 이별한 연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랑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정희의 「이별 이후」에는 기존의 이별시와 다른 시인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도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너’와의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의 이별이 그러하듯 헤어진 연인은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일상 속에서 ‘너’를 서서히 잊게 되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 과거의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조차 망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는 이별과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BS
Q&A

Q. 시상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항 3 관련**

A. 현대시 문항 세트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대표적인 문항 유형으로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의 표현상 특징은 단순히 시어나 시구에 사용된 수사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인 시상(詩想)을 전개하는 방식까지도 포함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 방식, 시선의 이동에 따른 구성 방식, 수미상관, 선경후정, 기승전결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정희의 「이별 이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에 따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경우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특정한 시상 전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에 맞추어 시상을 집약하고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에 적용된 시상 전개 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 의식과 창작 의도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이후,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과거의 추억을 환기 하며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강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너'와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내밀한 심리와 간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열망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기다림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은유법의 사용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 버린 뒤

늦은 시각까지 '너'와의 재회를 꿈꾸며 기다림.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화자와 '너'의 사랑의 추억이 깃든 장소: 강변역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 9~13행: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이유

그 언젠가 겨울 산에서 /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저녁 별을 의인화함.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 나는 오늘도

'너'와의 재회와 사랑의 회복을 소망함.

우리가 물결처럼 /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여러 가지 물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혼합되는 속성을 지님.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시에서는 '너를 기다리다가'라는 시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시구의 반복이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열망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8행: 강변역에서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하루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이 시에서는 화자가 이별한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장소가 '강변역'이라는 구체적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뿐만 아니라 '강변역'은 화자와 '너'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장소임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이 시는 '강변역'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4~20행: '너'와의 재회에 대한 열망



이것만은

꼭

의하자

핵심 개념



'강변역'이라는 공간의 의미 문항 4 관련

첫눈 내리는 강변역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사랑하던 너와 내가 만났던 장소

바람 부는 강변역 (과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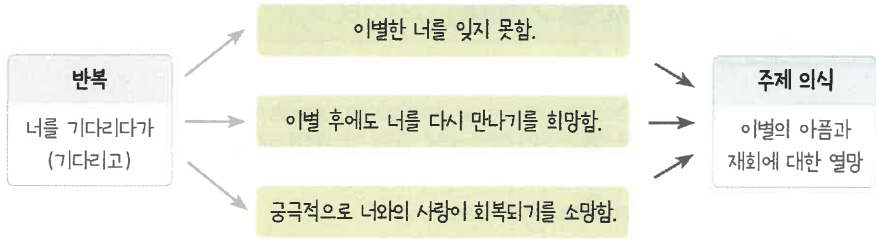
너와 나의 사랑의 추억이 있던 장소

중의적 해석

바람 부는 강변역 (현재)

나는 오늘도 /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시구의 의미 **문항 3 관련**

이 시의 화자는 '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언젠가 '너'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너'를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과 관련하여, 3, 4행에서 화자는 '너를 기다리다가 /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별은 극적인 만남과 사랑의 회복을 통해 극복되기도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 채 세월의 흐름 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아련한 추억이 되거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망각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은 곧 사랑도 인생의 복잡다단한 삶의 일부일 뿐이며, 때로는 나의 의지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귀결되기도 하고, 인생의 다른 여러 사건과 경험들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의 화자는 삶과 인생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실패한 사랑을 받아들지 못한 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과 인생의 생리를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EBS
Q&A**

Q.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어떻게 찾고,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항 2 관련**

A. 비유는 현대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지만,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직유와 은유 이외에도 상당히 폭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유는 시인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을 다른 대상, 즉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2행은 '오늘 하루'라는 원관념을 '마지막 날'이라는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유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유법은 '처럼, 같이, -인 양, -인 듯' 등의 표지를 통해 비유가 사용된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A는 B이다'의 형식을 지닌 은유법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의 4행에서 '사랑도 인생이라는' 표현은, 원관념인 '사랑'을 보조 관념인 '인생'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인법도 비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표현은 곧 원관념인 '저녁 별'이 보조 관념인 '인간'으로 빗대어져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는 항상 비유의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의미 해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유는 본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때에는 보조 관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 원관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원관념은 이러한 보조 관념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 중 특정한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비유적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보조 관념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 맞는 것을 골라 대응시켜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시의 화자는 붉은 파발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서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 비유와 역설의 표현 방식,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붉은 것 } 직유법
 『 :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듯 ~ 때 ~을 보아라)

『묵은 사랑이』 △: 낯은 사고와 가치관

벗겨질 때

『붉은 파발』과 대조되는 시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랑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 :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붉은 새와 푸른 새의 새채 대비』

명령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1연: 묵은 사랑을 잃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 : 묵은 것 } 직유법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2연: 묵은 사랑의 힘을 떨치고자 하는 의지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붉은 것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 : 묵은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 줌. 직유법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 낯은 관습이나 가치관을 반성하면서도 쉽게 떨쳐 내지 못할 때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3연: 묵은 사랑에 대한 반성과 극복 의지

*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 조로: 포르투갈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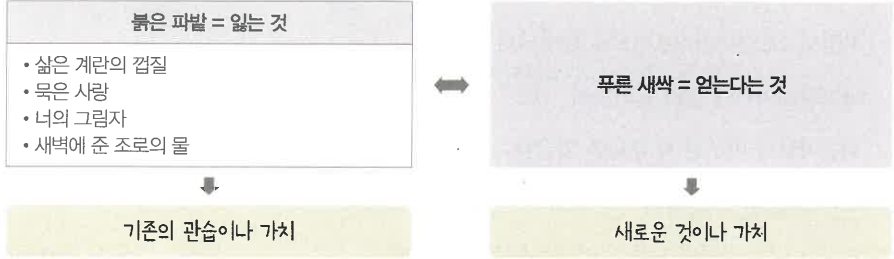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명령문, 역설적 표현,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함.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 시어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냄.
-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포인트 2

시어의 의미 **문항 3 관련**



→ 화자는 '잃는 것'과 '얻는다는 것'의 대조를 통해 기존의 관습이나 가치를 버려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김수영의 '사랑'

김수영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

부정적인 상황 / 희망적인 상황 / 사랑의 속성: 불변성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시상의 전환 /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준 대상

그러나 너의 얼굴은 / 상황이 변화하는 순간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 사랑의 또 다른 속성: 가변성, 1연의 '변치 않는' 사랑의 속성과 대조됨.

반복법 / 사랑의 가변성 때문

번개처럼 / 번개처럼 / 금이 간 너의 얼굴은 / 모순적 사랑

모순된 속성을 지닌 대상(매우 밝지만 금방 어두워짐, 형체가 있지만 금방 사라짐)

- 김수영, 「사랑」

→ 위 시는 김수영이 1960년 1월 31일에 발표한 작품이다. 김수영이 당대의 정치 현실을 자신의 시에 담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위 시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추구해야 할 혁명의 정신과 억압적인 정치 현실로 인해 불안한 상황을 '사랑'에 빗대어 담아낸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열렬하다
간단(間斷)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놀이 있는 방까지 죽음 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와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 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 - 불란서 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 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며 /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신념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야나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중

→ 위 시에서 시인은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4·19 혁명에서 배웠다고 고백하며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그가 말하는 '사랑'이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며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시의 화자는 불비는 지하철역 안에서 보게 된 수많은 사람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깨닫는다. 이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면과 내면을 대조하고 이들의 내면을 '불가마', '뜨거운 심장'에 빗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 사람들이 불비는 출근길 지하철역 안의 상황을 보여 줌.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현대인의 모습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무표정한 얼굴들에 대한 인상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얼굴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됨.

▶ 1연: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침.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지하철역 안 -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보여 주는 공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 2연: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감추어진 힘을 느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 인간을 창조하는 조물주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했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러가는

「: 인간의 열정은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함.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 3연: 사람들의 열정은 조물주의 능력과 상관없다고 생각함.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인식함.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죽음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뜨거운 심장. 삶에 대한 열정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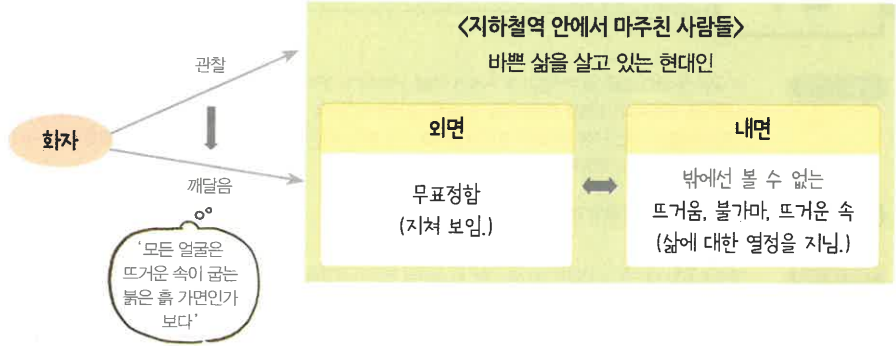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굶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사람들의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

▶ 4, 5연: 사람들의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달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관찰과 깨달음의 구조 **문항 3 관련**



포인트 2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 사람들의 외면과 내면을 대비하여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을 밝히고 있음.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보여 줌.

포인트 3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문항 2 관련**

상	하늘	인간의 운명을 정해 주는 초월적 존재의 공간
	지상	초월적 존재의 영향을 받는 삶의 공간
하	지하철역(땅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보여 주는 공간 • 지상과 단절된 공간 • 현대인의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뜨거운 속'의 의미 **문항 3 관련**

이 시에서 '뜨거운 속'은 '밖에선 볼 수 없는' 것으로, 지하철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과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뜨거운 속'은 일상에 지쳐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삶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 김혜순 시에서 '몸'의 의미

몸은 '무(無)' 속에서 구별되어 나온 만물의 형상이다. 몸이 없으서는 만물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만물은 모두 몸이라는 상이한 모양들의 포대 자루에 담겨서 이 불꽃처럼 사그라지는 소멸의 정점, 현재를 붙안고 있다. 나도 이 몸이라는 이상한 포대 자루로 날마다 순간이라는 이름의 '없는 현재'를 넘어간다.

→ 시인은 자신의 시집에서 '몸'의 의미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따라서 '몸'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여 주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별을 굶다'의 4연의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글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주몽 신화'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로,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북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천상 하강 모티프와, 남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난생 모티프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 준다. 또한 주몽의 삶은 신이한 탄생과 출중한 능력, 어린 시절의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위업 성취라는,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띠고 있다.

주제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

전체 줄거리

부여의 왕인 해부루가 산천에 제사를 지낸 뒤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한 아들을 얻어 금와라 이름 짓고 태자로 삼았다. 후에 해부루는 재상 아란불을 통해 하늘의 명을 듣고 도읍을 옮기고 그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잇는다. 한편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는 정을 통하고, 집에서 쫓겨난 유화는 우발수에서 금와에게 발견된다. 금와가 유화를 별궁에 가두자 유화는 햇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고, 이 알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금와의 아들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주몽은 벗 세 사람과 함께 부여를 탈출한다. 이후 졸본에 이른 주몽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한다. 이윽해 있던 말길을 굴복시킨 주몽은 비류국의 왕인 송양왕의 항복 요구에 맞서 활쓰기에서 승리를 거둔다.

시조 동명 성왕(東明聖王)은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부여(扶餘)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연(鯁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 주신 것이다.”라고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였다.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阿蘭弗)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天]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섭원(迦葉原)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五穀)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 칭하며 와서 도읍하였다.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태백산(太白山)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河伯)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柳花)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熊心山)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안으로 피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해부루의 천도 이후 왕위를 계승한 금와가 유화를 만남.

금와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정도 되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주었다. 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儀表)가

난생 모티프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주몽이 비범한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음.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 유희가 햇빛으로 인해 잉태한 일에서 나온 주몽의 비범함
금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말 아들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우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 주인공 주몽이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 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십시오서."라고 하였다. ▶ 주몽에게 위기의식을 느낀 왕자들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 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 유화 앞일을 내다보고 말을 기른 주몽에게 유희가 탈출을 권유함.

주몽이 이에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陜父) 등 세 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淹澗水)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 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하였다. 이에 전상과 지상의 신적 존재에게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혈통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 신비로운 현상 덕에 주몽이 무사히 탈출하게 됨. 해 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 위기를 극복하고 엄사수를 무사히 건넌 주몽 일행

주몽이 가다가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세 명을 만났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베옷(麻衣)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衲衣)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水藻衣)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姓)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재사(再思)입니다."라고 하였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武骨)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默居)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재사에게 극씨(克氏), 무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에게 소실씨(少室氏)라는 성씨를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렀다. ▶ 조력자 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졸본천에 이르는 주몽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 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沸流水)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漢) 효원제 건소(建昭) 2년, 신라 시 고구려 초기 중심지를 흐르는 하천 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고구려의 건국 시기를 제시하기 위한 정보임.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부락에 잇닿아 있기에 침 한반도 동북부 및 만주 동부에 거주하던 종족 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 주몽의 고구려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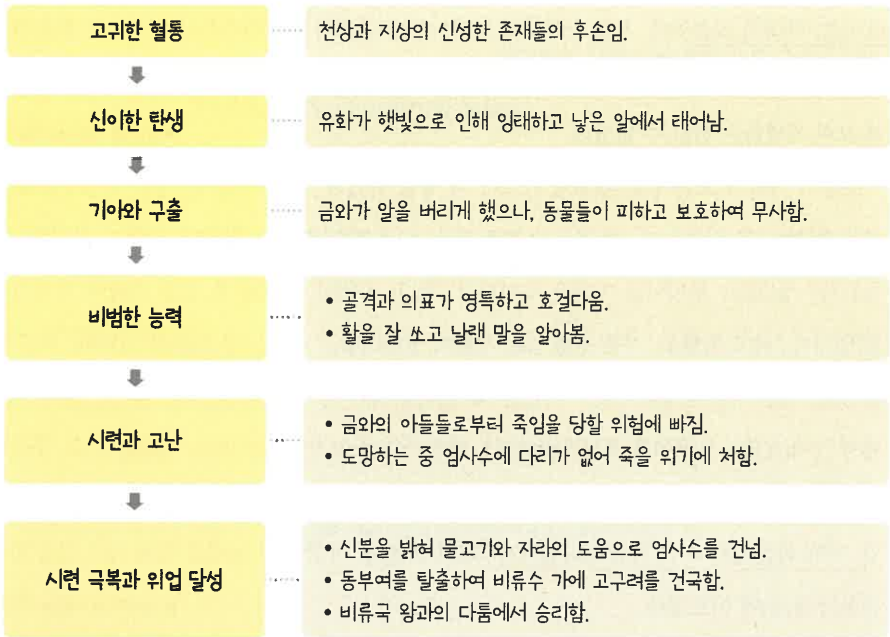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沸流國)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松讓)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주몽 집단에 앞서 졸본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동체 비류국 왕이었으나 주몽과의 대결에서 패한 뒤 고구려에 투항하고 다물도의 우두머리가 된 인물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로써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라고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활을 쏘아 기예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 낼 수 없었다.

▶ 비류국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주몽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영웅의 일대기 구조 문항 1, 2 관련



포인트 2

신화적 상징성

천신(天神)과 수신(水神)의 결합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와,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화의 결합은 천신(天神)과 수신(水神)의 결합을 상징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천손(天孫)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에서 신성성을 지녔고, 농업에 필수적인 물과 관련된 신의 자손이 세운 나라이므로 풍요를 약속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난생(卵生) 모티프	햇빛이 유화를 따라가며 비친 것은 하늘과의 지속적 연관성을 상징함. 그로 인해 잉태한 유화가 알을 낳는데, 알은 하늘을 나는 새의 산물이며 모양이 태양을 닮은 구형임. 따라서 천신 숭배 사상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음. 또 알은 그 부화를 통해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으므로, 주몽이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세계(국가)를 창조할 존재라는 점과도 통함.

포인트
3

구비 설화로서의 「주몽 신화」 문항 3 관련

「주몽 신화」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외에도 「삼국유사」, 「구삼국사」 등에도 전하며, 각 문헌에 따라 내용 상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구비 문학인 설화가 다양한 경로로 구전되다가 서로 다른 편자에 의해 기록 정착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 「단군기」에서는 단군이 하백의 딸과 인연을 맺어 아들 해부루를 낳았다고 했으므로, 이 기록과 「주몽 신화」의 내용을 결합하면 해부루와 주몽은 서로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는 같은 형제간이 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주몽 신화」와 엮어 읽을 수 있는 한시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안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이색, 「부벽루(浮碧樓)」

이 작품은 작가가 고구려의 옛 도읍이었던 평양의 쇠락한 풍경을 보며, 자연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영명사’는 광개토태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절이고, ‘부벽루’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이다. 또 ‘기린마’는 신화에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며, ‘천손’이 바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 즉 주몽을 가리킨다.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이색이 부벽루에서 주몽을 떠올리면서 휘파람을 부는 모습은 고려 왕조의 무상함과 함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의 쓸쓸한 내면을 느끼게 한다.

■ 신화의 특성

첫째, 신화는 전승자 또는 전승 집단에 의해 신성한 이야기로 인식된다. 신성시된다는 것은 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둘째, 신화는 일상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이다. ‘아득한 옛날’, ‘태초’와 같은 작중 시간은 역사적 시간과 다르며, ‘태백산 아사달’과 같은 작중 공간도 일종의 신성 공간으로 현실적·지리적 공간과 다르다. 셋째, 신화는 일회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전범적이다. 「단군 신화」에서 비롯된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정치·교육·문화에서도 주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넷째, 신화는 종족의 공동체적 기억과 이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다. 아울러 근원과 생활 양식이 다른 종족들은 서로 다른 신화를 가지기 마련인데, 이들 종족이 교섭·정복·연합 등의 과정을 거쳐 더 큰 규모의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화 또한 소멸·통합·확대 등의 작용을 겪는다. 이 밖에 신화의 증거물은 사람들이 잘 아는 천체나 국가 등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주인공은 뛰어난 자질로 성공하여 신으로 좌정하여 제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점, 미적 범주는 숭고미를 나타낸다는 점, 전승 범위는 국가나 민족 등으로 넓다는 점도 신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 이민희 외, 『고전 문학 교육론』 중

■ 「단군 신화」와의 비교

	「단군 신화」	「주몽 신화」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점(환인 - 환웅 - 단군 / 천제 - 해모수 - 주몽) • 건국 시조에 관한 신화임(고조선 / 고구려) • 하늘과 땅의 결합을 보여 줌(천손하강형, 천부지모형 설화)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은 꿈이 변한 사람에게서 태어남. • 건국을 위한 고난과 투쟁이 드러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몽은 일에서 태어남. • 건국을 위한 고난과 투쟁이 드러남.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쇠뿔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구연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용소'라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 설화의 하나로, 이러한 설화에는 대개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 이 설화의 도승은 중이나 거지로 변이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아내·하녀로 변이되기도 한다. 권선징악이라는 교훈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 고전 소설 『옹고집전』의 근원 설화로 보기도 한다.

주제

악행을 일삼던 욕심 많은 정자에 대한 징저, 인과응보

전체 줄거리

옛날 지금의 용소 자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장재 첩자가 살았다. 장재 첩자는 한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자 쇠뿔을 따 주는데,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였다. 도승은 며느리에게 산으로 도망치되,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알려 주었는데, 며느리는 도승이 말한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바위가 된다. 장재 첩자의 집은 용소라는 깊은 연못으로 변한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 서북 지방이나 관서 지방의 민요라는 말임.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 황해도 장연군 용현면 용정리의 용소라는 연못에 얽힌 전설임.

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

구술자는 자기가 구연한 이야기를 전설의 한 종류라고 인식하고 있음.

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長者] 첩자네 집터 자리라 그래. 장재 첩자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네 집터 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살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지문은 김용규 씨가 구술한 전설의 내용을 채록한 것임. 어떠한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다 보면 구연자의 개인적 어투나 언어 습관, 현장의 상황을 이용해 덧붙인 말 등 특이한 점들이 나타난다. 또한 비표준어나 말실수, 문장의 오류 등이 지문에 나타나는 것도 구연된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드는 욕심쟁이임을 드러냄.

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 처음: 옛날 옛적에 돈만 알던 욕심쟁이 장재 첩자가 살고 있었음.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

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깡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

불타산은 산의 이름인데, 절의 이름이라고 혼동하고 있음. 구연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로 보임.

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 달라고, 그러

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멍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讀經)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

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물건 이름 들어 설명함.

더미에서 쇠뿔을 따 가구구서는, /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장재 첩자가 악행을 저지름.

하구서는 바랑에다가 쇠뿔을 엮단 말야. |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미아미타불*’

▶ 중간 1: 시주를 해 달라는 도승의 요청을 듣고, 장재 첩자가 바랑에 쇠뿔을 넣음.

만 부르다가 그 쇠뿔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첩자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 그러면서 쌀, 씻은 쌀

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날, 그 바랑에다 여 췌단 말야. 그러니께 그 중이 며느리보고 하는 말이,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도승에게 선행을 베풀.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재앙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

그랬단 말야. |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

▶ 중간 2: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도승에게 선행을 베풀자, 도승은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 줌.

를 들쳐 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베를 찢 때 날을 감아 베를 앞다리 너머의 채머리 위에 얹어 주는 틀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투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지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

도승이 장재 침지의 며느리에게 줌 금기

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금기를 어기는 행위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조사자가 아이와 영주, 개도 화석이 되었다고 물으니까, 구슬자가 '예'라고 대답하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고 함.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그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 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 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구, 그 아래 개 모양 곁

해당 전설의 증거물

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야. | 한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

▶ 중간 3: 도승이 알려 준 금기를 지키지 못한 며느리가 바위로 변함.

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沼)가 됐단 말야. 한데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

구연자가 구슬을 하고 있는 장소

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

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

지구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에 그 평야에, 눈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불러

전설의 증거물이 가진 신이한 특징 ①

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채니까 명지실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전설의 증거물이 가진 신이한 특징 ②

▶ 끝: 장재 침지네 집이 있던 자리에 용소가 생김.

* 불농불사: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불농불상(不農不商)의 오인으로 여겨짐

* 나미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구슬한 대로 표기한 것임

이것은
꼭
익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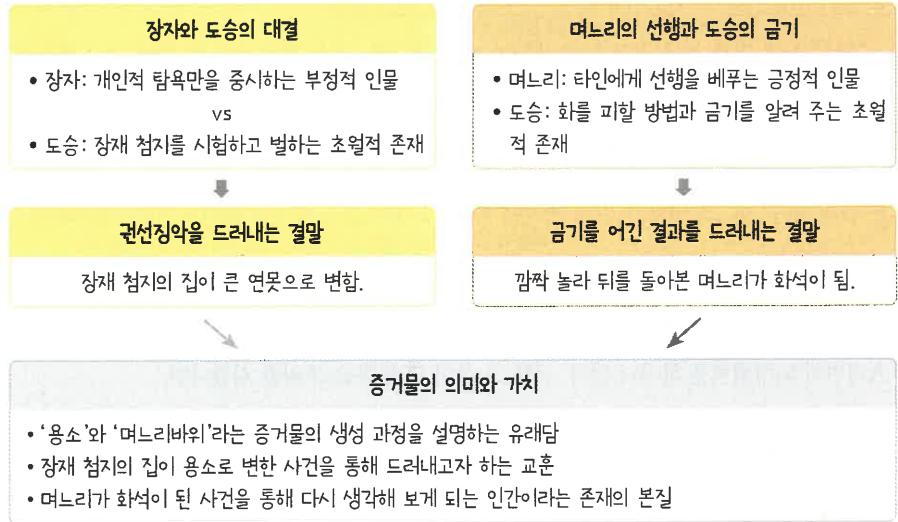
핵심 개념

포인트
1

「용소와 며느리바위」라는 전설의 성격과 증거물 [문항 3 관련]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학술적으로는 신화, 민담, 전설로 분류하는데, 이 중 전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으며, 이야기의 기쁨이나 증거물이 있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서사를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용소와 며느리바위」는 ‘장자뭇’이라는 연못을 증거물로 동반한 지명 설화, 혹은 유래담의 하나이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때 장자뭇 설화는 지역마다 몇 가지 변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욕심 많은 부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패망에 이룬다는 점에서 악행에 대한 응징, 혹은 권선징악이라는 표면적 주제를 ‘장자뭇’이라는 증거물을 통해 드러낸다. 한편 ‘며느리바위’가 증거물로 덧붙는 경우, 초월적 질서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설화의 주제를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소와 며느리바위」의 이야기 구조 **문항 2,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전설의 유형

전설은 전승 범위에 따라 지역 전설과 광포 전설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마을에 부착되어 지명, 지리적 특징, 해당 지역의 풍속이나 관습 등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전설이 지역 전설이라면, 너무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나,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생겨날 수 있는 전설이 광포 전설이다. 예를 들어 「경주 최부자 전설」은 경주의 지역 전설로 출발했지만 최 부잣집이 널리 알려지면서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파되며 광포 전설이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장자못 전설」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전설인데, 못이 있는 지역마다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분포하기에 광포 전설로 볼 수 있다.

전설 속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에 따라 전설의 유형을 자연 전설, 인문 전설, 인물 전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민중의 삶의 터전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징, 자연 현상, 동식물의 특수한 형태, 바위의 모습과 그러한 자연물들에 이름이 붙은 유래 등을 설명하는 전설이 자연 전설이다. 인문 전설은 정월 대보름과 같은 세시 풍속이나 사찰, 비각, 성곽처럼 인간이 만들고 이루어 온 문화적 관습이나 인공적 건축물 등의 유래에 관한 전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물 전설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영웅이나 이인(異人), 고승과 같은 인물들을 다루거나, 「아기장수」나 「힘내기한 오누이」처럼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다룬 전설을 말한다.

EBS Q&A

Q. <보기>에 제시된 ‘지표성’이란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항 2 관련**

A. 국어사전에서는 ‘지표성’을 ‘해석에 독립되어 있으면서 해석을 위하여 지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맥락 의존성’이 있고, 영어로는 ‘indexicality’라고 씁니다.) ‘지표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민속 방법론을 알아야 합니다. 민속 방법론에서는 사회적 현실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의 해석과 설명이라는 실천적 추론에 의해 부단히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러한 실천적 추론을 특징짓는 요소를 바로 ‘지표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발화를 해석할 때 그것들의 배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맥락을 찾아내고,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사건과 발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방향, 목적, 기준 따위가 될 수 있는 표지들을 ‘지표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문이다. 가전문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 문학 양식이다. 주인공 국성을 통해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임금의 잘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자칫 방자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자식들에 대한 탄핵 상소로 시련을 겪은 국성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을 드러내며 마무리되는 「국선전」과 차이를 보인다.

주제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처신 경계

전체 줄거리

국성은 추천군 사람으로 어려서 서막의 사랑을 받았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깊은 국량을 지니고 있어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임금이 국성의 명성을 듣고 총애하여 국자제주와 예의사를 겸하게 하였다. 임금의 총애가 깊어지자 국성의 아들들이 방자하게 굴다가 모영의 탄핵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성의 아들들은 죽고 국성은 서인이 되었다. 이후 국성은 임금의 명을 받아 제 고을과 격 고을 사이에 때로 일어난 도적을 토벌하고 그 공으로 상등후에 봉해졌다. 그 후 국성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 천수를 마쳤다.

국성(國性)의 자(字)는 중지이니 주천(酒泉)군 사람이다.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이가 이름 맑은 술. 술을 성인으로 의인화함. 을 지어 주고 자도 붙여 준 것이다. 먼 조상은 본시 온(溫)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써 농사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춘주 전국 시대 주나라의 지명. 이곳의 물로 술을 빚으면 술맛이 좋았다고 함. 충당하여 살았다.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지손 가운데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다. 증조부에 관하여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牟)가 보리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인 차(醜)에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독우(平原督郵)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穀氏)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질이 좋지 않은 술 깊은 국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한번은 손님이 그 아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꼭 일만 굵이 파도와 같아서 ▶ 국성의 가계 소개 말힐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함이 이 에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이.”

장성하게 되자, 증산 땅의 유명, 심양 땅의 도잡과 더불어 벗하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의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쪼쪼함이 슬땀 고개를 든단 말야.”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고을에서 조구연(槽丘椽)으로 불렸지만 술 찌꺼기가 언덕과 같이 쌓임. 여기서는 하급 관리 직책을 뜻함.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靑州從事)로 호출받았고 좋은 술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드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公車)에 모셔 오라 하였다. 이윽고 불러 보았는데 임금이 그윽히 눈여겨보더니, 천자에게 올리는 상서를 받는 일을 맡은 관서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 온 지 오래도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앞서 태사(太史)가, /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천문과 역사를 맡은 직책. 향연(饗宴) 음식을 맡은 별 이름 아뢰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랑중(主客郎中)을 삼더니 이윽고 국자제주(國子祭酒)로 돌려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했다. 널리 조정의 모임 잔치며 제사와 잔치에 술이 빠짐없이 들어갔음을 드러냄.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을 도맡게 된 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이 그릇 감이라 여기고 일약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입궐하여 비을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殿)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 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임금이 마음에 언짢

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뵈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그 충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니 임금과 조금도 거슬러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충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노닐어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 국성의 도량과 국성에 대한 임금의 충애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아버지가 누리는 충애를 믿고 꽤 횡포가 자심하였더

니,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毛穎)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여쭙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모영의 탄핵을 전후로 국성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 술의 어떠한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괴임을 받는 신하가 충애를 남용함은 천하의 걱정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3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 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웁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 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버지가 받는 충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 되니, 청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못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이러한 글이 상주(上奏)되자 아들 곡 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庶人)이 되어 버렸다.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술 담는 데 쓰는 포대 또는 술 항아리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屬車)*에 의탁하곤 했다. 치이자가 한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 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 무슨 소용 있으리!” / 하였더니 그 대답인즉,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너럭히 담아낼 수 있지!” /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근심, 걱정, 괴로움 등을 뜻함. ▶ 국성과 그의 아들들이 탄핵을 받음.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濟) 고을과 격(隔) 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떴어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제(濟, 배꼽)와 발음이 같은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임. ▶ 격(隔, 가슴 속)과 발음이 같은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임.
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면서 수성(愁城)에 물길을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 버리고 장락관(長樂阪)*을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湘東侯)를 봉하였다. ▶ 국성이 도적을 평정하고 명예를 회복함.

그러나 일 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뵈었는데, 허심탄회로써 남달리 절 받아 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며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시었나이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떨구려고 드리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목은 뚜껑을 열어젖혔던 것이옵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얼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목숨이 뜬 거품마냥 다해 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심은 이를 윤택치 아니하고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 국성이 고향으로 돌아와 천수를 마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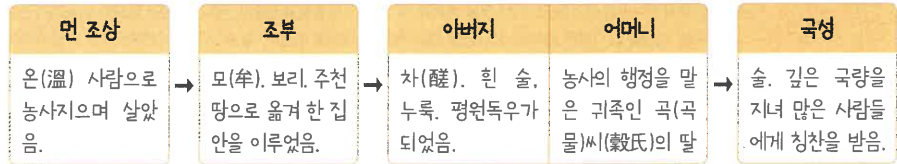
*속거: 임금이 거동할 때 바로 곁에서 따르는 수레.

*장락판: 오래도록 즐거운 터전의 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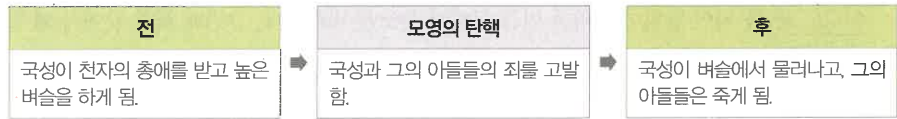
포인트 1

「국선생전」의 인물 정리 **문항 1 관련**



포인트 2

모영의 탄핵이 지니는 서사적 기능 **문항 2 관련**



술이 제사나 잔치 등에서 흥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술도 지나치면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계함.

포인트 3

술과 관련된 표현 이해

평원독우, 청주종사	'독우'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지방 감찰관이고, '종사'는 기록을 맡아보는 직책임. 진(晉)나라 때 술을 잘 감별하는 사람이 나쁜 술을 평원독우라 하고, 좋은 술을 청주종사라 했음. 평원에는 격현(隔縣)이 있고 청주에는 제군(齊郡)이 있는데, '독우'란 '격' 위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고 '종사'란 '제'까지 도달했음을 말함. '격'은 가슴을 뜻하는 '격(隔)'과 같은 발음에서 따온 것이고, '제'는 배꼽을 뜻하는 '제(臍)'와 같은 발음에서 따온 것임.
조구연	'조구'란 술지게미를 산처럼 쌓은 더미이고, '연'은 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임.
주객량중	손님의 접대를 맡던 벼슬을 뜻함.
국자궤주	'제주(祭酒)'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신을 불러 모시기 위하여 땅에 붓거나 신에게 대접하는 술임. '제'는 벼슬 이름에 쓰일 때는 '궤'로 읽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국선생전」의 '국성'에 대한 사신의 평가

국씨는 대대로 농가에 근본을 두었지만, 성(聖)이 너그러운 덕과 해맑은 재질로써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정을 헤아려 처리하고 임금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거진 태평에 흥성한 공로를 이룩하였으니 대단하구나. 자기 앞의 총애가 지나치게 커진 데 가서는 나라 기강을 거의 흐트러 놓아, 화(禍)가 비록 지식들한테까지 미쳤다 해도 안 됐다 싶은 것은 없으나, 만년에는 족(足)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와 천수를 다 마칠 줄 알았으니, '주역'에 이른바 '기미를 살려 움지인다' 했는 바 성(聖)이 거기 가까움도다.

■ 「국선생전」과 「국순전」의 비교 **문항 3 관련**

「국선생전」과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하였다는 점과 관련 인물, 지명, 서술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국선생전」은 '국성'의 긍정적 측면을 주로 제시함으로써 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국순전」은 '국순'을 부정적 인물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술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감상 포인트

한문으로 창작된 『금오신화』 다섯 작품 중 하나로, 국문학사에서 의의가 매우 큰 소설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애정 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사랑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죽은 여자와 산 남자가 못다 한 사랑을 이어 가다 운명으로 인해 이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작품의 주제 의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결말의 비극성은 소외된 자의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가인 김시습의 파란민중했던 삶과 관련한 우의적인 해석도 주목해 볼 만하다.

주제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비극적 이별

전체 줄거리

고려 시대 송도(개성)에서 국학에 다니며 공부하던 이생이 귀족 집의 아름다운 처녀 최 씨를 보고 반하게 된다. 이생이 최 씨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최 씨 집 담 너머로 던진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밀회하고 연인이 된다. 하지만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하여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고 최 씨는 이생을 그리워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이른다. 최 씨 부모의 간청에 의한 이생 아버지의 허락으로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이생은 과거에 급제한다. 갑자기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생은 피신하였지만 최 씨는 도적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난이 끝나고 가 죽을 일고 실의에 빠져 홀로 지내던 이생에게 어느 날 최 씨의 환신(幻身)이 찾아와 두 사람은 못다 한 인연을 이어 간다. 3년이 지나 최 씨는 저승으로 가이만 하는 운명임을 말하고 이생과 또 다시 이별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내고 홀로 살다가 자신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 → 전기적(傳奇的) 성격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농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황액(黃液)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옥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人定)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찌꺼기는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

문제 해결 키 문학 2 관련
먼저 소설에서의 인물·사건과 역사에서의 인물·사건에 주목하여 두 범주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음.

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제대로 된 장례와 매장 절차가 없었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중국 전국 시대 제나라의 음양오행설을 제창한 사상가
이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중국 서해에 있다고 하는 신선의 거처
생(三生)의 향이 그옥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
전생(前身), 현생(現生), 후생(後生) 백년기약(百年佳約)
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
최 씨가 먼저 다시 인연 맺기를 제안함. → 여자 주인공의 적극성 →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
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하였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최 씨의 제안 수용 → 남자 주인공의 소극성 →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 ▶ 죽은 최 씨와 이생이 재회하여 못다 한 인연을 이어 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
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하는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
유교적 예법에 충실함.
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
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
외부 세계와의 단절
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 최 씨와 이생이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냄.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이생규장전”의 주요 사건 전개: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독메어 울.

“무슨 일로 그러시오?” /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
운명론적 인식의 반영
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생을 위한 마음이 나타남.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중략)

이생도 슬픔을 견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리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물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 운명에 순응함. 계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뜻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전기적(傳奇的)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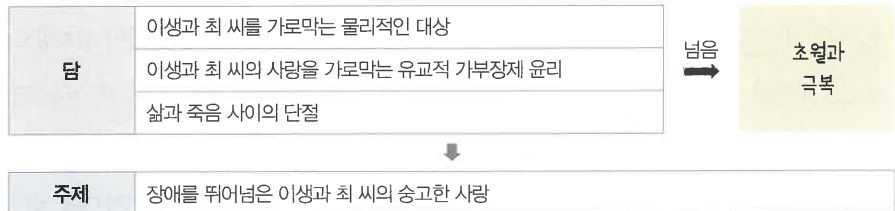
▶ 최 씨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이생과 이별하고 저승으로 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제목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의미와 ‘담’의 상징성 문항 3 관련

「이생규장전」의 제목은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소설에서 ‘담’은 서사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물리적인 장애물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넘어 윤리적, 추상적인 장애로까지 확장된다. 이에 「이생규장전」의 주제는 주인공들이 그 담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의 주요 사건으로서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 문항 3 관련

	만남	이별	의미
전반부	1. 이생이 담을 넘어 최 씨와 인연을 맺음.	1. 이생의 부모가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여 이생이 울주로 가게 됨.	젊은 남녀 주인공의 자유연애와 비극적 이별 (영정적)
	2. 최 씨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고, 최 씨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이생과 최 씨가 혼인함.	2. 홍건적의 난으로 최 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됨.	
후반부	3. 이승의 이생과 저승의 최 씨가 재회하여 못다 한 부부의 연을 이어 감.(전기적)	3. 최 씨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저승으로 가게 됨. → 이생과 최 씨의 영원한 이별	죽음을 초월한 사랑 (남만적)

3

애정 전기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문학 3 관련**

소설사 초기에 한문으로 기록된 전기 소설은 남녀 간의 애정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었다. 남녀 주인공은 재자가인면서도 둘 사이에 신분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여성 주인공이 애정에 더 적극적이어서 서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것에 반해, 남성 주인공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서사의 진행 과정은 대개 남녀의 '결연', '수난', '극복'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반대나 전쟁과 같은 사회의 횡포로 인해 애정 성취에 장애가 발생하며, 원귀(冤鬼)와의 만남 혹은 재회와 같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 소설적 흥미 요소로 작동하면서 인간이 삶에서 겪는 운명론적 고통과 비애를 형상화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생규장전」에 대한 우의적 감상 **문학 2 관련**

이 작품은 작가 김시습의 역사적인 삶을 우의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시습은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양대군이 그 일파와 함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단종을 향해 절의를 지키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시습은 사육신들과 죽음을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절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뜻만큼은 함께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삶을 작품에 적용해 보면 흥건적의 난에서 최 씨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이생은 적극적으로 수양대군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우의한 것으로, 도적처럼 무자비한 농민에게 죽임을 당한 최 씨는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이나 사육신을 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작품의 주요 내용과 포괄적 주제

작품명	주요 내용
만복사저포기	남원의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놀이(웃놀이와 유사)를 하고 이긴 후, 수년 전 왜구에게 죽임을 당한 여자 귀신과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게 됨. 양생은 여인을 못 잊어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살게 됨.
취유부벽정기	홍생이란 사람이 평양의 부벽정에서 술에 취하여 시를 읊던 중, 기자 조선의 시녀였다가 선녀가 된 기 씨를 만남. 하룻밤 동안 둘은 서로 시를 주고받고 즐기다가 기 씨가 떠나자 홍생은 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 장례한 지 몇 달이 지나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음.
남염부주지	경주의 박생이 남쪽 열라국이라는 지옥에 가 염왕을 만나 귀신, 왕도, 불도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됨. 염왕은 박생의 학식에 감동하여 왕위를 물려준다는 약속을 함.
용궁부연록	고려 시대 개성에 글재주가 매우 뛰어난 한생이 살았는데, 그는 꿈에 용궁으로 초대되어 용왕의 딸이 기거하는 별궁의 상량문을 지어 줌. 그 보답으로 선물을 받고 용궁 구경을 한 후 현실로 돌아오게 됨.

「금오신화」의 주제

지식인이 느끼는 고독과 이상의 좌절

EBS Q&A

Q. 전기 소설에는 서사 중간에 '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시'는 어떤 기능을 가지나요?

A. 소설 중간에 삽입된 시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서사 갈래에 서정 갈래가 개입된 형국이므로 서사, 혹은 산문의 형식적인 단조로움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시로 표현된 만큼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압축적인 소재나 이미지로 나타내게 해 주기도 하며,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신광한의 한문 단편 소설집 『기재기』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문방사우라 일컫는 벼루, 먹, 종이, 붓을 의인화하고 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점에서 가전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각 사물의 일대기리기보다는 주인과 네 사물의 만남과 헤어짐의 상황이 더 부각되어 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선비의 시각에서 이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며 모임을 마무리하는데, 다음 날 그들의 본 뜻을 알아차리고 문방사우를 물어 주며 이들을 위한 제문을 짓는다는 점에서 「조침문」과 유사한 면이 있다.

주제

숨어 살던 선비와 문방사우의 만남과 헤어짐

천체 즐거리

한 선비가 서당 밖에서 시를 읊다가, 자신의 방에서 수상해 보이는 네 사람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된다. 선비는 이들이 자신의 벼루, 먹, 종이, 붓임을 깨닫고 서로의 회포를 서로 읊자고 제의한다. 서로 자신들의 가계와 생활담을 이야기하고, 시를 지어 생각을 나눈 후, 네 사람은 자신들을 멀리 버리지 말라는 당부로 주인에게 하고 사라진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선비는 자신이 쓰던 벼루와 붓과 먹을 닢중이에 싸서 땅에 묻고 그들을 위한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린다. 이후 네 사람은 주인을 찾아와 40년을 더 살 것이라는 축수를 하고 사라진다.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실의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 "사대부"의 준말, 관직에 나갔던 경험이 있는 선비나 벼슬자리에 나아갈 신분의 소유자였다. 가세가 비록 근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한 사부가 달산촌 별채에서 왕래를 끊고 지냄.

세월이 대항락*에 든 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기운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뜻이 오싹 생겨나고, 이백이 달을 즐기던 흥취가 은근히 일어났다. 서당을 걸어 나와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렸다.

쓸쓸한 심사를 표현했던 송옥의 고사와 달을 노래한 이백의 고사를 언급함.

쨍! 쨍! 시냇가 나무 짙어 내는 소리편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은 상황을 드러냄.

약을 찜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꼬

달을 바라보며 외로움과 쓸쓸함, 인간의 유한성 등을 드러냄.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대목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치 않네

봉황 새긴 누각 떠난 지 지금 몇 해런가

화려한 곳으로부터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음을 밝힘.

미인을 어찌 만나 뵈랴 더욱 시름겹도다

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시름을 드러냄.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 한가위를 앞둔 어느 날 밤, 달밤에 흥취가 일어나 시를 읊조림.

홀연 글방 안에서 두런두런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리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어 보니 과연 누군가 글방에 있는 듯했다.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하여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서서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 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대낮 같았다. 창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사부'의 상황과 '삽입시'의 내용을 비교하며 시의 구절을 해석해 봄.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된 '사부'의 성격과 처지, 심리 등을 떠올리며 그러한 성격이나 심리가 삽입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함. '사부'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고 여기고, 이웃과의 왕래를 끊고 책만을 즐기며 살고 있으며, 어느 밤 뜰을 거닐다 달을 보고 느끼는 쓸쓸함과 시름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A]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또 한 사람은 벼루의 몸체가 반질반질한 것을 의인화한 것 종이의 흰 면, 즉 물체를 의인화한 것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으며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또 한 사람은 붓의 몸체가 여러 색깔이 나는 것을 색동옷을 입은 것으로 빗대고 붓의 필모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맨상투'에 빗대어 벗은 모자라 표현한 것임. 옷에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또 한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종이 다발을 묶는 끈이나 종이를 뜻함. 새까만 먹의 의인화한 것. 손으로 잡는 먹의 뒷부분이 등그스름해 '검은 모자'로 빗댄. 칠한 것 같았으며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흑과 백이 한가지 이치임을 붓과 먹의 움직임과 벼루와 종이의 고요함. 붓·먹 벼루의 흑과 종이의 백이 한가지로 어우러져 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함. 알 것인가? 내 그와 벗하리라!” / 하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사, 여, 여, 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 하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 출연 글방에서 네 사람(네 물괴)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함. 흰옷이 말했다. /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가?”

벗은 모자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살갓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치고, 머리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쓰는 행위 등을 드러낸 표현 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노둔하다’는 것은 ‘붓’의 모필이 모지러진 것을, ‘경박하다’는 것은 ‘종이’에 글씨가 흰히 노출되는 것을 뜻함.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또한 흠결이 생겼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던 말인가?”

그러고는 조원진이 울린 사표의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꼬? 일편단심이야 스러지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읊으며 몇 차례 오열하는 소리를 내니, 좌중이 모두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닦기도 했다. ▶ 네 사람(네 물괴)은 주인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함께 슬퍼함.

흰옷이 말하기를,

“한갓 남녘 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사좌*에서 국난이나 변고를 당했을 때 대책 없이 감상에만 빠져 있는 것을 형용하는 말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회포를 달랠 것인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컬으니 되겠는가?

벗은 모자가 웃으며 말했다.

“고루하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B] 검은 옷이 까만 비단옷에게 눈짓하며 이르기를, 절저탁마하는 사람이란 뜻. 여기서는 먹과 벼루가 서로 갈고 갈리는 과정을 드러낸 것임. ‘논어, 학이 편에서 공자가 한 말을 빌려 읊.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하는 자라야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다.” / 하니, 까만 비단옷이 회롱하기를, “시경에 나오는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관련된 말로,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절저탁마’가 본래 옥 다듬는 과정의 비유이기에 먹을 벼루에 가는 일에 빗댄 것은 아색하다고 조롱하는 것임.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먹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네.” / 하였다.

그러자 검은 옷이 말하기를, / “그렇군! 과연 옥은 아니지!” / 하고는 서로들 손을 한데 잡고 웃었다. ▶ 상대를 두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서로 희롱함.

[중략 부분 줄거리] 네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을 지켜보면 선비는 그들이 물괴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나선다. 선비와 네 사람은 서로를 소개한 후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네 사람은 자신을 멀리 내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사라져 버린다. 선비는 자신의 글방에 나타난 네 사람이 붓, 먹, 종이, 벼루와 같은 물괴의 현신임을 알게 됨.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웠으나 말뚱말뚱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아니라, 한밤중에 실제로 체험한 일인 것처럼 서술함. 만났던 일을 뒤미처 생각하니 거의 알 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시동이 이상하게 여겨 와서 여쭙기를,

“오늘은 어째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하니, 선비가 답하기를 /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를 읊조리며 정을 풀다 보니 아침에 곤하게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는 일어나 방 안의 붓, 벼루, 종이, 먹을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도기 벼루는 바람벽 흠뻑이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한 자루 있는 붓은 붓대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머리 감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하나 있는 먹은 갈지 않고 남은 부분이 채 손끝 마디만큼도 되지 않았다. 종이는, 며칠 전 시동이 “여기 투박한 대나무 종이가 있으니 장독 뚜껑을 덮겠습니다.” 하여, 선비가 “그러려무나.” 한 것이었다. 아이에게 종이를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더니, 깨끗하고 두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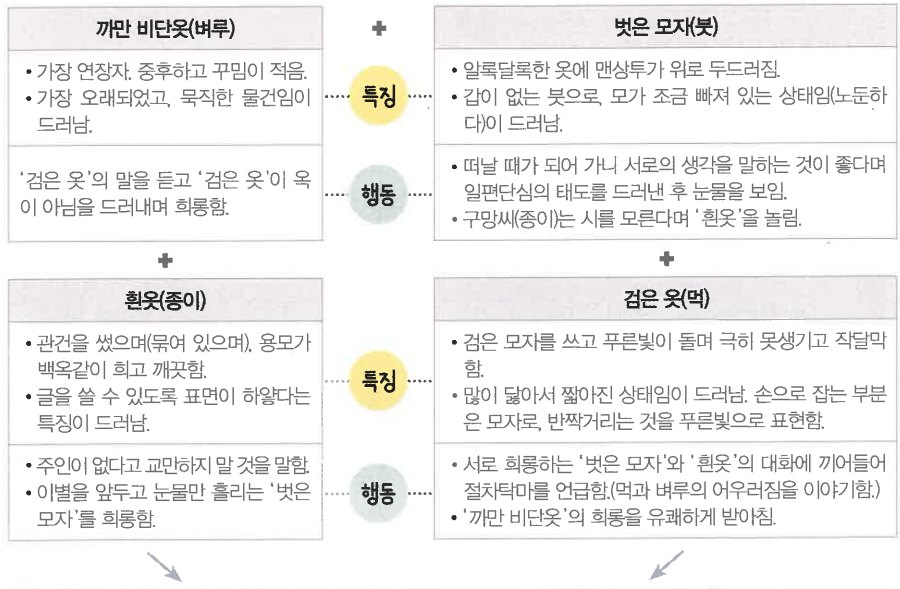
이로써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즉시 그 종이로 나머지 세 물건을 싸고 으스스한 곳에 묻으면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 어젯밤 일을 이상하게 여긴 선비가 방 안의 붓, 벼루, 종이, 먹을 보고 이들이 네 사람을 깨닫고,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 줌. 낡아서 버려야 하는 문방사우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떠나보내려 함.

- * 대항략: 심이지 중 '새(巳)' 자가 들어 있는 해. 여기서는 계사년(1633년)으로 추정됨.
- * 사, 여, 뇌: 『장자』에 나오는 가상의 네 친구. 서로 막역지우임을 의미함.
- * 흰머리 ~ 앉으리.: 남송 시대의 명제상 조원진이 참소를 받아 귀양을 가며 올린 사표의 일부임.
- * 사좌: 모든 사람이란 뜻. 여기서는 특히 네 사람을 강조하는 말로 쓰임. * 구멍씨(종이는) 시를 모른다며 '흰옷'을 놀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문방사우』의 특징과 그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 문항 2, 3 관련



포인트
2

작가가 '문방사우'를 주요 인물로 선택한 이유 문항 2, 3 관련

문방사우(文房四友), 즉 종이, 붓, 벼루, 먹은 사대부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다. 세상을 등지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한 사부'에게 문방사우는 가장 많이 다루면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글쓰기에 전념하는 시간이 지나며 달고 남아 가는 사물들을 보며 그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인트
3

삽입시의 역할 문항 1 관련

처음 부분([A])에 들어 있는 삽입시는 문방사우를 관찰하는 서술자로서 '한 사부'의 처지와 상황, 세상을 등지고 지내는 한 사부가 느끼는 심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문방사우는 본인들의 운명이 다했다고 여기고 사부와외 이별을 예감하면서도 일편단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고즈넉한 서재'에서 외로이 지내면서도 '봉황 새긴 누각'을 떠올리며 '미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화자('한 사부')의 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신광한이 지은 『기재기이(企齋記異)』**

『기재기이(企齋記異)』는 1553년 신숙주의 손자로 잘 알려진 신광한이 쓴 한문 단편 소설집이다. 『안빙몽유록』, 『서재야회록』, 『최생우전기』, 『하생기우록』이라는 네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기재기이』는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의 뒤를 잇는 한문 단편집으로, 조선 전기 한문 소설의 발달 과정을 잘 드러낸다는 점과 허균이나 임제, 권필 등 본격적인 소설 작가들의 등장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안빙몽유록』은 몽유록계 소설의 발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되어야 하는 작품이며, 『서재야회록』은 몽유록의 성격과 가전체의 성격을 일부 활용하면서도 심화된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최생우전기』와 『하생기우록』에서는 김시습이 지은 『용궁부연록』이나 『만복사저포기』와 같은 이계 편력 및 영정 전기류의 양식적 변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BS
Q&A**

Q. [B]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나요? 문항 4 관련

A. 소설 속의 대화는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특정한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였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는 유희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B]는 '벗은 모자'를 희롱하는 '흰옷'의 말로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 '벗은 모자'도 웃으면서 '흰옷'이 고루하다고 놀립니다. 이때 '검은 옷'이 두 사람은 입을 닫으라고 하며 끼어드는데, 화를 내거나 갈등을 말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까만 비단옷'을 뽐내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까만 비단옷'은 오히려 '검은 옷'을 희롱하는데, '검은 옷'은 이를 유쾌하게 받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B]는 네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네 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볼 때 네 인물들은 서로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을 뽐내고 상대방을 희롱하면서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한문 소설로,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친구, 즉 은둔을 택한 설생과 출세를 택한 관찰사의 삶을 다루고 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세상을 개탄했던 친구가 벼슬을 하는 동안, 설생은 산수를 두루 유람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산다. 관찰사가 된 친구는 우연히 다시 만난 설생의 인도로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녀오는데, 이곳은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곳이다. 설생과 함께 지내는 동안 관찰사는 세상일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결국 설생이 자신과는 다른 삶의 지향을 지녔음을 확인하게 된다.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와, 이상향으로 그려진 회룡굴의 묘사가 인상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부정적인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인 이상향을 지향했던 한 선비의 삶

전체 줄거리

서울 청파리에 살던 설생이라는 선비는 계속옥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에 염증을 느끼고 은거를 결심한다. 그와 함께 세상을 개탄하던 친구는 은거에 대한 설생의 생각에는 동의했으나,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은거하지 않기로 한다. 친구는 훗날 벼슬에 오르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데, 강원도 관찰사가 된 뒤 영랑호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설생을 만나게 된다. 관찰사는 설생이 사는 회룡굴에서 며칠을 머무는데, 속세와 단절된 그곳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향이다. 관찰사는 설생에게 나중에 서울로 자신을 찾아와 달려며 시를 적어 주고 떠나고, 몇 년 후에 이조 판서가 된다. 그는 서울로 찾아온 설생에게 벼슬을 주려 하지만, 이를 수처스럽게 여긴 설생은 증적을 감춘다.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다.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서,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주인공의 성격 제시

평해군 말에 계속옥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에 염증을 느끼고는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픈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설생과 달리 나중에 벼슬길에 나아가 관찰사, 이조 판서가 될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시사(時事)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 설생의 인물됨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는데, 자네 생각이 **은거하려는 이유** 은 어떤가?”

친구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설생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함께 은거할 수 없는 이유** 없네.”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 계속옥사 이후 삶의 방향이 서로 달라진 설생과 친구

인조 재위 기간: 1623~1649

[중략 부분 줄거리]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갑술년(1634)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 길 없던 설생이었다.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다.

“나는 지금 양양부 관아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 데 산다네.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인은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 **환상적인 이상향으로 그려진 공간** 기까지 오게 되었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손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만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 주었으면 하네.”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이 설생의 거처인 회룡굴로 향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마를 메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칼칼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벼랑의 벌어진 곳을 지나 첩명굴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테,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배나무·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아마도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굴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채소를 담아내거라.”

관찰사가 먹어 보니 맛이 담백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 만하여 아침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 관찰사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회룡굴에 며칠 동안 머물.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노닐며 오가는 곳은 여기뿐이 아닐세.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넘었어.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가 보았을 걸세. 그러다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싫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쳐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열 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주게." /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 후일을 기약하고 두 사람이 다시 작별함.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관찰사는 마침 이조 판서로 있었는데,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란 곳에 다시 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 친구의 벼슬자리 제안을 수치로 여겨 종적을 감춘 설생

*계축옥사: 계축년(1613)에 광해군이 인목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복 대군인 영창 대군을 서인으로 만든 사건

*도원이나 굴주: '도원'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그려진 이상향이며, '굴주'는 풍토가 좋아 굴이 많이 나는, 중국 호남성의 섬인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회룡굴에서 헤어지며 훗날의 만남을 기약한 뒤로 3년이 흐른 시점에 설생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관찰사를 만나러 서울에 가는데, 이조 판서로 있던 친구는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함.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종적을 감춘. 따라서 설생은 끝끝내 '나아감'이 아니라 '몰러남'을 선택한 것인데, 작가 오도일은 작품의 끝부분에 어진 새 임금에 다시는 세상에서 설생이 '나아감'을 선택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임.

설생에 대해 작가 오도일이 덧붙인 논평의 일부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출히 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이다.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우므로 은둔했지만,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못 선비들이 함께 일어서던 때에 관(冠)을 달고 기운을 내어 조정에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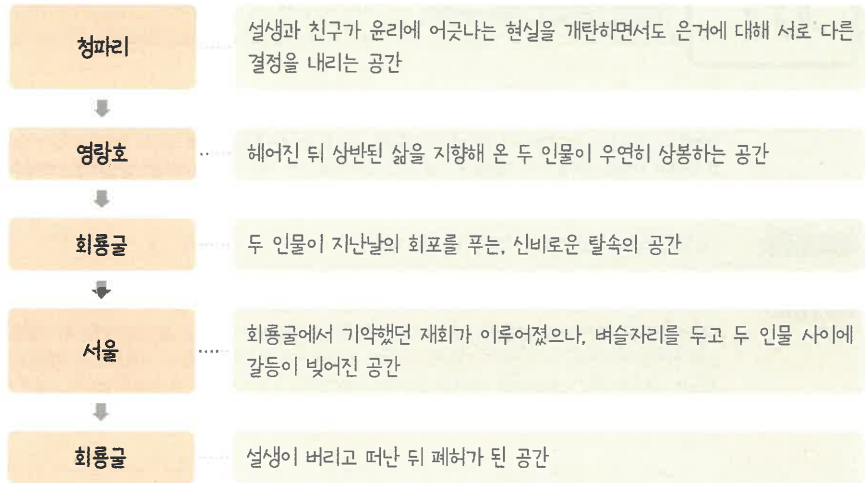


인물에 대한 이해 **문항 1** 관련

설생	친구(관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하며 기이한 재주를 가짐. •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못 이룸. • 계축옥사로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은거함. • 회룡굴을 비롯하여 곳곳의 산수를 유람하며 자유롭게 살. • 친구가 자신에게 벼슬을 주려 한 것을 수치로 여겨 종적을 감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로, 계축옥사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짐. •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설생과 함께 은거하지 않고 속세에 남았다가 벼슬길에 올라 강원도 관찰사, 이조 판서에 이름. • 우연히 만난 설생의 초대로 머무른 회룡굴에 매료됨. • 훗날 재회를 기약했던 설생이 찾아오자 벼슬을 주려 함.

포인트 2

공간적 배경과 서사의 흐름 **문항 1, 3 관련**



포인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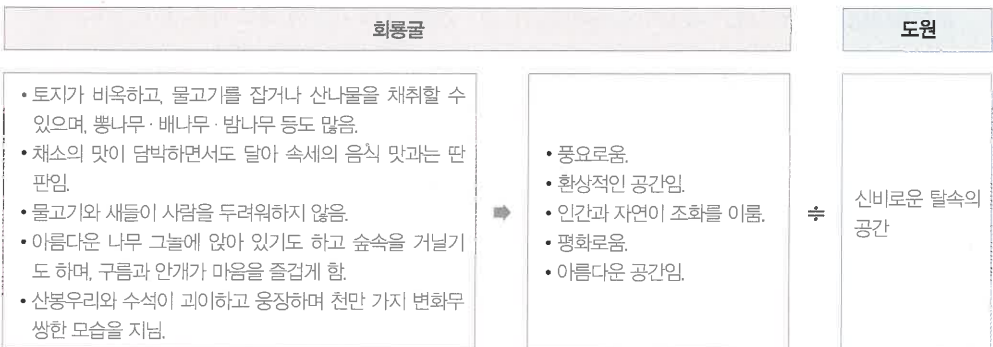
야담 「설생 이야기」 **문항 2 관련**

신돈복의 야담집 『학산한언』에는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야담인 「설생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설생전」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야담에 따르면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는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한다. 이 정보를 참고하면, 오도일은 「설생전」을 통해, 정치적 변란을 겪으며 「벼슬길로 나아가는 삶」과 「속세를 떠나 자연 속으로 물러가는 삶」의 갈림길에서 전지를 택했던 조부와 자기 가문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한편 야담 「설생 이야기」는 「설생전」에 비해 설생에 집중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설생이 거처하는 유토피아를 통해 정욕을 긍정한 점에서 파격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회룡굴」과 「도원」 **문항 3 관련**

설생의 안내에 따라 회룡굴에 가 보게 된 관찰사는 그곳이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 같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도원(桃源)’은 동진(東晉)의 전원시인 도연명이 귀족들의 농민 수탈과 부조리한 정치 상황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도교적 이상향으로 상상한 공간이다. 그가 지은 「도화원기」에 따르면 ‘도원’은 진(秦)나라 때 한 어부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사꽃[도화(桃花)]의 근원을 찾아가다가 발견한 신비로운 탈속의 공간으로서, 빈부 격차와 세금, 전쟁과 억압이 없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족적인 공동체였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청구야담'이라는 아담집에 실린 작품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구비 설화로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로 추정된다. 주인공 '막동'은 송씨 집안의 하인이었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 재산을 모은다. 이후 양반 최승선이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주변의 인심을 얻어 덕망을 인정받는다. 조선 후기 양반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서민들의 바람과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급격한 변동 양상을 잘 드러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주제

재산을 모아 양반 행세를 하던 막동의 위기 대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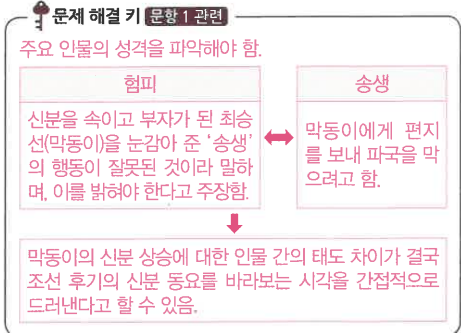
전체 줄거리

사족인 송씨 가문이 몰락한 후 궁주름을 이기지 못한 막동은 종적을 감춘다. 송 씨의 어린 아들 송생이 빈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니다 최승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는데, 최승선은 송생이 자신의 옛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자신을 드러낸 후, 비밀을 지킬 것을 부탁한다. 최승선은 자신의 신세를 지고 돌아가는 송생에게 큰돈을 선물한다. 송생의 사촌 동생(험피)은 이 사연을 듣고 최승선을 만나 반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떠난다. 송생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최승선은 험피에게 광증이 있다고 주위를 속인 후, 엽표를 놓으며 그를 꾸짖는다. 험피는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공손한 태도로 최승선을 대한다.

도망 노비가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임. [앞부분 줄거리] 송씨 집안에서 도망친 하인 막동이는 최씨 집안의 양반 행세를 하며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된다. 고성에 인정 많은 부자 최승선으로 삼십 년간 지내던 막동이는 옛 주인의 아들 송생을 만난다. 막동이는 송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사죄를 한 후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한다.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하며 후하게 대접하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 큰돈을 주어 돕는다.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에게 '험피'라는 별호를 가진 사촌 동생이 찾아와 부자가 된 연유를 묻는다.

험피 가로되, "진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배대 아니라. 재물 얻은 연유를 종시(終始)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뇨." / (송)생이 가로되, "네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되니 내 실로 고하리라."

하고, 인하여 그 실상을 자세히 말한대, 험피 대로하여 가로되, "형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중놈의 후한 뇌물을 받고 기존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호형 호숙하여 그 강상(綱常)을 어지럽히니 어찌 대단한 수욕이 아니리오. 내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 이 종의 패악한 죄상을 드러내어 하나는 형장의 수치를 씻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불들리라."



하고, 말을 마치며 신을 들메고 바로 동문 밖으로 나가거늘, 생이 대경하여 급히 걸음 잘 걷는 자를 샅 주어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하고 또 실연한 허물을 자세히 하다. 생이 벗겨지지 아니하게 끈으로 신을 발에다 동여매고 송생이 험피와의 일을 최승선에게 알려 최승선의 피해를 막고자 함.

▶ 송생과 최승선(막동)의 일을 알게 된 험피가 최승선의 신분을 밝혀려 하자, 송생이 이를 최승선에게 편지로 알림. 꺾자*가 배도(倍道)*하여 고성에 이른즉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로 더불어 바둑 두더니 편지를 드리매 펴 보고 소불동념(少不動念)*하고 대소하여 일어나 가로되, "문득 소년 시절에 재주 배운 것이 뉘웃도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묻거늘 승선이 가로되, "향일에 재종질 왔을 제 내 우연 침약 공부를 하였다 자랑하였더 험피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험피가 내뱉는 말이 거짓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사건을 사전에 만들어 놓음. 니 재종질이 크게 기거 말하되, '제 동생 하나가 있는데 광질(狂疾)*이 있으니 마땅히 완전히 말아 치료하여 보내라.' 하니 나는 희언으로 하였거늘 저는 곧이듣고 과연 보낸다 하니 급명간에 마땅히 이를지라. 제공은 각기 귀가 웃음거리로 하는 실없는 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감.

하여 문을 닫고 광인으로 하여금 횡행케 말라." 험피의 말을 광인의 말로 몰아붙이고 험피를 가두어 겁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제인이 크게 두려워 다 집으로 돌아가 일동이 자취를 피하여 가로되, "승선 집에 광부가 온다." 하더라. ▶ 송생의 편지를 받은 최승선이 앞으로 오는 사람에게 평절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임.

얼마 안 되어 험피 분기충천하여 크게 부르며 어지러이 꾸짖어 가로되, “아무도 우리 좋지요, 아무도 우리 중의 자식이라.” / 일동이 대소 왈, “진짜로 광부가 왔도다.”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하고 건장한 노비 수십 인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즉시 집 뒤 곳간 가운데 구류하고 침과 바소*로써 다스리더니, 이윽고 동리 사람이 또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긱어 가로되,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이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제인이 가로되, “아깝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으랴. 우리 광인을 많이 보았으되 이렇게 심한 자는 없다.” 하더라.

▶ 험피가 최승선의 신분을 밝히려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음.

밤이 깊으매 다 헤어지거늘 승선이 큰 침 하나를 가지고 홀로 험피 가둔 곳에 이르니 험피 입을 벌려 크게 욕하거늘,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침으로 어지러이 찌르니 피육이 다 터진지라. 험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살려 달라고 빌거늘, 승선이 계속해서 쑤시니 험피 여러 가지로 애걸하거늘,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책하여 가로되, “내 스스로 분의(分義)*를 지키어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어늘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내 권속공권으로 기가(起家)하였으니 어찌 지각이 없어 너 같은 용우배*에게 낭패를 보랴. 당초에 검객을 보내어 중로에서 너를 처치할 일로되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직 네 생명을 보전하노니 네 만일 허물을 고쳐 어진 마음을 먹은 즉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한 즉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이 되려니 오직 네 스스로 헤량하여 정하라.”

충직하고 온순하며 인정이 두터움.

험피 그 충후함에 감동하여 그 이해를 헤아리고 이에 가로되, “만일 내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한즉 개자식이 험피가 단순히 험박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최승선의 말과 행동의 충후함에 태도를 바꾼 것임을 드러냄.”

되리라.” / 승선이 가로되, “지금부터 나를 숙부로 부르고 모든 사람이 만일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하라.”

험피 가로되, “오직 명대로 하리이다.”

▶ 최승선의 위협에 혼이 나고, 그 충후함에 감동한 험피가 승선을 따르기로 다짐함.

승선이 이에 자제를 불러내어 일러 가로되, “송질의 병 빌미가 다행히 고향에 들지 아니하였기로 침을 많이 주었으니 마땅히 신기한 효과가 있으리라. 모름지기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그 원기를 푼게 하라.”

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낫기 어렵다는 부분

승선이 자제와 비복을 거느리고 들어와 험피를 본대 험피 기꺼 절하여 가로되,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신기 청명하고 병근이 쾌히 없으니 원컨대 고향에 편히 누워 수일 조리하여지이다.”

최승선과의 거짓 관계를 인정하고 사실을 숨기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승선이 울어 가로되, “하늘이 송씨 향화(香火)*를 끊지 아니하시랴는가. 내 어제 차마 못할 일을 하여 네 살에 어지럽게 침을 주니 가위 골육상잔이라.” 하고 인하여 새 옷을 입혀 데리고 외당에 나와 극진히 무휼하더라*.

얼마 안 되어 향리 다 모이거늘 승선이 험피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여 비라 한대, 험피 공경하여 예를 하고 또 가로되, “작일에 병이 대작하여 불성인사하니 모든 어른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었더니까.”

이로부터 험피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순하더라.

큰 재물을 주어 험피에게 보상하고, 험피 또한 그 행동에 감응하여 외적 같듯이 해결됨.

한가지 머문 지 오류 삭 만에 삼천금으로 보내니 험피 중신토록 감은(感恩)하여 다시 이 일을 누설치 못하더라.

▶ 최승선의 양반 행세에 동참한 험피가 최승선에게 후한 보상을 받고 감은함.

* 강상: 삼강과 오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룸.

* 배도: 이틀이 걸려 갈 길을 하루에 걸음.

* 광질: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증세. 광증.

* 조카: 원문은 ‘족하(足下)’임.

* 용우배(庸愚輩): 용우한 무리. ‘용우하다’는 용렬하고 어리석다는 뜻.

* 무휼(無恤)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물질로 돕다.

* 결자(厥者):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소불동념: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함.

* 바소: 굵은 상처를 짤 때 쓰는 침.

* 분의: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 향화: 향을 태우는 불. 제사를 이르는 말.

* 패만(悻慢)하다: 사람됨이 온화하지 못하고 거칠며 거만하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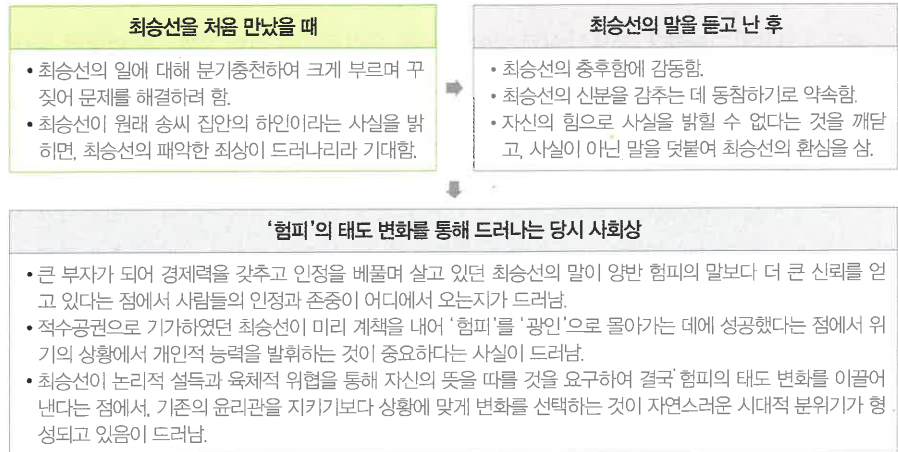


‘송생’의 말을 들은 ‘험피’가 분노를 한 이유 **문항 1 관련**

‘험피’는 ‘최승선’의 본래 신분을 밝히지 않은 ‘형장(송생)’의 행동이 ‘종놈의 후한 뇌물’을 받은 일이며, ‘강상’의 도리를 어지럽힌 일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험피’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종의 패악한 죄상’을 드러내면 ‘풍속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급격하게 진행된 신분제의 동요에 대한 양반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승선’에 대한 ‘험피’의 태도 변화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다양한 민담과 야담이 소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야담』

작자·연대 미상의 『청구야담』은 1700년대에서 1800년까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조선 후기 한문 야담집의 하나로, 결구와 수법이 뛰어나 당시의 언어, 풍속, 관습 등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흔히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취집(東野彙輯)』과 함께 3대 야담집으로 불리는데, 『계서야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대부들의 간단한 일화는 채택하지 않고, 사대부들이 등장하더라도 행동 양상과 사건 설정의 측면에서 하층민의 생활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야담집을 엮었다. 『청구야담』은 하층민들이 겪는 사회적 갈등에 관심을 두고 상세한 세태 묘사를 통해 당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어, 야담이 소설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도록 기술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BS Q&A

Q. 외재적 관점의 <보기>와 문학 작품을 관련지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항 2 관련**

A. 외재적 관점의 <보기>는 대체로 작품 자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작품의 창작 시기나 창작 배경과 관련된 내용 등을 주로 다룹니다. 혹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른 학문 분야의 개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항을 해결할 때에는 먼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후, 지문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떠올려 두 개의 정보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번 선지에서 ‘하인 막동이가 ‘최승선’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가 야담에 실리게 된 것’이 맞는지의 작품을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보기>에서 언급한 ‘도망 노비가 증가했던 당시의 현실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외재적 관점을 다룬 <보기>는 결국 지문에서 도출한 내용을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녔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17세기의 가부장적 강화와 가문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씨 가문의 수호와 번영을 다루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로, 한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제1대의 현성, 제2대인 운경과 운성, 제3대인 세명과 세광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이 유교 사상 및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건 전개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주제

혼인을 둘러싼 소씨 가문의 갈등과 해결

전체 줄거리

제대의 주인공인 소현성은 화 소저, 석 소저, 여 소저와 차례로 혼인한다. 소현성과 그의 부인들은 혼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슬하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제2대의 인물들 중 운성은 형 소저, 명현 공주, 소영과 혼인하는데, 운성과 그의 부인들은 혼인 과정과 혼인 후에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명현 공주는 운성과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부인인 형 소저를 모함하고,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인 소현성과 남편인 운성과 대립하는 등 소씨 가문과 갈등을 빚는다. 이후 명현 공주의 죽음으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된다. 작품은 제3대 인물인 세명과 세광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이 전개되며 마무리된다.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황제의 딸인 공주를 황제의 신하인 소 승상이 옥에 가두라고 명령함. 가부장적 유교 질서를 지키기 위해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권위가 중시되는 모습에 해당함.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 내려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욕하는 일

말을 마치니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소 승상의 아들이자 공주의 남편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殿)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私獄)에 밀어 넣었다. 승상이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 와 상소를 짓고 곧장 모당(廟堂)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 상서 반영의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

법률·소송·재판에 관한 일을 알아보던 관아

서 알아 오라 하고 또 예부 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禮)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

의례 등에 관한 일을 알아보던 관아

는 법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禁義府)로 적어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임

아뢰었다.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 급히 부 황후와 상의하였다. 부 황후가 크게 노여워하며 말하였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 황제가 말하였다.

부 황후는 소 승상이 왜 공주를 죽이고자 하는지와 상관없이, 신하인 소 승상이 공주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소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함. “황후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모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태자

황제가 소 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①

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

황제가 소 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②

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 승상을 위

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 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

황제가 소 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③

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소 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팔왕을 불러 나가서 소 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문제 해결기 문항 2 관련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
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 ‘답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황제와 부 황후의 대화를 통해 황제가 편지를 소 승상에게 보낸 이유를 파악해야 함.
- ‘편지’에서 태 부인이 소 승상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말하기 전략을 파악해야 함.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를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운성의 부인

소 승상이 임의로 공주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함.

소 승상이 전교를 들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의부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 소 승상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시아버지를 모욕한 공주를 처형하려 하고 황제는 이러한 소 승상을 달래기 위해 답서를 보냄.

(중략)

이때 팔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 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 승상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다만 사례하며 말하였다.

❗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와 같이 팔왕의 방문에 대한 소 승상의 발언과 팔왕의 제안에 대한 소 승상의 답변 및 태도를 통해 소 승상의 생각을 파악해야 함.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황제의 딸인 공주를 옥에 가둔 일을 일컬음.

팔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소 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팔왕이 조용히 말하였다.

"명현 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상의 낮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군신(君臣)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 승상을 설득함. ①

소 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 승상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팔왕이 웃고는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군신(君臣)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 승상을 설득함. ②

소 승상이 흔연히 웃고 칭찬하고 사례하며 말하였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 만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尊命)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남의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황제의 낮을 보아 공주를 용서하라는 팔왕의 권유를 의미함.

팔왕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 고자 하느냐?" / 소 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뵈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소 승상이 곧 형부 상서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 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와 말하였다.

▶ 소 승상은 공주의 처형을 만류하는 팔왕의 제안을 거절함.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回報)를 알아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대답으로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드디어 소매 가운데에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소 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어머니인 태 부인을 공경하는 소 승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 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인정에 호소하며 공주를 풀어 줄 것을 부탁함.

소 승상이 다 본 후 능히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구 승상이 앞에 나아와 말하 어머니의 명을 따라 공주를 풀어 주는 것과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공주를 처형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 승상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음.
 였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 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을 돌으며 삼강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 승상이 태 부인의 편지를 받고 나서도 쉽게 공주를 풀어 주지 못하는 이유
 구 승상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여 말하였다.

“저는 영종당 태 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구 승상은 자신과 소 승상의 어머니인 태 부인과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태 부인의 인품을 언급하며 소 승상을 설득함.

소 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 소 승상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황제의 답서가 아닌 태 부인의 편지임. 이를 통해서도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매우 중시하는 소 승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논을 그쳤다. 칠왕과 팔왕 두 사람이 들어가 아뢰자 황제가 기뻐하였다.

▶ 소 승상은 공주의 처형을 만류하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소 승상’의 ‘명현 공주’ 처벌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 **문항 1 관련**

황제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지켜 소 승상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군.
부 황후	소 승상이 공주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소 승상은 공주를 업신여기고 있군.
팔왕	공주를 살리기 위해 소 승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황제와 소 승상 간의 군신 관계를 언급해야겠군.
구 승상	소 승상은 평소 어머니 태 부인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니,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와 태 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태 부인의 성품을 강조해야겠군.

포인트 2 ‘답서’와 ‘편지’에서 확인하는 인물의 소통 방식 **문항 2 관련**

<p>답서: 황제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p>⇒ 표면적으로는 소 승상에게 공주에 대한 처형을 일임하는 듯하지만, ‘국법으로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통해 소 승상 입의대로 공주를 처형하는 것을 방지함.</p>	<p>⇔</p>	<p>편지: 태 부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p>⇒ 공주의 평소 행실과 자신과 소 승상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하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함.</p>
--	----------	---

■ 「소현성록」의 서사 구조(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기준)

15권 15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전(권 1 ~ 권 4)'과 '별전(권 5 ~ 권 15)'으로 구성된다.

권 1 ~ 권 4(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현성록'이라는 내부 표제가 붙어 있음. • 제1대 소현성의 혼인 과정과 혼인 후 벌어지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됨.
↓	
권 5 ~ 권 15(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삼대록'이라는 내부 표제가 붙어 있음. • 제2대 중 윤경, 윤성, 윤명, 수빙의 혼인담과 그에 따른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제3대 인 세현, 세필, 세광, 세명 등의 행적을 소개하며 마무리됨. • 제2대인 윤성이 형 소저, 명현 공주, 소영 등과의 혼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및 혼인 이후의 부인 간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교재 수록 부분)

■ 국문 장편 소설의 특징

분량	장편이라는 분량이 갈래적 변별 자질의 중요한 기준이 됨.
기본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 종적으로는 누대에 걸친 서사+ 횡적으로는 가문 간 문제로 확대됨. • 유형적 반복을 통해 서사가 진행됨. →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펼쳐 나가는 방식을 취함.
주제	<p>충효열(忠孝烈)과 같은 유교 이념 구현을 통한 중세적 질서 회복 의지와 가문 창달을 다룸.</p> <p>→ 상층 지식인의 이념 지향적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함.</p>
내용	<p>문벌이 대단한 상층 귀족 출신의 복수의 남녀 주인공이 서로 얽히면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빚어냄.</p> <p>→ 사대부와 궁중의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원인임.</p>

■ 조선 시대 후기의 또 다른 장편 소설 「유씨삼대록」

「유씨삼대록」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유씨 가문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3대에 걸쳐 유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가문의 창달과 번영은 물론 인생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밀도 있게 보여 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유씨 가문의 3대(1대 유우성, 2대 유세기, 유세형, 유세창, 3대 유관, 유현, 유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대는 유우성의 지속적인 승진 및 전장에서 무훈(武功), 2대는 유우성의 여덟 자녀의 혼사와 입신(立身), 부부 생활에서의 갈등 및 시련, 3대는 유세형의 자녀 중 관, 현 형제의 무훈과 가족 간의 갈등, 유세창의 아들인 몽의 영웅담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Q. 「소현성록」과 같은 장편 국문 소설이 당대에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 3 관련

A. 「소현성록」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확립된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소현성록」은 한글 필사본으로, 15권 15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전과 별전으로 구성되어 그 길이가 상당합니다. 이 작품은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 규범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修身書)로서 독자들에게 향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풍부하고 섬세한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 역시 당대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요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로, 액자 구조를 띠고 있다.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다가 결국 뇌물을 써서 소송에서도 이기는 악한 친척 때문에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액자의 외화(外話), 즉 바깥 이야기를 이룬다. 액자의 내화(內話)는 송사에 진 부자가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우화(寓話)로, 날짐승들의 송사에서 벌어진 부정한 청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의 부정적 사회상, 특히 비리로 얽힌 송사 때문에 사회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던 부패상을 풍자한 소설로 볼 수 있다.

주제

송사에 얽힌 비리와 횡포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여러 번 재물을 얻어 간 친척 한 사람이 이 번에도 재산의 반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부자가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에 친척은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치를 한다. 부자는 사리에 어긋나는 판결로 패소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우화 하나를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준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피꼬리, 삿꼭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기 소리에 열등감을 느끼던 따오기는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곤충을 잡아다 황새에게 뇌물로 바치며 부정한 청탁을 한다. 황새는 그 청을 받아들여 피꼬리와 삿꼭새의 소리는 폄하하고 따오기의 소리는 웅장하며 가장 좋은 소리라고 판결한다. 이러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모두 부끄러워한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갈등의 원인

[앞부분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 유일한 골칫거리는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재물을 얻어 간 일가 친척 한 사람이 이제는 아예 재산의 반을 떼어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다 못해 부자더러 소송을 걸라고 권하고, 이를 받아들인 부자는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소송을 제기한다.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坐起)* 되기만 기다리매 그사이 서리나 찾아보고 낚새나 얻을 일이로되, 제 이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송사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김,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한 성품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할 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虛浪無道)하여 주유사방(周遊四方)하매 문견(聞見)이 액자 구조의 내화에서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라고 한 부분에 대응됨.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을 아는지라. ▶ 송사에 대비하는 부자와 '그놈'의 상반된 태도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뚫어 당상(堂上)이며 낭청(郎廳)이며 서리(胥吏) 사령(使令)까지 꺾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得勝)하노니, 이는 당대의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이른바 녹피(鹿皮)에 가로알 자를 씌*이라. 아뭇가나 좌기 날을 당하여 당상은 주좌(主座)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관원들이 위엄을 차린 모습
 열좌(列座)하고 서리 등은 뒷마루에서 거행할새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에게 분부하여,

“양축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하(階下)에 꿇리며 분부하되,

가난한 족속이나 사람

“네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제 자수성가를 하여도 빈족(貧族)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救急)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업(祖業)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꾼에 이르니 죽히 흉년에 이른 백성을 진휼(賑恤)도 하거든, 너의 지친(至親)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뢰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네 소위(所爲)를 헤아리면 소당 형추 정매할 것이로되* 심분 안서(安徐)*하여 송사만 지우고 내치노니 게는 이런 상덕(上德)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눠 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치 말라.”
부자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준, 판결의 핵심 내용임.

하며, / “그대로 다짐받고 끌어 내치라.”

▶ 당상이 '그놈'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릇된 판결을 내림.

하거늘, 부자 생각하매 이제 송사를 지니 가장 절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을 부도(不道)로 보내니 효험이 있을까 하여 다시 꿰어앉으며 고하려 한 그릇된 판결로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지러워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음. 즉 호령이 서리 갈아 등을 밀어 내치려 하거늘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필경 관전 발악(首前發惡)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조율(照律)*을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무슨 안을 못 하며 무지한 사령 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終身) 어혈(瘀血)* 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송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곧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 부자가 억울한 마음에 우화를 꾸며 관원들을 비판하려고 마음을 먹음.

하고 다시 일어서 계하에 가까이 앉으며 고하여 가로되,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 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체모에 괴이한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 가로되,

“네 본디 하향에 있어 사체 경중(事體輕重)을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못한 말이라도 네 원이나 싶은 시골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들어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말을 해 보라고 하면서도 속마음을 감추고 있음.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이고 아뢰어라.”

하니 그 부자 그제야 잔기침을 하며 말을 내어 가로되,

▶ 외화(부자의 송사 이야기)에서 내화(새물의 송사에 얽힌 우화)로 전환되는 부분

옛적에 피꼬리와 삐쭉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치 못하였다.

하루는 피꼬리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송사를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여김.

하니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 크고 부리 길고 몸집이 어방져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 장군이라 하노니, 우리 그 황 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노.”

‘어방저’는 넓고 크다는 뜻의 사투리임.

세 짐승이 옳이 여겨 그리로 완정(完定)하매 그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수를 쓴다는 점에서 ‘부자’의 친척인 ‘그놈’에 대응됨.

세상 물정에 밝음.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이 없는지라.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니 아물거나 청촉(請囑)*

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다.’

▶ 송사에서 질 것을 직감한 따오기가 부정한 청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마음먹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따오기는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곤충을 잡아다가 뇌물로 바치며 송사에서 이기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다.

황새 놈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펍 든든히 여겨 하는 말이,

“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 경중을 알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구나. 대저 송사에는 애증(愛憎)을 두면 칭원(稱冤)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니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오. 그러나 송사는 곡직을 불계(不計)하고 꾸며 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 전에도 네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 만일 내 네 소리를 이기어 주어 필연 칭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려니 이를 염려하노라.”

따오기 고쳐 아뢰되,

“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上德)만 믿고 가나이다.”

황새 웃고 이르되,

“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 알리오. 어디 보자.”

▶ 따오기의 송사 청탁에 대한 황새의 호응

- *좌가: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녹피에 가로왈 자를 씌: 사슴 가죽에 쓴 가로왈(曰) 자는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알(曰) 자도 되고 왈(曰) 자도 된다는 뜻으로, 사람이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랬다저랬다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당 형추 정배할 것이로되: 마땅히 정강이를 때리며 죄를 깨문고 유배를 보낼 것이로되
- *안서: 잠시 보류함.
- *조율: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어혈: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힌 또는 그 피.
- *청축: 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함.
- *칭원: 원통함을 들어서 말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갈등의 양상 문항 1, 3, 4 관련

- 순진하게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다가 절망함.
- 우회를 꾸며 들러줌으로써 형조 관원을 비판함.

- 부자의 먼 친척
- 예의와 법도를 무시함.
- 계속 재물을 얻어 가고도 재산의 반을 요구함.

- 부패한 권력층
-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함.

부자

'그놈'

당상을 비롯한 형조 관원

청탁

[외화(外話)]

친척의 악행 때문에 열린 송사에서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게 된 부자 이야기

[내화(內話)]

따오기에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 황새에 관한 우화

송사(訟事) 모티프와 풍자적 주제 **문항 3, 4 관련**

고전 소설에서 인물이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송사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을 다룰 때 이를 송사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는 이 작품에서 부자의 송사, 그리고 황새의 판결에 관한 우화에 활용되었다. 공정한 법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이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 작품의 풍자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



■ 이 작품에 반영된 향촌 사회의 갈등

부자가 올렸던 원정과 관원의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부유하다는 이유로 빈곤한 일가친척과 이웃을 구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는 구휼을 요구하는 범위와 정도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능력치를 넘어서거나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향촌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즉 이 작품은 주변의 형제나 친척들의 곤궁함까지 감내해야 했던 부유한 향촌민의 고충, 그리고 이로 인한 향촌민들 간의 갈등이 결코 심상치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장예준, 『새들의 목청 자랑과 황새의 판결』, 『한국 고전 문학 작품론』 중

■ 송사형 우화 소설의 종류

송사형 우화 소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뇌물 수수와 같은 부당한 관행이 송사의 진행 과정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 송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악인의 교연이설에 쉽게 속는 수령과 판관의 무능 및 뇌물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향촌 내에서 제기된 문제적 갈등이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곧 선과 악이 뒤바뀌고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상황을 초래한다. 셋째, 현명한 판관에 의해 향촌 내에서 제기된 문제적 갈등이 바르게 해결되는 것이다. 『황새결송』은 둘째 부류에 속한다.

- 신해진, 『서류 송사형 우화 소설』 중

■ 마지막 대목 읽어 보기 **문항 4 관련**

이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고 우셨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 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들이 대담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진실이나 정의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사로운 판결을 내린 이들이 무안함이나 느끼게 만들겠다는 부자의 의도대로 '서울 법관'인 형조 관원들이 할 말을 잊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 사설이다.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약자의 설움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원작에서 간음으로 평가된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들의 설움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갈공명을 모셔 와 세력을 보강한다. 권력을 쥔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일으킨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정길에서 각자의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는 제갈공명의 지략에 넘어가 전투에서 패하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손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대패한다. 퇴각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제갈공명이 보낸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간다.

[아니리]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히히히히히히해해!” 크게 웃으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애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구나! 적벽에서 한 조조를 회화회함으로써 조롱의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서 두 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어 놓았으니, 이제 정욱이 병사들에게 이전 전투에서 패한 상황을 상기시킨.
 는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아, 이놈들아. 나 곧 웃으면 원망 말고 너희도 생각들을 해 바라. 만일 주유 공명이 이곳에다가 병든 군사라도 스무 명만 갖다 물어 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 자신이 주유나 공명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조조의 심리를 엿볼 수 있음. ‘날아가는 조조’라는 뜻으로 조조를 조롱하여 일컬은 말
 갈 수 있겠느냐? 히히히히히히해해해해해!” 크게 웃으니, ▶ 조조가 주유와 공명의 어리석음을 비웃음.

[자진모리]

휘모리장단보다 좀 느리고 중중모리장단보다 빠른 속도의 장단

웃음이 끝나자마자 북병이 일어난다. 화용도 산 위에서 대포 소리 ‘퐁!’ 이 너머에서도 ‘퐁!’ 저 너머에서도 ‘퐁 궁그르르르르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뀔 듯, 뇌고 나팔 우, 쿵 팽 처르르르르르르 화용도 산골 짜기 뒤끓으니, 위나라 장졸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서 있을 때, 오백 도끼 부대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 깃발 들었는데, ‘대원수 관우 삼군 사명기라!’ 뚜렷하게 새겼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 수염, 군대의 지휘권을 적어서 드리운 기
 봉황 눈을 부릅뜨고,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내지르며, “네 이놈, 조조 야! 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조조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정신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아, 이 녀석아. 좀 자세히 살펴봐 당황하여 상대방의 깃발에 쓰인 이름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라!” 정욱이 정신 차려, “깃발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인자하니 관우임이 분명하오.” “더욱 관우라면 도망갈 곳 없고 벗어날 도리 없다.” ▶ 조조 앞에 관우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정욱의 모습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함.

[아니리]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든지 한번 싸워 볼 수밖에는 수가 없구나. 너는 아무조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 보자.” 정욱이 여쭙오되, 방벌이

[중모리]

진양조장단보다 조금 빠르고 중중모리장단보다 조금 느린 중간 빠르기의 장단

“장군님의 높은 재주, 호통 소리 한 번 하면 김집승도 갈 수 없고, 칼 빛 번뜻하면 나는 새도 푹 떨어지니, 단검 한 자루로 다섯 장수 베던 솜씨,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씨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삼국에 으뜸이라,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다.”

▶ 관우와 맞서 싸우려는 조조를 정육이 설득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조조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심을 내세워 망설이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해야 함.

[아니리]

“허허허허,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야들야. 신통한 피 하나 생각했다.” “거, 무슨 피를 생각하셨소?” “나를 죽었다고 흠이불로 덮어라. 덮어 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 갈 것이니, 흠이불 둘러싸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달음박질로 달아나자.” 정육이 여쭙오되, “아, 지금 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다투는데, 죽은 승상 목 베기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피 냐다가 목만 낭비하고 보면, 다시 싸도 길어날 수 없고, 화용도 귀신 될 터이니, 얇은피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조조가 할 수 없어서 장군 말 밑에 빌러 들어가는데,

▶ 조조가 어리석은 피를 내자 정육이 관우에게 빌기를 권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중모리]

(보기)에 언급된 중모리장단의 특징과 연행되고 있는 사설 내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함.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서 말에 엮고, 장검 빼어서 땅에 꽂고, 대머리 고추상투 가는 목을 움츠리고 볼품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호호호 해해해.”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장군님 뵈은 지 오래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관우의 어진 마음 말 위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 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북병해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조조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을 거느리고, 천 리 전장 나왔다가 오적의 패배 보고, 초수 오산 험한 길에 허둥지둥 가는 길에, 천만뫼,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나오니, 어찌 아니 반가우리까?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옛정 생각하여, 살려 돌아 보내 주시길 거듭거듭 바랍니다.” 관우가 꾸짖어 왈, “이놈, 조조야, 들어 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는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 양 진영에 어찌 사사roi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진즉 죽일 것이로되, 옛날의 얼굴 보아 인사는 서로 하거니와, 결국은 죽이려니. 네 여러 대 한나라 신하로서 윗사람을 모욕하고 아랫사람 깔볼뿐더러, 세상이 셋으로 나뉘어 어지러움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훼손되니, 난세의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뉘 아니 미워하리?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용도로 들어올 때는 네 운명이 그 뿐이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가련히 비는 말이, “장군님, 들으시오. 흉악한 흉노라도, 칠 일 동안 포위당한 한고조를 살려 냈고, 지백 신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 품고 궁중 변소 도색하되,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이라 이르고 내가 피하리라 하였으니,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 주고, 삼가 피하소서.” 관우가 꾸짖어 왈,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도량 넓은 임금이라 일이 그러하거니와, 너는 한나라 도둑이요,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 잡으러 예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 보낼소냐?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 조조가 옛정을 언급하며 관우에게 살려 달라고 빌.

*예양: 자신이 섬기던 지백이 조양자에게 피살되자 복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자살한 인물.

포인트 1

「적벽가」의 인물 유형 **문항 3 관련**

조조	영웅적 면모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비판적인 인물로 형상화됨.
정욱	조조의 부하이면서도 조조의 어리석은 면을 부각하고 공자와 조롱을 통해 조조를 희화화하는 방자형 인물로 형상화됨.
관우	유비의 휘하에 있는 충직하고 용맹한 장수로, 적벽 대전에서 패해 도망치는 조조를 잡아 오는 임무를 맡은 의로운 장수로 형상화됨.

포인트 2

「적벽가」와 「삼국지연의」의 비교

	「적벽가」	「삼국지연의」
갈래	판소리 사설	소설
인물	조조는 풍자의 대상으로 희화화되고, 무명의 하층 군사들의 입장이 중요하게 다룸.	유비, 조조, 손권 등 황제와 그 수하들을 영웅으로 묘사하여 제시함.
내용	하층민들의 설움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다룸.	영웅들이 삼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겪는 암투와 전쟁 등의 서사를 다룸.
초점	적벽 대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위, 촉, 오 삼국의 흥망성쇠를 다룸.

포인트 3

판소리의 장단 이해 **문항 2 관련**

장단	내용
진양조	여러 가지 장단 중 가장 느린 장단으로, 사설의 내용이 한가하고 유장한 대목에 주로 쓰임.
중모리	보통 빠르기의 장단으로, 서정적인 대목이나, 상황을 평탄하게 서술하는 대목에 주로 쓰임.
중중모리	중모리장단을 조금 빠르고 흥겹게 치는 장단으로, 춤추는 장면이나 활발하게 걷는 장면에 주로 쓰이고, 때로는 통곡하는 장면 등에도 쓰임.
자진모리	중중모리장단에서 더 빨리 모는 장단으로, 어떤 일을 길게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대목, 극적이고 긴박한 대목 등에서 자주 쓰임.
휘모리	자진모리장단보다 더 빠른 아주 빠른 장단으로, 극적인 상황이 매우 분주하게 벌어지는 대목에서 쓰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판소리의 주요 용어

판소리에서 노래 부른 사람을 ‘광대’ 또는 ‘창자’라고 하고, 북 장단을 맞추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발림’은 창을 하면서 하는 동작을 가리키는데, 가사, 소리, 몸짓 등이 일체가 되었을 때는 ‘너름새’라고 한다. 고수 또는 청중이 내는 탄성으로 흥을 돋우는 소리를 ‘추임새’라고 하는데, ‘얼씨구’, ‘좋다’, ‘그렇고 말고’, ‘어허’ 등과 같은 표현을 많이 한다. 판소리에 창자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더늠’이라고 한다.

■ 판소리에서 ‘아니리’의 기능 **문항 2 관련**

아니리는 판소리 사설에서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 어조의 말로 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사설은 창과 아니리로 이루어지는데, 창자의 음악적 역량은 주로 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창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또 창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창자와 청중은 작중 현실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에서의 긴장은 일상적 어투로 이루어진 아니리의 부분에서 이완되고, 또 작중 현실에서 벗어나 작품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게 된다.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작품의 사건 전개와 요약, 논평 등 서사의 진행에 간여하고 있다. 또한 고수나 청중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판소리의 무대를 소통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창자, 고수, 청중이 어울려 판소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 아니리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니리는 판소리의 중요 구성 요소인 창과 함께 판소리의 판소리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한국민속문학사전(판소리 편)』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왓짜 타령', '무숙이 타령'이라 불리는 판소리에서 유래한 판소리게 소설로, 어진 아내를 둔 왓짜인 김무숙이 재산을 탕진하고 곤란을 겪으며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주인공 무숙과 같이 몰려받은 재산으로 사치를 일삼고 향락적 삶을 살아가는 불건강한 인물들이 등장하던 때로, 이 작품은 무숙이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는 등 공동체적 삶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무숙에 대한 정치와 교정을 통해 건강한 삶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무숙의 불건강한 삶에 대한 정치와 교정을 통한 건강한 삶의 회복 기원

전체 줄거리

성종 대왕 즉위 원년, 방탕한 짓을 일삼는 왓짜 우두머리인 김무숙은 어진 성품을 지닌 그의 아내와 살아간다. 어느 봄날, 무숙은 왓짜들에게 마지막으 한번 크게 놀고 난 뒤에 착실히 살겠다고 말하지만, 평양 기생 의양이가 화개동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의양을 찾아가 다정한 편지로 그녀의 환심을 얻는다. 무숙은 큰돈을 들여 의양을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녀와 호화롭게 살아간다. 돈을 몰 쓰듯 하는 무숙을 걱정하는 의양은 그의 아내와 짜고 무숙이 돈을 탕진하게 하고, 일부러 무숙의 앞에서 무숙의 친구인 김 선달과 애정 행각을 벌인다. 이에 실망한 무숙은 전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고, 의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낸다. 의양이 또다시 무숙 앞에서 김 선달과 애정 행각을 벌이자 무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의양과 김 선달에게 벌을 줄 것을 축원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의양이 무숙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무숙은 눈물을 흘린다.

의양의 맑은 마음,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탄식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 심
남편의 애정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기에 편지가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황스러움.
복인 사환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무숙의 아내에게 부쳤었다. 무숙의 아내 당황하며 편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판소리 문체의 특징이 나타남.
사연에 하였으되,

‘한 자 글월을 계동 아끼씨 전에 올리옵나이다.
무숙의 아내
문안드립니다. 엇드려 깊이 생각건대 아끼씨께

서는 봄기운이 창창한데 기운 안녕하시는지 우
아버지를 달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러려 바라고 걱정하옵나이다. 불초한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 약방에 잡혀 와 판아에서 일하였는데, 어쩌다
자신의 삶의 내력과 무숙을 섬기게 된 계기를 밝힘.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 가산을 들보지 않으니, 불과 일 년 안에 천금 만재(千金萬財)를 모두
의양의 말을 통해 무숙의 방탕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탕진하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상 제사를 보전치 못하고, 그다음은 아끼씨 목
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패가망신한 것은 의양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
의양은 자신 때문에 무숙이 패가망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걱정함.
에 오를 것이니 이 아니 원통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허량한 심사 잡을 길 없사운데, 세상의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 서러우면,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
의양이 계교로 무숙을 곤경에 빠트리려 하는 이유
고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편지에 아뢰올 말씀은 산처럼 많사오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너무 막혀 대강만 아뢰옵나이다. 의양은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나이다.’

무숙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네가 평양집 사환이냐? 편지를 보니 창기 중 뛰어난 사람이요,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의양이 평양 출신이기에 무숙의 아내는 의양을 ‘평양댁’이라 부름.
연적에 떡을 갈 제, 더운 눈물 똑 떨어져 비긴 바람에 가는 빗줄기가 되고, 붓대를 잡으려니 떨어진 눈물에 글

문제 해결기 문항 2 관련

의양이 편지를 보낸 이유와 무숙 아내의 편지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함.

의양의 편지	무숙의 허량한 마음을 집을 필요성을 전달함.
무숙 아내의 편지	의양의 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점을 전달함.

자마다 먹물이 얼룩진다. 편지 써서 하인 주니 의양에게 가만히 전한즉, 의양이 받아 보니 사연에 하였으니,

‘한 통의 편지를 뜻밖에 받아 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사연을 자세히 보니 의가 있는 사람이요, 점잖기도 하구려.

무숙의 아내는 자신과 의양의 신분 차이를 고려하여 의양을 낮춤. 의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드러남.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여! 이는 누구의 닷인가. 부위부강(夫爲婦綱)*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 근래 서방님이 열

‘시경(詩經), <왕풍(王風)>의 구절로, 무숙의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을 의미함.
눈의 보는 바와 열 손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하여, 사나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대학(大學)의 구절인 ‘十日所見 十手所指 其嚴乎’를 인용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 나쁜 일은 감출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님.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

함은 요즘 부녀자들이나 하는 요망한 일이다. 장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반첩여는 남편에게

무숙의 아내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냄.
버림받아서 부채와 같이 쓸모없어졌으나 원한이 없었는지라*. 거기까지는 당치 못하여도 장부의 몫을 일을 막

아 낼 방도가 없더니, 평양집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이해하니, 만사를 능히

잘할 수 있을 것을 내 어찌 모르리오. 종사를 돌아보아 우리 장부를 건져 내어 주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무숙에 대한 계략이 성공했을 때 의양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언급하며 의양의 계략 실행을 독려함.
사당에 제사도 지내 줄 것이니, 수십 년 썩은 이내 간장 평양집이 헤아려 매사를 세밀하게 도모함을 바라노라.’

▶ 무숙의 아내는 답장을 통해 의양의 계교 실행에 동의함을 나타냄.

의양이가 답장을 보고 쉽 없이 눈물이 흘러 옷자락이 모두 젖을 지경이었다. ‘천지간 몫쓸 무숙이 이런 여중군
자 어진 아내를 몰라보네. 나 같은 천첩이야 오일경조(五日京兆)*가 될 것이니 단단히 잡되리라.’

이날부터 막덕이와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으
의양의 하인으로, 계략 실행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
로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막덕이 너는 나하고 계교대로 명심하여 실행
하라.” / 서로 짜고서 약속을 한다.

▶ 의양은 막덕이와 계교 실행을 준비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의양의 편지와 무숙 아내의 편지 내용을 통해 무숙에게 계략을 실행하는
이유, 무숙에 대한 계략 주체와 개과천선의 주체를 파악해야 함.

의양	
무숙의 방탕한 성격을 고치기 위 해 무숙에 대한 계략을 도모함.	계략 주체 + 개과천선 주체

[중략 부분 줄거리] 의양은 계교로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고, 무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에 지닌 장신구와 옷가지뿐만 아니라 상투까지
베어서 팔게 된다. 이후 의양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무숙의 개과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양의 계략에 해당함.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치며 허리 도막 개가죽은

‘’; 판소리의 문문적 문체를 확인할 수 있음. 의양의 계략에 의해 무일푼이 된 무숙의 초라한 행색

찬바람에 너울너울. 버선 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징검징검 백로 모양으로 날이 저물어 가는 황혼에

처자의 집을 찾아가다. 남의 결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 없어 굴뚝에다 밭을 대고 동지선달 불개 떨 듯 사

가족을 버린 후 무일푼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움 때문임.

지를 한데 모으고 오동거리고 앉았으니, 천하잡놈이 아닌가.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속이 탄다.

몸을 움크려 들썩거리고 편견자적 논평. 무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어머니, 밥 좀 주오.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두 푼만 있거든 팔죽이나 사다 먹고 그러저렁 밥을 새지. 오늘

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돌방, 짚풀 위에 드러누워 차마 추워 어찌 잘꼬.”

무숙이 집을 나간 이후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숙의 아내와 그 자식들의 처지가 드러남.

무숙의 아내 이른 말이, / “넌들 무슨 죄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죄고. 몫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이리던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숙을 원망하면서도 무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함.

줄 별썰 응당 알았으련만. 그래도 정 각각, 흥 각각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그러한들 어이하며 저리한들 어이하리. 속으로 느끼어 울며 기가 막혀 우는 소리에 무숙이 또한 기가 막혀 더운
피가 살살 쏟아진다. 들어갈까 말까 주저주저하올 적에 무숙의 막내아들놈 또 기막힌 말을 한다.

“애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¹

“어쩐 말이냐?”

“아까 잠깐 자노라니 아버지라 하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 앞살이 흰하고 구레나룻이 가무스름한데 머리에 송낙을 쓰고 등에 개를 업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니다.”

무숙이 집의 굴뚝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나타냄.

무숙의 아내 깜짝 놀라 우는 말이, “네 이게 웬 말이냐. 네 아버지 죽었구나. 찾아 나갈밖에 수가 없다.”

무숙이 속으로 웃고,

“부자 천륜과 부부간의 중한 의를 오늘이야 알리리다.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 연기는 구름인즉 요 녀석 꿈이 비상하다.” / 썩 들어가 아내 앞에 넓죽 엎드리며, “내 불기를 치소.”

무숙의 아내는 무숙이 더벅머리로 나타난 것을 가장 안타까워함. 이는 '효경(孝經)'의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구절과 관련됨.

무숙의 아내 기가 막혀, “애고.” / 목을 안고 얼굴을 대고,

“이 모양이 웬일이오. 이리될 줄 몰랐던가. 남자 중에 호협객이 패가망신은 불시에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 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유한한 부모가 남겨 주신 몸에 더벅머리 된단 말이 웬일이오. 놀기 좋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 잊은들 어려서 만난 근원 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는 길에 잠깐 둘러 어찌 살아 있나 걱정이나 하였소? 패가망신 이 지경에 '삿바느질 빨래품과 용정방아 동자품, 이때까지 품을

그동안 가족을 잊고 돌보지 않은 무숙의 행실을 비난함. 밥을 짓는 일 벼를 찧어 쌀을 만드는 방아

팔아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사당에 차례 봉사, 벼를 차려 지나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어느 누가 보탬손가. 내 가슴에 손을 넣어 보소. 살 한 점이 어디 있나. 해골처럼 말라서 목숨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늘에야 돌아오니, 나

무숙이 대신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생했던 자신의 고생을 언급하며 무숙을 비난함.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 묘 아래에 묻어 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 보면 알 것이니, 내 속정을 그제야 생각하오.”

복통 간장 우는 소리 목석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할손가. 두 얼굴 한데 대고 치렁굴며 우는 모양 초목이 눈물 편집자적 논평. 무숙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냄. 을 흘리고, 가던 구름이 머무는 듯. 어린아이들도 목이 맨다.

▶ 무숙은 그동안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아내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

- * 부위부장: 삼강(三綱)의 하나.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임을 이룸.
- * 정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위(衛)나라의 제후인 공자 공백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정강은 굳은 절개를 지키고 부모의 재가 권유를 끝까지 뿌리쳤음. 그러면서 그녀는 '백주'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굳은 절개를 나타냄. 『시경(詩經)』에 전함.
- * 반첩어는 ~ 없었는지라: 반첩어는 한(漢)나라 성제의 총애를 받던 여인으로, 한어름에 주목을 받던 부채가 기울어 되니 버려진다는 내용의 '원가행(怨歌行)'이란 노래를 지음.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아름다움을 잃게 될 때 황제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제가 조비연이라는 여인에게 빠져자 태후를 모시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함.
- * 오일경조: 오래 계속되지 못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 장창(張敞)이 경조윤(京兆尹)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후에 면직된 데서 유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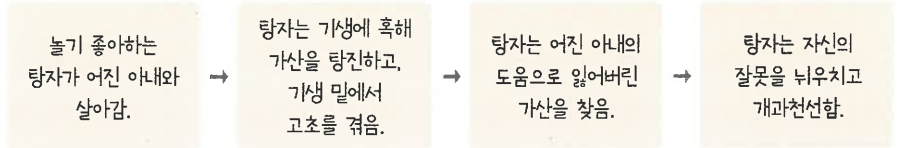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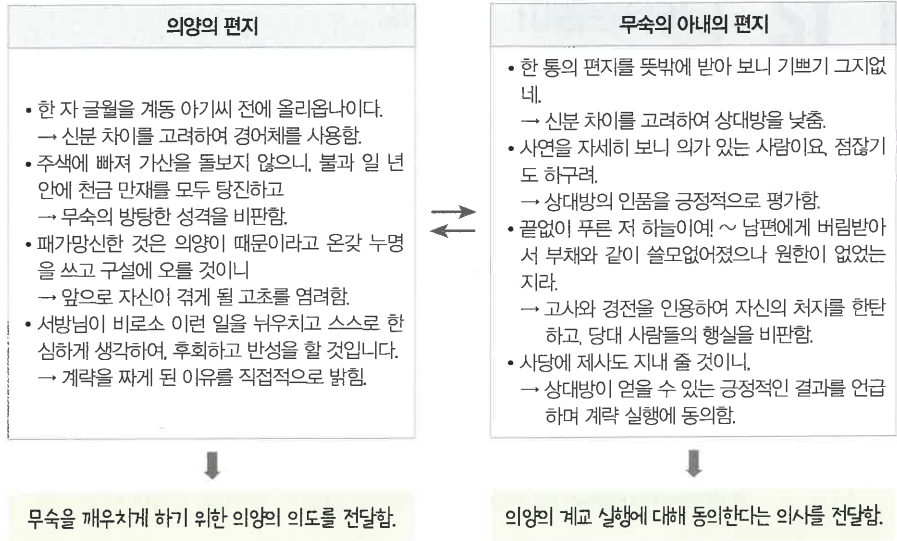
포인트 1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란? [문항 3 관련]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란 자신의 기질과 외적 요인에 의해 가산을 탕진한 남편이, 온갖 설움을 받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의양의 '편지'와 무숙의 아내의 '편지' 살펴보기 **문항 2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알짜'와 '계우사(戒友詞),

'알짜'는 한양이 행정 중심지에서 상업 도시로 변모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인물 군상으로, 힘깨나 쓰며, 재물을 물 쓰듯이 써 대면서 놀기 좋아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일컫는다. 조선 후기 판소리 연구가인 송만재는 「관우회(觀優戲, '광대의 놀이를 보고)」라는 한시에서 '장안의 유희를 알짜라 부르는데 / 붉은 옷에 초립을 쓴 우리아들이지 / 노래하고 술 마시는 동원 안에서 / 누가 의랑을 차지하며 끝맺음을 보일까'라는 구절을 통해 알짜들이 의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향유되던 판소리 「알짜 타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우사」는 판소리 「알짜 타령」의 사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그 제목은 '벗에게 경계하는 말', 즉 알짜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다. 처음 발견된 제목이 '계우사'였기에 학계에서는 '계우사'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맞춤법에 맞게 '계우사'로 표기하였다. 한편, 「알짜 타령」의 주인공은 무숙이기에, 「알짜 타령」을 「무숙이 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BS Q&A

Q. 「계우사」와 「이춘풍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문항 3 관련**

A.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에서 탕자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이들을 '계락 주체', 탕자의 개과천선을 이끄는 이들을 '개과천선 주체'라고 합니다. 「계우사」와 「이춘풍전」은 모두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의 계락에 의해 가산을 탕진한다는 점과 집으로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아내의 비판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춘풍전」은 개과천선 주체가 계락 주체와 대결하고, 그 대결에서 개과천선 주체가 승리한 후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계우사」는 계락 주체가 개과천선 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계락 주체를 도와 남자 주인공의 개과천선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이춘풍전」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판소리 「알짜 타령」이 문헌으로 정착되면서 작가의 취향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계우사」가 판소리로 향유되던 「알짜 타령」을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기록한 반면, 「이춘풍전」은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는 살려 둔 채 「알짜 타령」에서 불만스러웠던 내용을 일부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상 포인트

이 작품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서사 무가이다. 지역에 따라 무가의 명칭은 달라 '제석본풀이', '당금애기', '제석군(전라남도 지방), '초공본풀이(제주도)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린다. 「제석본풀이」의 남자 주인공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하강하거나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래는 천신(天神)이었으나 불교가 전래된 뒤 그 영향으로 스님(도승)으로 바뀐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남신은 천신으로서,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생산신의 성격을 가지며 부계신인 천신과 모계신인 자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천부지모형 신화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등 천부지모형 건국·국조 신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또한 무녀의 창과 장구재비의 반주가 어우러진 연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판소리, 전통극과 유사하여 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삼신이 된 당금애기

전체 줄거리

옛날에 아홉 아들을 둔 끝에 당금애기라는 예쁜 딸아이를 낳아 기른 명문 집안이 있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특별한 일로 인해 집을 떠나자 당금애기 혼자만 집에 남는다. 이때 한 스님이 당금애기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다가 당금애기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한다. 스님이 당금애기의 집에 다녀간 뒤 당금애기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금애기를 집에서 추방한다. 당금애기는 뒷산 바위 굴속에 들어가 살며 그곳에서 혼자 아들 세쌍둥이를 낳아 기른다. 아이들이 자라나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자 아들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가 신직을 받고 당금애기는 삼신이 되고 아이들은 제석신이 된다.

(장구 반주가 멎는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興)을 돋운다.)

장구재비(반주자)의 역할

【말로】

무녀: 이렇게 개문경(開門經)[㉠]으로 치니 아홉 방 고방문(庫房門)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열어 냈으니 애기 씨요 동냥이나 좀 주시오 옥단춘이 아버님 잡숫던 쌀독에 쌀 한 바릿대 떠다 드려라 아버님 쌀독에 쌀 드러 가니 부처님 도술(道術)로 청룡(靑龍)이 굽이치도록 맨들어 놓고

스님이 도술로 조화를 부려 놓아 쌀을 떠오지 못하게 함.

재비: 야

장구 반주 담당, 무녀의 대화 상대이자 무녀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함.

무녀: 어머니 쌀독에는 황룡(黃龍)이 굽이치도록 맨들어 놓고 아홉 형제 오라버니 쌀독에는 청학(靑鶴) 백학(白鶴)이 알을 품도록 맨들어 놓고

재비: 야

무녀: 또 당금애기 쌀독에는 납작 거미가 줄을 살~짝 쳐 놔구나 쌀 뜨러 간 사람 눈에 아이고 애기씨요 무섭어서 못 뜨겠습니더 (그냥) 돌아왔다 하니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기씨요 그리 말고 애기씨 잡숫던 쌀독에 납작 거미가 줄을 쳤으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 바릿대만 떠다 주면 소승(小僧)은 돌아가겠습니다 / 재비: 야

▶ 한 도승이 당금애기에게 찾아와 시주를 요청함.

무녀: 옥단춘이 매상금이 참 당금애기 데리고 셋이서 쌀 뜨러 간 새에 참 이 스님의 거동 보소 오늘 해를 어찌 지을 당금애기의 몸종들 스님이 혼자 생각한 것으로, 스님은 어떻게든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 당금애기의 집에서 지고 갈 자리를 하고 있음. 꼬? 어른들은 엇다 소리 듣고 기나긴 해에 삼한 세운을 태어나게 하려고 왔는데 어찌하여 해를 지우겠노? 스님이 당금애기를 찾아온 궁극적 이유

재비: 야

무녀: 돌아서서 자루의 밑구멍을 터놓고

당금애기와 그녀의 몸종들이 자루 구멍으로 흐른 쌀을 담은 동안 시간을 끌겠다는 스님의 계락을 짐작하게 함.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말로】

〈보기〉의 설명과 관련하여 대화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여 문제를 풀 수 있음.

무녀: 위로는 받는 척 밑으로는 대문전에 다 흘렸다 / 재비: 야

무녀: 옥단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동냥으로 땡길라거땡 자리나 성한 거로 가지고 땡기지 밭 빠진 자리를 가지고 어찌 동냥으로 땡깁니까?
스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당금애기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앞문에 옥단춘아 비 가지고 오너라 쓸어 넣어 드리자 체 가져오너라 까불어 넣어 드리자 우리 절에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애기씨요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말로】

무녀: 우리 절에 공양(供養) 올릴 백미(白米) 쌀은 비 가지고 쓸모 쭈시내가 나서 못 받고 체 가지고 까불모 버들 내가 나서 못 받습니다 / 재비: 야

무녀: 그럼 어찌하잔 말이오? 뒷동산 올라가서 깨동나무로 꺾어다가 임불로 곱불로^{* 차례차례} 하나씩 집어넣어야 땡니다 한다 그러니까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세상에 기나긴 해를 어찌 지우겠노? 그러니 쌀을 밀구멍 다 자리 밀구멍으로 터놓고 대문천에 이렇게 흘려 스님의 속마음으로, 스님은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끌 공리를 할
내어 저(窰)로 갖다 집어넣어야 드디어 살~ 해가 질까 아이기가?
해가 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스님의 기대와 응축한 속셈이 드러남.
(장구재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말로】

무녀: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절[窰]로 집어넣자고 한다. 그러니 또 옥단춘이 또 뒷동산에 깨동나무를 꺾으러 간다 (장구재비가 장구 반주를 시작한다. 장구재비는 장구 반주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여음을 받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해서 무녀의 흥을 돋운다.)

【창(唱)으로】

무녀: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깨동나~무로 꺾어 와서 / 재비: 아~디아

무녀: 절로 하여서~ 집어넣네 옥단춘이도 집어넣고 매상금도 집어넣고 / 재비: 아~디아

무녀: 스님도 집어넣고 당금애기 집어넣고 얼마만칩 집어넣더라니 동(東)에 동산(東山) 돋은 해가 일락서산(日落西山)을 다 넘어갔네
유사한 구절 반복 → 무가의 구현성과 관련
어휘 의미의 중복, 잉여적 표현

재비: 아~디아

▶ 도승이 당금애기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당금애기를 속임.

무녀: 아이고 당금애기 하는 말이

【말로】

재비: 좋다~

🔑 문제 해결기 문항 1, 2 관련

당금애기와 달리 스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와 다르게 말함. 서사적 흐름 속에서 대화의 맥락을 잘 살펴야 스님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음.

【창(唱)으로】

무녀: 스님요 스님요 어서 가시오 해가 졌으니 어서 가시오 / 재비: 아~디아

무녀: 스님이 하는 말이 애기씨요 애기씨요 집을 두고서 산으로 가라오 유수(流水)같이 흐르는 밤~에 하릿밤만
당금애기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함.

유(留)해 갑시다

스님이 당금애기의 집에 온 궁극적 이유

재비: 아~디아

무녀: 그 소리를 치니까 당금애기가 후원(後園) 뒤뜰 별당(別堂) 양반가의 처녀들이 머물던 곳 안이라 하는 곳은 남자들도 못 오는 곳인데 어찌 남정

네가 와서 자고 가잔 말입니까 아이구~ 애기씨요 이 마을 왔다가 해가 저서 일모(日暮) 됐는데 어디로 가
어휘 의미의 중복, 잉여적 표현

랍니까 하릿밤만 유(留)해 갑시다 아이구 당금애기 하는 말이 앞문에 옥단춘아 아버지 자던 방에 가서 자리
보전을 시켜 드려라

재비: 아~디아

무녀: 아버님 자던 방에는

【말로】

당금애기와 동침하려는 의도임.

무녀: 누린내 나서 못 자겠소

스님의 핑계와 거부 ①

【창(唱)으로】

무녀: 아이구 어머니 자던 방 안에 자리보전을 시켜 드려라 어머니 자던 방에는 아홉 형제(兄弟) 오라버니 낳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못 자겠소 그렇다면 오라벗네 자던 방 안에 자리보전을 시켜 드려라
스님의 핑계와 거부 ②

재비: 아~디아 / 무녀: 오라벗네 자던 방에는 땀내 나서 못 자겠소 딱한 중아 어찌하잔 말이오

스님의 핑계와 거부 ③

재비: 아~ 디야

▶ 도승이 당금애기의 방에서 함께 자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며 애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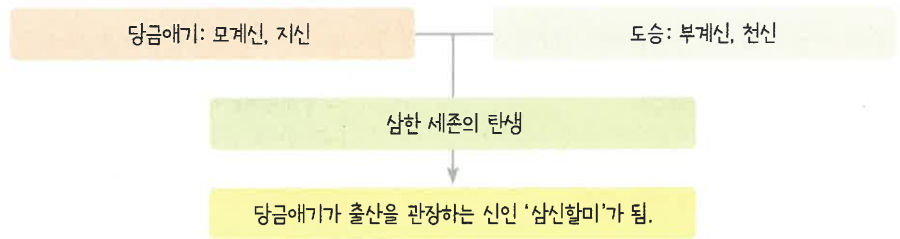
* 개문경: 잠겨 있는 문을 열게 하는 경문.

* 임불로 곱불로: 앞에서 뒤로.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제석본풀이」의 인물 관계 구도와 신화적 의미 [문항 3 관련]



「제석본풀이」는 천부지모형 신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남자 주인공인 도승은 천신으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신, 생산신의 성격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신화의 내용은 부계신인 천신과 모계신인 지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인트 2

「제석본풀이」의 유래와 변화 과정 문항 3 관련

「제석본풀이」는 ‘제석신’의 근본을 말로 풀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금애기가 삼신할미로 되기까지의 내력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서사 무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남자 신을 내세운 것은 전승 과정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남신 또한 원래는 천신이었는데 구비 전승되면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스님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흩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심부담(尋父譚) 화소는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우리가 아버지인 주몽을 찾아가는 내용에 맥이 닿아 있다.

포인트 3

서사 무가의 구연 방식 문항 4 관련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을 말로 풀이한 것’이라는 뜻이다. 서사 무가는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신의 내력담을 징이나 장구 같은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이러한 구연 방식은 판소리나 전통극인 탈춤의 연행 방식과도 매우 유사하다. 서사 무가는 무당의 세습 과정에서 구비 전승되었으므로 구비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현대에는 굿이 아닌 하나의 연행 목적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무가의 개념과 특징

무가는 무당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따라서 무가는 무속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속의 세계는 우리 민족의 생활 체험과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는 중요한 전통문화 중의 하나이다. 특히 무의(巫儀)에서 구연(口演)되는 무가는 영웅 소설이나 판소리 등 여러 문학 양식이 발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무가는 구비 문학의 일종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석본풀이」, 「바리공주」 등이 가장 유명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 지역의 서사 무가가 내용도 풍부하고, 숫자도 가장 많다. 다른 구비 문학 양식과 구별되는 무가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술성	무가는 무(巫)의 기능인 점복, 예언, 축사, 질병의 치료 등과 관련한 주술성을 띤.
신성성	무가는 신을 청하고 신에게 소원을 빌거나 신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신성성을 가진.
오락성	무가의 구연은 공연 예술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관람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하는 오락성을 띤.
전승성	무가는 무당이라는 특정 부류에 의하여 전승되며 일반인에게는 전승이 엄격히 제한됨.
율문성	무가는 4음보격의 율문으로 나타남.

EBS Q&A

Q. 고전 문학 작품에서 유사한 작품과의 내용적·형식적 비교 문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항 4 관련

A. 고전 문학 작품은 유일한 작품이 아닌 작품군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상 유사한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문항에서도 구현되는데, 주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문항을 풀 때에는 작품의 특정 지점이나 요소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차이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못난이로 알려진 '황수건'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로,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우두, 참외 장사, 포도 선물 등의 일화를 중심으로 황수건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이문하고 무지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 '나'의 연민 어린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가 달밤에 황수건의 슬픔과 고독에서 인간적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지막 장면이 유명하다.

주제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전체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하면서 말 많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삼산학교 급사로 일하면서 학무국 시험권을 잘못 대접한 문제로 쫓겨나고 이후 신문 보조 배달원이 되지만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그의 소망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도 밀려난다.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지만 곧 정마로 망치고 급실 종던 아내마저도 달아난다. 어느 날 황수건은 성북동 길에서 밝은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며 담배를 피우고, '나'는 황수건의 그런 모습을 나무 그늘에 숨어 지켜본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씩—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를 시골로 느끼게 하는 자연적 조건들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로 느껴지는 이유는 황수건이라는 인물 때문임.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

어설피고 우둔한 사람들을 대하는 도시와 시골의 차이

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

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돌워 주는 것이다.

▶ '나'에게 있어 성북동을 시골로 느끼게 하는 황수건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다른 사람의 집에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나'의 집을 방문함.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맥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덕입쇼?” /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렘쇼, 왜 이렇게 죄꼬판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

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 대가리다.

황수건에 대한 외양 묘사

“그렇소? 아무튼 집 찾으라고 수고했소.” /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뿔입쇼, 이게 제 업인덱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무례로 볼 수 있는 황수건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황수건을 무시하지 않고 격식을 차림.

“택엔 개가 없구면입쇼.” / 한다.

“아직 없쇼.” / 하니 /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 한다.

“왜 그렇소?” /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나는 쓸데없는 참견일 수 있는 황수건의 말을 무시하고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함.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덱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뺨을 뚱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 늦은 밤에 찾아와 질문과 참견을 하는 황수건과 그를 무시하지 않고 대하는 '나'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장사를 할 텐
덱쇼.” / 한다. 반듯하게

“무슨 장사?” /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뽕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
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 한다.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늘여서 구운 과자

황수건의 과장된 생각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과 애정이 담긴 소재
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황수건의 순박하고 꾸밈없는 성격이 드러남.

“선생님 잠수시라급쇼.” /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이 담긴 소재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 장사를 하고 싶은 황수건에게 돈 삼 원을 주는 '나'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
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
남에게 듣게 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황수건과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함.
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
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¹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나’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려는 황수건의 마음이 엿보임.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썰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포도’의 기능

포도는 달포 만에 찾아온 수건이 ‘나’에게 선물한 것임. 하지만 이 포도는 수건이가 한 포도원에서 훔친 것임이 곧 드러나며 ‘나’는 포도값을 대신 물어 주는 것으로 곤경에 처한 수건을 구함. 이러한 일화를 통해 수건의 성격, 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이 효과적으로 드러남.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황수건의 순박하지만 아둔한 면모가 드러남.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포도를 훔쳐 가지고 온 황수건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끼를 올라오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가 다메이…… 키…… 카…….”^{*}

살의 애환에 대한 황수건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 토로하고 있음.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
추었다. /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돈 상 원을 감지 못한 일, 훔친 포도를 선물한 일

황수건의 마음을 헤아리는 ‘나’의 배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과 그를 지켜보는 ‘나’

‘나’는 황수건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달밤의 정취를 느끼고 살의 애환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됨.

- * **합비:** 일본말로 ‘등이나 것에 상호가 찍힌 겹옷’을 이르는 말.
- * **고스카이:** 소사(小使)의 일본어. 관청, 회사, 학교 등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 * **차미:** ‘참외’의 방언.
- * **길:**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 **사케와 나미다가 다메이카가:**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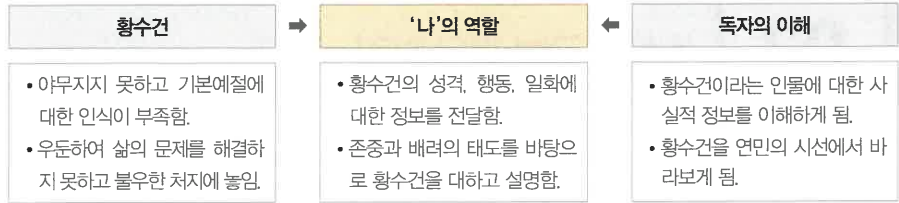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나’의 역할 문항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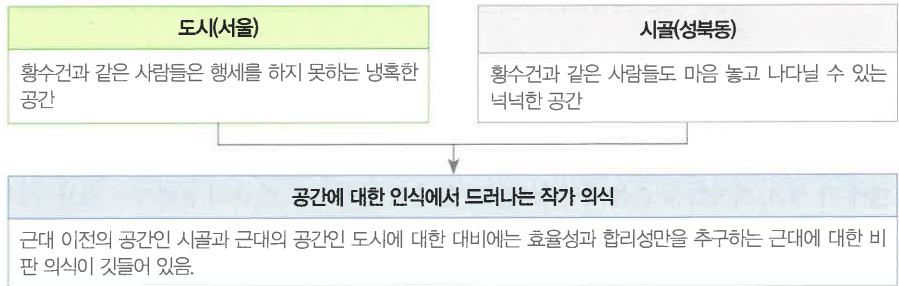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나’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주인공인 황수건의 성격과 특성, 일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주목할 점은 ‘나’의 역할이 황수건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황수건을 대하고 설명하는 ‘나’의 태도에는 존중과 배려가 깃들여 있는데, 이로 인해 독자는 기본예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둔하기도 한 황수건을 냉소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포인트 2

공간에 대한 인식 문항 2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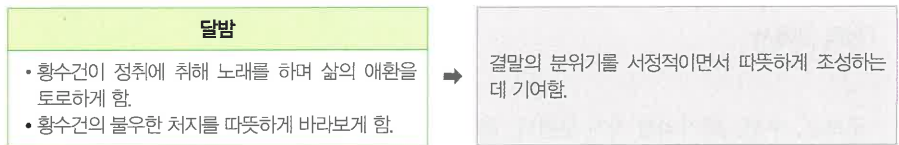
공간에 대한 '나'의 인식 중 하나는 시골과 도시의 대조이다. 시골은 황수건처럼 어설피고 아둔한 사람이라도 마음 놓고 나타날 수 있는 넉넉한 곳이지만, 도시는 그런 사람이 행세를 하지 못하는 냉혹한 곳이다. '나'가 자신이 이사 온 성북동을 '정말 시골'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성북동이 황수건과 같은 사람을 품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공간인 시골과 근대의 공간인 도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근대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포인트 3

'달밤'의 기능

이 작품은 '나'와 황수건이 처음 만나는 밤에서 시작하여 포도원 근처에서 '나'가 황수건을 엿보는 '달밤'으로 끝난다. 소설의 시작과 결말이 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달밤'은 결말의 분위기를 서정적이면서 따뜻하게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달밤'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황수건이 달밤의 정취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삶의 애환을 토로하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황수건을 단순한 못나이가 아니라 '달밤'에 유감할 줄 아는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게 한다. 둘째,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를 비단처럼 밝히는 달빛을 통해 황수건의 불우한 처지를 비극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인물에 대한 작가의 관심

이 소설의 작가인 이태준은 소설의 여러 요소 중 인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역사」라는 글에서 “소설은 사건보다 먼저 인물에 있다. 사건이란 인물에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그는 작품에서 일상적인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개성 있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다. 「달밤」은 인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다른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의 전개에 따른 사건의 개인적 연결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황수건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들이 나열되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그의 외양과 성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밤'에 대한 작가의 또 다른 작품, 「밤길」

'밤'과 관련된 작가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밤길」이 있다. 「달밤」(1933)보다 7년 후에 발표된 「밤길」은 황씨 성을 가진 남자의 불우한 처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 특히 제목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밤'이 중요한 시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달밤」과 닮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는데, 「밤길」의 비 오는 밤은 「달밤」의 달밤과는 달리 인물의 불우한 처지를 비극적으로 부각한다.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작중 인물인 소설가 구보가 뚜렷한 목표 없이 경성 거리를 하루 동안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광고, 종로, 화신상회, 조선은행 앞,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거리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울감과 고독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기존의 소설이 주로 인물 간의 극적 갈등, 사건의 개연적 전개를 중시했다면, 이 소설은 인과적 연관성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내면 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또 1930년대 경성 거리의 풍경과 온갖 군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구보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풍경과 그의 내면

전체 줄거리

구보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와 동대문행 전차를 탄다. 예전에 섰던 여자를 거기에서 보지만 모른 척하고 곧 후회한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차를 마시며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보는 경성역에서 여자를 동행한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다방에서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의 옛사랑을 추억하고 오랜 벗에게서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구보는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이제는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고 다짐하며 오전 2시의 종로 네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음.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소설가로 설정되어 있는 주인공이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쓰기 위한 노트 자신의 행복을 찾아 배회하고 있음.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전차를 타고 내리기 위한 플랫폼 갈 곳만 은 가지고 있었다.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뭇하니 그곳에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방향을 구보와 대비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본다. 맞본다. 구보는, 고독과 외로움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행복을 찾아 거리를 배회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자신의 내면 의식을 기술하고 있음.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응을 구보가 거리를 배회하며 관찰한 것을 기술하고 있음.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전차 안에서의 풍경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에서 연상되는 생각 요사이 구보는 교의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 과거에는 고독을 즐겼다고 생각함. 다. 그는 되돌아보면 고독을 즐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고독을 즐겼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함 ▶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회상
표, 짝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차장의 말: 고독에 대한 구보의 상념을 끝냄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풀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구보가 다시 상념에 빠져들게 하는 소재
동전에 새겨져 있는 발행 연도 ▶ 동전에 대한 상념

(중략)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계꾼들의 그 모양이 맥었다.
남대문의 풍경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호와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드는 장소
가는 모퉁이 이 도회의 항구(港口)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쨌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균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구보 자신의 내면 의식 ▶ 남대문을 지나 경성역으로 감.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도시의 근대적 삶을 살아가는 균중의 모습 ▶ 경성역의 바쁜 사람들의 모습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구보가 균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인물 ①
구보의 상상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구보가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신사의 행동 ▶ 경성역에서 균중들의 사연을 상상함.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

부어오름.

의 만성 위 확장(胃擴張)¹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얽은 짧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온정 없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낌.

🔑 문제 해결기 [문항 3 관련]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생각하는 이유

구보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도시를 배회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타인의 병증과 자신의 병증을 이러한 노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구보가 이동하는 경로 [문항 1 관련]

구보는 전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인 안전지대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따라 전차에 오른다. 전차 안에서 여러 상념을 떠올리다가 다시 남대문을 찾아가서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지게꾼들을 보게 되고, 다시 서울역 삼등 대합실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이 찾아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확인하게 된다.

포인트 2

구보가 찾아드는 공간의 의미 [문항 2 관련]



포인트
3

거리 산책의 의미 문항 3 관련

구보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라는 생각에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구보의 거리 산책이 행복 찾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보의 행복 찾기는 전자 안 혹은 서울역 대합실로 외로움을 피해 익명의 사람들과 섞이려는 노력으로 요약된다. 이는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이자 자기반성을 통한 자아 찾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인간미 없는 행동들을 목격하게 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구보'가 여러 가지 병증을 기술하는 이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속에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보는 행복을 찾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고 이 과정에서 구보는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병리 현상이나 구보의 행동들은 근대화된 도시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소외 의식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박태원의 집안이 병원을 운영한 의료인 집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여러 가지 병증에 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남들보다 쉽게 접하며 자랐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서구화, 근대화 사회의 특징과 도시 소설

서구화, 근대화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개인주의와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합리성의 추구는 도시라는 공간을 탄생시켰고, 근대화 도시 속에서의 인간은 부품화와 도구화로 전락했다. 작가들은 도시의 출현에 따른 비인간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극복을 과제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난 것이 도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주인화를 배격하고 인간 내면 탐구에 천착한 것이 도시 소설이다.

**EBS
Q&A**

Q. 소설에서 구보의 의식은 어떠한 서사적 기능을 하나요? 문항 1 관련

A.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주인공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 동안 거리에서 마주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보가 집을 나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적 없는 외출은 얼른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무의미함은 개인의 존재 찾기를 위한 단절과 생성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는 구보의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작가 박태원은 그가 잃어버린, 혹은 잊힌 정체성의 재현이야말로 이 소설의 주제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소외가 빛은 상실된 본질의 재현, 그것이 이 구보가 도시를 배회하는 이유가 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 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 증산촌이 가진 의식과 하층민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할멈의 서툰 도둑질이, 어려운 이를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 두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하층민의 상황을 통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의 양심(심장)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과 자책감

전체 줄거리

두메산골에 가까운 창의로 밖에 살다 보니 집안일 하는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나'는 나이 많은 어쩔 할멈을 안잠자기로 힘겹게 들이게 된다. 그런데 황해도 할멈은 안잠자기로 들어와 자신의 열세 살 손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하고 문안 심부름을 위해 두고 있는 대옥을 미워하며 그를 내보내라고 한다. 그 이유로 주인의 눈 밖에 난 할멈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쌀을 전대에 감추어 나가다 들키고 쫓겨나다시피 하며 '나'의 집에서 나가지게 된다. 할멈이 나간 이후, 대옥은 파출소를 데려 할멈을 위협하여 동전 세 푼도 찾았다며 내놓고, '나'는 할멈의 심사를 짐작하며 자책한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창의로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 달아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이하게 된다.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 인물의 과거 삶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할멈'의 처지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음.골에 처뜨리고 저는 열세 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 원이란 전 천량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밀천조차 깎살려 버리고 필경 남의 집이나 살아 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 날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하루 이들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 되어 피차에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육칠월 장 '나'에 대한 할멈의 요구가 매우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뤄졌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냄.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인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나으리 마넴. 저 새끼(제 손자를 가리킴.)를 어떻게 하면 좋슈까? 맥으로 데불고 와요? 열세 살이라도 못할 할멈이 '나'에게 자신의 손자도 데리고 와 '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함.일이 없슈다…….”

“저 건네방이 비지 않았슈이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시깁요. …… 이 거룩한 맥에서 살게 해 주소?”

“돈을 십 원만 선월금으로 미리 좀 주시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리 사람에게 진 빚냥을 갚아야 되겠슈다. 나 할멈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 부부까지 '나'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요구함.

우리 마넴, 사람 좀 살리소…….”

▶ 일하는 사람으로 '나'의 집에 오게 된 할멈의 내력과 하소연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할멈의 아들 부부와 손자의 인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나'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할멈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음.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할멈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나, 할멈과 대옥을 부리고 있는 처지에서 할멈의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거두는 것에 대해 '나'가다달이 몇 푼 월금으로 겨우 꾸러 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 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터이 없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산기슭에 몇 곁방 있는 탓에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열아홉 살 먹은 대옥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막하다 하더라도 부동부동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의 청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었다.

▶ 할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나'의 상황

나의 맘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험난한 인생의 길의 산 표본을 눈앞에 보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나'가 느끼는 내적 갈등과 괴로움의 정도를 보여 줌.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 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저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설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에 불 때가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 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 원정과 설움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맥에서 자기를 안 살려 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눈으로 새우기까지 되었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후우' 하는 처량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천 마디 만 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 손, 스무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맘을 뒤흔들고 맘을 움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그렇다!', '산란한 괴로운 숨결!', '둔한 음향!' 등은 영탄적 표현이며,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최후의 휘파람 같은'은 비유적 표현으로 이를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냄.

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적거리는 둔한 음향!

▶ 할멈의 끈질긴 요구에 대한 '나'의 고통과 괴로움

그는 청을 하다가 듣지 않으니 대옥이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할멈이 대옥의 존재가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 끼의 밥도 잘 찾아 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 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제구실을 할 터이니 그만 내어 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요? 다 같은 처지에…… 심청*이 나빠." / 하고 눈의 밖에 나게 되었다.

▶ 대옥을 미워하며 못되게 구는 할멈과 그런 할멈을 못마땅해하는 '나'의 아내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눈 여린'은 마음이 여리다는 의미로, 마음이 여린 '나'의 아내가 할멈의 처지를 처음에는 동정하였으나 대옥을 내보내라는 요구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고나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 보니 마룻바닥에 쌀날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 뜰로부터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찻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할멈의 도둑질이 치밀하거나 용의주도하지 못함을 드러냄. 이와 같은 할멈의 행동을 바탕으로 '서투른 도둑'이라는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음.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흠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사죄하며 제 손자한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고 말았다 한다.

▶ 할멈의 어설픈 도둑질과 그로 인한 해고

(중략)

대옥이는 자못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옥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해 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 버리기엔 너무 맘이 저리었다.

할멈의 도둑질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나'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대옥의 말따마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히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던진 것이다. 네 보라는 듯이 내어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흠친들 어떻단 말이나?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이팝을 해 준들 어떻단 말이나?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버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 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살아라!”

맘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 푼을 후려갈긴 것이다!.....!

▶ 할멈의 도둑질로 인해 일어난 '나'의 반성

* 장자: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 심창: 마음보

* 옥춘당: 쌀가루로 만든 사랑의 하나.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할멈의 도둑질에 대한 '나'의 도덕적 자각이 드러냄. 도둑질의 원인을 할멈 개인의 윤리적 문제만으로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인물에 대한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비유적·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일인칭 서술자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냄.

포인트 2

작품의 시대적 배경 **문항 3 관련**

『서투른 도적』(1931)은 우리 민족의 경제적 빈곤이 더해 가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 ‘할멈’과 같은 하층 빈민의 실상과 그로 인한 지식인의 내면 갈등을 잘 보여 준다. ‘할멈’이 처해 있는 처참한 빈곤의 실상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1920~1930년대에 발표된 소설들은 빈궁을 소재로 하여 현실을 형상화한 경우가 많은데 나도향, 최서해, 현진건의 소설들을 들 수 있다. 소설에서 ‘가난’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지만, 빈민의 생활 양식과 사회적인 형태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소설 속에 본격 등장한 것은 1920년대와 그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소설들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나 윤리마저 허용되지 않았던 극도의 궁핍한 현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1920~1930년대의 궁핍화 현상은 일제의 토지 수용,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횡포, 식량 수탈, 고리채의 과장으로 이어지는 농민 수탈에 그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일제의 수탈이 가속화되면서 자작농은 소작농이 되고, 소작마저 중간착취에 의해 어려워지자 농민들은 공장의 노동자로, 도시의 유랑민으로 흘러들거나 만주, 서간도 등 먼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1929년의 통계에 의하면 도시 생활자의 32.1%가 무직, 극빈의 상태에 있었으며, 1927년~1931년 사이에 일어난 소작 쟁의의 많은 부분이 소작지 박탈에 기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시기의 궁핍과 농민 수탈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31년부터는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의 국토가 병점 기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과 서민층은 더욱 궁핍해져 갔다. 『서투른 도적』에서는 도시 빈민의 빈곤과 타락의 문제를 그 자체의 문제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수탈이라는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이를테면 농촌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은 결국 이농 현상을 낳고, 이농민은 도시의 날뽕팔이 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포인트 3

‘나’의 인식과 그 한계 **문항 3 관련**

이 작품에서 일인칭 서술자인 ‘나’는 지식인 계급으로, 안잡자기로 들어온 할멈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발견하고 동정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할멈이 청하는 경제적 도움에는 선뜻 응하지 못하는데, 이렇듯 ‘나’는 민중과 만나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지만, 민중과 완전히 섞이지는 못한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은 이 시기 현진건 작품들이 주로 지식인을 일인칭 서술자로 삼아 지식인의 입장에서 민중을 관찰하고 판단하며, 대상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려 내는 형식을 취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신문지와 철창』

『신문지와 철창』은 192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나’가 유치장에서 만난 ‘불쌍하고 거룩한 노인’에 대한 ‘비참한 수수께끼’를 풀어 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신문지와 철창』에서는 민중의 삶에 대한 어설픈 동정 의식이나 경멸감을 갖고 대했던 지식인이 그들의 삶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며칠 동안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마침 대낮에 곤봉을 휘두르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거물 강도로, 20년 징역살이를 하게 된 인물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공포심을 갖게 된다. 또한 경찰서장의 집에 침입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일종의 경외심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잡혀 들어온 인물은 불쌍없고 힘없는 노인인 불과했고,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려진 사건의 전말은, 어미 잃은 어린 손자를 위해 처음 구걸을 나선 노인이 어렵게 얻은 밥을 싸 갈 신문지를 경찰서장 집 앞에서 줍다가 이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딸을 살짝 때린 것으로 인해 끌려왔던 것이다.

작가는 『신문지와 철창』에 나오는 인물인 노인을, 작가 자신이 유치장에 갇혀 있을 당시 실제로 보았던 노인을 모티브로 삼았다. 『신문지와 철창』은 신문지 조각 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기도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폭로한다. 그러나 현실을 폭로하고 있으나 체제 비판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그 대신 사건의 황당함을 부각하면서 손주에 대한 노인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인륜성을 강조한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농촌을 배경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한덕문은 술과 노름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판 땅을 해방이 되었으니 되찾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좌절되자 왜곡된 역사관식을 표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 그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변함없이 지배층에 의해 수탈을 당해 온 모습과, 광복 이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와중에 여전히 소외된 처지에 놓인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작농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당시의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한덕문이라는 인물 형상을 통해 표면적으로 개인의 소시민적 욕심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방 이후 여전히 민중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역사관이 결여된 개인의 소시민성과, 국가가 농민의 삶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구한말 한덕문의 아버지 한태수는 부지런한 농군으로 논 스무 마지를 장만하였는데, 고을 원에 의해 동학란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논 열 세 마지를 빼앗긴다. 이 일로 인해 한덕문은 반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살림도 현상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술과 노름으로 인해 빚이 늘자, 시세의 곱절을 준다든 일본인 길천에게 남은 논 일곱 마지와 멧갓을 판다. 그런데 계획과 달리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시세가 올라 버린 논을 되살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뒤늦게 속으로 후회하지만 일인들이 쫓겨 가면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주위에 큰소리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었으나, 정말로 시간이 흘러 독립이 되자 한덕문은 논을 되찾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길천에게 함께 팔아넘겼던 멧갓이 그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사들인 영남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또 논도 나라에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구장을 찾아가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한덕문은 독립되었을 때 만세를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稅米)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체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 보았다.

구한말 지배 계층에 속한 원과 토반, 아전 등의 횡포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왜인들이, 저희가 주인 이람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어라 징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볏아 대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리나라지를 앓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 보았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순사, 헌병 등의 횡포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잖아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

▶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한덕문의 '나라'에 대한 생각

한덕문의 국가관

신해(辛亥)년…… 경술 할방 바로 이듬해였다. 한 생원은—때의 젊은 한덕문은—빼앗기고 남은 논 일곱 마지를 불가불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국권 피탈, 대한 제국 옹호 4년(1910)에 일제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일

아버지 한태수가 고을 원에게 누명을 써

빼앗기고 남은 논을 가리킨.

칠팔 명이나 되는 권술인데, 내 논 일곱 마지기였다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의악식(惡衣惡食)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너칠하고 조잡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

한덕문은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험뜬 편이었다.

한덕문의 성격적 결함이 직접적으로 제시됨.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當家産)을 한 지 불과 오륙 년에 한덕문은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집안 살림을 맡음.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 그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덕문은 허황하고 험뜬 값을 하느라 술과 노름을 쓸쓸히 좋아하였다.

일 년 농사를 지어야 일 년 가계가 번연히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 가느니 빗박에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 따위가 원하게 들여다보이듯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 없었다. ▶ 한덕문이 논 일곱 마지기를 팔아야 할 형편에 이름.

(중략)

이 멧갓*을 한 생원은 길천이에게다 눈을 팔던 이듬했지 그 이듬했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었다.

길천은 그 멧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삼십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다면 산림이 되였었다.

늪은이의 충기요, 눈을 도로 찾게 되였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멧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 하였던 모양이었다.

마침 전신죽감의 쪽쪽 곤은 낙엽송이 총총들이 섰다. 베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넛이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한다.

영남 밑에서 일하는 벌목꾼들 나무나 대나무의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
“이놈, 이 불한당 놈들, 이 멧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나?”

비틀거리면서 고향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빼언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루구나?”

한 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멘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늪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
과상하고 알곳은 짓 절을 하거나 웃어른을 모실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어 잡음.
는다. ▶ 한덕문이 자신이 길천에게 팔았던 멧갓에서 누군가가 벌목을 하는 것을 알고 벌목 주인을 찾았람.

“아니, 이 늪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한덕문이 화를 내는 영문을 모름.
“이놈, 네가 왜 이 멧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여?”

“어찌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뉘 멧갓이길래?”

“내 멧갓이다. 한덕문이 멧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벌꿀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야 행악야. 늪은인 다리 뺏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모질고 나쁜 짓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구 죽자.”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론지 내력을 말을 해요.”

한덕문이 계속 화를 내는 이유를 듣고자 함.
“이 멧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두, 조선이 독립됐은간 인젠 내 것이란 말야, 이놈아.”

한덕문이 멧갓을 자신이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찌 길천이 멧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일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간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나?”

“오오, 이 녀석이 이 멧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래서.”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구 가니깐, 이 녀석은 팔았던 땅을 공짜루 도루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똥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 두구,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뼈것이 길천 농장 산림 관리인 강태식이한 돈을 받고 멧갓을 판 한덕문이 멧갓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황당하게 생각함 영남이 멧갓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이유 테 시퍼런 돈 이천 환 주구서 계약서 받구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 준 위임장 가지구 팔구. 돈 내구 산 사람이 임하지. 저 옛날 돈 받구 팔아먹은 사람이 임잘까?” ▶ 한덕문이 멧갓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영남과 갈등함.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 산판(멧갓) 사건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길천에게 팔았던 논 재산상의 능력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 한덕문이 길천에게 판 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장을 찾아감.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 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국가에 대한 한덕문의 불신감과 원망이 드러남.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뒤 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한 생원은 그 논이랑 밭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인가요?”

한덕문이 논과 밭짓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고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⁴

▶ 해방이 논과 밭짓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덕문과 구장이 대화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냄.

- * 토반: 여러 대를 이어서 그 지방에서 붙박이로 사는 양반
- * 토색질: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짓
- * 야미[關]: '뒷거래'의 일본어
- * 밭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늾산판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한덕문과 영남, 구장의 입장 차이

한덕문은 해방이 되었으면 돈을 받고 판 것이라 하더라도 일인의 소유였던 땅의 소유권을 자신이 되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영남은 최종적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이, 구장은 국가가 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각기 한덕문과 갈등을 빚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한덕문의 인물 형상화 문항 3 관련

한덕문은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아버지 한 생원과 달리 허황하고 험뜯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가뜩이나 살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술과 노름으로 빚을 지고, 땅을 팔기에 이른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다가 그 기대가 좌절되자 국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표출한다. 작품에서 이러한 한덕문의 게으른 성품과 왜곡된 국가관은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포인트
2

풍자의 대상 문항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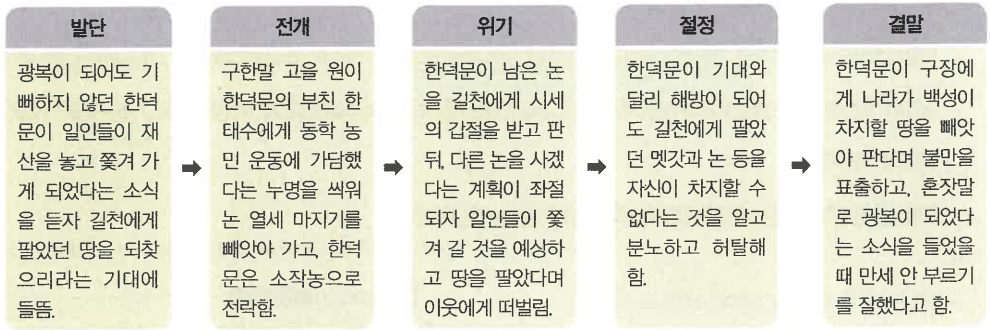
주인공 한덕문의 인물 형상이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 이야말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한덕문이 반소작농 상태로 전락한 까닭은 아버지 한태수가 고을 원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 매를 맞고 논 스무 마지기 중 열세 마지기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진 한덕문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은 핍박이나 해방 이전 지배 계층에게 당한 수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 한편 돈을 받고 판 땅을 단지 해방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한덕문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해방 이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한덕문을 포함한 하층민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구한말부터 해방 정국에 이르기까지 한덕문이 경험하는 국가의 모습을 고려할 때, 한덕문과 같은 피지배 계층에 속한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야말로 이 작품의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인트
3

'논'의 의미 문항 1 관련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지속적인 수탈을 겪으면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채 유랑민이 되거나 소작농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일 본인이나 친일파 지지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소유하고 있던 농토를 어떻게 몰수하고 재분배하느냐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논 이야기'에는 해방 직후 국가가 실시한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다.

■ 「논 이야기」의 이야기 구조



■ 채만식의 풍자 소설

문학에서 풍자는 대상에 대한 강렬한 부정 의식을 통해 현실의 왜곡된 측면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는 힘을 갖는다. 채만식은 일제 강점기 현실과 그 현실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풍자적인 문체로 그려 낸 대표적인 작가이다. 무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담은 「레디메이드 인생」과 「치숙」,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인물과 그 일가의 몰락 과정을 담은 「태평천하」, 초봉이라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그녀를 둘러싼 비인간적인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은 「탁류」 등은 채만식의 대표작이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논 이야기」와 함께, 친일 행위에 가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담은 「민족의 죄인」, 미군정하에서 기회를 틈타 부와 권세를 얻은 인물의 모습을 담은 「미스터 방」 등을 통해 시대 현실과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 정신을 소설로 구현했다.

Q. 특정된 지점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항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문항 1 관련

A.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항은 수능 시험의 현대 소설 세트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지문의 전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해당 지점에 나타난 특징을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 대해 묻는 문제를 풀 때는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지 혹은 이야기 밖에 있는지와 같은 소설의 전반적인 시점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인물, 사건, 배경 등과 같은 소설 구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특정된 지점에서 서술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서술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귀향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방의 환희와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해방 직후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주제

광복 후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

전체 줄거리

광복 직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수성까지 오게 된다. '나'는 제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 소년은 뱀장어를 일본인에게 팔면서 돈 많은 일본인을 알아내어 한국인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본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성적인 복수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만 본다. '나'는 방을 만나려고 청진역으로 갔다가 국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서운에 남편을 잃고 독립운동하던 아들까지 잃은 사람인데도, 난민이 되어 쫓겨나게 된 일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방을 만나 열차를 타고 청진을 떠나는 '나'의 머릿속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모습이 향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볼 그늘', 곧 '잔등'으로 새겨진다.

[앞부분 줄거리] 해방이 된 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된다. '나'는 제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해방과 함께 일본군이 물러간 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민간 자치 기구인 건국 준비 위원회(인민 위원회)를 말함

“첨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 먹은 일본 놈 잡구 나서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꼭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 남의 집 초상 난 데 가 본 일 있나, 담박에 그러십니다—가 봤습시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날을 새우는지 아예?—모릅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마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응.”

김 선생이 소년의 반응이 재미있어 소년을 놀림.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리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깐—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 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안 해?!—그러시구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구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 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날려는지 안 날려는지 잘 지켜야만 된단 말이야.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날려는 것 보겠지.**”

소년이 달아나는 일본인 조합장을 잡은 일이 있음.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왜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던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구.”

▶ 조합장을 잡은 소년을 놀리는 김 선생

절반은 소년의 말 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

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 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위원회에서 뭐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요. 전에 감옥서 나왔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 놈 살던 집 얻어 가지구 계시지내지요. 김 선생넌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 하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이 버리고 간 집. 적산 가옥이라고 함.**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이 버리고 간 집. 적산 가옥이라고 함.** 고 나보다 적고 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김 선생의 형, 혹은 남동생 또한 일제 강점기 목숨을 잃었음을 짐작하게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2 관련

소년은 어떻게 일본인 조합장을 잡았는가?

- 소년이 일본인에게 자신이 잡은 뱀장어를 팔.
- 뱀장어를 사 먹은 만한 재력을 가진 일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됨.
- 뱀장어를 사 먹던 일본인 조합장이 재력을 숨기고 있음을 알게 됨.
- 숨긴 돈을 가지고 도망가던 일본인 조합장을 잡음.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지요.”

“응, 그런 분이시야?”

김 선생을 지칭함.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랬겠지.”

▶ 고초를 겪다 해방 후 위원회에서 일하는 김 선생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재잘거리지를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고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건 그런데 에에또 너, 그 김 선생이란 이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던 말이나?”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알어듣구말구요. 그걸 몰라요?”

소년은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진 정말 다들 죽은 거 한가집니다.”

소년이 '나'의 반응에서 '나'가 '죽은 사람'과 같은 패망한 일본인들을 보지 못했음을 짐작함.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낮에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는 다시 폭 꺼져 들어가면서,

[A] “내 뱀장어께나 사 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정말 다 아들 배가 고파서 찢찢맙니다. 뱀장어가 고가(高價)의 음식임을 알 수 있음. 다아들 얼굴이 하얗고 가족이 죽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개를 비라리 허러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관찰 대상의 고달픈 처지를 짐작하게 함. 배추꼬랑이를 먹는다, 고춧잎을 판다, 수박 껍테기를 팔는다, 그래 보다가 저영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사내 없앤 것들만인 데다가 애새끼들만 오글오글허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며 어딜 가면 무얼 합니까.”

▶ '죽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패망한 일본인들

(중략)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흰 너저메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엷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때가 갑니까.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 노인의 아들이 일본인들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가 죽었음을 알 수 있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딜 니까.”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험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닳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닳새 동안이면 닳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째 없겠어요.”

▶ 험벗고 굶주린 일본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할머니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엮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작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라고는 말을 끊고 호응 깊은 한숨을 들여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엮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 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계 툭툭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겼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관찰 대상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냄.
[B]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엮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껴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 돌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뎡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 노인의 말을 듣고 연상하는 비참한 모습의 일본 여자

*비라리: 구구한 말을 하여 가며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일

이것만은
꼭
악하다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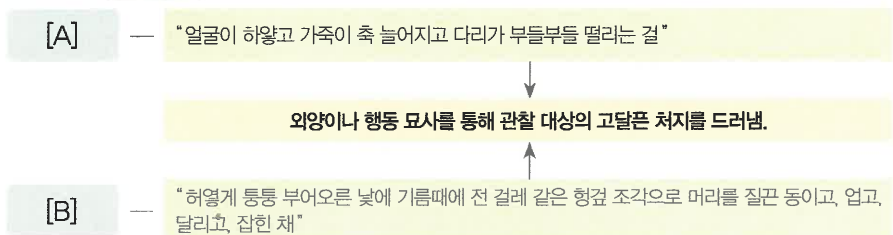
표인문
1

구절의 의미 **문항 2** 관련

죽은 사람	패망 후 숨죽이며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빗댄 말
꽤 엉뚱한 것	돈을 숨겨 가지고 있던 일본인을 찾아낸 일
그런 분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김 선생을 지칭함.
고무산이나 아오지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공간
이 조그마한 정터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는 차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장소

표인문
2

서술상 특징 **문항 3**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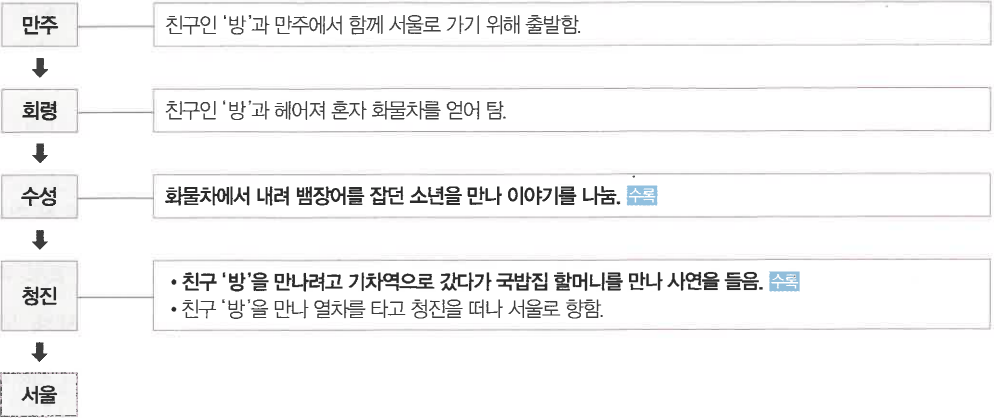
표인문
3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태도 **문항 4**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 전체의 구조(여로형 구조)



■ 허준의 다른 작품: 「습작실에서」

1946년에 발표된 허준의 심리주의 소설이다. 주인공이 벽지의 어느 산골 병원에 있는 T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자기 고백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 허준의 작품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허무주의적 색채와 고독감은 이 작품에도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혼자라는 고독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 의식을 심리 묘사를 통해 파헤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고독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인 외로움과 고독 등을 농도 짙게 그려 내고 있다.



Q.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작품에 해당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만한 사실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은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성격,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세 병사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부상을 입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주 대위, 그런 주 대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김 일등병, 그리고 혼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가 죽음을 맞는 현 중위, 이렇게 세 사람이다. 작가는 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감각적이고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인간애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냄으로써 전쟁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이들이 보이는 삶에 대한 의지

전체 줄거리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은 전쟁 중에 낙오하여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인 주 대위를 교대로 업어 가면서 이동하고 있다. 현 중위는 주 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을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 주 대위가 자결하도록 암묵적인 압력을 주지만 주 대위는 이를 애써 외면한다. 그러던 중 비참한 죽음의 상황을 상정하는 꿈의 이미지에 시달리던 현 중위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주 대위와 김 일등병 둘만 남기고 슬쩍 사라진다. 김 일등병이 혼자 주 대위를 업고 길을 떠나지만 더위와 굶주림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한다. 주 대위는 몇 달 전 부산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떠올리며, 타인을 위한 희생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혼자 떠났던 현 중위의 시신이 능선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남은 기운마저 다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멀리서 들리는 아군의 대포 소리 덕에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갖게 되지만, 대포 소리가 나는 곳까지 너무 멀다는 사실에 절망한 주 대위는 자결을 선택하려 한다. 그 순간 주 대위는 대포 소리 사이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인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 김 일등병은 생존의 희망을 상실하고, 주 대위는 그런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자신을 업고서 인가가 있는 곳까지 걷게 만든다. 인가에 도착하기 직전 주 대위는 의식을 잃고 만다.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뜬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 가운데 그는 팍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고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 나와 목을 들이치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문히게 돼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

초조할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셋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현 중위의 꿈 에피소드가 삽입된 이유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현 중위의 꿈이 제시된 것은 현 중위의 내면을 암시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음. 그의 의식이 '문득'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을 발견하는 것은 그가 주 대위와 함께 걷는 것과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 하는 것을 암시함.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 죽음을 암시하는 개미 떼의 꿈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멍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식량이 떨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극한의 방법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찼다.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을 두고 혼자 떠남

그런 지 좀 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두 여길 떠나게. /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나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김 일등병을 위한 주 대위의 마음이 드러남.

-현 중위 갔어, 기다리다 못해. /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부상당한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 중위가 떠난 것을 알고 있음.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긴 붉은 놀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댔다.
부상당한 주 대위를 버리고 떠나지 않음.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먹은 것이 없는 상태로 험한 산길을 걷는 극한 상황

▶ 부상당한 주 대위를 두고 현 중위가 떠남.

(중략)

하루 종일 걷은 것이 십릿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처지를 담담히 서술함

김 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시늉이었다. /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 감을 느껴야만 했다.

저녁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 하고 날아올랐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죽음을 암시 현 중위가 발을 헛디뎠을 것을 추측하게 함.

발길을 돌리며 김 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 중위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서즈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 이다가도 그저 까웁까웁 몇 번 을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때꾼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 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현 중위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현 중위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함.
▶ 홀로 떠난 현 중위의 죽음을 목격함.

잠시 후에 김 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 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웁까웁 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 김 일등병은 도로 와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버렸다.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변듯이 누워 있었다.

김 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 먹히우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절망적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다다름.

▶ 절망감에 사로잡힌 김 일등병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 속에 끌려들어 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 -꽃소릴세.

김 일등병에게 희망을 품게 함.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 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미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대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 너무 먼 아군의 꽃소리에 꺾이는 희망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주 대위의 내면

죽음을 직전에 두고 정신이 맑아짐.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

김 일등병이 자신을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자결해야 한다.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은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꽃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 -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감게 하려는 행동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주 대위의 행동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포인트
1

이야기의 서술자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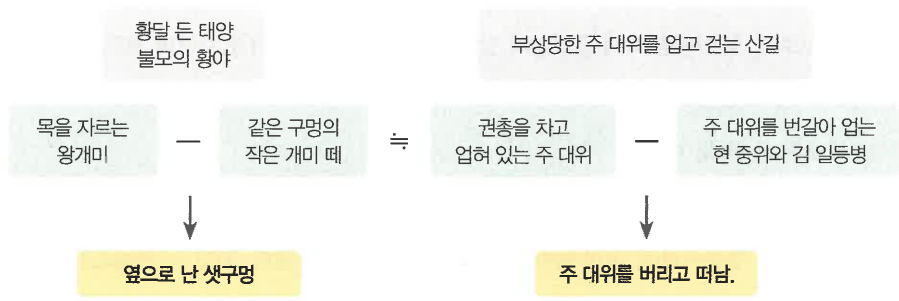
소설 전체로 볼 때 전지적 서술자 시점인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은 장면에 따라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각자의 시점에서 각자의 내면이 서술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소설은 고전 소설의 전지적 서술자 시점처럼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서술된다고보다 복합적인 시점에서 서술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포인트
2

황순원 작품의 주제 의식 문항 3 관련

「너와 나만의 시간」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좁은 시각에서 작품을 이해하면 6·25 전쟁의 참상이나 고통을 주제로 볼 수 있으나, 6·25 전쟁이라는 특정 시점과 관계없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등병이 겪고 있는 극한의 상황은 등장인물들의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작가 황순원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였다.

꿈의 장면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전후 소설의 휴머니즘 성격

6·25 전쟁을 경험한 문인들은 국가 건설 복구와 상실된 인간성 회복을 휴머니즘에서 찾았다. 문단에서 기획한 휴머니즘의 성격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당대 정권과 맞물렸던 기성 문인들은 한국 전통의 윤리적 틀 안에서 '민족주의적 휴머니즘'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서구 철학과 문학의 영향을 받은 신인 문인들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을 제시했다.

반면 황순원은 '공동체 휴머니즘'을 지향했다. 황순원은 당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에 주목하였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들은 공동체를 위협하지만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고 충실한 삶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인간들은 공동체 구성원을 융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 공동체를 위협하는 무자각과 무책임

휴머니즘은 인간의 생명, 가치, 책임, 의무, 반성 등 '인간적인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상이다. 반면 '비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을 억압, 왜곡, 무사유, 무자각, 무책임 등의 행동으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행동은 인간관계의 공동생활을 협력으로 이끌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소외시킨다. 그들의 무사유, 무자각, 무책임 때문이다. 황순원의 소설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무사유'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리도」의 일본인, 「어둠 속에 찍힌 판화」의 주인집 사내, 「매」의 어릿광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BS Q&A

Q. 소설에서 인물의 정서와 태도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문항 2 관련

A. 일반적으로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에서 작품을 충실히 읽고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로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 이때 5개로 제시되는 선지들은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지문의 내용을 읽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의 정서나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뱀을 잡아먹은 세 사람 중 현 중위가 슬며시 자리를 뜨자 주 대위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을 직감합니다. 반면 김 일등병은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태도는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주 대위는 현 중위가 자신을 구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이어지는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의 대화에서 아군의 풋소리가 사십 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말에 김 일등병이 도로 자리에 누워 버리는데 이는 아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실망감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희귀한 귓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자신의 병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인 성 중위는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군의관들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증세에 대해 설명하지만 군의관들은 그의 말을 출처를 귀담아 경청하지 않는다.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성 중위는 자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작품은 개인의 진실을 계속적으로 묵살하는 조직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주제

개인의 진실과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정신적 상처

전체 줄거리

성 중위는 빈 강통을 총으로 쏜 후 이명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포사격장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다. 이전에 그는 후송을 위해 이명 증상을 호소하며 군의관을 찾아갔으나 계속해서 후송 불요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성 중위는 의무 참모의 도움으로 수도 육군 병원에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청력표를 받는다. 이후 성 중위는 제50 야전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도 육군 병원에서 작성된 의견서에 힘입어 제17 후송 병원으로의 후송 승인을 받는다. 제17 후송 병원으로 이송된 성 중위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실이 조직에 의해 묵살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성 중위는 암담한 상황에서 과거 어느 여름 자신을 태워 주지 않은 차가 사고 나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을 회상한다. 결국 그는 많은 환자들과 함께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 중위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자신의 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 중위와 달리, 군의관은 성 중위의 병과 병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러시겠지요. 농담은 그만둬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퇴원은,”

성 중위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던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를 치료도 안 해 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병과 병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군의관에 대해 항의하는 성 중위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나올 것이 없다는 군의관의 단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 성 중위의 증상에 대해 성의 없는 진료를 하는 군의관의 모습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성 중위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요?”

문제 해결 키 문항1 관련

성 중위의 병에 대해 성의 없는 진료를 하는 군의관과 이에 항의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성 중위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어 있음.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 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고통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증상과 통증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 중위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 중위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필러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성 중위에 대한 진찰에는 성의를 그다지 보이지 않던 군의관이, 성 중위가 가져온 청력표의 군의관 의견란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보는 상황으로,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기준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가 보세요. 그리고 이견 병상 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 중위가 가져온 청력표의 군의관 의견란을 보고 난 이후 성 중위의 후송을 위한 절차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음. 고통의 당사자인 성 중위가 느끼는 증상보다는 권위와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

성 중위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 중위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 상병, 문 중위더리 이 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성 중위가 제17 후송 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 다른 군의관의 의견이 적힌 문서를 보고 난 이후 달라진 군의관의 태도

[중략 부분 줄거리] 성 중위는 제17 후송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청력표)를 보여 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성 중위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그리로 후송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 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 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문집니다.” 성 중위의 후송 성사에 있어 당사자인 성 중위가 느끼는 고통과 군의관의 의견서 외에 또 다른 요인이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후송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과정보다 알 수 있음.

“수도 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 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 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담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지요.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지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 병원이지만 후송 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 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 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 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로 보내 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 “…….”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후송되는 병원도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송 자체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함.

“후송이 되느냐, 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대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예상이나 바람과 달리 후송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 성 중위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을 알 수 있음.

병을 앓고 있는 군인의 후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고통보다는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되고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 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 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 중위의 병상 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판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 후송 병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후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듣게 됨.

성 중위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낮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 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 중위의 노여운 낮 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 중위는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약을 써요, 약을. 나두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한 보루 썼지 않았수?”

*약은 뇌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물인 담배를 건네준 후 제7 후송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가능했음을 의미함. 이를 통해

“그래요? 환자가 되려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지요?” 성 중위와 대위가 처한 현실의 불합리함을 알 수 있음.

성 중위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약을 쓰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환자가 도리어 의사에게

“써 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약을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임.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거 내버려 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성 중위는 내뱉듯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 버렸다.

▶ 대위의 말을 듣고 이해하다가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성 중위

대위는 — 50에서 성 중위와 같이 온 장 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성 중위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그의 예감은 대개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낯두리를 늘어놓

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 오는 놀라운 관현악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에 값하는 군소리가 아나운서의 말을 ‘넋두리’, ‘군소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화를 번거로워하고 말마저 귀찮아하는 점 등을 볼 때 성 중위가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뒤따랐다.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 주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 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침섭해 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 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 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지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 언어에 대한 성 중위의 부정적인 인식

*바이스로이: 서양 담배의 일종.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표현상 특징 **문항 1 관련**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남.
- 중심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함.



성 중위의 '병'이 갖는 의미 **문항 3 관련**

「후송」에서 성 중위는 자신의 예민한 정신이 간혀 있는 군대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후송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험 신호로서의 그의 불안이나 귀울림이 아니라 후송 과정 그 자체에 있다. 어렵기 짝이 없는 후송 과정은 그가 군대에서 귀울림과 신경 쇠약을 얻게 된 내력을 역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 진찰과 후송을 둘러싼 담당 군의관들의 불신과 사무적인 냉랭한 태도 등 소통 불능의 양상들은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인 성 중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성 중위의 군 생활 역시 그러한 심적인 고통의 축적 과정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상황은 권력의 비대칭 양상을 보이며, 대화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독백적 상황과 유사하다. 주인공 성 중위의 이명은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로, 경청과 대화의 의지가 없는 군의관(비인간적인 시스템)의 귀에 문제가 있음을 역으로 고발한다.



소통 불능의 현실에 대한 성 중위의 대응 **문항 3 관련**

성 중위는 군대라는 제도와 조직 속에서 일반적인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성 중위는 자신의 증상을 타인에게 확인시키고 후송을 허가받기 위해 힘겨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후송 자체를 위한 싸움으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 그러나 성 중위는 자신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실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 중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자

■ 서정인의 작품 세계

서정인의 소설 속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가이다. 그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일상적 공간의 외피를 갖고 있으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닫힌 곳이다. 이 속에서 인물들은 특히 '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말'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매우 예민한 매개체이며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정인 소설의 인물들은 합리적 소통을 욕망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현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EBS Q&A

Q.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문항 1 관련**

A.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모더니즘 소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설의 기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느낌 등을 그대로 적는 기법으로, 연상 작용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을 그대로 써 내려가는 것을 말하지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는 기법이기에 때문에 논리적 인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고 비약이 심한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설로는 오상원의 「유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예」는 인민군 포로가 된 국군 소대장이 죽음 직전에 주어진, 한 시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느끼는 심리적 갈등과 생각들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시간의 순차성을 무시하고 '나'의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의 주인공의 생각과 느낌을 세밀하게 보여 줍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1976년 발표된 중편 소설로, 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갈등 양상을 통해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파괴, 정치적 자유의 억압, 물질 중심적 사고의 확산, 분단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총 4부 가운데 1~3부에서는 동생 병식, 형 병국, 아버지의 시점을 통해 각각을 중심으로 한 사건과 내면의 서술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4부에서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시점에 의해 전체 사건이 마무리된다. 병국과 병식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이, 아버지를 통해 실망의 아픔이 형상화되며, 특히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은 작품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주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삶

전체 줄거리

재수생인 병식은 동진강 하구에서 밀렵한 새를 박제사에게 넘기고, 번 돈을 유흥비로 쓴다. 그리고 한때 촉망받는 수재였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되어 낙향해 온 병국을 보며 실망한다. 낙향한 병국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품고 살아온 상처의 원인을 듣는다. 또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를 찾아 헤매면서 인근의 수질 오염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한편 아버지는 이복 출신 실형민으로 철새가 도래할 무렵이면 갯벌에 나가 새를 보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추억하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아버지는 해안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군 당국에 붙잡힌 병국을 데리고 오면서, 병식이 새 때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말을 병국에게 듣는다. 병국은 병식을 찾아가 잘못을 추궁하려다가 병식과 격렬하게 다툰다. 이후 술집에 갔다가 바깥에서 아버지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말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발걸음을 돌린다. 그리고 바다를 응시하다가 도요새가 날아오르는 환상을 본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유흥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세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새를 통해 자유를 떠올림

병국에게 좌절을 안겨 준 현실, 병국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

절대 자유의 상징

▶ 병국이 새를 통해 절대적 자유를 떠올리고 새가 되기를 소망함.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 삼각주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오백 미터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옹포리란 옛 포구가 나섰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만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모래벌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옹포리였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때마침 옹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다. 불과 삼 년 전이었다.

포구였던 옹포리가 공단 조성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인해 고기가 잡히지 않고 도로가 생기자 유흥가로 변모함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 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 왔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옹포리로 몰려나왔다. 장사가 쓸쓸히 잘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옹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다. 옹포리는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 내륙에 공단이 조성된 이후 옹포리가 변모한 모습

6·25 전쟁 때인 1950년 12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복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이 파란민과 함께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선박으로 철수한 작전

나는 옹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은 집이 있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이집이란 해묵은 소숫집이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다.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육이오 전쟁 '흥남 철수' 때 피란 나온 삼팔따라지로, 나는 그 집울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집으로 갔다.

아바이집

삼팔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병국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되어 낙향했을 무렵

"이젠 너도 아버비와 같이 자, 잔 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애.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수, 술잔 함께할 날을 말이야. 내

멋진 과거지사를 들어 줄 놈은 여, 역시 만아들밖에 없으
아버지가 큰아들인 병국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함.
려니 하고 말이야.”

목로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동해

를 볼 때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아버지가 바다와 새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과 약혼자를 떠올렸음.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원래 이북 출신이었으나 남한으로 귀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는 내 뜨,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입대한 셈이지. 육 개월 뒤 금화 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었어. 그때가 이, 일사 후퇴 끝난 뒤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 고향 땅을 못 밟고 말았잖았는가. 고향 땅 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려 꿈을 꿔던 게 모두 수,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벼, 병아리가 다시 달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워, 원 상태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아버지가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 주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사진이 아니었다. 색 낡아 누렇게 바래진 유포만 한 증명사진이었다.

아버지가 고향에 두고 온 약혼자에게 품었던 마음이 절실했음을 보여 줌.

“너,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세로 주름마져 진 색 바랜 사진엔 처녀 얼굴이 박혀 있었다. 갈래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 병국이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가 실형민으로서 품고 살아온 아픔에 대해 알게 됨.

병국이 아버지 약혼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

[중략 부분 줄거리]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할 때면 새를 보며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만을 살아 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 떼나 보러 나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역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병국이 새를 밀렵하고 오던 병식과 마주친 장소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중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형제와 함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병식의 친구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 왔다.

새를 독살했느냐는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병식의 태도에 화가 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아버지집에서의 대화

아버지집은 아버지가 병국에게 소개한 곳으로, 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본문에 제시된 장면에는 아버지가 자신이 품고 살아왔던 아픔을 병국에게 털어놓는 상황이 드러남. 그 핵심은 옛 약혼자에 대한 그리움인데, 병국의 대화를 보면 약혼자의 존재 자체는 병국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음.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릴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짐자 있나? 형,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새를 죽인 사실을 문제 삼는 병국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들였어? 아님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남.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잔에 술을 찼다.

“형, 우선 한잔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새를 밀접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냄.
“누가 네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대!”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두루미나 크낙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빠진 잡새 죽었다고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 죄가 되구, 돈 많은 놈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식이 코웃음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수는 없어.”

병식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병국이 내세운 논리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삼십 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오십 마리 쯤 죽였다 치자. 그제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먹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안 한 술집 새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놓고 벌어진 병국과 병식의 갈등이 격화됨.
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 병식에게 새를 죽인 일을 추궁하는 병국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병식이 서로 다름.

*호구 있는 건: 입에 풀칠하는 것은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병국과 병식의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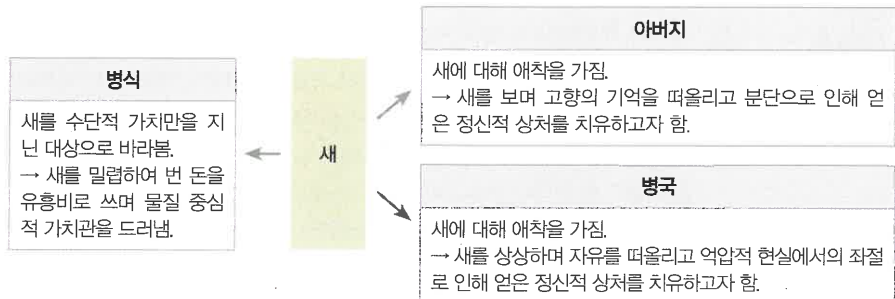
새를 밀접하여 박제사에게 넘기는 일이 비윤리적이고 하며 동생을 타이르려는 병국과, 그런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모습을 보이는 동생의 가치관 차이가 다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토 1

‘새’에 대한 인물의 태도 문항 3 관련

이 작품에는 1970년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물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새’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작품에 형상화되고 있다.



교양포
2

병국과 아버지, 병국과 병식의 관계 문항 3 관련

병국과 아버지는 정신적 상처를 얻게 된 구체적 이유가 서로 다르지만 '새'를 통해 치유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편 병식도 병국이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돌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병국은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풍조에 순응하여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골몰하고 금전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병식의 가치관은 새에 절대 자유의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고 새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병국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두 인물 간에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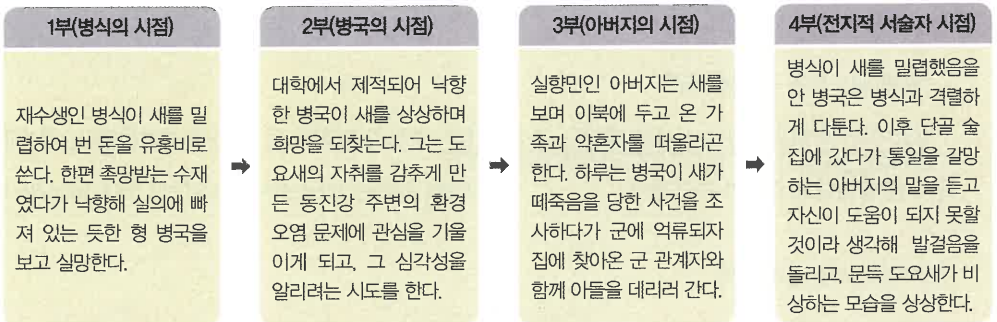
교양포
3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 나타난 환경 문제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우리나라 현대 소설사에서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질 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본문에 제시된 '동남만 연안'의 변화 이외에도 병국이 철새인 도요새가 도래하지 않게 된 상황이 공장 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려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일본의 공해병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거나, 강 하류의 새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상황, 하천 인근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황 등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무리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환기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이야기 구조



■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 반영된 1970년대의 사회 문제 문항 3 관련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와 함께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병국이 낙향한 모습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었던 상황이, 아버지의 아픔 이면에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던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병식을 통해서도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고 물질 중심적 사고가 확산되었던 당시의 풍조가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작품에서 새를 바라보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EBS
Q&A**

Q.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가지 시점이 나타날 수 있나? 문항 1 관련

A.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가지 시점이 번갈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경우 1~3부까지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개되는데, 서술자인 주인공이 병식에서 병국, 아버지 순서로 달라집니다. 또 4부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서 전개되는데 경우에 따라 관찰자적 시점에 따른 서술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서술 방식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가족 구성원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가서 작가의 주제 의식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와 남편, 아주머니와 노파의 삶을 통해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나'의 현재와 아주머니, 노파의 과거 이야기가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폭력과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개인의 삶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그와 같은 작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제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것의 극복

전체 줄거리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껴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설음을 느낀다. '나'는 호숫가의 한 여인숙에서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그녀를 극진히 봉양하는 아주머니를 만난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노파가 25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며 아주머니의 삶에 감동을 받는다. '나'는 가족을 극진히 보살피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고부의 사연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지닌 남편과 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 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 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늘었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연 다른 꼼꼼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려진 화풍은 '나'가 남편과 딸 사이를 질투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할 이 님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혼까지 읊아 붙은 영정(影幀)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스하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출가해서 삼 년째, 갓 돌 지난 첫째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곽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

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한창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 한

나이 때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복에 두고 온 당시

[A] 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불품없는 꼴로 늙

어 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돼 있

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직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 딸을 통해 전처를 떠올리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중략 부분 줄거리]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숙에서 쉬 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현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썬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적}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 소사와 폭탄을 쏠 새 없이 퍼붓고 ^{6·25 전쟁 돌입을 알 수 있음.}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니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됨.}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북한을 지칭함.} 집 속에 쥐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들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인민군이 물러가지도 안 물러가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 위원회가 쓰던 이장 집 마당 깃대 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펴려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음.} 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티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뒷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올타리엔 기쁨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시어머니가 뒤란으로 나간 행동을 이유를 뒷받침해 줌}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아들이 있는 곳을 발설할까 봐 시어머니에게 미리 연습시켜 놓았던 대답임.}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싸움에 진 뒤 살아남은 군사}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

[B] 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랠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인민군이 그녀의 남편을 해친 일이 우연적 사건일 수 있음을 알려 줌.}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 인민군 패잔병이 쓴 총에 죽음을 맞이한 아주머니의 남편}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여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졌다뿐 ^{가족애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 아들의 죽음으로 고질병을 가진 시어머니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주머니}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A]와 [B]의 서술상 특징 (문항 1 관련)

- [A] - 일인칭 서술자 '나'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
- [B] - [B]의 외부에 위치하는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

포인트 2

구절의 서사적 의미와 기능 **문항 2 관련**

- '나'의 남편이 개인전 준비 때문에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음. → '나'가 남편을 찾아갔다가 불편한 사건을 마주할 개연성을 부여함.
- '나'는 남편이 딸을 통해 이복에 두고 온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다고 생각함. → '나'가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된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음. → 이후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나타남.
- 울타리에 잘 익은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시기임. → 시어머니가 뒤란으로 나간 행동의 이유를 뒷받침해 줌.
- 인민군이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에게 옷이나 먹을 것을 얻으려 했는지 모름. → 인민군이 그녀의 남편을 해친 일이 우연적 사건일 수 있음을 알려 줌.

포인트 3

박완서 소설의 주제와 특징 **문항 3 관련**

박완서 소설에서 시종일관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이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박완서 소설은 단순히 개인을 피해자, 사회를 가해자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여 주지 않는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은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 보여 주고 있으며, 아울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작품 전체의 구조

발단	'나'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낌. 주목
전개	'나'는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섬을 느낌.
위기	'나'는 호숫가의 한 여인숙에서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그녀를 극진히 봉양하는 아주머니를 만남.
절정	'나'는 아주머니에게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노파가 25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됨. 주목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며 온 아주머니의 삶에 감동받음.
결말	가족애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가는 노파와 아주머니를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며 가족에게 돌아갈 결심을 함.



Q. 액자 소설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A. 액자 소설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소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액자 구조는 두 이야기 사이의 거리를 바탕으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참고로 「겨울 나들이」 역시 액자 소설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외부 이야기와 노파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고리로 한 두 이야기에서, 외부 이야기의 '나'는 내부 이야기의 노파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가족애를 바탕으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자 소설은 두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감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지방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 나가는 어린 가정의 이야기를 명랑하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몇 차례 데이트를 했던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을 우연히 듣고 그들과 연대 의식을 느낀다. 동명의 소설집 『명랑한 밤길』에서는 주로 여성 주인공들을 내세워 현실의 단면을 보여 준다.

주제

실연의 상처를 입은 여주인공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느끼는 연대 의식

전체 줄거리

지방 중소 도시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며 단순한 일상에 무료함을 느낀다. 그 즈음 도시에서 이사 온 세련된 남자에게 반하여 그와의 데이트를 즐긴다. '나'는 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무공해 채소라며 남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그들의 이름에 공감하며 그들과 연대 의식을 느낀다.

아욱국과 된장 종지와 고추 세 개가 동그마니 놓인 저녁 밥상이다. 수저를 들려다가 문득 토마토밭 쪽에 뭔가 새록한 게 어긋거린다. 나는 다시 질퍽한 마당으로 급하게 내려섰다. 방울토마토가 딱 두 개 빨갭게 익어 있다. 빨간 방울토마토 두 개가 올라오니 적막한 저녁 밥상에 꽃등 두 개가 켜진 것 같다. 빨간 방울토마토 두 개를 가운데 놓고 모녀는 드디어 한없이 느리기만 한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 아픈 어머니와의 단출한 밥상
'나'는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연세 가정 의원은 토요일이면 오후 세 시에 문을 닫는다. 의사는 이미 퇴근하고 나와 수아가 마약 병원 문을 ‘나’가 간호사로 일하는 직장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문을 잠그고 나는 수아와 함께 면 소재지를 휘감아 도는 강변 독방 길을 좀 걷다가 조그만 서울 도시이기 때문에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음.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집으로 갈 참이었다. 그 독방 길에서 최근에 수아가 산 엠피스리 플레이어로 다운 받아 놓은 최신 발라드 곡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봄이면 독방 길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 독방 길을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바람이 불면 수아와 내가 짝 맞춰 입고 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녹색 플레어 치마가 우리들 다리에 부드럽게 휘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뿐이다. 우리는 각자 고요한 귀갓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아와 나의 동창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즈음에 부쩍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 20대의 젊은 여성이 드문 중소 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드러남.

퇴근길에 농공 단지 안 플라스틱 공장 사장 만배가 커피 좀 마시고 가라 해서 들어가 본 만배의 일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야산과 밭과 논 위에 가구 공장, 의료 기기 공장, 플라스틱 공장들이 지어지더니 그곳이 공식적인 농공 단지로 지정되었다. 농공 단지 옆에서 만배는 돼지를 한 이백 두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 건으로 경찰서에 불러 가네 어쩌네 곤욕을 치른 뒤에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농공 단지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 안은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찍어 내는 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진동했다.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제각각 악을 쓰며 공장 천장 위로 치솟았다가 공장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나를 흘끗거리자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 지방 중소 도시에서의 일상생활
공장이 들어서며 변해 가는 농촌의 현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
공장과 함께 생겨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
공장 소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상
‘나’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

만배의 저급한 성품이 드러나는 표현

“야마, 함부로 입맛 다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일.”

외국인 노동자를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손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눈이 가는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씨익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야마, 하부로 이마까지 말고 빨리빨리.” / 나는 커피고 뒤고 만정이 떨어졌다.

만배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외국인 노동자와 만배와의 대화에서 모욕감을 느낌

농공 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이라고 수아는 질색을 했다. 수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모양이었다. 나도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한국인 사장과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 경험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험과 인식

[중략 부분 줄거리] 사랑한다고 믿었던 연인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간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고향인 네팔에서 보았던 달을 그리워함.

내가 뭐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싸부딘은?”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 결혼을 통해 한국에 살게 된 네팔인 가정 폭력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음.

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우리나라’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나타냄.

▶ 싸부딘의 고단한 삶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바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 간쭈가 위안을 얻는 방법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나타냄.

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 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

간쭈가 다시 노래한다.

간쭈가 고단한 현실을 견디는 방법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간쭈의 아픔에 공감함.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존재들에 대한 노랫말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싸부딘도 노래했다.

어머나 어머나 이리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리시면 안 돼요……

폭언을 하는 사장 등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랫말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었다.

“싸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 “좋아.”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동화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 간쭈와 싸부딘의 위로와 공감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간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 온 길이 보였다.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에게 실연의 상처를 불러일으킴.

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간쭈와 싸부딘이 했던 방법을 따라 위안을 얻으려 함.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실연당한 자신의 처지를 담은 노랫말

나는 방앗간을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간쭈와 싸부딘에게 연대 의식을 느끼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려 함.

▶ 간쭈와 싸부딘의 사연에 연대감을 느끼며 용기를 냄.

이것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세 부류의 인물 문항 1 관련

수아	생존의 문제 ×, 연애의 문제 ○
'나'	생존의 문제 ○, 연애의 문제 ○
간쭈와 싸부딘	생존의 문제 ○, 연애의 문제 ×

포인트
2

간쭈와 싸부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나' 문항 3 관련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실연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오던 '나'는 방앗간 안에서 간쭈와 싸부딘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나'가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며 연대 의식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간쭈와 싸부딘이 고향의 달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길을 걷는 것처럼 '나' 역시 노래를 부르며 달을 향해 나아간다. 이 장면은 다소 추상적인 연대와 성장을 나타내지만 그 나름의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포인트
3

다문화와 다문화 문학 문항 4 관련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형태 중 하나가 다문화이다. 다문화란 여러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로 맺어진 가운데 문화 간에 생기는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이 문제들을 조화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성된 긍정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의 개념에는 본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근거한 편견과 지민족 중심의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도마저 포함된 용어이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파리아의 역설

이주 노동자들은, 겉모습은 '나'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한 바 있지만 마음은 참으로 따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얼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나'가 이들의 대화를 숨어서 듣는 장면을 통해,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드러난다. 이들 중 특히 간쭈는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타자를 위해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오히려 가장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유적으로 '천민'을 의미하는 파리아를 빌려서 '파리아의 역설'이라고 한다.

EBS
Q&A

Q. 소설에서 길을 걷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서화」(1933), 「소년행」(1937), 「대하」(1940), 「삼포 가는 길」(1973) 그리고 「명랑한 밤길」(2005)까지 주인공들은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계기마다 저마다의 '출발'을 합니다. 특히 공선옥의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걷기를 통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자기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2000년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의 삶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실존적 관점을 통해 담 아낸 소설이다. 서술자는 신홍 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다섯 노인들의 일상을 엮은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각 인물들은 모두 죽음을 의식하고 과거를 정리하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 들과 다를 바 없이 저마다의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주제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의 대응 방식

전체 줄거리

신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중산층 노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민 선생은 지하철을 타고 친구의 문상을 가는 길이다. 동승한 아내와 이력저런 대화 를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한편 김 선생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시절 실수로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 데, 노년기에 정 선생과 한동네에 살게 되자 그에게 과오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에 정 선생은 자신 역시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를 털어놓으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박 선생은 위암에 걸린 친구의 부탁으로 은정이라는 초등 학교 동창생을 만나러 간다. 동창과의 만남 이후 잔잔한 여운을 느끼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실망을 느끼 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이 살아 있는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홍 선생은 홀로 양식집에 앉아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현재를 묻고 늘어지며 살겠다는 결심을 드러낸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지?” / “글쎄.”

“기십 년이 좋을 걸세.” /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볼

“그게 한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건데.” / “그러네.”

“해서 말인데, 나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걸 안 날부터 솔직히 심사가 편치 않아.” / “건 또 왜?”

김 선생이 정 선생의 형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지니고 살아온 죄책감을 정 선생에게 털어놓고자 함.

“몰라서 묻나?” / “무얼 말인가?”

“시침 떼기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함.

“시침 떼다니. 이 사람이……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니. 덮어놓고 욱박지 르면 단가. 이러자고 불러냈다.”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정 선생도 언뜻 짙이는 데가 있는 눈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그게 아닐세. 내 구변이 서툴러 이런가 보네. 다음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 터 꼬였구먼.”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김 선생의 심사가 편치 않은 이유

일을 시작한 첫머리 무렵

“하항. 그거…….”

“내 힘든 기본 이제사 알겠는가?”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나. 언제 적 얘기라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속앓이를 했는가.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위눌렸던가.

이야기 밖 서술자가 정 선생의 관점에서 서술함.

▶ 김 선생이 정 선생을 불러 만나자고 한 이유를 털어놓음.

전쟁 전야였다. 좌우익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박 하면 몽둥이 싸질을 벌이던 무렵이다. 김 선생네는 중 6·25 전쟁

정 선생의 형이 겪었던 사건이 이념 갈등과도 관련이 있음.

학교 뒷문계에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 일짜리 김 소년이 우연히 목격했다. 두세 차례나 밀 어내었는데도 여전히 목지근한 아랫배를 쓸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 나오는 숙직실 쪽으로 가만가

만 다가가 안을 기웃거렸다. 몇몇 선생님님을 포함한 대여섯 청년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폭넓은 두루마리에

좌익에 가담한 사람들이 선전문을 만드는 상황

문제 해결키 문항 2 관련

김 선생은 정 선생과 한동네에서 살게 된 뒤 정 선생 형님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심적 부담을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있음.

붓글씨를 쓰고 등사판을 미는 등 어수선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하고 있던 작은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일러바쳤다. 농지 개혁 이후 지가 증권으로 살림을 꾸려 가던 두 분은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 숙직실을 뒀졌다. 그 속에 정 선생의 형이 끼었던 거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소용없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직이었던 데다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하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으로 피난 터를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실사병만 아니었어도, 측간에만 안 갔어도 따위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미구에 퍼졌다.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 “사람들의 작은 몸뚱어리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사과의 뜻을 표하고 용서와 화해를 청함

정 선생은 탄전을 피웠다. 어안이 병병하여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의를 묻는다.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진짜 의도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그 비밀이란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지.”

김 선생이 정 선생에게 환기시킨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 “?”

김 선생의 눈이 드디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인 듯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정 선생의 반응에 놀람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 “그 전에 내 말 더 듣게.”

김 선생이 과오를 털어놓은 데 대한 진지한 반응을 정 선생에게 요청함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먼.”

“누구는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겐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

정 선생

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아냐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구.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쑤라네.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냐. 사서 지랄하는 거지. 자네도 알잖

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 대학이나마 들어간 것. 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정 선생이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과거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먹었다네. 그가 일찍 죽었거든.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저간의 사정을 고

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이중 삼중의 뉘우침

정 선생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로 인해 느끼는 감정

을 겹겹이 안고 살아.”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만한 자는 내담없이 그만한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애.”

나와 다른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이가 아주 많은 정 선생이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과오를 김 선생에게 고백하며 노년기에 느끼는 감정을 털어놓음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이론 업적은 어찌고, 크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기를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벽차고 보람 있는 사업인데.”

젊은 시절 직업 생활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람 폭폭하게 왜 탄청을 부리나.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말인걸.”

김 선생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들 별수 있나. 이 나이에 변명은 구질
과거의 일이 떠올라 부끄럽고 힘든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할.

구질해. 오직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나 역시 그렇저렇고 잊고 살았네. 한데
사단의 한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다면 또 몰라. 좁은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호호한다는 사실이,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빛는…….”

당산이라는 같은 동네에 살게 된 일

▶ 김 선생이 정 선생에게 과거지사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냄.

“잠깐.”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의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 “그만해 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 “이대로 그냥 지내세.”

“무슨 뜻이야?”

“꼭 언질을 받아 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 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
자신에게는 김 선생을 용서하고 김 선생과 화해할 만한 자격이 없음.
온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
과거의 일로 인한 감정을 떠안고 사는 것이 죽기 전까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임.
스럽다고, 아니 주제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딴. 가당찮은 허영이지.”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로구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긴강에도 해롭다는 생각을 그다음에 한다네.”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상티망*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다 만다.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 봐. 엽라대왕한테 혼
과거의 일로 인한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함.
나기 쉽지. 네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 정 선생이 자신은 김 선생과 화해를 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 김 선생에게 노년에 대한 생각을 드러냄.

*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

이것만은
꼭
의하자
핵심 개념



서술상 특징 **문항 1 관련**

-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노년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음.
- 두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대화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음.
-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지만, 경우에 따라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도 나 타남.

포인트 2 김 선생과 정 선생의 대화 **문항 3** 관련

김 선생
정 선생과 한동네에 살면서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 선생에게 이를 고백함. 그리고 과거의 과오로 인한 힘든 감정을 해결하고자 함.

정 선생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김 선생과 마찬가지로 뉘우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함. 또한 죽는 날까지 사람인 이상 그러한 감정을 털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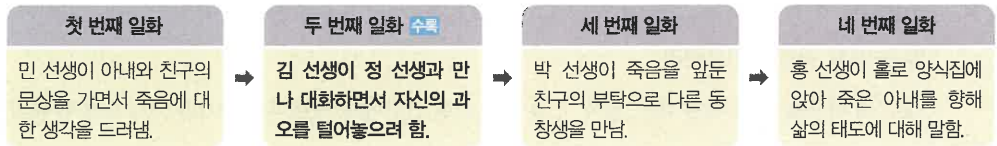
포인트 3 정 선생이 말한 '자충수'의 의미

자충수는 바둑에서 비롯된 말로,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한 실수들이 쌓이기도 하고 실수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살다 노년에 이르는 것이다. 그로 인한 회한을 완전히 벗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삶이 계속되는 한 계속 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자충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아주 느린 시간」의 이야기 구조

이 작품의 서술자는 신홍 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을 엿보면서 네 가지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노년 소설로서의 「아주 느린 시간」 **문항 3** 관련

노년에는 삶의 조건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한다. 또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노화와 죽음을 주요한 소재로 삼는 노년 소설에는 이러한 노년의 삶의 모습과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두 인물의 대화에서도 노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EBS Q&A

Q.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2** 관련

A. '문항 2'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의 심리와 발화 의도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특정 발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앞뒤의 다른 발화나 대화를 둘러싼 상황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의 현실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는 살아갈 방법을 마련하기 힘든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소설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피아노'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나'가 머물고 있는 지하방과 피아노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젊은이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피아노 음계 '도'의 반복되는 소리와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도도한 생활을 이중적으로 의미한다

주제

청년들이 처한 고단한 삶과 자존을 지키려는 노력

전체 줄거리

부지런한 엄마는 열심히 만두 가게를 꾸려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보통'의 기준에 맞춰 살아 보고자 생각하게 되고, 이를 둘째 딸인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는 것으로 실천한다. 피아노가 만두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나'에게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빛보충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도 '기념비'처럼 피아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엄마의 부탁으로, 성년이 된 '나'는 피아노를 갖고 서울 반 지하방으로 옮겨 온다. '나'는 언니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서울 생활을 버티고, 피아노는 습기와 곰팡이로 점점 망가져 간다. 어느 날 쪽우로 반지하방에 물이 차오르게 되는데, '나'는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집 주인의 말을 어기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나의 '도도한 생활'을 지하려고 한다.

[앞부분 줄거리]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의 만두 가게가 아버지의 빛보충으로 망하고 난 후,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번두리 반지하 셋방으로 어린 시절부터 쳐 온 피아노를 옮겨 와 살게 된다. '나'는 타자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하루를 고되게 살아간다.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며, 사랑하고, 아침하고, 농담하고, 협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 보고 싶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었다.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헹뜯고 싶지 않았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생활에 대해 '나'가 느끼는 불안을 알 수 있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

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만 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

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를 오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또 다음엔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방 안은 녹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

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나'가 꾸는 꿈의 내용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암시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녹눅한 방 안의 공기, 벽지 위에 핀 곰팡이의 모습 등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 '나'가 처한 환경의 열악함을 드러냄.

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걸레로 닦아 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에게 피아노라는 사물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음.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피아노를 갖게 된 내력이나 서울의 반지하방까지 피아노를 갖고 오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장마철 습기로 인해 피아노가 망가지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음.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주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공사 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아무도 모르게 몰래 피아노의 한 음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나’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 장마철 습기가 가득한 반지하방에서 피아노를 걱정하던 중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도—”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 속 어떤 것이 옆계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 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 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집주인의 이기적이고 매몰찬 성격을 보여 줌.

“아닌데요.” /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애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 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 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영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미 레도시도 파, 미 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웬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집주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인집 남자 때문에 피아노를 마음대로 치지 못한.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나는 만두 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 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

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
 빗물이 흘러내리는 벽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의 어려운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가의 얼굴 같았다. ▶ 폭우로 인해 빗물이 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에 놓임.

(중략)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
 게 될 게 분명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
 바이가 일으키는 흠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
 터와 활자 디근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툭툭 터져 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
 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
 지와 약지는 미 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음 하나가 긴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누르는 것으로, 암담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존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을 보여 줌.

“도—” / 도는 긴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억 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

나 둘 손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녹녹했다.

빗물이 차고 있는 반지하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술 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폐달에 뭉뚱뚱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 빗물이 흘러 들어오는 반지하방에서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한 자신의 피아노를 연주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하여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짐.
- 공간과 사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나'와 같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궁핍과 소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2 「도도한 생활」의 이야기 구조

지방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줌. 엄마의 만두 가게 한편에 놓인,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기뻐함.	아빠의 설부 큰 빚보증으로 인해 집안 이 망하고 난 후, '나'는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됨.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겨운 서울 생활을 해 나가던 중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힘겨워함. 수록	저녁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반지하방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나'는 야근 때문에 늦는 언니를 기다리며 빗물을 퍼내고 닦음. 수록	빗물을 닦아 내던 중 돈 문제를 얘기하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언니의 옛 애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옴.	빗물이 출렁이는 반지하방에서 '나'는 소중한 사물인 피아노를 치며, 언니의 옛 애인이 잠든 모습을 바라봄. 수록
---	--	--	---	---	---

소재와 공간의 비유적 의미 **문항 2 관련**

- **피아노:** 작품의 주된 소재인 피아노는 '나'와 '나'의 가족의 처지,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물이지만 동시에 엄마의 곁팍을 채우는 대상이기도 하다. 엄마는 집이 망했을 때도 피아노를 팔지 않았고, '나'를 언니에게 보내면서 피아노도 함께 갖고 가도록 한다. '나'는 습기가 가득한 장마철에 피아노의 상태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폭우로 방 안이 빗물로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한다. 이렇듯 피아노는 엄마와 '나'에게 힘든 삶을 지탱해 주는 일종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담긴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 **반지하 셋방:** '나'가 머무는 반지하 셋방은 장마철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빗물이 새어 들어오며, 집주인 때문에 자신의 피아노를 마음대로 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반지하 셋방은 쾌적하지 못한 삶의 공간으로, '나'가 처해 있는 궁핍한 생활과 고립, 사회적 억압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가 학원 교재나 시험지 등의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기도 하며, 언니가 영문과에 편입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반지하 셋방은, 가난과 고립을 드러내는 공간임과 동시에 '나'와 언니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제목 '도도한 생활'의 의미

제목 '도도한 생활'의 '도도한'(기본형: 도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여 주저נם게 거만하다.'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드러나는 '도도한'의 의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작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도도한'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다른 또래들과 달리 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 자유롭게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나'와 같은 청년 세대의 고단한 삶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힘겨운 상황에서도, 오랜 세월 함께한 대상이자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한 피아노를 연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을 지키려 노력한다. 즉 '도도한 생활'이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EBS
Q&A**

Q. 소설에서 공간(空間)은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나요? **문항 1 관련**

A. 소설의 공간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으로서의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소설의 공간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일종의 무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배경을 토대로 하여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소설의 공간은 이야기 자체에 실재성을 부여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지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정된 공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면극으로, 총 13과장(科場)으로 나뉜다. 가면극 공연은 대체로 널찍한 마당에서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벌어지는데, 내용 전개 과정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산대놀이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발전한 가면극 놀이로, 이때 '산대'란 임시 무대를 가리킨다. 제시된 장면은 제1과장으로, 말뚝이가 썸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산대놀이를 보러 왔다가 양반들이 머물 거처를 돼지우리로 정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층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비판 정신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보여 준다

주제

무능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구성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움중놀이, 제3과장 움중과 먹중놀이, 제4과장 연일과 눈끔적이놀이, 제5과장 엮불놀이, 제6과장 침놀이, 제7과장 애사당뱃고놀이, 제8과장 파계승놀이, 제9과장 신장수놀이, 제10과장 취발이놀이, 제11과장 의막사령놀이,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를 구성된다. 제1과장부터 제3과장은 파계승, 몰락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등이 등장하여 지배 계층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수록 부분인 제11과장은, 말뚝이가 쇠뚝이에게 양반들의 의막을 정해 달라고 부탁한 뒤, 쇠뚝이가 지어 준 돼지우리와 같은 의막에 양반들이 들어가는 장면, 쇠뚝이가 양반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 장면 등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주된 내용이다.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

말뚝이: 애, 그러나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쇠뚝이: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나?

말뚝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썸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를 구경을 극 중의 공간도 산대 탈놀이를 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극 중 공간과 산대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실제 연회 장소가 일치하고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애,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 다오.

▶ 의막을 정하지 못해 곤란해지는 말뚝이

쇠뚝이: 옹지, 구경을 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그래라, 의막을 하나 정해 주마. (놀이판을 여러 번 들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간다.) 애,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지었다. 애, 보아 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사랑에는 동그렇게 말뚝을 돼지우리같이 박고, 안은 동그렇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의막의 상태로 보아 쇠뚝이가 만든 의막은 문도 없이 말뚝과 담으로 막혀 있는 돼지우리임을 알 수 있음.

말뚝이: 그럼,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 그 방에 들어가자면 불구나나무를 서야겠구나.

쇠뚝이: 암, 그렇고말고.

말뚝이: 애,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쇠뚝이: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에 있느냐. 너는 대관절 그 댁의 누구란 말이나?

말뚝이: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쇠뚝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뚝이: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쇠뚝이: (쇠뚝이는 앞에 서고 말뚝이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의막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고이 고이 고이.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반어적 서술, 비유적 표현 등을 활용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냄. 이러한 풍자와 조롱 등은 지배층에 대한 평민들의 비판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말뚝이: (쇠뚝이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두우 두우 두우.🔑

▶ 돼지우리를 의막으로 정하고 양반들을 의막으로 데려감.

샌님: (의막 안에 들어가서 앉으며) 애, 말뚝아.

말뚝이: 네이—.

샌님: 이 의막을 네가 정하였느냐? 누가 정해 주었느냐?

말뚝이: (쇠뚝이를 보고) 애, 우리 댁 샌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이 의막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뚝이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개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들어가서 네가 샌님을 한번 뵈는 게 좋겠다.

쇠뚝이: 내가 그런 양반들을 왜 뵈느냐?

말뚝이: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뵈어야 한다.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양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뚝이의 말을 통해 당시 부패하고 부조리한 양반들의 행태를 알 수 있음.

쇠뚝이: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말뚝이: 어서 갔다 오너라.

▶ 쇠뚝이에게 샌님을 뵈고 오라고 말하는 말뚝이

쇠뚝이: 처라. (악사들이 타령 장단을 연주하면, 쇠뚝이가 춤을 추면서 양

반 일행 앞뒤를 돈다.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 앞으로 와서) 애, 음악을 통해 장면, 상황 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

니더라. 샌님을 보니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머리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 전대머리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있는 것,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는 것 등은 양반들의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라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나? 한량의 자식이지. 또 서방님이란 자를 보니 관은 썼으나 그놈도 꽃 그 를 수 있음. 이렇게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음. 립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나? 잡종이더라. 또 도령님이란 놈은 전복에 전 대머리를 매고 ‘사당 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극의 진행에 참여하는 악공, 춤,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가면극의 특징이 잘 드러남.

말뚝이: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쇠뚝이: 옳거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 양반 삼 형제의 남루한 의관을 조롱하는 쇠뚝이

샌님: (말뚝이를 부른다.) 말뚝아—. / 말뚝이: 네이—.

양반들이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하게 된 사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의 동요와 양반 계층의 몰락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샌님: 너— 어디 갔었느냐?

말뚝이: 네—. 샌님을 찾으려고요.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일정한 리듬감, 특정 장소들의 나열, 언어유희적 진술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장면의 해학성을 높임.

샌님: 어디로?

말뚝이: 네이—. 서산 나귀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높게 놓아 가지고 안남산 밖남산 벽계동으로 칠패 팔패 돌모루 동작강을 건너 남대문 안을 썩— 들어서니, 일간장 이떡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 앞 칠관안 팔각재 구리개 십자각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전골로 해서요. 언청다리 쇠경다리를 건너 와서 배우개 안 네거리를 썩— 나서서 아래위로 치더듬고 내리 더듬어도 샌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 리 없기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내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 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판에 와서 보니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가구려.🔑 (하며 샌님의 탈을 탁 친다.)

▶ 샌님을 찾아다녔다고 말하는 말뚝이의 대답

(중략)

말뚝이: (쇠뚝이를 붙잡고서)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아들이시란다.

쇠뚝이: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말뚝이: (버티는 쇠뚝이를 거꾸로 끌고 와서, 쇠뚝이의 엉덩이가 샌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쇠뚝이 잡아들었소.

샌님: 여—,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 난리를 갔다 왔느냐?

말뚝이: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샌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 봐 거꾸로 잡아들었소.

샌님: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밀구녕에 꼭— 박아라.

일종의 과장된 진술로, 서민들에 대한 양반들의 무자비한 횡포를 보여 줌.

▶ 쇠뚝이와 같은 평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

말뚝이: 네이—. 꼭— 박았소.

샌님: (앞에 꿇어앉아 있는 쇠뚝이를 향하여) 여봐라— 이놈—.

쇠뚝이: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양반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주체성을 드러냄.

샌님: 네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나?

쇠뚝이: 내 이름은 아침 아 자(字), 번개 번 자요.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 한번 불러 보시오.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와 발음이 유사한 ‘아번’으로 말하고 있음. 양반에 대한 쇠뚝이의 무시와 조롱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음.

샌님: 애,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번아—.

쇠뚝이: 샌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 보시오.

샌님: (이름을 불러 보지도 못하고 찢찢매면서) 아—.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번아—.

쇠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불러요. 글을 배우셨으니 바로 붙여서 불러요. 어서, 빨리, 왜 질질 매

양반이 내세우는 권위와 달리 허세로 가득한 양반의 무지를 비판하고 있음.

세요?

샌님: 아 자, 번 자야—.

쇠뚝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쇠뚝이: 이것 보게? 아 자, 번 자가 무엇이오? 도대체 샌님이 글을 배웠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요.

샌님: (붙여서 불러 보지 못하고 찢찢매며) 아—.

쇠뚝이: 어서 붙여서 불러 봐요.

샌님: 아,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 아버지—.

말뚝이: (샌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샌님을 향하여 대답한다.) 왜 그러느냐?

▶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등 샌님을 희롱하는 쇠뚝이

*양주: 지명. 경기도 동북쪽에 있는 시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쇠뚝이가 샌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양반을 희롱하는 장면임. 쇠뚝이의 재촉에 따라 결국 쇠뚝이를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게 됨. 이러한 샌님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는 쇠뚝이를 통해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내용 및 표현상 특징 문항 1, 2 관련

-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현이나 비속어가 섞인 일상적인 표현 등이 주로 사용됨.
- 춤, 노래, 재담 등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종합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지배층인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풍자와 조롱이 주로 나타남.
- 사건 전개에 따라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작품의 공간이 설정됨.

포인트
2

「양주 별산대놀이」의 전체 구성

제1과장	상좌춤	상좌 2명이 나와 벽사(辟邪)의 의식무를 춤.
제2과장	상좌와 움중놀이	움중과 상좌의 재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장으로, 움에 걸려 고생하는 중이 자신의 상좌를 물어내고 춤을 춤.
제3과장	움중과 먹중놀이	먹중이 움중의 얼굴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움중이 둘러대는 재담을 하는 과장으로, 움중이 자신의 지체를 높이려다가 정체가 발각됨. 파계승에 대한 풍자가 드러남.
제4과장	연임과 눈끔적이놀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고승 연임과 보좌승 눈끔적이가 나타나 파계승 움중과 목중을 발함.
제5과장~ 제7과장	염불놀이, 침놀이, 애사당 법고놀이	염불놀이, 침놀이, 애사당법고놀이를 구성되며, 파계승을 풍자하고 말뚝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
제8과장~ 제10과장	파계승놀이,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	파계승놀이,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를 구성되며, 노장의 파계상을 보여 줌.
제11과장 <small>주목</small>	의막사랑놀이	하인 말뚝이가 산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나와 자신의 친구인 쇠뚝이와 함께 무능하고 위선적인 양반들을 희롱하고 풍자함.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산님이 자기의 첩인 소무를 젊은 포도부장에게 빼앗기게 됨.
제13과장	신할아버와 미알할미놀이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및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 줌.

포인트
3

말뚝이와 쇠뚝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

말뚝이와 쇠뚝이는 피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허위에 가득 찬 양반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말뚝이의 경우 자신들의 주인인 양반 삼 형제를 적당히 대접하면서 다소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것과 달리, 쇠뚝이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양주 별산대놀이」의 유래

산대놀이란 중부 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경기 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한 갈래로 춤, 재담, 익살 등이 어우러진 민중 놀이이다. 이 놀이는 약 250년 전부터 사월 초파일, 단오, 추석 등 크고 작은 명절과 비가 오길 기원하는 기우제 행사 때에 공연되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양주 고을 사람들이 한양의 ‘사직골 딱딱이패’를 초청하여 놀다가 그들이 지방 공연 및 기타의 사정으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아지자, 불편을 느낀 고을 사람들 중 신명이 과한 자들끼리 사직골 딱딱이패를 본떠 직접 탈을 만들어 놀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놀이는 전체 13과장(또는 8과장 8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진하는 길놀이를 하고 관중의 무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놀이에는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늙고 젊은 서민들이 등장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 준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중부 지방 탈춤을 대표하는 놀이로서 해서 지역 탈춤과 함께 한국 가면극 중 연극적인 볼거리가 풍부한 가면극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국 가면극의 연출 형태와 마찬가지로 음악 반주에 춤이 주가 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몸짓, 재담이라고 하는 사설, 즉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 연희된다.

-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

장상 포인트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연행록(燕行錄) 『열하일기』의 「일신수필」에 실린 수필로,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중국 여행 중 목격한 수레의 여러 쓰임과 효용을 언급하고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수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양한 수레들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수레에 대한 탐구 경향과 배경지식을 중국에서의 견문과 관련지어 서술함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실학파로 분류되는 글쓴이의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과 실사구시적 태도, 당대의 지배 계층인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주제

중국 수레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레 도입의 필요성

구성

- 도입부: 태평차, 대차, 독륜차에 대한 소개
- 중심부: 수레 제도의 연구와 수레 도입의 필요성(수록 부분)
- 종결부: 중국 수레의 다양한 쓰임과 원리(수록 부분)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는 용차(戎車), 작업에 쓰는 역차(役車),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水車), 대포를 싣는 포차(砲車)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 수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나는 전에 답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 있다.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궤(軌),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식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궤(車同軌)’가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지금 길을 따라 천 리 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의 수레나 뒤의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같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一轍)’이라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前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옹뚱하게 흠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城門之軌]’이 바

▶ 수레의 두 바퀴 간격을 통일해야 함.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등글지 않으며 바퀴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닳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풀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라? 『중용』에서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해 수레가 반복적으로 다니게 되면 험준한 곳에도 길이 자연스럽게 닳일 것이라고 생각한 글쓴이가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 인용한 문구

중국에도 검각(劍閣)에는 아홉 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항산(太行山)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소, 광둥, 복건, 광서 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식솔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쳐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의 뇌성벽력 소리 같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磨天嶺)과 청석령(靑石嶺)의 고개, 장항(獐項)과 마전(馬轉)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 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굴을 분간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밭의 거름으로 쓰고 있다. 어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에 한 냥 값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육진(六鎭) 지방의 마포(麻布), 관서 지방의 명주, 삼남 지방의 닥종이, 황해도 해서 지방의 솜과 쇠,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 일용품에서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보은의 수천 그루의 대추, 황해도 황주·봉산의 수천 그루의 배, 전남 흥양·남해의 수천 그루의 굴·유자, 충남 임천·한산의 수천 그루의 모시, 관동 지방의 수천 통의 벌꿀 등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이다.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거인(車人)이니 운인(輪人)이니 여인(輿人)이니 주인(轉人)이니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이는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중략)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纒車)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한다.

소차는 몇 아름 되는 큰 열레이다.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시렁을 설치하여 점차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시렁마다 그 끝에는 쇧조각을 세우고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열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솔에서 삶긴 고치가 나와 열레에 들어갈 즈음에 두루 쇧 구멍을 지나가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끄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열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에 빨 필요 없이 바로 베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 소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훑치는 것만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타므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런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실끼리 부딪치거나 맞닿을 때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 판에 쌓이기도 한다. 실끼리 서로 엉겨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 붙고 말라 덩어리가 저서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푹푹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실을 잿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수레 제도」의 내용 전개 양상 **문항 3, 4 관련**

청나라에서 태평차, 대차, 독륜차 등의 수레가 쓰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함.

수레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바퀴 간격을 통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함. **수목**

조선에서 수레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수레의 효용을 강조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 **수목**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데 쓰는 수레 이외의 다양한 수레들의 구조, 작동 원리, 효용을 소개함. **수목**

글쓴이는 청나라 기행 여정에서 목격한 수레를 조선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견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거나 옛 문헌의 문구를 인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수레 도입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통념을 반박하고, 실제적인 학문에 무관심하여 수레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한다. 한편 작품 후반부에서 다양한 수레들의 구조, 작동 원리, 효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학문에 대한 글쓴이의 지향을 잘 보여 준다.

포인트 2

「수레 제도」에 반영된 이용후생 **문항 4 관련**

글쓴이는 상업이 경시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물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에는 이용후생의 실천을 통해 보국안민을 이룩하고자 하는 실학적 기풍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열하일기』에 대해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1780년(정조 4)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는 사신이 되어 중국을 기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행 문집이다. 약 2개월 동안 겪은 일을 날짜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적되, 해당 일자의 기사에 포함시키기 힘든 중요한 사항은 독립된 한 편의 글로 서술했으며, 다채로운 문체로 청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견문을 제시하면서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할 구체적 방안들을 함께 언급하였다. 당시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정통 고문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문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소설로 분류되는 「호질」, 「허생전」도 『열하일기』에 실린 작품들이다.

■ 「허생전」에 나타난 수레에 대한 언급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도 수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허생전」에서 글만 읽던 주인공 허생은 아내에게 구박을 받자 집을 나와 장사를 하여 큰돈을 벌어들이고 번 돈을 써서 나라 안의 도적들을 섬에 이주시킨다. 그리고 장사의 밑천에 쓸 돈을 빌려준 부자 번 씨에게 큰돈을 벌어들인 방법을 설명한다.

어느 날, 번 씨가 오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이혹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利)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충충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 박지원 「허생전」

Q. 글쓴이가 선비와 벼슬아치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항 2 관련**

A. 글쓴이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무능을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비와 벼슬아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과 무관한 옛 문헌의 문구만 외고 있는 점은 글쓴이가 보기에 비판받아야 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글은 글쓴이 허균의 조카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짓게 된 내력과 그에 대한 허균 자신의 생각을 담은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인 삶을 산 '가의, 목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이들이 '곡'하는 것은 일반적인 '곡'과는 다르게 시대의 아픔을 맞아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히며,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말세에 가깝다며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매우 불우한 시대임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불우한 시대를 맞아 허친이 자신의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내 조카 허친(許欽)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通哭軒)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哭)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걸었다단 말이나? 게다가 곡이란 상(喪)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 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 가: 사람들이 조카 허친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물음.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곤궁과 굶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 승: 허친이 사람들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밝힘.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곡하는 것에도 도(道)가 있다. 인간의 일곱 가지 정(情)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時事)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

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賈誼)가 있었

고,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목적(墨翟)이 있었으며, 갈림길이 동쪽·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楊朱)가 있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阮籍)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唐衢)가 있었다.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에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안은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줌스럽게 흉내 내지 않았다.

이별이나 굴욕 등의 사스러운 감정의 표현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곡의 종류가 다음을 이해해야 함.

가의, 목적, 양주, 완적, 당구의 곡: 잘못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원통함, 안타까움을 표출함.

아녀자의 통곡: 이별이나 굴욕을 당했을 때 처럼 사스러운 감정에 의해 표출됨.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
가외, 목적, 양주 등 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 들어 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는 배신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역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몹시 막히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 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태도 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평함이나
은나라 학자로, 왕에게 한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함. 굴원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나 않을까?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
 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 전: 글쓴이가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붙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함.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라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못 사람들이
'통곡헌'의 의미를 이해하고 태도를 바꿈.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 주고자 한다. '통곡헌기'를 쓴 이유를 직접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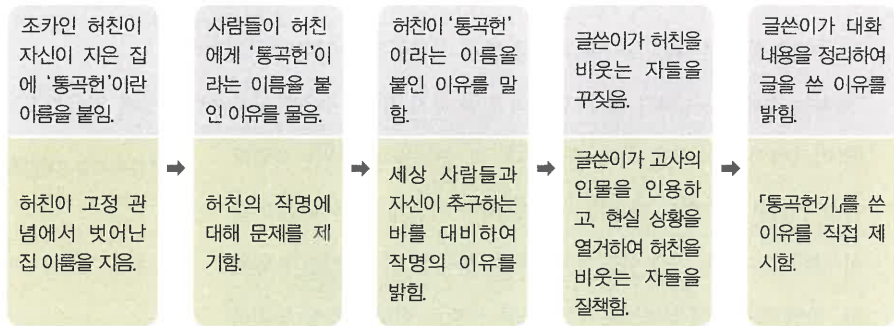
▶ 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힘.

* 편액(扁額):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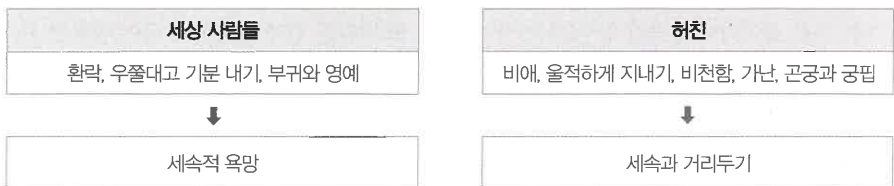
포인트
1

「통곡헌기」의 구성 문항 2, 3 관련



포인트
2

허친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문항 1, 2 관련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을 좋아함으로써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잘못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포인트 3

‘곡’에 대한 견해 차이 문항 1, 2 관련

세상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 ·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허친, 허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세상에 대한 비판과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 · 잘못된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포인트 4

대비를 통한 주제 의식 표현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통곡헌기」에 담긴 글쓴이의 현실 인식

「통곡헌기」에서 글쓴이는 현실을 ‘말세’라고 강하게 표현하면서 국가의 일이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이 허위에 젖어 있으며, 친구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라 배신을 한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글쓴이는 이런 현실은 ‘곡’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라고 개탄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허친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BS Q&A

Q. 고전 수필 중, ‘기(記)’와 ‘설(說)’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항 3 관련

A. ‘기’와 ‘설’은 모두 한문 수필을 대표하는 양식입니다. ‘기(記)’는 건조물이나 산수의 유람 등을 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간간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도 전합니다. 글쓴이의 체험 전달이 주목적인 글로, 정약용의 「수오재기」,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 등이 있습니다. ‘설(說)’은 개인적으로 체험한 예화를 바탕으로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규보의 「경설」, 「슬견설」, 권근의 「주옹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이가 빠지게 되자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한 자신을 반성하고 안정된 정신과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이가 빠져 책을 제대로 소리 내어 읽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인생의 근원적 의미를 찾기 위해 독서를 즐기는 글쓴이에게 심각한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시련에 절망하지 않는다. 삶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주제

늙어서 이가 빠진 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함.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
 이 새며 얼굴도 비틀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
 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앞니가 빠져 생긴 어려움
외형적 변화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
▶ 이가 빠져 슬픔을 느낌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사이에 길든 짧은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
 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हे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
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이가 빠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
 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
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굼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 이가 빠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 1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
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낌에 가락
 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 이가 빠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 2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
 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

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늙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잊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함.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서 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 수록된 말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 나이 들에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됨.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

변화를 인정하고 순응할 때의 이익

▶ 나이 들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점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순리에 따르는 태도

▶ 순리를 따르는 태도를 갖되자 함.

* 팔풍: '팔음'을 뜻함. '팔음'은 약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는, 이익(雅樂)에서 쓰는 여덟 가지 악기 또는 그 각각의 소리.

*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를.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를 나타냄.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가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게 함.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바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냄.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자 함.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포인트 2

[A], [B]에 나타난 글쓴이의 인식 변화 **문항 2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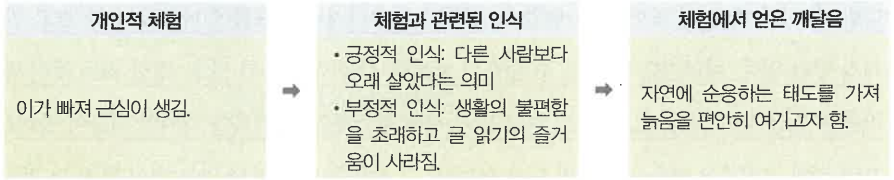
[A]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변화를 잊거나 인정하지 않음.



[B]
나이가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외형적 변화를 인정함. → 소리에 따라 살고자 함.

포인트 3

「낙치설」의 구조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갈역잡영」 <제9수>

「갈역잡영(葛驛雜詠)」은 김창홍이 당쟁을 피해 은둔하던 강원도 인제의 '갈역'에서 지은 연시로 총 392수에 달한다. 그중 <제9수>는 '천진(天真), 즉 '구미이나 거짓이 없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함.'에 대한 추구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낙치설」에 드러난 김창홍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술병과 찻그릇 탁자 위에 늘어놓고
 마음 따라 살아가니 이것이 곧 천진일세
 하루 종일 말하는 듯 소리 내는 사립문
 운치 없는 세속 사람보다 낫구나

酒甕茶甌繞榻陳
 起居隨意即天真
 風扉盡日如私語
 勝接塵中不韻人

EBS Q&A

Q. '설(說)'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나요? **문항 3 관련**

A. '설(說)'은 한문학 양식의 한 갈래로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펴는 것을 말합니다. 논(論)보다는 평이하며, 상세하게 해설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물 또는 사건(사실, 개별적 체험)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깨우침, 교훈)을 서술하는 것으로, 우의적(비유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상 포인트

1972년에 초연된 「알」은 정막극으로, 박물관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자는 공룡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통치하며 알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유지한다. 박물관장과 대치하는 '시민 라'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신념과 언행을 일차시키려는 인물인 반면, 나머지 시민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편법을 찾는 인물들로 이들의 생리를 파악한 박물관장에게 이용당한다.

주제

부당한 권력의 탄생과 유지

전체 줄거리

공룡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시민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출한다. 어느 날 박물관장은 큰 알을 들고 나타나 알에서 공룡을 물리칠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알에서 태어날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결심하고 자결을 한다. 왕이 죽자 박물관장은 알에는 공룡이 들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시민들의 합의 없이 알을 발견한 공룡을 이유로 스스로 왕의 대리자 노릇을 하며 최고 권력을 누리다. '시민 라'는 직언을 하며 박물관장과 대립하지만 박물관장의 계략으로 목숨을 건 노름을 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앞부분 줄거리] 시민들은 공룡에 맞서 싸우기 위해 왕을 뽑기로 한다. '시민 마'가 임금으로 선출되자 '시민 바'는 박물관장 직을 요청한다. '박물관장'이 된 '시민 바'는 석회로 만들어진 알을 들고 나와 알에서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임금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알에서 위대한 임금이 아닌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군중들: (소리) 위대한 임금님이나? 두려운 공룡이나?

알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두려움.

시민 라: 무엇이냐구요? 우리의 지혜로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지성을 갖춘 깨어 있는 시민 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음.

지 그것마저 의의로워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를 통제당하는 것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우린 허수아비처럼 완전히 무력(無力)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장이 우리의 손과 발에 줄을 엮으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알으로 벌어질 일,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혀로써 말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자 밑의 검붉은 반점들을 가리키며) 시민들이여, 여기 전왕의 피가 아직

전왕이 목숨을 끊은 흔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

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의 실재(實在)를 믿었기 때

알에서 태어날 새로운 왕을 위해 전왕은 자결을 하였음.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룡알이라고 믿는다면, 전왕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알 속에서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는 '박물관장'의 말을 믿고 따름.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임금을 기대하며 자신들이 선출한 전왕을 죽음으로 내몬 죄

시민 마: (감동한다.)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알을 가리키며)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는 '박물관장'의 예언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시민들의 모습 ①
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시민 가: 나 역시 알 속의 임금님을 믿습니다.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시민들의 모습 ②

시민 나: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의 임금님을 믿겠노라 말하진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 자신도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고 믿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니까.

시민 라: (군중들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양은 이 알과 우리 모두를 함께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엔 위대하신 임금님이 부화되어 나오십니다. 시민들은 사기 도박꾼에 '박물관장' 대항하여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군중들: (환호성) 위대한 임금님 만세!
임금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들뜬 감정을 표현

(박물관장이 왕의 복장으로 들어온다.)
전왕을 죽임으로 내몰고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함.

▶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고 믿는 군중들

박물관장: (답례의 손을 흔들며) 나를 보라! 너희를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구출하실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다.
공포를 조정하며 스스로를 왕으로 칭함.

군중들: (분노의 소리) 우리들은 알을 택한다. 너는 물러가라!
'시민 라'의 말을 듣고 알에서 임금이 탄생할 것을 기대함.

박물관장: 미친 놈들이군.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니. (시민 대표 나를 손가락으로 콧 찌르며) 어디, 말 좀 해 보려무나. 저 알 속에 든 건 공룡이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믿는 이유를?

시민 나: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장: 누가 너더러 사람이 아니라?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대 보란 말이야.
알이 석회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는 '박물관장'의 추궁 ①

시민 나: (버릇거리다가 다들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그것을 믿기에 나도 믿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①

박물관장: 그래? (다에게) 넌 왜 믿지? 증거가 뭐야?
알이 석회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는 '박물관장'의 추궁 ②

시민 다: (우물쭈물하다가 가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②

박물관장: (가에게) 너, 대답해 봐.

시민 가: (라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줍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③

시민 라: (박물관장 앞으로 나서며)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달리 믿음의 이유를 밝힘.

박물관장: 허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릴 하는 건지 모르겠군. (공룡의 무서운 동작을 흉내 내며)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던 말이야. 그 괴물이 부화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희들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공룡에 대한 공포를 조정하여 시민들을 통제하려 함. 대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어야 한다구. (알에 다가가서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듯이 슬쩍 먼저 보고) 햇빛을 받아 알이 뜨듯해지기 시작했군. 이크! 벌써 꿈틀거린다!

시민 나: 으악!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살기 위해 나는 간다!
'박물관장'의 말에 입장을 바꾸는 시민
(중략)
▶ 알 속에 공룡이 있다고 믿는 군중들

시민 라: (떨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어 신왕(新王)에게 기어 와 그의 발에 입 맞추며)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기꺼이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권력임을 암시함.

박물관장: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박물관장'이 파악한 권력의 핵심

시민 라: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 혹시 공룡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습니다.

박물관장: 공룡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라: 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가: 전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

시오.

박물관장: 알 속엔 무엇이 들었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 시민 라: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라의 앞에 던져 주며) 우리 다시 한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찌러 보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룰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르라. 자, 어서 찌러. 내가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시민 라: (칼을 쥐고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구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정보의 독점 - 권력의 원천. 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박물관장'만이 알고 있음. 못하겠습니다.
▶ 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기 원하는 '시민 라'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임금의 자리가 유지되는 이유

'시민 라'는 자신을 찌르라는 '박물관장'의 말에 칼을 떨어뜨리고 않. 이는 '박물관장'만이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임. '시민 라'는 '박물관장'이 죽으면 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를 죽이지 못함. 이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이 형성됨을 암시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알에 대한 '시민 나'의 태도 문항 1 관련

알에 대한 '시민 나'의 태도는 '박물관장'의 등장 이후 달라지고 있다. '박물관장'이 등장하기 이전 '시민 나'는 '시민 라'의 연설을 듣고 알 속에 임금이 있으며 곧 위대한 임금이 탄생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 전반에 퍼지며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는 선동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찬동한다. 그러나 '박물관장'이 등장하여 알 속에서 공룡이 꿈틀거린다고 겁을 주자 '시민 나'는 정말로 공룡이 태어나 잡아먹힐 줄로 알고 달아나 버린다.

포인트 2

알의 서사적 기능 문항 2 관련

이 연극의 주된 갈등은 '박물관장'이 석회로 만든 알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처음에 알 속에서 위대한 임금이 탄생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출한 전왕이 자결하는 것도 받아들였다. 따라서 알은 시민들에게 전왕의 죽음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다는 '박물관장'의 위협을 듣고는 공룡에게 잡아먹힐까 봐 두려움에 떠다. 따라서 알은 시민들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알 속에 공룡이 있다는 '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은 시민들이 '박물관장'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포인트 3

인물 구도 문항 3 관련

권력자	군중	개인
'박물관장'	'시민 가', '시민 나', '시민 다'	'시민 라'
정보를 독점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무소불위의 절대적 힘을 유지	꾸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꿔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음험함을 폭로함으로써 세계와 맞서는 신념을 가진 개인

■ 메타 드라마

메타 드라마란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를 반영하거나 드라마 속 요소가 드라마 자신을 지시하여 재극화하는 방식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때 반영되거나 지시되는 대상은 드라마 그 자체가거나 배우, 무대, 인간 존재, 운명 그리고 드라마 너머의 현실까지도 포함된다. 메타 드라마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는 극중 인물이 자기의식성(self-consciousness)을 드러내는 ‘드라마티스트(dramatist) 기법’을 꼽을 수 있다. 자기의식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 존재나 운명 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 등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보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마치 극작가나 연출가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다른 인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이다. 「알」에서 자기의식성을 드러내는 인물로는 ‘박물관장’과 ‘시민 라’가 있다. ‘박물관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시민 가, 나, 다’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한다. ‘시민 라’는 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면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강백의 「알」은 메타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반복 구조

이강백의 작품들에 담겨 있는 주요 극작 원리 중 하나는 반복이다. 이강백의 작품에서 반복은 형식이자 내용에 해당한다. 「알」은 통제 기호의 반복과 그 기호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알」에서는 공룡이 한 집단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알」에서 ‘박물관장’은 알 속에 훌륭한 임금님이 들었다고 한 후, 그 알 속의 임금님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왕이 죽어야 한다면서 왕의 자결을 유도한다. 이어 그는 알 속에 공룡이 들어 있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은 후, 위대한 임금님이 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알을 택하고, 공룡이 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택하라고 한다. 사람들이 ‘박물관장’을 왕으로 선택하자 그는 알을 제거한 후 그 알에는 임금님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물관장’은 ‘알 속에 임금님이 있었다, 공룡이 있었다’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이 반복은 시민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된다.

Q. 1970년대에 알레고리 연극이 연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알레고리란 그리스어의 ‘다르게 말한다.’라는 의미인 ‘allegoria’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지칭합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의 유형이기에 행위자와 행동, 때로는 그 배경까지가 축적적이거나 일차적 수준에서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고, 그 행위자와 개념과 사건의 이차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수준을 의미하도록 고안된 서사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희곡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은 표면적으로 인과적 질서에 의한 논리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 표면적 의미가 이면적인 의미를 가리키도록 고안된 작가의 극작 기법인 것입니다. 1970년대는 유신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폭압적인 독재 권력을 구축, 사회 전반을 짓눌렀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연극계는 공연법에 근거한 대본의 사전 검열, 연기자의 사전 등록, 극단의 사전 등록, 공연의 사전 승인 등 강압적인 규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신 정권의 폭압적 규제와 검열 아래서 사실주의적 극작 기법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들은 리얼리즘이 결여된 가상의 공간이나 비현실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이중적 의미의 서사 구조인 알레고리 기법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1957년에 발표된 2막짜리 장막극으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한 희극이다. 최 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 극 중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위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각각 최 노인이 고수하려고 하는 전근대적 가치와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 노인과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 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훈구 대어업이 몰락해 가는 상황과,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제대 군인 경수와 허영심에 차 영화배우를 꿈꾸던 장애가 결국 파멸하는 장면은,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어둡고 불안한 시대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전후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족의 해체와 친구 가치관의 대립

전체 줄거리

최 노인 부부는 서울 도심에서 전통 훈구 대어업을 하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아오고 있다. 그들은 주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주거 여건이 나빠지고 최 노인의 사업도 쇠퇴하자, 셋째 경운이 식자공으로 일하며 버는 수입에 의존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인다. 가족들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팔고 교외로 이사 갈 것을 최 노인에게 권하지만, 집에 애착을 가진 최 노인은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한편 제대 군인인 장남 경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삶을 비판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며, 배우를 꿈꾸던 장녀 장애 역시 사기를 당해 울분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두 자녀의 비극을 목도한 최 노인은 대성통곡한다.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쓰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기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남.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썽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주위 집에 피해를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모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
최 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리다간 땅에서 폴도
최 노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남.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 최 노인이 주위의 고층 건물을 보며 한탄함.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남.

경제: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자신이 심각하게 하는 말을 듣고 웃는 경제를 못마땅하게 여김.

경제: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세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제: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상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헬!

▶ 경재가 아버지에게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함을 말함.

(중략)

경재: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최 노인: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경재: (좌우 고층 건물을 가리키며) 저게 보기 싫으니 우리가 떠나야죠!

최 노인: 뭐, 뭐라구?

경재: 시외로 가면 후생 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집값도 싸고 무엇보다도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는 얼마든 집을 편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여김 지 심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어머니: 참 창용이네도 지금 들어 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 주택으로 옮긴답데다.

최 노인: 그렇게 가고 싶걸랑 따라가 살구려! 난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후생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함. ▶ 최 노인이 이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단호히 드러냄.

경재: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원자탄 고집 폭발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하며 급히 뛰어나간다.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애 등장, 그의 손엔 목욕용 세숫대야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굴엔 폴드크림이 범벅되어 반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핀결을 감은 채로다.)

경재: ‘미쓰 코리아’가 돌아오시네! / 경애: 까불어?

경재: 도대체 큰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요? / 경애: 가까운 장래! (하며 마루에 앉는다.)

영화배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음.

경재: 혜성처럼 나타난 ‘뉴 페이스’ 최경애 양인가? / 경애: 한국의 ‘킴 노박’이다!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이름

경재: 하나님 말씀! ‘최 호박’이 안 되었으면…….

허황된 기대를 품는 누나를 조롱함.

경애: 아니 이 녀석이! (하며 때리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퇴장)

최 노인: 경재란 놈은 어디 가든 제 밥벌이는 할 거야. (하며 만족한 웃음을 띠운다.)

자신의 생각을 잘 밝히고 현실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경재의 모습을 흡족하게 여김. ▶ 경재가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경애를 조롱함.

어머니: 좀 경한 편이죠. (경애에게) 웬 목욕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최 노인: 그래도 밤낮 익모초 씹는 쌍판보다는 방황하고 있는 큰아들 경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남. 낫지! 이 집에 그 누구처럼…….

(어머니와 경운은 뜻 품은 시선을 서로 던진다.

경애는 손톱에 손질을 하고 있다.)

최 노인: 경수 녀석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지? (하며 험악한 시선을 던진다.)

어머니: (변명하듯) 어디 친구네 집에서나 잤겠죠…….

최 노인: (성을 내며) 제집과 남의 집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하며 담배를 다시 피워 문다.)

어머니: 내버려 두시구려! 어디 그 애에게 그런 재미도 없어서야 되겠수?

경수의 행동을 감싸는 태도가 드러남.

최 노인: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최 노인과 어머니, 경애가 갈등하는 이유

최 노인은 취직을 못한 채 밖으로 나다니는 경수를 비난하지만, 어머니와 경애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경수를 두둔함.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인 경수에 대한 태도 차이가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어머니: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취직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수를 두둔함.

최 노인: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 (하고 소리를 벌려 지른다. 경운은 빨랫줄에다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고 경애는 재빨리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 사람이란 얹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제 놈이 군대에 갔다 왔으면 왔지 놓고먹으라는 법은 없어! 한두 취직이 안 된다며 집 밖으로 나다니는 경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모레 삼십 고개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 치고 비슬비슬 놓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운이 미안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경운: 아이 아버지두……. 오빠인들 속조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 주는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 무슨 잘못이예요? / 어머니: 사실이에요……. 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들며 경수를 두둔함. 전후의 부정적인 시대상이 드러남.

최 노인: 뭐가 사실이야? 나이 어린 누이가 그 굴속 같은 인쇄 공장에서 온종일 쭈구리고 앉아서 활자 좁는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쥐꼬리만 한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세가 난다면 이런 소리도 않지. 허지만 골목 안 뚝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사모판대나 원삼 쪽도리 따위는 이제 소꿉장난으로 아니 장사가 돼야지! 지난 봄철만 하드라도 꼭 네 번밖에 안 나갔지 뭐야! 이럴 때 그 신식 나 이롱 면사포나 두어 벌 장만한다면 또 모르지만……. 경운을 가리킴. 최 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혼구 대여업이 쇠퇴하고 있음.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는 상황.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장식품. ▶ 최 노인이 경수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냄.

경애: (화장하던 얼굴을 내밀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 올 테니까요. 자신이 영화배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냄.

최 노인: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쑤대도 안 믿겠다! 네가 활동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리다간 엉뚱이에 없는 꼬리가 나게 됐어! 경애의 말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냄.

경애: 두고 보세요. 오늘은 꼭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 경애가 곧 영화배우가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냄. 영화배우로 선발되었다는 소식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작품 속 인물을 정리** 문항 3 관련

구세대		신세대			
최 노인	어머니	경수(첫째 아들)	경애(첫째 딸)	경운(둘째 딸)	경재(둘째 아들)
쇠퇴하고 있는 전통 혼구 대여업을 운영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인물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종적인 인물	제대 군인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강도 행각을 벌임.	영화배우가 되어 화려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사기를 당해 좌절함.	식자공으로 일하며 번 돈을 가족의 생계에 보태고 집안일까지 도움.	고등 학생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며 유연한 사고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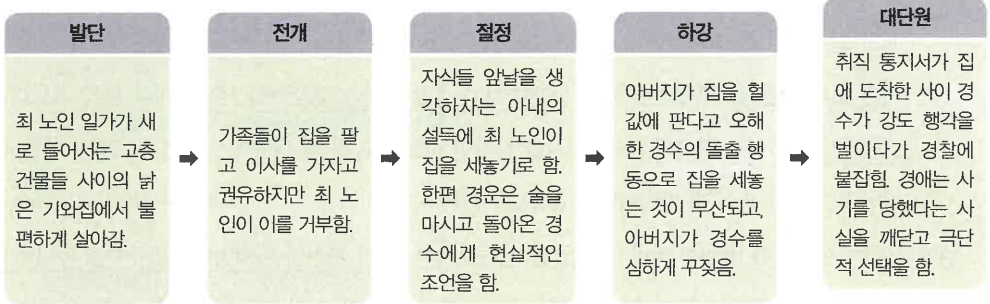
포인트 2 **'집'의 의미와 '집'을 둘러싼 갈등** 문항 1 관련

작품에서 구세대에 속하는 인물인 최 노인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집하는 인물이며, 이는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한편 신세대에 속하는 자식들은 불편을 견디며 살기보다 집안 형편을 고려해 집값이 싼 후생 주택으로 이사 갈 것을 아버지에게 권하고 어머니와도 집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의논한다. 즉 자식들은 집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는 근대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집을 둘러싼 갈등이 극의 진행을 이끌어 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극의 결말을 파국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갈등의 이면에 가족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노인은 집을 세놓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식들을 배려하고자 한다. 경애도 영화배우가 되면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말에서 경수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장남으로서의 과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불모지」의 이야기 구조



■ 차범석의 희곡 세계

차범석은 시대 변화 혹은 전쟁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신규 세대의 갈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전형적 인물상과 토속적 정취를 탄탄한 사실주의적 극작술로 그려 냄으로써 유치진을 잇는 전후 대표적 사실주의 극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흑산도 어촌을 배경으로 하여 가짜 밀주 단속반의 횡포를 토속적 대사로 그린 「밀주」,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대립을 신규 세대의 갈등 양상으로 포착한 「불모지」(1957), 이데올로기 갈등과 민족 분단의 비극을 남녀의 원초적 애욕 갈등 속에 담은 「산불」(1962)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특히 「산불」은 탄탄한 극적 구조와 인물 창조로 한국 사실주의 극의 대표적 성취이자 희곡 작법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BS
Q&A**

Q.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 '불모지'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극의 결말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제목은 최 노인 일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모두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극을 겪는 전후의 암담한 시대 상황이, '불모지'라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윤희길의 소설 「장마」를 각색한 시나리오 작품으로, 어린 '동만'이 6·25 전쟁을 겪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이들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로 해소되기에 이른다.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집간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그 충격으로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이를 빨치산으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하여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게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정성껏 구렁이를 달래 보낸다.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S#88. 나무 아래

맥고모자 호주머니를 뒤져서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맥고모자를 쓴 형사 동만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

형사: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면 내 이걸 주지.

어린 동만을 속이는 속임수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 형사: 너 이런 거 먹어 본 적 있어?

초콜릿이 먹고 싶어 탐을 낸

은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코앞에 보인다. / 향긋한 냄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형사: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하면 이걸 다 줄 테다. 뭐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 주기 위한 술책

이니까. / 동만: …….

꿀꺽 침이 넘어가는 동만. / 뚝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본다.

형사: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려야겠구나. 아저씨는 이거 먹기 싫구…….

한 조각 톱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둑발로 문지른다. / 더욱 눈이 뚱그레지는 동만.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 동만을 압박하는 행동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됨.

형사: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앤 줄 알았는데 안됐구나.

삼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자 다른 방식으로 유혹을 함.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초조해지자 눈물을 흘리는 어린이의 반응

또 한 조각 떼어서 짓밟개 버린다. / 불볼 떨리는 동만. / 웬지 눈물이 나는 동만.

동만을 더욱 압박함.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될까 봐 초조해지는 반응

형사: 녀석, 우는구나? 인제라도 늦지 않아. 잘 생각해 봐. 삼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삼촌에 관해 듣고 싶은 대답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동만. / 와락 초콜릿을 잡으며,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에 삼촌이 집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말할 것임을 암시

동만: 아저씨, 진짜지유? 진짜 우리 삼촌 친구지라?

형사: (웃으며) 그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동만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

동만: 삼촌 왔다 갔으라우.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우.

삼촌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실토함.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 형사: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봐.

날카로운 눈길 뜨며 귀담아듣는 맥고모자. / 무어라 얘기하는 동만의 모습.
삼촌을 체포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움.

▶ 형사의 꼬임에 동만이 삼촌의 소식을 말함.

S#89. 동만의 집 앞

옥이랑 나란히 어딘가 다녀오는 동만.
삼촌에 대해 발설한 일로 집안에 변고가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함.
손에는 푸득거리는 까치 새끼 세 마리를 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네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싸여 있다.
집안에 변고가 생겼음을 암시함.
이상해서 까치 새끼를 옥이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 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맥고모자의 사내.
동만이 삼촌에 관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임을 암시함.

동만: 어.

눈이 회동잔만 하게 젖어지며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는 동만. /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아버지.
동만 놀라서 쾅한 눈을 비유
뒤에서 맥고모자의 사내가 동만을 흘깃 보고 지나간다. / 너무도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만.
동만의 발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암시함.

동리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보면서 무어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간다.
빨치산인 동생의 문제로 형인 동만의 아버지가 잡혀간다는 내용
그래도 얼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만. / 이어서 집 안에서 쫓는 듯한 여인들의 통곡 소리.

옥이: 너 엄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자신의 발언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갔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S#90. 동만네 집 안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데 엉켜 울어 대고 있다가 들어서서 동만을 보고,

친할머니: 이놈이 천하에 벼락 맞을 놈.
화가 난 마음에 동만을 향해 울분을 터뜨림.

벼락같이 소릴 지르며 내달려 온다. / 겁결에 뒤로 피하는 동만.
동만이 형사에게 삼촌이 다녀간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동만에게 화를 냄.

친할머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촌까지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놈, 이놈 썩 나가라
초콜릿을 대가로 혈육인 삼촌을 밀고했다고 간주함.

이 주리를 틀 놈.

부지깡이를 들고 와 사정없이 동만의 등줄기를 후려친다. / 금세 죽어 가듯 비명을 질러 대는 동만.
아궁이의 불을 헤치거나 끌어낼 때 쓰는 막대기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친할머니. / 그때 외할머니 나와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자 분노에 참.

외할머니: 고만 혀 두시오……. 어린것이 뭐 안다고.

형사에게 삼촌을 밀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해 줌. 외할머니
친할머니: 오냐. 이젠 너그들끼리 한통속이 되어서 이 집안에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나는 악담을 혀고

하나는 밀고를 혀고…….
동만

외할머니: 아이가 알고서야 그랬겠소? / 동만을 싸안고 사랑채로 간다.

친할머니: 어이구! 어이구! 이 일을 어쩐디야 집안이 망혀두 곱게 망혀야제. 이 이 일을 어쩐디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다.

▶ 형사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분노

문제 해결기 문항 2 관련

시나리오에서 소품의 기능

시나리오는 영화 촬영을 전제로 하는 대본임. 소설과 달리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에서는 작품의 서사가 인물의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배경, 의상, 소품, 음악과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도 형상화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형사가 초콜릿 조각을 땅에 버리는 행동의 의미 **문항 1 관련**

형사는 동만으로부터 삼촌이 언제 다녀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콜릿으로 유혹하고 있다. 형사는 어린아이인 동만이 초콜릿을 무척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동만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초콜릿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위하여 초콜릿 조각을 땅에 버리고 발로 밟고 있다. 초콜릿이 무척이나 먹고 싶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매우 가혹하고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다.

포인트 2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갈등의 형상화 **문항 2 관련**

서사 문학 중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반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는 특별한 서술자가 없는 대신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서사가 전개된다. 그와 더불어 배경, 의상, 소품, 음악과 음향 효과 등도 사건이나 갈등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포인트 3

상호 텍스트성 **문항 3 관련**

상호 텍스트성이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게 쓰인 두 개 이상의 글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윤희길의 소설 「장마」는 윤삼육의 각색을 거쳐 시나리오 「장마」로 창작되었는데, 이때 소설 「장마」와 시나리오 「장마」는 상호 텍스트성을 갖는다. 비슷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각각의 작품은 소설과 시나리오로서 그 나름의 특색과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소설 「장마」와 시나리오 「장마」를 비교해 보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마」의 이데올로기 대립

윤희길의 「장마」에서 이데올로기라는 허위의식은 빨치산인 삼촌과 국군인 외삼촌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빨치산을 아들로 둔 할머니와 국군을 아들로 둔 외할머니의 대립은 한없이 내리는 비를 보고 외할머니가 “더 쏟아져서 뽕갱이마자 다 썰어가그라.”라는 저주를 퍼붓는 일에서 비롯된다. 외할머니의 말수수를 듣게 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립각을 세운다. 며칠 전 사라진 은비녀를 가져간 사람으로 외할머니를 지목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장마」에서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대립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즉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은 추상적이고도 실체가 없는 이데올로기의 단면이자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Q. 어린 주인공 '동만'의 시선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많은 소설들에서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눈으로 사건이 그려집니다. 어린아이의 눈에서 그려지는 세상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그것이 은폐하고 있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마」에서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가족 공동체를 파괴했으며 민족 분단이라는 사회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어른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어 왔던 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어린 서술자인 '동만'에게 죄의식을 심어 주고 그 속에서 어린 '동만'은 불안을 경험하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며 어린 서술자는 성장하게 되고 어른들의 세상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독자들은 어린 서술자의 성장을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도(세종)가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의 대본이다. 한글을 창제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측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한글 창제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 왔던 특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권력층과 대립하고, 또한 힘에 의한 정치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태종과 대립하면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이도의 신념이 작품 전반에 펼쳐진다.

주제

한글 창제에 담긴 이도의 정치 이념과 갈등

전체 줄거리

세자 이도는 아버지 이방원과는 다른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하며 아버지와 대립한다. 왕이 된 이도가 집현전 학자들과 비밀스럽게 한글을 창제하고, 그 와중에 궁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살인의 배후는 기득권 세력 집단인 밀본이다. 이도는 강채윤으로 하여금 살인자를 추적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자책한다. 이 과정에서 이도는 소이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 창제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 한편,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도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밀본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도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던 강채윤은 이도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편이 된다. 그리고 한글의 정체를 알게 된 밀본은 한글 반포를 막는 데 조직의 생사를 건다. 어떻게든 한글 반포를 해내려는 이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밀본의 싸움이 이어지고, 강채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마침내 한글이 반포된다.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혜강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도: (보고)

혜강: 혜강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습니다. 헌데…… 한글을 지칭함.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혜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혜강: (그럼 그렇지)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오……. (하며 궤도로 간다.)

cut. 궤도엔 ‘作開言路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이도와 혜강이 성리학, 즉 유교의 도를 판별 기준으로 하여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이도와 혜강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와 궁극적인 주장을 정확히 간파하면 ‘문항 2’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망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혜강: (멈칫) /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 혜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힘을 주어 목소리를 크게 하며) 한자가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일부 계층에게 기득권을 주는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함.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혜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이도가 한글을 창제하려는 이유: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일임.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 한글 창제와 관련한 이도와 혜강의 논쟁

S#14. 경복궁 일각 (낮, S#14~16 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한글 창제 반대의 이유가 드러남.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이도의 반박 1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이 글의 S#13에서는 이도와 혜강이, S#14~16까지는 이도와 관리들이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 모든 장면에는 이도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과 외적 갈등을 빚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백성들에게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한자의 단점을 감추기 위한 변명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순지의 변명에 대한 논박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 단 말이나? (cut.)

▶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이도의 반박 2

S#16.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읍니다. (cut.)
한자 사용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도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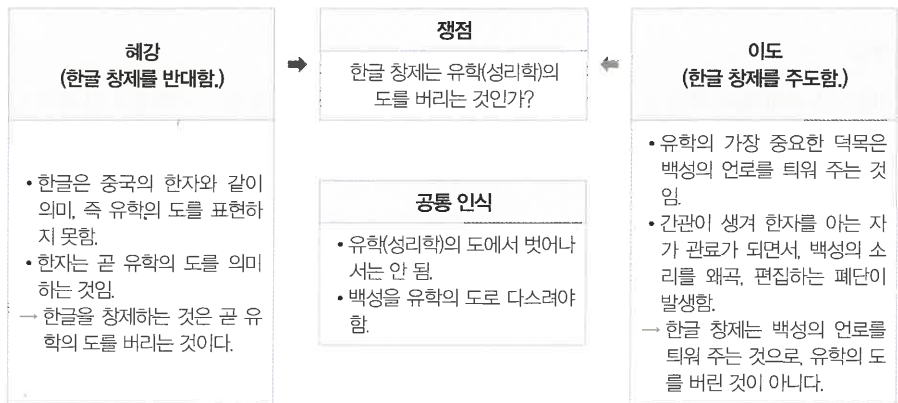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이도의 반박 3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이도’와 ‘해강’의 갈등 **문항 2 관련**



포인트 2

짧은 컷의 연속적인 사용 **문항 3 관련**



- 이도와 관리들과의 대화가 속도감 있게 전개됨.
- 이도와 관리들의 상반된 견해가 효과적으로 대비됨.
- 한글 창제에 대한 이도의 의지와 생각이 부각됨.

■ 몽타주 기법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흥미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한다. 몽타주 역시 이처럼 관객의 흥미와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편집 기법 중 하나이다. 몽타주라는 용어는 1920년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는 여러 개의 짧은 컷들을 병치하여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야 한다는 자신의 영화 이론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 현대 영화에서 지칭하는 몽타주는, 하나의 주제를 요약하거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압축한 시퀀스(sequence)를 의미한다.

■ 팩션

역사적 사실(fact)에 허구적 상상력(fiction)을 덧붙인 새로운 문화 예술 장르를 뜻한다. 초기에는 소설 쓰기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역사적 사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대중성, 상업적 오락성을 추구하여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Q. 극과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나요?

A. 극과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소설과 같이 서사적 구조, 즉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과 시나리오는 인물, 사건, 배경의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사 장르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극이나 시나리오를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 장르와 같이 사건이나 갈등의 전개 양상이나 인물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극과 시나리오에서 출제되는 문항도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세트와 같이 사건의 전개 양상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항이 1~2문항 이상 출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극과 시나리오에서 이와 같은 내용만 묻는다면 극과 시나리오 장르의 고유한 특성이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극과 시나리오 세트에서는 반드시 극 또는 시나리오의 독특한 주제 형상화 방법을 묻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무대 상연이나 영상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라든지, 배우의 연기, 지시문이나 대본, 시나리오의 구성, 촬영 기법 등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전개나 인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관련 내용을 무대에서 상연하거나 영상화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작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글쓴이가 1935년 여름 평안남도 성천에 머물며 체험한 산촌의 풍물과 정취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사물을 도회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점에서 글쓴이의 개성과 참신함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산촌의 정경과 그에 대한 도시인의 정서

구성

- 처음: 산촌의 밤에 대한 정취와 도회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수록 부분)
- 중간 1: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과 화단의 식물들을 보며 느끼는 감성(수록 부분)
- 중간 2: 들뜬, 시냇가, 학교 등을 걸으며 주위의 풍경과 마주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회
- 끝: 객줏집 방으로 돌아와 떠올리는 도회에 대한 향수와 질병, 가족들에 대한 근심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글쓴이는 야생 동물이 살고 있는 산촌의 모습을 낯설게 느끼고 있음. 즉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는 상황이 글쓴이에게는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더 익숙한 상황인.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골의 별빛이 매우 밝음을 알 수 있음. 그리 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 산골의 밤이 매우 고요하고 조용함을 나타냄. 리는 것도 같습니다. ▶ 낯선 산촌의 모습과 밝은 별빛에 대한 감상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 립니다. 정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속하도록 ‘호까’—연초 감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짱이가 글의 수신인을 상징한 것으로, 편지글과 유사한 형태로 글이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T)’ 자를 쓰고 건너듯듯이 유다른 기 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베짱이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감각적 표현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베짱이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룻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起草)* 합니다.

문제 해결 기 문항 3 관련

그저께 신문을 찢어 버린 / 때 문은 흰 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때 문은 흰 나비’를 글쓴이로 볼 경우, 자신을 성천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 낯선 곳에서 느끼는 상념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 부에 한란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靑石) 없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째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기를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 이국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포로들의 사진처럼 늘어선 식구들의 지치고 가난한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됨. 도회에 두고 온 글쓴이와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죽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벽 못에 걸린 다 해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西道) 천 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레!**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글쓴이의 고향은 도시임. 자신의 고향인 도시와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골(성천) 사이에서 글쓴이가 느끼는 거리감을 '서도(西道) 천 리'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음.

등잔 심지를 돋우고 불을 켜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균청 빛 '모'를 심어 갑니다. 불행한 인구(人口)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펜촉에 펜대를 끼워 글자를 쓰는 기구인 '철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균청 빛 '모''의 원관념은 글자로 볼 수 있음.

▶ 꿈속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한 걱정

내일은 진중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문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러비어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 버린 이 산하에 팔봉산 허리를 넘은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고향이 도시임을 알 수 있음.

아침에 별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하루라는 '집'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각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작야(昨夜)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 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하루'라는 시간을 '집'과 같은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잠자리를 '병균'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병과 관련된 글쓴이의 고통을 연상시킴.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서니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 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 폭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 비(B), 데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奢侈)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미지들을 활용함.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 마당 한 켠에 있는 화단의 정경을 보며 느끼는 감정

- * 기초: 글의 초안을 잡음.
- * 광음(光陰):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 * 철필(鐵筆): 펜촉에 펜대를 끼워 글씨를 쓰는 도구.
- * 요비링: 초인종의 일본어 표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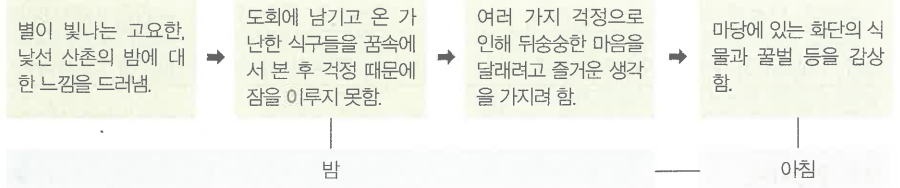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 특징 [문학 2 관련]

- 감각적이고 참신한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글쓰기가 겪은 일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하여 나타냄.
- 구체적인 상대를 언급하는 등 수신인을 드러내는 편지글과 유사한 표현이 드러남.
- 편지글과 유사한 형식의 활용을 통해 글쓰이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킴.

포인트
2

시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양상(수록 부분)



포인트
3

이상과 '성천' [문학 3 관련]

이상은 병으로 인해 몸이 나빠지자 요양을 위해 친구의 고향인 평안남도 성천으로 가서 몇 개월을 보냈다. 도 시에서 나고 자란 이상의 눈에, 당시로서는 궁벽한 시골이었던 성천의 풍경은 선명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경 성 토박이 이상에게는 경성의 세련됨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세계였다면, '성천'이란 시골은 '새로움' 자체였을 것이다.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그는 조형 예술가 출신답게 문학에서도 '새로움'이란 가치의 추구에 맹진하였다. 그런 이상에게 '성천'은 기존에 추구해 왔던 인공적, 조형적, 근대적, 문명적인 공간이 아닌, 자연적, 전(前) 근대적, 원초적이고 순수한 세계로서, '신세계'를 발견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고, 다방 경영 실패와 병마에 시달리던 그에게 심신의 휴식과 치유를 제공해 준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촌 여정」의 밝은 이미지와 어조에 잘 드러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자

■ 「권태」와의 비교

이상의 또 다른 수필 작품인 「권태」 역시 「산촌 여정」의 배경이 되는 평안남도 성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내용은 같은 곳을 서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차이가 크다. 「권태」에 그려진 성천에서의 생활은,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농촌에서의 생활에서 느끼는 안락함이 아니라 단조로운 풍경과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 그 자체이다. '나'는 시골에서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의미 없이 장기를 두면서 자신과 달리 권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넓은 초록 벌판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권태를 지각할 수 있는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나'는 「산촌 여정」에서와는 달리 자연에 대한 다소 냉담한 감정을 투사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권태」를 쓰던 당시의, 이상의 절망적 상황과 내면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글쓰이의 기행 수필집 '나무야 나무야'에 실려 있으며, 수필집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하여 서간문의 문체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여행지에서의 견문과 역사에 관한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글 쓰이는 허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허난설헌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을 탐방하고 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한편, 오늘날의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적 고뇌에 주목함으로써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일에 동참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주제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삶의 가치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애일당(愛日堂) 옛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교산(蛟山)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陋室銘)」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곳을 더 허균이 지은 시로, 누추한 곳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임. 없이 흠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환로(宦路)에서 기 벼슬길 방(妓房)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량 넓은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미련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 허균의 파격적인 학문 세계를 의미함. 허균이 역모 혐의를 받고 죽음에 이른 역사적 사실을 가리킴. 도 불구하고 양치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허균의 삶에 대한 글쓰이의 평가 있었습니다. 애일당 옛터에서 마음에 고이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정한(情恨)이었습니다. 허균 남매가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글쓰이는 특히 허난설헌의 삶에서 한의 정서를 떠올림. 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한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하던 그녀의 아픔이었습니다.

글쓰이가 떠올린 '허난설헌의 정한'의 구체적 내용

▶ 처음: 애일당 옛터와 오죽헌에서 떠올린 허균, 율곡과 신사임당에 대한 상념

그러나 허난설헌의 무덤을 찾은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였습니다.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栗谷)과 그 어머니인 사임당(思任堂) 신 씨를 모신 곳입니다. 사임당은 마침 은은한 국화 향기 속 선비들이 숭상하던 높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 에 앉아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文成祠)에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은 조선초 오죽헌에 딸린, 율곡 이이의 영정을 모신 사당 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겨레의 사표임에 틀림이 없고 그를 길러 낸 사임당 역시 현모의 귀감임에는 틀림없습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 니다.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연케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극화(極化)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 할 수 조선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한 사임당, 율곡 모자의 위상 는 없지만 그곳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헌 허초희(許楚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옥한 새벽안개 속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 허난설헌의 무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오죽헌과는 달리 허난설헌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얻어 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허난설헌의 삶이 지니는 차별적 가치 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사

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李達)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

허난설헌이 겪었을 삶의 아픔

은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스물일곱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花鳥圖)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난설현의 차가운 시비(詩碑) 곳곳에 접철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현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 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죽 현을 들러 지월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 집니다.

시대의 모순을 비켜 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격의 승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월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 놓고 소지 올려 닦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라고 당부하던 허초희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 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 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중부 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설 새 없이 꺾전을 활쾨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히지도 못한 채 자옥한 아침 안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열락(悅樂)은 그 기쁨을 타 버린 재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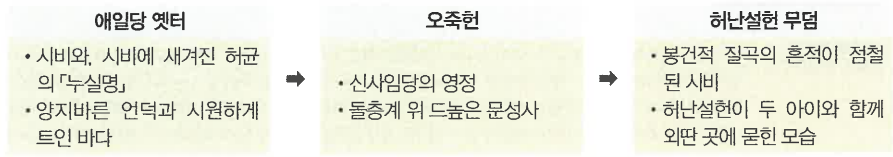
▶ 끝: 허난설현 무덤의 모습과, 비극이 주는 가치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여정과 견문 **문항 1 관련**



포인트 2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 **문항 3 관련**

허균	사회의 모순을 넘어 분방하게 살다가 죽었기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회한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이, 신사임당	거래의 사표이고 현오의 귀감임에 동의하며, 봉건적 미덕의 정점에 오른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허난설헌	봉건적 질곡 속에서 한스러운 삶을 살면서 시대의 아픔에 다가서고자 했으며, 현대인들이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기 위해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허난설헌(1563~1589)

한국에서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 문장이 뛰어나다고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았으며, 서얼 출신의 시인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 딸과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잇달아 죽었고, 둘째 오빠인 허봉도 이이를 탄핵하다가 유배를 다녀와 이른 나이에 죽었다. 가족들의 죽음과 남편과의 불화를 겪으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다가 본인 역시 27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가사 「규원가」가 허난설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시는 동생 허균이 시집 「난설헌집」을 편찬해 중국에까지 전파하였는데 이 책은 일본에서까지 간행되어 널리 읽혔다. 아들을 잃고 지은 「곡자」의 한 구절이 본문에도 인용되어 있다.

■ 신영복의 『나무야 나무야』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가 실린 『나무야 나무야』는 저자인 신영복이 1995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수필집이다. 국내의 여러 장소를 돌아본 소감을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담론과 함께 풀어내고 있으며, 잔잔한 문체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안목을 보여 준다.

EBS Q&A

Q. 이 작품에서 ‘당신’은 누구이고, 글쓴이는 왜 ‘당신’을 드러내어 썼을까요? **문항 3 관련**

A. 이 작품에서 ‘당신’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글쓴이가 독자로 설정한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임의 대상이자 수신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작품을 포함한 수필집의 모든 작품들은 ‘당신’에게 전하는 경어체의 서간문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자칫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색의 내용을 독자에게 겸손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러나도록 전달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또한 글쓴이는 때로 자신의 생각을 ‘당신’에게 투영하면서 독자와 자연스럽게 생각을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서호수가 1790년(정조 14년) 청나라 건륭제의 딸 손 만수절 진하겸사은부사로서 열하와 북경을 다녀오며 중요한 사건과 견문을 기록한 연행 일기이다. 작가는 사행을 출발한 날부터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체를 4권으로 나누어 연행 경로를 표시하였다. 연행 중 거쳐 간 지역의 연혁과 당시 수비 병력 등의 현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조의 인물이나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 외국 사절과의 교류 과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궁중 극장에서 관람한 당시 청나라 궁중 연극을 기록하여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조선 시대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

'방호(方壺)는 삼산산(三神山)의 하나로, 원경원의 풍경이 신선이 사는 곳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임. '승경'은 뛰어난 경치라는 뜻임. 따라서 '방호승경'은 '방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함.

청나라의 신하들

난치에서 물러나 오니 황상이 군기대신 아계·화신·복강안·복강안에게 명령하여 몽·회의 제왕·패륙*과 안 '베트남'의 다른 이름. 중국 당나라 때, 지금의 베트남령에 안남 도호부를 둔 데서 유래함.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각국의 왕들과 사신 일행들 남양, 조선·남장·면전의 정사와 부사, 안남의 종신(從臣) 두 명에게 복해(福海)를 유람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천향재(天香齋) 앞에서 여러 대신이 한 배에 오르고, 각국의 왕과 패륙과 사신, 종신이 한 배에 올랐다. 우리는 금오옥동교(金鰲玉蠟橋)로 가지 않고 바로 동남하(東南河)를 거슬러 올라 복해에 떠서 봉도요대(蓬島瑤臺)를 거쳐 위주(葦洲)를 뚫고 가서 영훈정(迎薰亭) 앞 물에서 배에서 내렸다. 호수 둘레는 오 리 남짓이며 모두 돌로 돌을 만들었다. 태호석(太湖石)을 쌓아 섬 셋을 만들었으며, 높이는 오 장 남짓이다.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들고, 층대 꼭대기에는 역시 다 작은 정자를 지었다. 붉은 기둥과 채색한 서까래에 지붕은 누런 유리로 덮였다. 이것이 봉도요대로서 원명원(圓明園) 사십 경(景)의 하나이다. 또 얇은 물과 모래 더미에 갈대를 심어 푸른 줄기가 한 길이 넘게 자라서 뱃길을 백여 보나 끼고 있으니 이것이 위주이다. 호안(湖岸)을 둘러서 흙을 쌓아 구릉과 봉우리를 만들었다. 느릅나무·버드나무·소나무·삼나무가 울창하고 경루(瓊樓)와 화표(華表)*가 겹겹이 숨었다가 드러난다. 영훈정은 붉은 기둥이 육 면에 섰고, 아래는 벽돌을 깔았으며,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였다.

▶ 원명원 유람을 위해 각국의 사신 무리들과 영훈정에 도착함

영훈정 뒤로 옥계 오십 단을 올라가면 바로 의춘전(宜春殿)이다. 전은 이 층이며, 복도의 조각한 창에는 금빛과 벽색(碧色)이 서로 비쳐 빛나고,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으며, 편액에는 '방호승경(方壺勝境)'이라고 써 놓았다. 안에는 금불 세 구(軀)를 안치하고, 고동정이(古銅鼎彝)와 금옥주패 등 기원(奇玩)* 등을 배열하였다. 금축아침(錦軸牙籤)이 서가와 책상에 가득하니 이는 다 법서(法書)와 명화(名畫)이다. 전정(殿庭) 좌우에는 각각 고비단 두루마리로 된 문서 동화로(古銅火爐)를 안치하였으며, 높이는 두 장, 지름은 다섯 척 남짓 된다. 의춘전 뒤에는 해란전(駭鸞殿)이 있으며, 제도는 의춘전과 같고, 역시 안에는 금불을 안치하고 금옥 기원을 벌여 놓았다.

▶ 의춘전과 해란전의 특징과 그 안에 안치된 보물들을 소개함

해란전에서 동북쪽으로 구불구불 몇 리를 가면 그 사이에는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혹은 모나고 둥글며

천주교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집 = 성당

문제 해결 키 [문학 1 관련]

기행문은 여정과 그곳에서의 견문을 소개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글쓴이는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바라본 대상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글쓴이의 이동 과정 천향재 앞 → 봉도요대 → 영훈정 앞 물가 → 의춘전 → 해란전 → 서양루

혹은 육 면, 팔 면으로 석회와 기와 가루를 반죽하여 층루를 지어 놓았다.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벽에는 신선과 조수(鳥獸)를 조새와 짐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각하였다. 창에는 유리 혹은 양각(羊角)을 끼웠고, 누각 앞에는 옥난간과 돌계단이며, 계단 아래에는 모두 둥근 못이 있다. 오동(烏銅)으로 십이 층 쌍탑을 섬 가운데에 만들어 놓기도 하였고, 오동으로 원숭이, 학, 코끼리, 사슴 등은 빛이 나는 구리, 오금(烏金)과 같은 광택이 있어 장식품으로 많이 씀. 습 등을 못가에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태호석으로 못 가운데에 섬을 쌓고, 섬 위에는 오동으로 원숭이가 일산을

* : 건륭제가 1747년부터 1759년까지 장춘성 북쪽에 조성한 서양루(西洋樓)를 가리킴. 유럽식 건축 양식을 도입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석재 건축을 바로크 양식으로 웅장하게 짓고 화려한 조각을 더했음.

피고 웅크리고 앉은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탑 모퉁이와 일산 꼭대기, 짐승 유렵형 분수에 관심이 많았던 건륭제가 서양인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서양루의 분수대 모습의 입과 새의 부리에서 물이 비 오듯 뿜어 나온다. 오동으로 십이시(十二時) 신상(神象)을 만들어 못가에 둘러서 기계를 조종하면 그 시에 해당하는 신상만이 물을 뿜고, 다른 신상은 뿜지 않는다. 각 누각 안에는 단향(檀香) 어탑(御榻)*을 설치하고, 금과 옥으로 만든 기완과 고동정, 유리 병풍 등이 여기저기 벌여 있다. 종이를 뭉쳐서 한 자 남짓한 동자(童子)를 만들어서 어탑 좌우 궤안 위에 마주 보게 놓았다. 왼쪽 동자는 천금(天琴)을 끼고 있고, 의자, 사방침(四方枕), 안석(案窩)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채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하나 오른쪽 동자는 옥적(玉笛)을 불고 있다. 기관을 궤안 바닥에 숨겨 두어서 구경하는 사람이 궤안 앞에 이르면 기관 청옥이나 황옥으로 만든 대금 비슷한 취악기(吹樂器) 옥피리라고도 할 을 밝아서 두 동자를 움직인다. 서로 돌아보며 웃으며 천금을 킁 동자는 악보를 따라 현을 두드리니 성률이 맑고 시원하다. 서양 사람의 수리(數理)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서양루와 그곳에 설치된 분수대의 특징을 소개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서양인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함.

- * 패륜: 부족의 수장이나 황제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왕 혹은 제후 등을 의미함.
- *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명주석 따위가 있음. * 기완: 기이한 노래감.
- * 어탑: 임금이 앉는 상榻. 상榻은 깔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로, 평상(平床)이나 침상(寢床) 따위가 있음.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종이를 뭉쳐서 ~ 두 동자를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서양루에 있는 기계식 분수대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된 동자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2, 4 관련

대상을 나열하며 글쓴이의 이동 과정을 소개함.	이에 천향재(天香齋) 앞에서 ~ 북해에 떠서 봉도요대(蓬島瑤臺)를 거쳐 위주(葦洲)를 뚫고 가서 영훈정(迎薰亭) 앞 물에서 배에서 내렸다. ~ 영훈정은 ~ 영훈정 뒤로 옥계 오십 단을 올라가면 바로 의춘전(宜春殿)이다. ~ 의춘전 위에는 해란전(鹹嵐殿)이 있으며, ~ 해란전에서 동북쪽으로 구불구불 몇 리를 가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함.	•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 탑 모퉁이와 일산 꼭대기, 짐승의 입과 새의 부리에서 물이 비 오듯 뿜어 나온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글쓴이가 바라본 대상을 소개함.	• 태호석(太湖石)을 쌓아 섬 셋을 만들었으며, 높이는 오 장 남짓이다. • 푸른 줄기가 한 길이 넘게 자라서 뺨길을 백여 보나 끼고 있으니 • 전정(殿庭) 좌우에는 각각 고동화로(古銅火爐)를 안치하였으며, 높이는 두 장, 지름은 다섯 척 남짓 된다.
물음의 방식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서양 사람의 수리(數理)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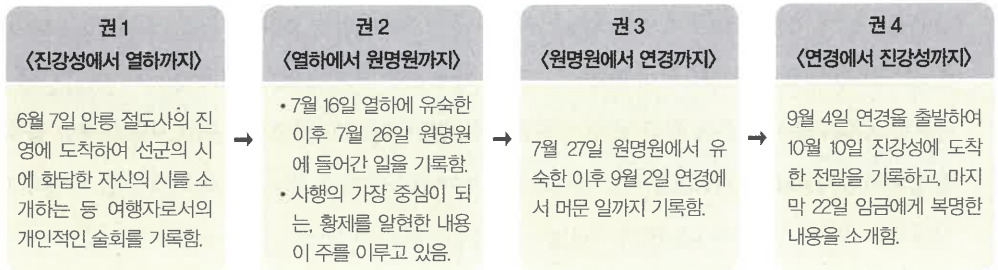
포인트 2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쓴이의 여정 문항 1 관련

천향재 앞	북해 유람을 위해 사신들의 무리와 출발함.
영훈정	• 봉도요대와 위주를 지나 원명원에 도착함. • 태호석으로 만든 인공섬과 영훈정을 둘러봄.
의춘전과 해란전	• 의춘전: '방호승경'이라는 편액이 걸린 의춘전을 방문하며 각 나라의 사신들이 선물한 진귀한 보물을 구경함. • 해란전: 제도가 '의춘전'과 비슷하다고 느낌. 그곳에서도 여러 진귀한 보물을 구경함.
서양루	• 인공섬과 기계식 분수대를 구경함. • 분수대 좌우에 설치된 동자들의 작동 원리를 통해 서양 사람들의 높은 기술력에 대해 감탄함.

■ 『열하기유(熱河紀遊)』의 전체 구성

『열하기유』의 작가인 서호수는 연행(燕行)을 출발한 날부터 날짜별로 연행 내용을 기록하고 전체를 4권으로 나누어 연행 경로를 표시하였다. 앞부분인 우리 땅을 지나는 곳에서는 특기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압록강을 건너간 6월 22일부터 중국 땅을 지나는 동안에는 하루도 빠지 않고 일기를 쓰듯이 써 내려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 사료로서의 『열하기유(熱河紀遊)』의 의의

서호수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중국 여행을 통해 확인하고 직접 중국 지역을 답사하여 지리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특히 방문한 곳의 정확한 지명과 실제 거리를 꼭 확인하고 그 지명이 중국 어느 때 연원한 것이며 그 역사적 위상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다. 또한 청나라로 공물을 바치러 온 각 나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풍속, 역사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열하기유』에서 서호수는 사행 기간 동안 매일 연극을 관람한 후 연극의 제목과 줄거리, 감상평을 기록하였는데, 배우들의 복장과 무대 연출 등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의 기록은 청나라 궁중 연극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 『열하기유(熱河紀遊)』와 『연행기(燕行記)』

서호수의 『열하기유』는 『연행기』라고도 불린다. 서호수는 연행에서 돌아와 1793년 늦봄에 고향인 파주의 학산(鶴山)에서 연행 도중의 기록을 약 1년에 걸쳐 정리 완성하고, 열하에서 천자를 처음 알현하였으므로 서명을 『열하기유』라고 붙였다. 『열하기유』와 『연행기』는 지금까지 『열하기유』 1종, 『연행기』 3종, 총 4가지 사본이 알려져 있다. 『열하기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연행기』 3가지 사본에는 없는 서문이 있으며, 또 『연행기』 3가지 판본에는 실려 있지 않은 문장이 군데군데 더 들어 있다. 따라서 『열하기유』가 서호수의 2차 연행 기록의 원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연행기』는 규장각본과 오사카본, 버클리본이 있는데 세 사본 모두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Q. 글쓴이가 방문한 '원명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문항 3 관련

A. 원명원은 청나라 황제들이 조성한 황가 원림 중 하나입니다. 1708년 청나라의 황제인 강희제는 베이징 서쪽에 원명원을 지었는데요, 천하의 이름난 정원과 역대 황제의 정원들을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식 건축과 장식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원림과 멋지게 조화를 이룬 원명원을 가리켜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교회의 보물을 다 합쳐 놓아도 이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 없다.'라며 찬탄했다 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명원은 신유년(辛酉年)인 1861년, 영국과 청나라의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으며 특히 목조로 된 전통 건축물은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1866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하기 위하여 사행의 일원이 된 흥순학이 현양을 출발하여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총 133일 동안의 견문을 기록한 기행 기사이다. 작가는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심정과 청나라에 도착한 후 느낀 심회, 청나라 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여행기로서의 문학적 의의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제

청나라 사행의 일원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여정과 견문

서산(西山)*이 좋다 함은 들은 지 오래더니

신유년(辛酉年) 서양국 늑 작변(作變)하여

청(淸) 문종(文宗) 11년 서기 1861년

아까운 해전대궐 몇 천 칸 좋은 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一望無際) 터뿐이라

▶ '서산'을 파괴한 서양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보기에 수창하여 광색(光色)이 쓸쓸하다

평지에 조산(造山)하고 괴석 가산(假山) 쌓아

정원 따위에 돌을 모아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

기암괴석 층층하고 고봉준령(高峰峻嶺) 중중(重重)하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와 험준한 산마루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山氣)가 요조(窈窕)하고

그윽한 흰 바위는 동운이 영롱하다

붉은빛을 띤 구름

십여 리 뻗친 산세 서산이 저기로다

산곡 툼툼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장한지고

▶ '서산'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함.

화반석(花斑石) 삼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 터며

바탕이 매우 굵고 무르며 붉은 흰색 무늬가 섞인 돌. 도자기나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씀.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 터인가

채색 기와 부스러져 와락* 더미 태산 같고

보패 짐물(寶貝什物)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나

금은 보옥 등의 귀중한 물건과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기구

백 간 들보 침향 도리 진주 주렴(珠簾) 산호 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나,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 파괴된 '서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설의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산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중략)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채정(朱樓彩亭) 몇 곳인지

붉은 누각과 아름다운 정자

십칠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넓이는 삼 간이요 길이는 칠십여 간

좌우의 옥난간에 돌사자는 간간 있고

다리 아래 굽어보니 열일곱 홍예(虹霓) 구멍

현대어 풀이

원명원이 있는 서산이 좋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더니

신유년 서양국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아까운 궁궐들 몇 천 칸이나 되는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 끝없는 터만 남았구나.

보기에 수창하여 빛깔은 쓸쓸하구나. 평지에 산을 만들고 괴석으로 가산을 쌓으니 기암괴석이 층층이 있고 고봉준령이 겹겹이 있구나.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가 암전하고 정숙하며

그윽한 흰 바위는 붉은 구름이 영롱하구나. 십여 리 뻗친 산세 서산이 저기로구나.

산곡 툼툼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장하구나.

화반석으로 만든 삼 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의 터이며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의 터였는가?

채색한 기와는 부스러져 깨진 조각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귀중한 보배들과 살림 잡기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곳은 몇 곳인가?

백 칸이나 되는 들보, 침향으로 된 도리, 진주로 만든 발, 산호로 된 탑이 모두 매운 재가 되었구나.

(중략)

곳곳이 섬이 있어 붉은 누각과 아름다운 정자가 몇 곳인지

십칠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넓이는 삼 간이요 길이는 칠십여 칸이나 되고 좌우의 옥으로 만든 난간에 돌로 만든 사자는 간간이 서 있고

다리 아래를 굽어보니 열일곱의 홍예 구멍이 있구나.

『한 흥예가 얼마만 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 삼칠교의 흥예 구멍의 크기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남대문'과 비교함으로써 삼칠교와 그 흥예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구멍의 위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연못가에 구리 소는 어찌하여 누웠으며

서호(西湖) 남쪽에 있는 구리로 만든 소

섬 속의 층층월대 동정유승(洞庭猶勝) 정자 터라[◆]

『동정(洞庭)은 중국 호남성 북쪽에 있는 큰 호수로, 서산의 호수가 '동정'보다 오히려 낫다는 의미인 남편 섬에 들어가는 굽은 다리 놓았으니

옥으로 높이 쌓아 길로 치면 수십여 장

층층계야 십여 층 한 마루에 올라서서

또 층층계 사십여 층 넘어서 내려가니

그 안은 섬이라 다리 구멍 볼작시면

동그런 흥예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드나들며

좌우의 옥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며 대상이 지닌 웅장함을 전달함.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 보매 더욱 좋다

▶ '서산'의 삼칠교 다리의 웅장함을 예찬함.

서산 구경 다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처음 볼 때 당황하여 안광(眼光)이 희미하

더니

자세히 보매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 방탕[◆]

상천옥경(上天玉京)* 집 좋아도 이룰 수 전혀 없고

왕모요지(王母瑤池)* 좋다 해도 저렇든 못하리라

아무리 구변이 좋다 해도 형용을 다 못하니

신유년 회록(回祿)* 이후 오히려 저렇거든

그전의 전성시야 오죽이 장할소냐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 궁진(窮盡)하여

쓸데없는 궁사극치(窮奢極侈) 이것이 무슨 짓이고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아방궁에 불을 질렀던 일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楚人)이 불 지르고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세운 궁전으로,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물을 의미함.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天禍)로 재앙 나니

전감(前鑑)* 이 소소(昭昭)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록다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서산: 청나라 황궁 정원인 '원명원'이 있던 곳을 가리킴.

* 옥류: 깨진 기와 조각.

* 상천옥경: 하늘 위 옥황상제가 사는 곳.

* 왕모요지: 전설상의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거처하는 곤륜산 꼭대기의 아름다운 연못.

* 회록: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 전감: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날의 경험이나 사실.

현대어 풀이

한 흥예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가 우리나라 남대문만 해서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연못가에 구리로 만든 소는 어찌하여 누웠으며

섬 속에 있는 층층 월대는 동정호의 호수와 비교해도 나은 정자 터구나.

남쪽 편이 섬에 들어가는 굽은 다리를 놓았으니, / 옥으로 높이 쌓아 길로 치면 수십여 장이나 되고,

층층 계단의 십여 층을 한 마루에 올라서서 또 층층 계단의 사십여 층 넘어서 내려가니 그 안은 섬이라 다리의 구멍을 볼 것 같으면 동그런 흥예문이 높기도 굉장하구나.

아무리 긴 돛대를 가진 배도 돛대를 세운 채로 드나들며 좌우의 옥으로 만든 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 있어

백룡이 오르는 듯하니 멀리 바라보면 경치가 더욱 좋구나.

서산 구경을 다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처음 볼 때는 당황하여 안광이 희미하였는데 자세히 바라보니 이곳을 만드는 사치함이 매우 방탕하구나.

옥황상제가 산다는 하늘 위의 백옥경의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듯하고,

서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보다는 못하리라.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의 경치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신유년의 큰 전쟁으로 파괴된 모습이 저렇거든 / 전쟁 전의 파괴되기 전 모습의 경치야 얼마나 장했겠느냐.

천하의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의 힘을 다하게 하여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궁궐을 만들다니 이것이 무슨 짓인가?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나라 사람이 불을 지르고

송나라의 옥정궁은 하늘의 화를 입었으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전쟁으로 이곳이 파괴된 것은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구나.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서산(원명원)이 불타 버린 것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 즉 하늘의 이치라는 점을 부각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2 관련

설의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보배 집물(寶貝什物)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나 백 간 들보 침향 도리 진주 주렴(珠簾) 산호 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나
친숙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의 이해를 도움.	한 흉예가 얼마만 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며 대상이 지닌 웅장함을 전달함.	좌우의 옥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 보며 더욱 좋다
고사를 인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楚人)이 불 지르고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天禍)로 재앙 나니 전감(前鑑)이 소소(昭昭)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포인트
2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인식 문항 4 관련

- '서산'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웅장함에 감탄하던 화자가 이후에 그 사치함이 심하다고 언급하며 청나라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비판함.
- '진시황 아방궁'과 '송나라 옥정궁'과 같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서산'이 불탄 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함.

→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연행가(燕行歌)」의 여정과 작가 의식

「연행가」에는 '한양 → 평양 → 의주 → 압록강 도강(渡江) → 온정역 → 봉황성 → 연경'에 이르는 여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돌아오는 여정은 그 역순으로 반복된다. 화자는 자신이 방문하는 곳에 관련된 인물의 고사나 그곳에 위치한 사적 등을 소개하며 조선에 대한 충절과 우국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작가는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들의 사치와 허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친명배청(親明背淸) 사상을 지니고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청나라에 대한 우월 의식을 지녔던 사대부들의 모습에 해당한다.

■ 「연행가(燕行歌)」와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의 비교

	「연행가」	「일동장유가」
사행(使行)의 목적	명성 황후의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함.	일본과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도모함.
작가의 신분	사대부 출신 → 친명배청(親明背淸) 사상을 지님.	서자 출신 → 근대 문물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시각을 지님.
대상에 대한 태도	조선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방문한 나라의 문물을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드러남.	

EBS
Q&A

Q. 청나라 사행(使行)과 사행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항 4 관련

A. 외교 사절로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온 후, 그 체험을 가사나 기행문 등의 형태로 표현한 문학을 사행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남긴 사행에 관한 기록을 통해 사행자들의 여정이나, 외래 문물을 바라보는 사행자의 개성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나라로 사행을 간 사대부들은 관념적·감정적으로는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새롭게 접한 청나라 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놀라워하였는데, 이 때문에 같은 작품에서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삼안' 또는 '삼한(三恨)'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임과의 이별로 인한 비통한 심정을 죽음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에 비교하여 나타낸 발상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의식과 표현을 아울러 사실시조의 일반적 인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다소 과장되게 나열되는 거듭된 시련은 해학적 표현 속에 깊은 슬픔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주제

사랑하는 임을 여원 비통한 심정

천적 화자의 마음과 비교되는 대상 ①

나무도 바이들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과

은신처(숨을 곳)

▶ 초장: 피할 곳 없이,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없고 닻도 없고

「· : 었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雪上加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

용총*도 꿇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섞여 잣어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화자의 마음과 비교되는 대상 ②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화자의 마음

▶ 중장: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과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엇그제 임 여원 내 안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화자의 상황: 이별

▶ 종장: 임과 이별한 화자의 비통한 마음

*용총: 돛 줄

현대어 풀이

나무도 전혀 들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없고, 닻도 없고, 돛대의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잣어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가 적막한데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 엇그제 임 여원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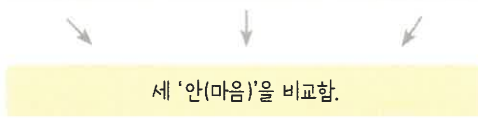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정서 표현 문항 1, 3 관련

까투리의 안	도사공의 안	내 안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기	임과의 이별
불안과 두려움, 절박함	불안과 두려움, 절박함	(불안, 두려움, 절박함) 비통함



임과의 이별 상황을 죽음의 위기와 동일선상에 놓음. →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절박함을 강조함. → 이별의 비통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포인트 2

다양한 수사법을 통한 위기 상황 강조
중장 부분의 '대천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사공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은 수사법에 의해 강조된다.

열거법	연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나열함.
점층법	위기의 정도가 점차 강화됨.
과장법	위기의 상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나타남.

↓
극한의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면서 강조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사실시조의 작품 세계와 미의식

사실시조는 남녀 간의 진솔한 애정이나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직설적인 언어로 노래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관찰과 더불어 고루한 중세적 가치에 대한 풍자와 고통스런 삶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해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시조의 주요 미의식은 풍자와 해학을 아우르는 골계미라 할 수 있다. 「나무도 바이들도 없는 ~」은 이 별가로서 남녀의 애정 문제에 비롯되는 정서가,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잘 나타난다.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찢켜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 마침 날랜 나였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멍들 뻘했구나
→ 탐관오리를 두꺼비에 빗대어 희화화하고 허장성세를 비판 풍자함.

감상 포인트

조선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고전 소설로, 처첩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정 소설이다. 국문, 한문으로 된 필사본에서 활자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본이 전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작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 당대의 인현 왕후 폐위를 둘러싼 희빈 장씨 사건과 유사해 창작 동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의 유가적 이념 세계와 현실을 치밀한 구성과 전이한 문체에 녹여 사실적으로 그려 냈으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결말로 인해 사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넓은 독자층에게 두루 향유되었다. 한편,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에 중요한 토대를 이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적 의의도 매우 큰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사 씨가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억울함을 참아 내며 남편의 처분에 따르는 사 씨의 모습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사 씨의 부덕(婦德)을 잘 보여 주며 현재의 관점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비참한 삶을 실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한 가문의 처첩 갈등으로 인해 사 씨가 겪게 된 고행과 부덕(婦德)

전체 줄거리

한림 유연수는 현숙한 여인 사 씨와 결혼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다. 이를 염려한 사 씨의 권유로 유연수는 교 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 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뒤이어 사 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첩으로서 불안을 느낀 교 씨는 동청, 냉진 등 악한들과 공모해 사 씨가 부정(不貞)을 저질렀다고 모함하고 교 씨의 말에 속은 한림은 사 씨를 내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집안에서 쫓겨난 사 씨는 술한 시련을 겪고 산사에 거한다. 한림은 승상인 엄승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때를 노린 동청의 무고(誣告)로 한림은 유배를 당한다. 동청과 교 씨는 간통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괴롭힌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유연수는 사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 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 도중에 두 사람은 재회한다. 유연수는 사 씨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다.

시비가 사 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 사당 앞에서 사배토록 했다. 사 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사당에 절을 함으로써 시막을 떠나는 예를 행함.
친지들이 문밖에서 작별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사 씨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들 → 사 씨의 인품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부인께서는 귀체 보중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바람.
라고 할 뿐이었다.

사 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아를 잘 보살펴 주시지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유모가 인아를 안고 통곡하니, 사 씨가 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 씨의 아들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교 씨 재회를 기약할 수 없음.

또 탄식하며 말했다.

“동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 한 인연을 잊자구나.”

사 씨는 아들과 이별하면 재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흐르는 눈물이 인아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 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싸인 어린이
사 씨가 아들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으려 함.
이에 연연하겠는가!”

인아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인아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사 씨가 가마에서 다시 인아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에 주목하여, 각 인물이 보이는 반응을 잘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은 물론 갈등 관계나 사건 파악이 용이해짐.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사 씨가 인아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임.

다시 유모에게 건네고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 교 씨의 모함으로 인해 사 씨가 시집에서 쫓겨나게 됨.

사 씨는 흰 베로 얼굴을 가렸다. 오직 두 명의 여종만 뒤따랐으니,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와 차환이었다. 사 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 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주인을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중 「구슬과 비취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이끄니 패옥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다. 위위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선을 바라보는 듯했다. 예를 마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노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세를 외쳤다. 교 씨가 안주인이 되기 위한 의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교 씨가 자신이 안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함.

삼가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몇 명의 늙은 하인이 아렸다.

“사 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 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하인들이 사 씨에게 송별의 예를 다하려고 함. — 인정과 의리

교 씨가 말했다.

“이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교 씨가 하인들에게 사 씨를 배웅하는 것을 허락함.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길로 따라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사 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환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 주니 고맙고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사람도 잊지는 말아 주게.”

하인들에 대한 사 씨의 당부 — 사 씨의 덕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함.

원근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교 씨가 유씨 집안의 정실 자리에 오르고 하인들이 집을 떠나는 사 씨를 배웅함. (중략)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려는데 사 씨가 차환에게 말했다.

“바로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시아버지의 묘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다. 조양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여 아침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배경 묘사를 통해 묘소 주변의 적막함을 표현함.

사 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사 씨의 남동생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으레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남매의 우애가 깊음을 엿볼 수 있음.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또 나는 본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사 씨의 결백함 한립 또한 현명한

군자나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
 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늘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한림에 대한 사 씨의 신뢰와 기대

사 공자는 다시 부탁해 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사내중 한 명과 시비 한 명을 보냈다. 사 씨
 사 씨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함.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인 둘을 뉘 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늙은 사내중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
 이 거주했다. 사 씨가 온 것을 보고 문안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유씨 집안 사람들로부터 환대와 존경을 받음.
 죽히 의지가 되었다. 사 씨는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패물 등을 내다 팔아 부족한 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 사 씨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집안의 묘 근처에 초가집을 얻어 살아감.

* 이웃과 서로 도움, 여자로서 하는 일에 솜씨가 뛰어남. 근검한 생활을 함. → 사 씨의 부덕(婦德)

이 무렵, 교 씨는 사 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생각하여, 한림에게 말했다.

“사 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이미 쫓겨난 뉘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소.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
 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처하는 곳이니 어찌 금할 수 있겠소?”

교 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 사 씨가 유씨 집안의 묘 근처에서 머무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교 씨

사 씨를 향한 교 씨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함.

* 소사(少師): 태자를 도와서 바르게 이끄는 벼슬을 뜻하며, 유 한림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임.

* 후대(厚待): 아주 잘 대접함.

이것만은
 꼭
 의하자
 핵심 개념

포인트

「사씨남정기」 인물과 선악(善惡) 갈등 구도 문항 2 관련

사 씨: 선인(善人)

- 현모양처형 인물
- 유교적 가부장제에 충실한 인물
- 어질고 현명한 여성인 두 부인(유연수의 고모)과 친밀하게 지냄.

대조
 ↔

교 씨: 악인(惡人)

- 교활하고 사악함.
- 탐욕적 인물
- 동청, 냉진 등 악한 남성들과 가깝게 지내며 온갖 악행과 패륜을 저지름.

신뢰와 기대

유혹, 배신

유연수(한림)

-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교 씨의 유혹에 넘어가 사 씨를 내쫓음.
-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 씨를 다시 정실의 자리로 회복시킴.

포인트 2

「사씨남정기」의 교훈성 문항 4 관련

김춘택은 그의 「북한집」에서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보통 소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보통의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상을 교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뿐이다.'라고 하였다. 사 씨는 당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 주었다. 그에 따라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부녀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사씨남정기」는 당대 독자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포인트 3

「사씨남정기」의 주요 인물과 사건에 따른, 풍간(諷諫) 소설로서의 성격 문항 5 관련

이 작품은 작가가, 속종이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폐위하고 장 희빈(張禧嬪)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비판 풍자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즉 사 씨의 부덕(婦德)을 칭찬하고 교 씨의 악행을 징벌함으로써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인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는 뜻인 복선화음(福善禍淫)을 주제 의식으로 삼아 속종으로 하여금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담은 풍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 사건과 소설 속 인물, 사건은 다음과 같이 대응시켜 볼 수 있다.

	역사적 인물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
인물	속종	유연수
	인현 왕후	사 씨
	장 희빈	교 씨
사건 전개	인현 왕후에 대한 희빈 장 씨의 모함과 무고	사 씨에 대한 교 씨의 모해
	인현 왕후 폐위	사 씨 추방
	인현 왕후 복위	사 씨 복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사씨남정기」의 국문학적 의의

유교 이념에 충실하게 현실적인 사건을 실감 나게 다루면서도 당대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결말에 힘입어 일반적으로 소설을 폄하하던 사대부들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에 따라 소설의 주요 독자층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 독자층에게도 폭넓게 읽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이라는 소설 유형의 전범(典範)이 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가정 소설에 대하여

가정 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소설이다. 주요 등장인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되며 가족 간의 유교적 윤리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그 대표적인 유형은 처첩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룬 것인데, 이에 속하는 작품으로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장화홍련전(菡花紅蓮傳)」이 유명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문을 중심으로 혼인, 출세, 가문 간의 갈등을 몇 대에 걸쳐 그린 가문 소설(家門小說) 또는 가계 소설(家系小說)이 크게 성행한다.

EBS Q&A

Q. 고전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항 2 관련**

A.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면서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도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 제시되기도 하고, 인물의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인물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거나 인물의 대화, 인물의 외모, 인물의 행동 방식을 언급한 부분 등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담헌 홍대용이 북경을 다녀온 뒤 집필한 것으로, 홍대용의 자연 과학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 허자와 실옹의 대화 속에서 홍대용의 실학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대한 비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주제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허자가 질문했다.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의 오랑캐 족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밖으로 과거 성현의 권위에 기댄 하였습시다. 무릇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두었던 공자의 세계관 지금 선생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실옹의 생각에 대한 허자의 질문 상대방의 발언을 확인하며 따져 물음.

실옹이 대답했다.

“하늘은 낳고 땅은 길러 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중국인과 오랑캐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 여럿 중에 뛰어난 한 나라를 맡아 다 스리는 자는 모두 임금이며, 모든 나라의 임금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 문을 여러 겹 만들고 성 바깥에 못을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모든 나라의 국가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 은나라의 머리에 쓰는 관인 장포(章甫)나, 주나라의 갓인 위모(委貌)나, 오랑캐가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文身)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彫題)는 모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속인 것이다. 모든 민족은 평등한.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이다.”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 주체와 객체가 나타나고, 주체와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바깥이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바깥이다. 중심과 변방의 개념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제와 친척은 한 문중의 안과 바깥이고, 이웃 마을과 변두리는 한 나라의 안과 바깥이며, 법도가 같은 제후국과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안과 바깥인 것이다.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둑이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원수라 하며, 네 오랑캐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폐도둑이라 하고, 중국이 네 오랑캐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그러나 서로 폐도둑이라 하고 서로 도적이라 하니, 그 뜻은 한가지이다. 중국이 주변을 오랑캐라 칭하며 공격하는 것은 도적질과 같은 행위이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 왕실이 날로 기울고 제후들까지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을 하고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춘추』는 주나라 책이므로 안과 밖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춘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졌음. 중국 중심 사고에 대한 비판

그러나 만약 공자가 바다에 떠다니다 오랑캐 족이 사는 곳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 도를 역외(域外)에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안과 밖을 나누는 분별, 따르고 물리치는 의리에 따라 마땅히 ‘역외 춘추’를 남겼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 된 까닭이다. 공자가 주장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오랑캐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을 것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자를 성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임을 지적함.

- * 「춘추(春秋)」: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 *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노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동생에게 내린 봉토를 그의 장남인 백금이 다스렸던 데서 시작된 나라였기에 주 왕실을 섬겼다.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저술할 때에도 이런 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노나라 사람인 공자를 주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만은
꼭
의히자
핵심 개념



「의산문답」의 특징 **문항 1 관련**

「의산문답」은 실용과 허자라는 두 가상의 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조선의 접경 지역인 의무려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논리를 담고 있다. 「의산문답」은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당시 조선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문답 형식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	물음 ↔ 답함	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문화에는 우열이 있지 않고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임. • 안과 밖이 중국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 		<p>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는 실용의 생각은 중국과 오랑캐를 엄격히 구분하는 공자의 생각과 달라 이치에 맞지 않음.</p>



홍대용의 사회 개혁 사상 **문항 4 관련**

홍대용(1731~1783)은 실학자이자 문인, 근대 자연 과학자로, 성리학, 천문학, 수학, 음악,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이다. 홍대용은 당대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 백성들의 삶을 질곡으로 밀어 넣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그가 주장한 사상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화이관의 변화와 신분제나 행정, 교육 등에서의 개혁이다. 홍대용은 평등한 사회로의 개혁을 꿈꿨고 동시에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중국과 평등한 관계를 꿈꾸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의산문답」의 주제

「의산문답」에서는 인물(人物) 동등성 논리와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한족(漢族) 및 중국 중심의 화이 질서관의 탈피와 새로운 대외관의 토대 구축, 그리고 그 저변에 흐르는 상대적 관점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적 생산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홍대용의 정치적 목표였다. 이러한 홍대용의 생각은 18세기 한국 실학사상의 특성을 반영하며 후대 실학사상으로 이어졌다.

■ 홍대용의 '화이일야'

홍대용은 당시 팽배했던 화이론(華夷論)적 질서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였다. 홍대용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동등성 논리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가·민족·지역 간의 관계도 평등하다는 '화이일야(華夷一也)'를 주장하였다. 화이일야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동등한 것처럼 '화(華)'와 '이(夷)'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랑캐라 하더라도 한족보다 우월한 인간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사물과 사상은 개별적인 관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추사 글씨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적은 수필로, 누구나 좋아하는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 경솔하게 행동했던 진 군과, 진 군을 혼란하게 하여 그 글씨를 사들인 양 군 역시 추사의 글씨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벌어진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

어느 날 밤에 대산이 “깨끗한 그림이나 한 폭 걸었으면.” 하기에 내 말이 “여보게, 그림보다 좋은 추사 글씨를 국어학자 홍기문(1903~1992) 변호 홍명희의 아들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한 폭 구해 걸게.” 했더니 대산은 눈에 불을 벗적 켜더니 “추사 글씨는 싫어, 어느 사랑에 안 걸린 데 있다.” 한다.

▶ 추사 글씨에 대한 대산의 견해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쌀이며 나무, 옷감 같은 생활필수품 값이 올라가면 소위 서화나 골동이니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사치품 값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법인데 요새같이 책사(冊肆)에까지 서점 고객이 딱 끊어졌다는 세월에도 추사 글씨의 값만은 한없이 올라간다.

추사 글씨는 확실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필 추사의 글씨가 제가의 법을 모아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서 맛이 아니라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詩境)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돈 안 받고 그저 즐 것들만 같아 보인다. 추사의 글씨를 걸어 두는 것만으로 그 방의 주인이 훌륭해 보임. 맑고 예스러운 보임. 근년래에 일약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 중에도 얼굴이 탁 티고 점잖은 것을 보면 필시 그들의 사랑에는 추사의 진적이 구석구석에 호화로운 장배(裝背)로 붙어 있을 것이리라.

직접 쓴 글씨

뒤면 벽을 꾸민 장식

▶ 추사 글씨에 대한 사람들의 예찬

추사 글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재미난 사건 하나가 생각난다.

추사 글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

진 군은 추사 글씨에 대한 감식안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 서화(書畫) 고동(古銅)에는 대가로 자처하는 친구다.

고미술품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 그의 사랑에는 갖은 서화를 수없이 진열하고 “차라리 밥을 한 끼 굶었지 명서화(名書畫)를 안 보고 어찌 사는

냐.” 하는 친구다. / 양 군도 진 군에 못지않게 서화 애호의 벽(癖)이 대단한 데다가 금상첨화로 손수 그림까지 그

진 군을 깔보는 인물

리는 화가인지라 내심으로는 항상 진 군의 감식안을 은근히 비웃고 있는 터였다.

▶ 진 군과 양 군의 관계

벌써 오륙 년 전엔가 진 군이 거금을 던져 추사의 대련(對聯)을 한 벌 구해 놓고 장안 안에는 나만 한 완당서

추사 김정희의 글

대구가 되도록 쓴 글씨

자신이 수집한 미술품들에 자부심을 느낌.

(阮堂書)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늘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양 군 말에 의하면 진 군이 가진 완서는 위조라는 것이다. 이 위조란 말도 진 군을 면대할 때는 결코 하

진 군이 거금을 들여 구입한 추사의 글씨가 가짜라고 주장함.

는 것이 아니니 / “진 형의 완서는 일품(逸品)이지.” 하고 격찬을 할지언정 위조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진 군을 높여 부르는 말

그러나 진이 그 소식을 못 들을 리 없다. 기실 진은 속으로는 무척 걱정을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위조라? 하

진 군은 스스로의 안목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

긴 그럴지도 몰라. 어쩐지 먹빛이 좋지 않고 옳을 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씨가 위조품이라는 소문을 듣자 의심이 짙어짐.
 (可) 자(字)의 건너 그는 확이 이상하더라니…….

감식안이 높은 진 군은 의심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마음

▶ 진 군의 대련이 가짜라는 소문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진 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사 글씨가 위조품이라는 소문을 듣
 자 뿌듯하게 여기던 마음이 가시고 의심마저 들게 됨. 자신의 생각
 과 판단으로 구입한 작품에 대한 의심은 결국 미술품을 알아보는
 자신의 안목이나 실력을 의심하는 것임. 따라서 진 군의 이러한 행
 동은 양 군으로부터 비롯음을 살 만하다고도 할 수 있음.

나는 그 후 이 글씨가 누구의 사랑에서 호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경로를 밟아 어떻

이전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게 간 것인지는 모르나 진 군이 가졌던 추사 글씨는 위조라고 비웃던 양 군의 사랑에 버젓하게 걸려 있고 진 군은
 진 군은 추사의 글씨가 위조품이라고 생각하여 되팔았으나 양 군이 그 글씨를 구입하자 진품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구입하기를 소망함.

그 글씨를 도로 팔라고 매일같이 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 추사 글씨는 아무튼 대단한 것인가 보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미술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억할 만한 일화를 빚어냄.

▶ 양 군의 사랑에 걸린 추사의 글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진 군이 가지고 있던 추사 글씨를 위조품이라고 소문낸 이유 문항 2 관련

양 군은 평소 진 군의 감식안을 은근히 깔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진 군이 가지고 있던 추사 글씨를 자신이
 구입한 이유는 그 글씨가 좋은 작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양 군이 그 글씨를 구입했다는 사
 실로 미루어 볼 때 진 군이 추사 글씨를 되팔게 하기 위해 가짜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포인트
 2

양 군과 진 군의 차이 문항 3 관련

진 군과 양 군 모두 미술품을 감식하는 데 조예가 깊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양 군은 진 군
 의 감식안을 비웃는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데 있다.
 진 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추사 글씨를 되팔았으며, 양 군은 보란 듯이 그 그림을 사서 자신의 서재에 걸었
 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른 행동의 차이가 극명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태도나 관점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자기 개념

자기 개념(self-concept)이란 자기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 존중감의 기초를 이루며
 대인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다. 자기 개념은 주변 환경에 대한 해석과 경험을 통해 주관적
 으로 형성되는데, 특히 가족을 비롯한 선생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유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며, 자신이 나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행동하기 쉽다.

**EBS
 Q&A**

Q. 「추사 글씨」의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수필의 주제는 어느 하나로 꼭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좋은 수필이라면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사 글씨」의 주제를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
 으로 파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사 글씨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이 작품을 보면, 예술 작품의 허구
 성, 주체적으로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 등도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마련했던 '존재의 테이블'이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고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깨닫는 삶의 의미

[요약분 줄거리]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를 소개한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만한 행복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글쓰기가 바슐라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경심을 드러냄
이런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글쓰이에게 '충만한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자리
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는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한 '테이블'이 자신의 여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니! 것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 존재의 테이블로 인해 더 힘들었던 여정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
인도에서 '테이블'을 산 것을 '우매한 충동과 집착'으로 평가하는 이유
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러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싶었던 이유

이런 쓸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나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빼적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존재의 테이블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수단을 통해 얻으려는 본질
존재의 자리를 갖기 위한 수단
생기지 않았다. ▶ 일상 속에서 쉬이 생기지 않는 존재의 자리

그러다가도 그 빼겨저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닦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지 일러 주는 거울.

글쓰기가 존재의 테이블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과 노력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태도

▶ 존재의 테이블을 닦으며 얻은 테이블의 의미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별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 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

글쓰기가 존재의 테이블을 온전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깨달음

▶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

📌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글쓰기는 존재의 테이블을 구입한 것만으로는 본인이 추구하고자 한 바를 바로 얻지 못함. 오히려 본인이 추구하는 것을 쉽게 얻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 존재의 테이블 앞에 앉아 느끼는 것들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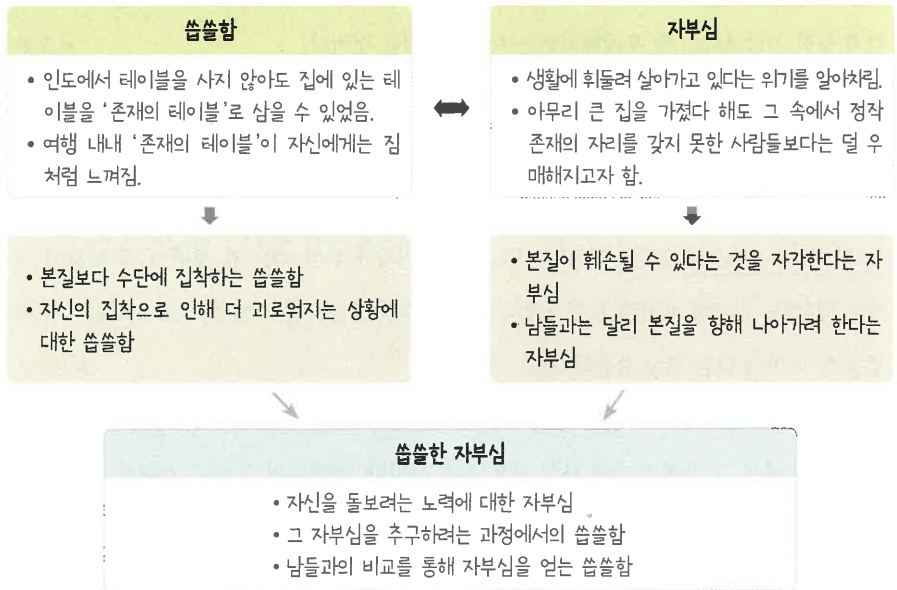
포인트 1

‘존재의 테이블’이 가지는 의미 문항 1 관련

글쓰기는 바슐라르라는 학자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존재의 테이블’을 가지려 한다. 이 자리는 글쓰기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글쓰기는 ‘존재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행복을 위한 것도, 고통을 마주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행복’과 ‘고통’은 일상생활 속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 글쓰기는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존재의 테이블’은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빠져나와 스스로를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나’가 있지만, 그 ‘나’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때때로 돌아보기 위한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포인트 2

글쓰기가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하고서 느낀 자부심을 ‘쓰쓸함’ 것으로 평가한 이유 문항 2 관련



■ 작가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감상하기 - 「오 분간」

「존재의 테이블」의 작가인 나희덕은 시 창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나희덕의 시 중 「오 분간」은 자녀를 태운 버스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나무 그늘 밑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졌던 사유의 단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 속 화자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여섯 살배기 자녀를 마중 나가며 자신의 기다림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꽃이 핀 나무 그늘 밑에서 화자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작품 속에서 서 있는 아까시나무 그늘은 또 다른 모습의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 「오 분간」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에 대한 묘사와 그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아이를 기다리는 오 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훑날리는 /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 내 앞에 멈추면
여섯 살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휼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중략)

종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 '바슐라르'는 누구일까?

고대 서양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을 물, 흙, 불, 공기로 보기도 하였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분류법에 착안하여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들의 상상력을 분류하는 비평의 관점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각 작품들에 나타난 상상력을 분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심에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상력이 네 가지 분류 체계 중 어디에 자리하는가와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과제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슐라르는 작가들의 상상력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그 틀 안으로 고착시키기보다는 그 네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나 특정한 대상에서 그러한 요소의 이미지를 발견해 내는 작가의 상상력에 더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슐라르의 관점을 참고하여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의 과정을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조와 자유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 된다.

Q. 작품에 나타나는 세밀한 표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항 5 관련

A. 글쓴이가 인도에서 구입한 '존재의 테이블'에는 작은 꽃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종류나 모양 혹은 거기 새겨진 문양이 다양했을 테지만 글쓴이는 작은 꽃문양이 새겨진 테이블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꽃문양은 곧 글쓴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꽃문양은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꽃으로서의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글쓴이가 가진 '자부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상생활에 쫓겨 존재의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 작은 꽃문양에는 먼지가 낡습니다. 이 또한 글쓴이 스스로의 삶을 돌보지 못해 먼지가 낡은 모습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시는 구부러짐이 가진 포용성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반듯한 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의 다양성은 마련해 주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자에게 구부러진 길은 다양한 삶을 만나는 동시에 그들을 포용하는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구불구불'은 느낌의 상징이 아닌 풍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고, '울퉁불퉁' 또한 뜻밖의 상징이 아닌 경험의 깊이에 대한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구부러진 길로서의 삶이 갖는 풍요로움과 포용성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나비가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

감자를 심는 사람들¹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동하는 존재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자녀가 끼니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챙겨 주는 존재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 1~6행: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 구불구불 간다.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와 대응을 이룸.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 7~10행: 구부러진 하천과 길이 가진 긍정적 성격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²의

'감자를 심는 사람'과 호응을 이루며 그 의미를 심화시킴.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와 대응을 이룸.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어머니'의 주름살이라고 생각해 보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성질을 가질 수 있음.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11~16행: 구부러진 삶의 긍정적 의미

문제 해결 키 문항 5 관련

화자가 만난 사람 중 '감자를 심는 사람'은 이후 '감자처럼 울퉁불퉁'이라는 시구와 연결하여 감상할 필요가 있음. 감자를 심는 행위는 생명을 이어 나가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행위라는 점, 그러면서도 길이 화려한 작물이 아닌 '울퉁불퉁한' 작물을 심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부러진 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의해자

핵심 개념

포인트

유사한 구조의 반복 속에 심화되는 의미 문항 3 관련

이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부분은 화자가 구부러진 길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등장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구부러진 길이 가지는 성격이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구부러진 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둘째 부분에서 형상화된 모습이 첫째 부분에서 화자가 만난 대상들의 의미를 심화시켜 주는 역할로 이어진다. 결국 화자가 첫째 부분에서 만난 '감자를 심는 사람'과 '어머니'는 구부러진 하천이 물고기를 품듯 구부러진 길에서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심화되어 가는 의미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그 구부러짐의 성격이 다른 이들을 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각자의 역경을 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구부러진 길’의 특징을 통해 유추해 보는 ‘반듯한 길’의 특징 **문항 4 관련**

구부러진 길		반듯한 길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음.)
산을 품고 마을을 품음.	↔	(자연과 공동체를 품지 않음.)
울퉁불퉁 (힘겹게) 살아감.	↔	쉽게 살아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음.	↔	(가족과 이웃을 품지 않음.)
↓		↓
쉽지만은 않음에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겪고 다양한 의미와 체험들을 얻으며 삶의 깊이를 더해 감.		자신만을 위해 쉬운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와 체험들을 얻지 못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가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감상하기 - 「딱지」

이준관 시인의 다른 작품들 가운데 「구부러진 길」과 함께 연관을 지어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딱지」를 들 수 있다. 「딱지」의 화자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해 주신 ‘딱지를 떼어 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라는 말씀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러한 딱지는 화자가 커 가면서 마음에 입은 상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딱지’라고 부르는 상처 위의 껍질은 상처가 아무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딱지가 상처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아래 새로운 피부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딱지를 떼지 않는 것은 아픔을 아픔대로 보듬고 가는, 그러한 한편으로 그 시간을 온전히 품고 가는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상처가 ‘딱지’ 없이 바로바로 낫는다면 좋겠지만, 상처의 회복에는 ‘구부러진 길’과 같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 직선과 곡선의 의미

모든 직선과 곡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작품에 나타나는 관점을 따라가 본다면 직선과 곡선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이므로, 그 궤적의 길이에 있어서는 두 점 사이의 구부러진 곡선보다 언제나 작을 수밖에 없다. 직선을 지향하는 고속 도로는 목적지로 빠르게 갈 수 있게 해 주지만, 그 속도로 인해 주변의 풍경을 온전하게 감상할 시간을 마련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속 도로를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멋진 풍경이 보였다고 하여 잠시 차를 멈추고 내려서 풍경을 뭉소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 도로에 비해 많이 구부러진 궤적을 가지는 국도나 지방도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직선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일차 함수를 미분하면 지극히 단순한 상수가 되지만, 곡선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이차 함수나 삼차 함수를 미분하면 여전히 그때그때 다른 값을 제시할 수 있는 함수가 된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여 감상해 볼 만한 작품이다.

EBS
Q&A

Q. 시의 전개 과정을 살피는 것은 특정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나요?

문항 3 관련

A. 시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독자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독자가 부여하는 모든 의미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품의 다른 부분까지 잘 살피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전반부에 제시되는 ‘구부러진 길’은 단순히 공간적인 배경으로만 기능하지만 중반부 이후에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추가됩니다. 이를 같이 고려할 때, 전반부의 ‘구부러진 길’에 ‘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 포인드

이 작품은 성실한 농사꾼 영식이 금의 유혹에 빠져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의 열악한 현실과 일확천금을 바라는 인간의 허황된 욕망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부추긴 금광 투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헛된 욕망

전체 줄거리

영식은 성실한 소작농이고 그의 친구 수재는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콩밭을 파 보면 금줄이 묻혀 있을 거라는 수재의 꼬임에 넘어간 영식은 잘만 되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아내의 부추김에 힘을 얻어 콩밭을 뒤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혀를 내민다. 조급해진 영식은 쌀을 꺾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채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는다.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보며 위위감을 느낀 수재는 거짓말로 금줄이 발견됐다고 소리친다. 영식 내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재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도망가리라 결심한다.

“자네, 돈벌이 좀 안 할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 “뭐?” 하니까 / “바로 이 산 너머 큰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삼백여 명이 부르니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칠십 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칠천 원, 그 줄매이 큰 산 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 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게고, 적어도 하루 서 돈씩은 따리라. 우선 삼십 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대도 반 필이 아니냐고.”

금을 캐내는 광산

그러나 영식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뿔뿔이다. 잘되면이거니와 못되면 신세만 조판다. 이

몹시 위태로운 일을 모험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 콩밭에서 금을 캐자는 수재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는 영식

수재의 제안이 위험한 제안임을 직감하고 있는 영식의 모습

그답 날도 와서 피송거리다 갔다.

셋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핀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인다는 등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등 남들은 눈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등 일찍게 지절거린다.

끈질기게 영식을 설득하는 수재의 모습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 주시게유.”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거우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으기 돌아섰다. 판은 일 년 고생하고 꺾콩 몇 섬 얻어먹느니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지 못하는 당대 농촌의 현실을 엿볼 수 있음.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울봄 보낼 제 비롯값, 품삯, 빛에 빚진 칠 원 까닭에 나날

영식이 수재의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현실적 문제

이 줄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자식이 한번 해 볼 것이다.

빈곤의 문제를 금을 캐는 일로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

“널부터 우리 파 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진 콩은…….”

수재가 안달스리 재우쳐 보צל 제 선뜻 응낙하였다. /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될 고만이지.”

▶ 수재의 거듭된 제안에 마음을 돌리는 영식

[중략 부분 줄거리] 영식은 수재와 함께 콩밭을 뒤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

문제 해결기 문항 5 관련

영식이 수재의 제안을 승낙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수재의 제안에 대한 영식의 태도

영식은 콩밭을 뒤엎고 금줄을 찾자는 수재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 승낙함.



영식이 마음을 바꾼 이유

수재의 끈질긴 설득과 영식 부부의 허황한 욕망이 있지만,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빚만 지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구조적 모순 또한 간과할 수 없음.

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다. 조금해진 영식은 쌀을 퍼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제(山祭)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는다. 급기야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다.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계로 슬그머니 옮겨 올 것을 지레 채었 금줄 찾기 위해 콩밭을 뒤엎다가 절망감에 서로 싸우는 영식과 그의 아내 수재가 영식을 속이고 달아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드러나는 마음이다. 이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시나브로 없어져 버린다.

별은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쪽 산 밑에서 풍성한 가을에 맘 풀려 추수하는 농민의 모습을 영식 부부의 모습과 대조함.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 / “터졌네, 터져!”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굶문을 튀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였다. / “뭐?” 하다가

“금줄 잡았어,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은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수재가 영식의 화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함. 흙을 받아들고 살살이 헤쳐 보니 판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그죽죽한 황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금줄을 잡은 것에 대한 감격

“이게 원줄인가?” /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몇 돈씩은 너넉 잡히네.” / 영식은 기쁨보다 먼저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웃을지 울어야 울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 봐. 이게 금이라네.”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뒤랬어, 그러게 해 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 오는 아내가 수재의 거짓말에 속아 아내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지는 영식의 모습 한결 어여뻐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 주고 그리고 나서 꺾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애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제, 수재는 시원스러이,

황금에 대한 헛된 기대로 허황한 꿈을 꾸는 아내의 모습에서 당시 금광 채굴 열풍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음.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씩 나와유.” /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녕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 영식을 끌어들이 농사를 망쳐 놓고는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수재의 모습

이란 오래 못 간다. 뿡이 나서* 빠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 감격해하는 영식 부부를 보면서 거짓말이 탄로 나기 전에 도주할 생각을 하는 수재

* 원줄: 근본이 되는 줄기. 본줄기.

* 곱색줄: 광맥의 하나. 산화한 황화 광물로 이루어진 붉은빛의 광맥이 길게 뻗어 박인 줄.

* 설면설면: 사이가 정답지 아니하고 어색하게.

* 뿡이 나서: 거짓말이 탄로 나서.

🔑 문제 해결 키 | 문항 4 관련

결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이 소설의 결말에서 수재는 금이 나는 광맥인 금줄을 찾았다고 외치고 영식 부부는 크게 기뻐함. 하지만 이는 영식의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수재가 거짓말을 한 것임.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결말은 일확천금이 라는 소망의 성취가 아닌 좌절을 의미하며, 당대의 비정상적 황금 열풍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서술상의 특징 | 문항 1 관련

「금 따는 콩밭」

-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주로 묘사하되 그들의 속마음도 전하고 있음.
- 영식 부부가 금을 캐서 부자가 될 꿈을 꾸거나 서로 다루는 모습을 희극적으로 그려 독자들이 연민 어린 웃음을 띠게 함.
- 방언,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농민의 갈등과 애환을 실감 나게 전달함.
-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함.

포인트 2

1930년대의 황금광 열풍과 작품의 비판 의식 **문학 5 관련**

1930년대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광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이에 일제는 본격적으로 금을 수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의 탐사와 채굴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소작인이 금을 발견하면 지주와 금을 나누지 않고 일정 기간 금을 채굴할 권리를 줄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 농촌 경제에서 수탈당하는 농민들이 일확천금을 자극하는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농사를 지어야 할 농토를 뒤엎는 일들도 발생했다. 하지만 성공의 사례는 적었고 실패의 책임은 농사를 포기한 농민이 져야 했다. 또한 금이 발견되었다 해도 대부분의 금은 일본 은행의 금 비축고로 보내져 우리 민족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금 따는 콩밭」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비정상적인 금광 열풍을 비판하는 한편, 농민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농촌의 수탈 구조도 비판하고 있다.

1930년대의 시대상	작품에 반영된 모습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수재와 같이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며 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
금의 탐사와 채굴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소작인도 금을 탐사할 수 있었음.	영식은 마름의 노기에도 불구하고 콩을 기르던 밭에서 금을 찾음.
농민은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금을 찾았으나 대부분 실패함.	영식은 수재의 꼬임에 넘어가 금을 찾기 시작하나 실패하고 수재는 도망감.

- 비정상적인 금광 열풍을 비판함.
- 농민들이 황금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농촌의 수탈 구조를 비판함.

포인트 3

상황의 아이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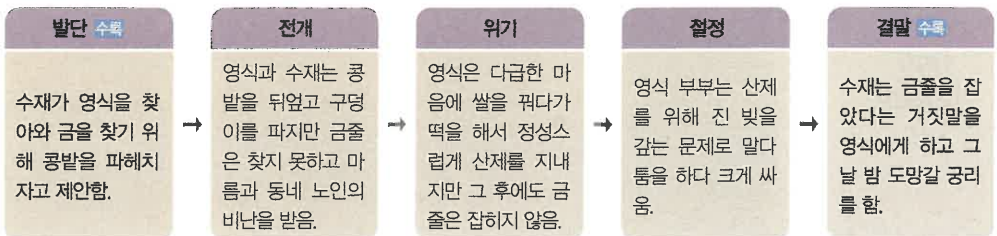
이 소설의 결말은 상황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인물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말의 아이러니가 전하려는 의미와 표현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상황의 아이러니는 인물의 기대와 사건 전개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이 소설에서 영식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농사도 포기하고 밭을 파헤친다. 하지만 수재의 거짓말과 도망은 그런 기대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드러낸다.

상황의 아이러니	작품에 구현된 모습
인물의 기대	콩밭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영식의 기대
≠	≠
사건의 전개	금은 찾지 못하고 수재는 도망감.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금 따는 콩밭」의 이야기 구조

이 소설은 영식과 수재가 콩밭에서 금을 찾기 위해 흙을 파다가 서로 심하게 다투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둘이 왜 콩밭을 함께 뒤엎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식의 회상으로 이어진다.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식이 금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찾기를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면서 금 찾기의 결말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토막'이라는 상징적 공간과 두 농민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 우리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사실주의적 경향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한 축인 경선네 가족은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다가 땅과 토막을 잃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결국 고향을 떠난다. 또 다른 축인 명서네 가족 또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본으로 돈벌이를 떠난 장남인 명수만을 기다린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현실은 병자인 명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명서의 처, 일제에 저항하는 명수, 유랑민인 경선의 가족 등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진다. 특히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면서 명서네 가족의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은 현실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설정으로,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황폐한 농촌 현실과 그로 인한 가족의 비극

전체 줄거리

가난한 농민인 명서와 그 가족은 음산한 토막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일본에 돈 벌러 간 아들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걸지만,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된다. 게다가 명수가 종신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서 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끝내 명수의 백골이 담긴 상자가 도착하자 모두 절규한다. 명서의 딸 금녀는 일제에 저항했던 오빠인 명수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부모를 위로한다.

삼조: 명수 어머니!

명서 처: 아이구, 삼조야, 너 참 훌륭하구나. 양복에다 사포를 쓰구서! 그렇게 차리구 오니까, 개두 몰라보구 짓는 게지? 지금 떠나니?

삼조: (미소를 지으며) 예, 명수한테 전할 게 있다구요?

명서네가 삼조를 부른 이유임

명서 처: 아이구, 구장한테나 팽겼으면 벌써 다 됐을 걸. 되지도 않는 글씨를 부비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 버리겠네.

예전에, 시골 동네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삼조를 통해 아들 명수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함.

삼조: 여테 안 쓰셨구면유?

명서: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명서 처: 그놈의 거진이 또 며칠을 꼬을 거진이란 말유?

금녀: 그럼 말로나 전하지유, 어머니.

명서 처: 그러는 수밖에 없겠다. 삼조야, 좀 올라앉으렴. / 삼조: 바빠유.

▶ 일본으로 가기 전에 명서네를 방문한 삼조

명서 처: 바빠두 좀 걸터앉기래두 해라. 우리 집 형편을 네가 잘 보구 가서 자세히 전해 주어야겠다. ……에그,

명서 가족이 삼조를 통해 명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①

사람이란 별게 아니로구나. 너두 그렇게 꾸며 놓고 보니까 바로 먼주사 나오리 같구나!

삼조: 그야 뭘 일본 가서 '곤니찌와' '곰방와' 짬 배우구 구쓰 신을 줄이나 알문 그까짓 면서기쯤이야 부러울 것 없겠쥬. (일면 웃는다.) 아니, 정말이유.

명서 처: 애, 부디 그렇게 되드래두 우린 잊지 말아 다구.

삼조: 그야 그때가 돼 봐야 알쥬. 하하하……

명서: 너희들은 재주두 좋다. 가문에 빚방울보다 귀한 돈을 어디서 구해서 그만저만의 노자를 다 장만했니?

돈을 구하기 어려운 당대 농민의 빈곤한 삶을 엿볼 수 있음.

삼조: 집을 잤쥬. 뭐,

삼조는 일본으로 가는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림.

명서: 집을? 허어 그거 뭘 말이라구?

삼조: 거기 가기만 허문 그까짓 돈쯤이야……

일본으로 가는 삼조의 기대를 엿볼 수 있음.

명서: 집까지 팔아 가지구 가두오두 못 허는 사람이 부산 뱃머리에는 장군 같다더라. 너무 헤픈 생각 말구 너도 미리 조심해라. 그리구 일본 가걸랑 우리 집 명수 만나 보구 그놈이 요즘 뭘 허는지 좀 기별해 다구. 재작년 선달부터선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

명서가 삼조를 통해 전해 듣고자 하는 내용

삼조: 그야 제가 건너가기만 허문 제절로 만나게 될 테니까 염려 없어요.

명서 처: 애그, 길이 가까워 가 보거나 하겠니, 왕래가 잦은 데라 냉큼 인편이 있겠니?

명서: 그놈 간 지가 어엿범 일곱 해로구나. 남의 밥 그만 벌어먹구 인젠 그만 나오래라.

명서 가족이 삼조를 통해 명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②

삼조: 명수가 나오문 뭘 시킬려구 그러슈? 이 고장에서 살아 나갈 방도가 있겠우?

삼조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가는 이유임.

명서 처: 남의 집을 살아두 내 고장에서 살구, 흠을 파먹어두 같이 파먹지.

삼조: 아파, 남의 집 살 덴 있구, 흠 파먹을 덴 있답디까?

명서 처: 나와서 장가두 들어야지. 그 애 나이가 벌써 반 신이 넘었단다.

삼조: 장가가 다 뭐유? 죽자꾸나 농살 지어두 입엔 거미줄을 먼치 못하는 세상인데……

일제의 수탈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의 어려움이 엿보임.

명서 처: 아이참! 여보, 너더럭 장단에 소중한 돈 말을 빼놓을 뻔했구려. / 명서: 정말!

명서 처: 애야, 명수가 냉큼 나올 수 없대거든, 돈이라두 보내라구 그래라. 돈만 있으면야, 이리니저러니 걱정할 것두 없다.

명서 가족이 삼조를 통해 명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③

명서: ……삼조야. 이 집을 한번 둘러봐라. 여긴 사람 걸은 사람은 하나 없다. 이 할미는 늙어 이렇지. 저 금녀는 금녀 저대로 몸이 착실치 못하지. 게다가 나꺼정 병으로 이 몇 헬 두구 그들의 신세만 지구 있으니 대체 이 걸 집이라겠니, 무덤이라겠니?

가난하고 병든 명서 가족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것임.

삼조: 이런 지옥에라두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을 거예요. 명수 아버지, 너무 상심 마슈. (일어선다.)

명서: 애그, 너희들 젊은 늙은 매뚜기 새끼같이 제 좋을 데로 모두 뛰어들 가 버리구 나문 여긴 누가 남는단 말여? 나 같은 늙은 것허구 병신뿐이니, 허릴없는 쓰레기통이로구나.

명서 처: 왜 이렇게 궁상만 떨우? 먼길 가는 젊은일 보구……

명서: 바쁜데 어여 가거라. 아무리 말해두 너희들의 기상을 돌아 줄 만한 소린 한마디두 없다.

삼조: 안녕히들 계세유.

명서 처: 부디 잊지 말구, 가든 말으로 명수 소식 좀 전해 다구.

삼조: 염려 마슈.

▶ 명수에게 전할 말을 삼조에게 부탁하는 명서 가족

[중략 부분 줄거리] 명서네 가족은 신문을 통해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장은 명수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명서네는, 농사를 짓다가 얻게 된 빛을 감지 못해 실림이 압류된 경선네를 거두어 어렵게 함께 살지만,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경선네는 추운 겨울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다. 명서의 처는 신문 속 최명수란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정신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다.

그때에 사립문을 박차는 듯이 한 남자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우편배달부다. 소포를 들었다.

우편배달부: (들어서며) 왜 밖에 문패도 없소?

모녀: (무언) / 우편배달부: 빨리 도장을 내요.

명서: 도장? / 명서 처: (금녀에게 의아한 듯이) 너의 오빠가 아니지?

금녀: 배달부예요. / 명서: (실망한 듯이) 찻!

우편배달부: 얼른 소포 받아 가요! 원, 무식해도 분수가 있지. 빨리 도장을 내요.

배달부는 문패도 없는 토막에 사는 명서 가족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취하며 무시하고 있음.

명서: (반항적 어조로) 내겐 도장 같은 건 없소.

우편배달부: 그럼 지장이라도……

명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찌는다. 우편배달부 퇴장)

▶ 우편배달부로부터 소포를 전달받은 명서 가족

명서 처: 음, 그 애에게서 물건이 온 게로구먼. / 명서: 뭘까?

명서 처: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명서: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하야 하! 이건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가……

명서 처: 아니, 삼조가 뭘 보냈을까? 입때 한마디 소식두 없던 애가…… (소포를 끌러서 꺾개를 떼어 보고)

명서에게 부탁을 받은 삼조가 일본으로 간 후 처음으로 소식을 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금녀: (깜짝 놀라) 어마나!

명서 처: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 듯이) 대체 이게…… 이게? 에그머니, 맏소사! 이게 웬일이냐?

명서: (되레 멍청해지며 꺾개를 씌어진 글자를 읽으며) 최명수의 백골. / 금녀: 오빠의?

명수의 죽음을 의미함.

명서 처: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아아, 이 일이 웬일이냐?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백골 상자를
꼭 안는다.)

금녀: 오빠!

명서: 나는 여태 개돼지같이 살아오면서, 한마디 불평두 입 밖에 내지 않구 꾸벅꾸벅 일만 해 준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들어 보내느냐? 응, 이 육실했 놈들! (일어서려고 애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명서의 한탄으로, 일제로부터 수탈당하는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대표함

금녀: (눈물을 씻으며) 아버지! (하고 붙든다.)

명서: 놓아라! 명수는 어디루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뉘게 맡겨 두구 이놈은 어딜?

금녀: 아버지! 아버지!

명서: (꺾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이놈들아, 왜 뺨다구만 내게 갖다 맡기느냐? 내 자식을 죽인 놈이 이걸 마저 처치
해라! (쇠진하여 쓰러진다. 꺾개에서 백골이 쏟아진다. 받은기침! 한동안)

명서 처: (흠어진 백골을 주우며)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왔다. 인제는
나는 너를 기다려서 애태울 것두 없구 동지선달 기나긴 밤을 울어 새우지 않아두 좋다! 명수야, 이제 너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극심한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임.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져가래라!

금녀: 아버지, 서러 마세요,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꼭 참구 살아가세요.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죽은 혼이라두 살아 있어, 우릴 꼭 돌봐 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린 꼭 참구 살아가세요. 예, 아버지!
오빠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금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남.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지고 가래라!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하여 놓고 열심히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합장한다.
신물의 상(像)·위패·사신(屍身) 등을 잘 모시어 등.

바람 소리 적막을 짓는다.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음향 효과의 활용

▶ 소포를 통해 명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절망하는 명서 가족과 아버지를 위로하는 금녀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토막」

-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와 사건의 전개를 드러냄.
- ‘토막’이라는 상징적인 배경을 설정하여 당대 현실의 문제를 강렬하게 드러냄.
- 바람 소리 등의 효과음을 통해 상황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함.

포인트 2

이 희곡의 등장인물 문항 3 관련

명서	명서 가족의 가장으로 가난하고 병든 상태임.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실에 대한 분노를 터트림.
명서 처	생활력이 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애타게 기다리는 아들에 대한 비극적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함.
금녀	명서의 딸로, 병약하지만 오빠인 명수의 행동에 공감하면서 의지를 잃지 않고자 함.
명수	명서의 아들로,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결국 백골로 집에 돌아옴.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음.
삼조	명서 가족의 이웃으로,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가는 청년. 명수의 소식을 전해 주기로 명서 가족과 약속했고 결국 명수의 백골을 보내게 됨.

EBS Q&A

Q. 이 작품의 제목이며 배경인 ‘토막’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A. 토막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으로, 이 작품에서는 명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토막은 거적,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약하고 어두우며 음습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공간이지요. 이러한 토막은 일제의 본격적인 수탈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당대의 농촌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위한이 지은 소설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과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렸다.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다루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주로 다룬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짙지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의 현실과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전체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이 옥영과 약혼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최척이 징발되고, 옥영의 부모는 이웃의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최척은 진중에서 달려왔고,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최척은 명장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몇 년 뒤 최척은 안남에서 왜국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으로 가 살며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흥도를 아내로 맞는다. 이듬해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淸軍)의 포로가 되고, 포로수용소에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위경을 만난다. 옥영 역시 몽선·흥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만나게 된다.

날씨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염불(念佛)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뻘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배경 묘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공간적 배경인 포구의 풍경에 대한 묘사는 고요하고 쓸쓸함.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은 처량함을 느끼는 최척의 심리를 부각함.

가족과 헤어져 타국에 홀로 있는 상황 ▶ 일본인 배로부터 들린 염불하는 소리에 처량함을 느낀 최척

그래서 즉시 행장(行裝)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호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서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가족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슬픔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며 최척과 옥영이 만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 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失性)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학천(鶴川)이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시'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일본인 배 안에서 들려오는 시	→	최척과 옥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됨.
과거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에 화답하여 지은 시임.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행동으로 드러남.
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詩句)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
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
이 슬퍼진 것이라네.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
정유재란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진 사건
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
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성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
에 의기(義氣)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학천이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학천의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 드러남.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럼시다.”

▶ 일본인 배에서 돌린 시가 아내의 시와 같아 놀란 최척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
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曲調)인 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였
옥영이 시를 읊게 된 사연을 요약하여 제시함.
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
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
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
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최척과 옥영의 재회가 우연성에 의거한 기이한 사건임을 드러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리어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최척과 옥영
의 재회에는 여러 인물의 도움과 격려가
있음. 두홍은 최척의 사연을 듣고 젊은 혈
기로 당장 최척을 돕고자 하지만 학천은
침착하게 그를 말리며 아침까지 기다리자
고 제안함.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족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전란의 비참함

두 사람의 기막힌 사연에 연민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극적인 재회를 감격해하며 그간의 소식을 묻는 최척과 옥영

학천은 돈을 만나 백금(白金)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사 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질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天地神明)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木石)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옥영에 대한 돈우의 존중이 드러남.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열 냇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사 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지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옥영이 손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일찍이 주인 영감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에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렇듯이 기뻐하며 전별금까지 주시니 진실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백 번 절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척이 옥영과 함께 본 배로 돌아오자 이웃 배에서 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은(金銀)과 비단을 주기까지 했다. 학천은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최척과 옥영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최척과 옥영을 향한 학천의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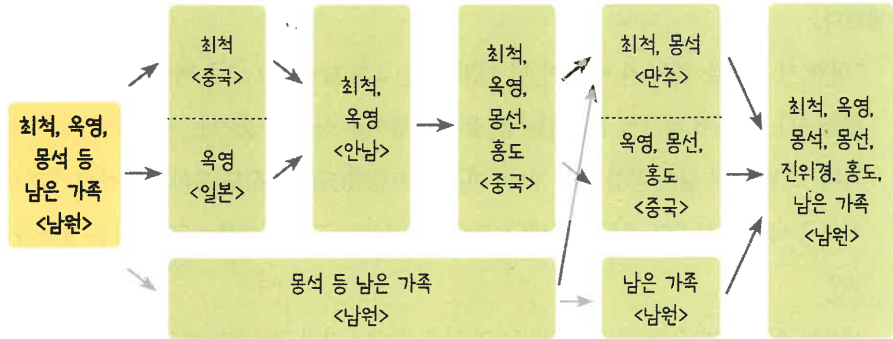
최척은 이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땅에 의탁해 살고 있는 터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 하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심에 싸여 있었다. 최척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묵묵히 기도하였다.
▶ 뱃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학천의 고향에 정착한 최척과 옥영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이 작품의 구조로서 가족의 이산과 재회 문항 5 관련

이 작품은 정유재란으로 인해 고향인 남원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인물들의 삶을 그린다. 최척과 옥영의 가족은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중국으로 떠나는 등 동아시아 곳곳을 떠돌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다가 종국에는 가족 모두가 남원으로 돌아와 재회하는 기쁨을 누린다. 또한, 수십 년간 이별했던 진위경과 홍도 부녀도 타국인 조선의 남원에서 재회한다.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를 무대로 가족의 이산과 재회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포인트
2

작품의 우연성과 당대인의 소망

이 작품의 겉표지에는 '기우록(奇遇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기이한 인연에 의한 만남의 기록이란 뜻이다. 이러한 제목에 걸맞게 이 작품에서는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적인 사건이 적지 않다. 안남에서 최척과 옥영이 재회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우연성을 현대 소설의 기준에 비춰 서사 구성의 한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연성은 당대의 시대적 소망을 반영하는 한편, 다른 고전 소설과는 구별되는 차별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비롯한 가족의 재회는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를 위한 인물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전란으로 실향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을 겪었을 당대인의 소망을 간접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우연성은 영웅 소설의 우연성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영웅 소설의 우연성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 작품의 우연성은 당대 전쟁의 참상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피난민의 귀환과 가족의 재회라는 당대인의 소망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낮은 타국에서 가족이 재회하는 「최척전」의 우연성**

-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를 위한 인물들의 의지로 인해 가능한 것임.
- 실향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을 겪었을 당대인의 소망을 간접하게 반영함.
-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는 영웅 소설의 우연성과 구분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전기 소설과 「최척전」의 관계

고전 소설사의 앞머리에 있는 전기 소설(傳奇小說)은 '기이한 것을 전함'이라는 갈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현실성과 환상성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현실에서 이를 수 없었던 사랑, 그것의 비극적 종결을 통해 구현된다. 사랑의 당사자 중 한쪽은 이승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이며 이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지속하여 이어지기 어렵다. 전기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후대로 오면서 계승되고 변화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최척전」이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인 최척과 옥영은 현실 세계의 인물이며 전란으로 끊어진 이들의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회복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 소설이 통속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윤희길이 1977년에 발표한 소설로, 다른 세 편의 소설과 묶여 연작 소설 『아홉 쉼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구성한다. 교사인 '나'는 여러 해에 걸친 셋방살이 끝에 집을 장만하고 방 한 칸을 세놓는데, 이 방에 권 씨의 가족이 세를 들어 온다. 소설은 권 씨의 삶에 대한 '나'의 관찰과 추적으로 진행된다. 대학까지 나온 선량한 소시민인 그는 성남 지구 택지 개발이 시작될 무렵 철거민의 권리를 사서 들어왔으나,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자 이에 항거한다. 그는 왜소한 체구의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다. 유순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를 집주인인 '나'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주제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삶과 그에 관한 관심

전체 줄거리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나'가 방 하나를 세놓자, 권 씨 가족이 이사를 온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전세금 20만 원 중 10만 원만 내고, 권 씨의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는 권 씨가 원래는 출판사에 다녔었고,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집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정을 알게 된다. 권 씨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권 씨는 '나'에게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니,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한다. 권 씨가 돌아간 후 '나'는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나'는 그가 권 씨임을 알게 된다.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게 된 권 씨는 아홉 쉼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진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방 하나를 세놓는다. 이 방에 권 씨 가족이 들어와 사는데, '나'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특이한 버릇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를 이해한다. 한편, 이사를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 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권 씨는 '나'를 찾아와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반드시 값은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말과 표정을 통해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는 권 씨 마더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별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권 씨의 어려운 처지보다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우선시하는 '나'의 이해타산적인 모습 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님도 「」: 신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권 씨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나'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제안을 거절하는 '나'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차디찬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권 씨는 '나'의 제안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팔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 '나'의 거절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권 씨의 행동

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떨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썹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 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⁴⁾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손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 권 씨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입하는 ‘나’의 마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개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젠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 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타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대학 나온 사람이오’의 의미에 주목해야 함.

권 씨는 때때로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점과 안동 권씨라는 점을 강조함.	←	이러한 말은 주로 거절을 당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드러나는 등 자존심에 금이 가는 상황에서 사용됨.
---	---	--

↓

이러한 말의 사용과 반복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학력이나 출신으로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중략 부분 줄거리] 권 씨의 아들이 태어난 날의 저녁에 ‘나’의 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든다. ‘나’는 그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달랠다. 하지만 권 씨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오히려 낭패감을 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 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땀땀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구두의 광택 정도에 따라 권 씨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임.

권 씨에 대한 배려가 혹시 설부른 행동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나'

▶ 귀가하지 않는 권 씨를 기다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나'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달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권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함.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은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으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꼭 그런 자리에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여섯 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세 켤레였다. 모두 해서 열 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 온 모양이었다. 잘 닦여진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뜰뜰하게 깨달았다.

권 씨가 신고 나간 구두

권 씨를 의미함.

▶ 문간방에 놓인 아홉 켤레의 구두를 바라보며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나'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구성과 서술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연작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중편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1977년에 발표된 4편의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날개 또는 수감」을 엮었음.
- ▶ 네 편의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제목을 연작 소설의 제목으로 삼음.
- 1970년대 사회 문제를 구성하는, 지식인의 책무, 하층민의 삶, 노동의 문제 등을 각 연작을 통해 다각적으로 파헤침.

-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권 씨를 관찰하고 그와의 일화를 소개함.
- 권 씨의 성격과 행동, 삶,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행동 등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이야기함.
- 권 씨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서술을 통해 드러남.

2

작중 인물의 성격과 태도

권 씨의 아내가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성격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권 씨의 아내가 출산을 해야 하나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



권 씨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나 거절당해 낙담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음.
'나' (오 선생)	권 씨의 요청을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절하지만, 곧 그의 낙담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함.
원장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수술비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비정한 성격을 지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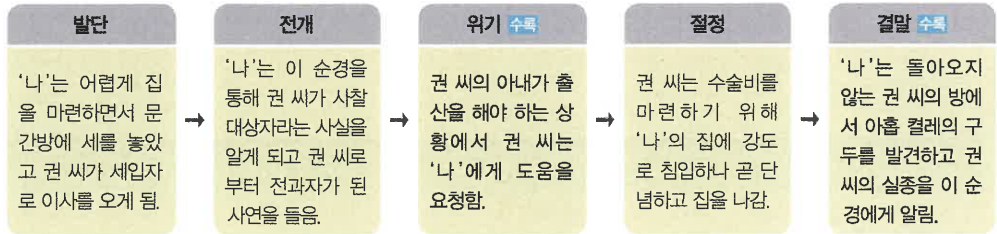
'구두'의 상징적 의미

구두는 권 씨가 아끼는 물품으로, 그는 전과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구두를 곱들여 닦는다. 이런 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는 그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열 켈레에서 한 켈레가 빠진 아홉 켈레의 구두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권 씨의 부채를 상징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의 구조 **문항 1** 관련

이 소설은 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의 동태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권 씨가 세입자로서 '나'의 집으로 이사 오는 날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진다.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사찰 대상자인 권 씨의 처지를 부각하면서 그의 사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EBS Q&A

Q. 연작 소설은 무엇이고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 연작 소설에는 어떤 작품이 있나요?

A. 연작 소설은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결합한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은 분절성과 연속성, 독자성과 통합성,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연작 소설은 작가 자신의 뚜렷한 연작 의지를 바탕으로 같은 표제 아래에서 분절된 개별 작품을 하나의 소설로 묶어 낸 것으로, 개별 작품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작품 간 상호 의존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큰 작품으로서의 통합성을 지향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는 1970년대의 연작 소설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문구의 『관촌수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윤홍길의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상 포인트

'전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실과 허구가 함께 제시되는 전기의 성격을 밝힌 글이다. '전기'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또한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이 야담이나 가전 같은 허구적 성격의 산문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전기'의 개념과 구성, 성격

'전(傳)' 또는 '전기(傳記)'란 개인의 일생을 사적(事跡) 중심으로 기술한 산문을 말한다. 이때 '전기'는 전(傳)과 기(記)의 합성어인데, '전'이 서술자의 의도가 투영된 인물 중심의 역사 기술을 뜻한다면, '기'는 서술자의 개인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물의 행적을 취사선택하여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벌여진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생애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는 경우를 뜻함. 내리다 보면 전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傳)'이라는 한문 전통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전기'임을 알 수 있다. ▶ 전기의 개념

일부 학자들은 전기의 구성을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기도 한다. 도입부는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부분, 전개부는 인물의 가계와 성격 등을 기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 종결부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대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논평하거나 예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달라지며, 위와 같은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전기의 일반적 구성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에는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골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물에 대한 삽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야담이나 가전을 창작하기도 하는 데, 이 경우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허구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한다. ▶ 전기에 부여되는 허구적 성격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문학 1, 3 관련

넓은 의미의 '전(傳)'은 결국 '전기(傳記)'와 같은 말이고, 이때의 '전(傳)'은 '서술자의 의도가 투영된 인물 중심의 역사'와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가 모두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전'으로 분류하는 한문 양식에는 대체로 이 두 가지 기술이 모두 나타난다. 가끔 서술자와 대상 인물과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주제를 미리 언급하는 도입부를 과감하게 생략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대상 인물의 생애나 관련 일화의 기술에 집중하여 주제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것이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한문 양식 전(傳)의 네 가지 갈래

사전(史傳)	사관의 관점에서 역사 찬술의 일환으로 쓴 열전 형식의 공식적 글. 또는 개인이 주관하여 어떤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역사적으로 쓴 글
가전(家傳)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열전이나 개인의 전(傳)이 아닌 한 가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가족의 역사를 쓴 글
탁전(托傳)	인물전의 변형된 형태로, 인물의 특징이나 지향점을 객관적 상관물에 의탁해 서술한 글(지기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가전(假傳)	사물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의인화하여 그와 관련된 생애나 행적을 역사적으로 제시하고 논평한 글

감상 포인트

고려 후기 석영암이 지은 가전체 작품으로, 『동문선』에 전하고 있다. 정시자는 지팡이를 의인화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서두에 대상의 성명과 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가전과 달리 석영암과 정시자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시자의 형상을 기이하게 묘사하면서, 정시자와 관련된 고사를 드러내고, 정시자를 대하는 석영암의 태도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시자'를 중생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승려를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시자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여 고려 말 사회적 혼란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우화 문학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주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순리를 지킬 것을 권함.

『정시자전』을 쓴 작가(석술자) 뒤에서 '나'로 표현됨. 입동 날 어둑한 새벽에 석영암이 암자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가전(假傳)을 시작함. 벽에 의지하여 조는데, 밖에서 누가 뜰에 걸하며 "새로운 정시자(丁侍者)가 뵈나이다." 하며, 문안 지팡이를 의인화하여 부르는 말임. 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히 여겨 나가 보니 사람이 섰는데, 형체가 가늘고 길며, 빛이 검고 빛나며 붉은 뿔은 우뚝 뾰족하여 싸우는 소뿔 같고, 검은 눈망울이 특 부러져 부릅뜬 눈 같은 것이 기우똥기우똥 들어와 오횇히 섰다. 나는 처음 놀라고 이윽고 불러 말하기를, "여보게, 앞으로 오게. 우선 물을 것이 있네. 자네가 왜 이름이 정씨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내가 평소에 자네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자네가 시자라 일컬음은 무엇 때문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은 깡충깡충 뛰어나와 차분차분 삼가 대답하였다.

정시자의 방문이라는 사건과 정시자와 석영암의 문답으로 도입부를 시작함.

"옛날의 성인으로 소 머리를 가진 이가 포희씨인데 그분이 저의 아버지, 뱀의 몸을 가진 이가 여와이온데 그분이 저의 어머니로소이다. 저를 수풀 속에 낳아 버리고 기르지 않아 서리와 우박이 칠 때에는 말라져 죽은 듯하였사오나, 바람과 비가 은혜를 내리면 다시 살아 변형한 듯하여, 추위와 더위를 천백 번 겪은 뒤에 자라나 인재(人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씨의 가신이 되어서 비로소 몸에 옷칠하는 기술*을 배웠사오며, 내려와 당나라 승대에는 조로*의 문인이 되었사옵고, 또 철취의 호를 더하였나이다. 그 뒤에 정도 땅에 놀았는데 정삼량을 길에서 만나니, 그가 저를 익히 보고 하는 말이, '자네의 형(形)이 위는 건너지르고 아래는 내리그리었으니, 마땅히 내 성을 자네 성으로 줌세.' 하였으나, 저는 그 말을 좇아 고치지 않으려 하옵나이다. 대개 저의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심에 있사온데, 사람 사람마다 저를 부려 제가 천하고 또 고달프오나, 그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부르지 못하므로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를 떠돌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이제 오래였사온데, 어제 하늘이 저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를 화산에 시자로 삼으니, 가서 직을 화산에 가서 이름 높은 스승을 삼가고 섬기는 시자가 될 것이라는 명을 하늘로부터 받음.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석영암('나')과 정시자의 대화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석영암은 이 작품을 쓴 작가로서 '정시자'라는 대상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음. 『정시자전』은 대화(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영암은 정시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정시자의 특성을 예찬하고 자신과 각임을 비교함.



▶ 정시자에게 자신을 찾아온 연유를 물음.

받들고 스승을 오직 삼가 섬길지이다.’ 하시기로, 저는 명을 듣잡고 기뻐 뛰며 외다리로 왔사오니, 바라옵건대 장로께서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하였다. ▶ 정시자가 자신의 생애를 설명하며 스승으로 모시고자 찾아왔음을 밝힘.

나는 말하기를, “후덕스럽구나. 정 상좌, 옛 성인이 남긴 몸이여. 뼈가 무너지지 않았음은 장함이요, 눈이 도망하지 않음은 용(勇)이요, 몸에 옷칠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함은 신(信)과 의요, 쇠주둥이로 민첩히 묻고 대답함은 지(智)와 변(變)이요, 붙들어 모심을 직책으로 함은 인과 예요,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함은 정(正)과 명(明)이다. 이 여러 미덕을 모아 길이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성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 어찌 내가 너를 부릴 것이냐. 나는 이 중의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의 친구라도 마땅하지 않거늘, 하물며 스승이 될 수 있으랴. 화도에 또 화란 이름을 가진 산이 있는데, 각암이라는 늙은 화상이 그 산에 머무른 지 이미 이 년이다. 산은 비록 이름이 같으나 사람은 덕이 같지 않으니, 하늘이 그대를 가라고 명한 것은 이곳이 아니요, 대개 그곳이리라. 그대는 그리로 갈지이다.” 하고, 이어 노래를 불러 보내기를, “정아, 성큼성큼 각암의 뜰로 가거라. 나는 여기서 밖과 오이처럼 매여 사는 몸, 너 정(丁)만 못하구나.” 하였다. ▶ 정시자를 예찬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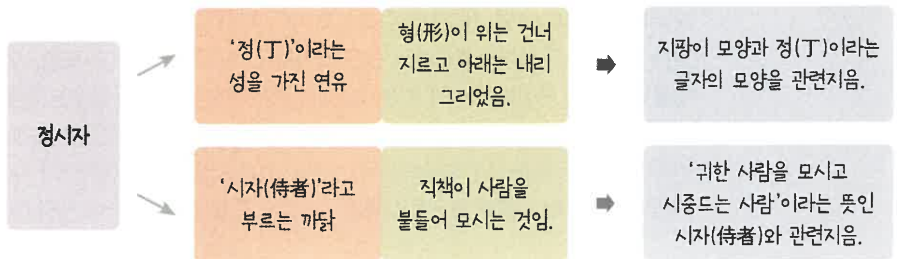
- * 범씨의 ~ 옷칠하는 기술: 진나라의 예양이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 옷칠을 하였던 고사를 이룸.
- * 조로: 말을 잘하여 '쇠주둥이'라고 불렸던,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 조주를 칭함.
- *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 전국 시대 웅변가 소대가 한 말. 토우가 목우에게 '나는 본래 흙으로 된 것이라 풀어져서 고향인 흙으로 가지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나면 너는 물에 떠서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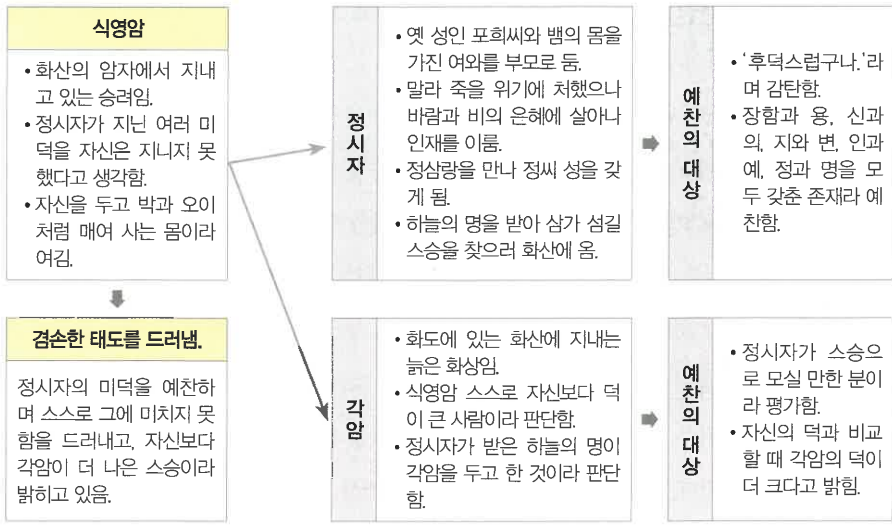


지팡이를 의인화한 가전(假傳) 문항 1 관련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의인화한 가전으로, '정(丁)이라는 성씨는 지팡이의 외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가)에 언급된 도입부, 즉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정시자의 대답을 통해 '정시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가계가 밝혀지고 있으며, 정시자의 대답을 듣고 정시자를 예찬하는 식영암의 말로 작품이 종결된다. 지팡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가전을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허구적 성격이 바탕에 깔려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시자전」에 언급된 세 인물 **문항 2**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가전체 소설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를 우회적으로 다루는 문체로 쓴 소설 작품들로, 가전 또는 가전체라고도 부른다. 흔히 임춘의 「국순전」을 최초의 작품으로 보며, 고려 중, 후엽에 크게 유행하였다.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사물의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드러내면서 비평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풍자성과 포폄(讚고 그르거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의식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았기에 그 가계와 생애, 성품과 공과 등이 허구적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물에 얽힌 여러 전례와 고사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된 고사와 관습 어구는 현학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EBS Q&A

Q. 전기적 성격의 글에서 허구성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문항 3** 관련

A. 모든 전기(傳記) 작품이 허구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물의 생애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술하다 보면, 서술자가 강조하고 싶은 특징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또한, 서술자가 주목한 대상 인물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작은 일화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초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假傳)의 경우 사물을 의인화한 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가전은 서술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허구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학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북학파의 대표 학자 중 하나인 박제가가 지은 짧은 자서전에 해당한다. 자신에 대한 간소한 '전기'라는 점에서 '소전'이라 이름을 붙였다.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관향과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의 역사 인식과 국제적 시각, 이름과 호를 짓게 된 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자신의 외모를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로 묘사하며 청빈함과 고매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품에 대한 자긍심과 포부를 밝히고 자신의 관심과 깨달은 바를 드러낸 후 스스로를 찬(讚)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7세의 박제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전의 형식을 빌려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예찬함.

그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째 되던 해, 압록강 동편으로 1천여 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향이다.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취해 제가라 이름 짓고, 『이소』에 들어 있는 노래 「초사」에 의탁하여 호를 초정이라 하였다.
▶ 그의 이름과 호, 관향 등을 서술함.

그의 사람됨은 이리하다.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하였다. 그런 까닭에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 그의 외양을 묘사함. ▶ 그의 성품을 드러냄.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하였다.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일에는 무심하였으며,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하였다. 백세 이전의 사람들과 흥금을 트고, 그 뜻은 만 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 그의 학문 수양 과정과 학문적 목표를 제시함. ▶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크고 넓은 뜻을 지니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 새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아득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서리와 이슬, 날마다 변화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욱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으니, 말로는 그 정상(情狀)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 그의 사람됨을 밝히며 가치관과 학문적 태도를 드러냄.

아아! 형체만 남기고 가 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찬(贊)한다.
▶ 그를 예찬하며 마무리함. ▶ 그에 대한 예찬으로 마무리함. 「소전」 원문에는 그를 예찬하는 삽입사가 있지만 본 지문에서는 생략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것만은
꼭
약하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작가 박제가가 바라본 자신의 삶 **문항 4 관련**

출생 배경

- 조선 개국 384년, 압록강 동편 1천여 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남.
- 조상은 신라 사람이고, 관향은 밀양인.

학문 수양 과정(학문에 대한 자세)

- 어려서부터 문장가의 글을 배움.
-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배우려 함.
- 고명한 일에 마음을 두고 세상일에 무심함.
-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높은 뜻을 세움.

사람됨

-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가짐.
- 고고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권세 있는 자를 멀리함.

탐구와 깨달음

- 날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함.
-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아쉬워함.

작가 스스로 자신의 생애와 행적을 '찬'하며 글을 마무리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소전」의 마지막에 삽입된 시
(다)의 마지막 문장 '찬한다' 뒤에는 다음과 같은 찬시(讚詩)가 덧붙는다.

<p>죽백에 기록하고 그림으로 모시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 멀어지리. 하물며 자연에서 정화(精華)를 다 빼놓고 누구나 떠드는 진부한 말 모은다면 어찌 썩지 않음이 있겠는가 대저 전(傳)이란 전한다는 뜻이다.</p>	<p>비록 그의 조예를 다 드러내고 그 품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해도 완전히 특정한 한 사람일 뿐 그저 그런 천만 사람이 이념을 알게 한 뒤라야 아득한 세상 하늘 끝에 가거나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마다 나를 만나 보게 되리라</p>
--	--

EBS
Q&A

Q.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다)와 어떻게 연결 지으면 좋을까요? **문항 4 관련**

A. 「소전」은 박제가가 자신을 객관화하여 기술한 자서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삶을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지만, 전기(傳記)의 형식을 빌려 작품을 구성해야 했기에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향'이라고 가계를 밝혔던 것입니다. 전기 형식을 빌리기로 한 박제가의 자기 자신을 대상 인물인 '그'로 표현하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화 중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작가와 관련된 정보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박제가가 「소전」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자신의 성품이나 특징을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계절의 순환에 대응시켜 강호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표현한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흥취를 대표하는 소재를 배치하면서도 네 수를 형식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맹사성은 잠깐 동안 벼슬에서 물러난 적은 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오랜 관직 생활을 마무리한 조선 초기의 사대부이다. 정확한 창작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강호에서 은거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강호가도 계절의 작품 중에서도 형성 초기의 작품들을 대표한다.

주제

강호에서 노니는 사계절의 즐거움

계절적 배경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강과 호수 자연을 나타냄. 현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탁료(濁醪)* 계변(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서로 인정해 있는 사물의 이미지 제시 영탄적 어조

이 몸이 한가(閑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춘사>

유교적 중의 사상 ▶ 춘사: 시냇가에서 즐기는 봄날의 흥취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계절적 배경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사물의 인격화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부각함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하사>

여름이지만 서늘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함.

▶ 하사: 초당에서 바람을 즐기는 여름날의 흥취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계절적 배경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추사>

<춘사>의 '한가해움'과 의미상 상통함. ▶ 추사: 배를 띄우고 노니는 가을날의 흥취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 넘다

계절적 배경

(삿갓) 빗기 쓰고 누역(纒纒)*으로 옷을 삼아

○: 눈 내린 겨울날에도 외출을 하며 강호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을 보여 줌.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동사>

겨울이지만 춥지 않게 지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함.

▶ 동사: 눈 속에서 보내는 겨울날의 흥취

- * 탁료: 막걸리
- * 역군은(亦君恩):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 * 초당: 별채로 지은 초가집
- * 누역: 비나 눈을 막기 위해 벗집 등으로 만들어 입는 도롱이.

현대어 풀이

<춘사>

강호에 봄이 드니 깊은 흥이 절로 난다.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하사>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신의 있는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추사>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이 올랐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가 물결따라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며 보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동사>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한 자 넘는다. 삿갓을 빗겨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으니 이 몸이 춥지 아니하게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역군은(亦君恩)이샀다'라며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강호사시」의 형식적 통일성 **문항 2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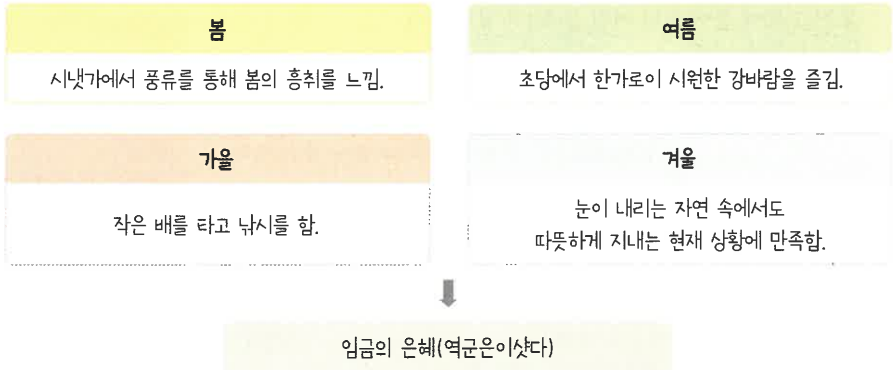


〈춘사〉 ~ 〈동사〉가 초장과 종장에서 동일한 구조의 표현을 되풀이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그에 맞는 흥취를, 종장에서는 계절에 따른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종장에서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삶의 모습을 집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포인트
2

유교적 충의 사상

화자는 자연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임을 노래하며 유교적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EBS
Q&A

Q. 여러 고전 시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군은이삿다’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A. 「강호사시」의 명시적인 주제는 ‘역군은이삿다’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작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시조에서만 아니라 궁중 음악인 악장 「감군은(感君恩)」에서도 나타나고, 송순의 가사 「면양정가(俛仰亭歌)」나 『악장가사』에 실린 「어부가」 등에서도 시상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두루 나타납니다.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당대에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상투적인 구절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라는 뜻에 주목해 보면 임금에 대한 아침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지 이렇게 보는 것은 표면적인 뜻만 살핀 결과라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그중에서도 조선 전기에는 “천하의 모든 땅이 왕토 아님이 없고, 모든 백성들이 왕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는 것[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民 莫非王臣]”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절대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모두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역군은이삿다’로 시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강호의 세계와 정치 현실의 세계가 모두 군은(君恩)이 베푸는 하나의 질서 안에 존재한다는 인식, 그리고 강호의 삶과 정치 현실의 삶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연속과 합일의 관계에 있다는 낙관적 세계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정극인이 만년(晩年)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태인에 거처하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사이다. 화자가 자연에 머물며 봄을 맞이한 정취를 그려 내고 있다. 제목인 '상춘곡'은 봄을 기리는 노래라는 뜻이다. 봄철에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모두 동원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본사에 해당된다.

주제

봄철의 풍경에 대한 예찬과 흥취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적 배경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 봄의 아름다운 경치 묘사(시각적 이미지), 대구법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낸가

자연의 아름다운 강조, 영탄법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현사롭다*

청각적 이미지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봄 흥취에 겨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봄의 아름다운 경치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興)이에 다름쓰나

설인법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홀로 즐기는 봄날의 한가로운 흥취

이봐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이웃들에게 함께 산수 구경 갈 것을 권유함

답청(踏青)일랑 오늘 하고 욕기(浴沂)일랑 내일 하세

대구법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꺾어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두건으로 술을 거르는 화자의 소탈한 성품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놓고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후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대구법

준중(樽中)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소동(小童) 아해더러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데고 /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桃花)로다

복숭아꽃, 무릉도원을 연상시킴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산이 거기인고

무릉도원, 이상향

▶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봄날의 취흥

* 조화신공(造化神功): 각기의 사물에 불어넣은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덕.

* 현사롭다: 아단스럽다.

현대어 풀이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덕이 사물마다 아단스럽다.
숲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내는 소리마다 아양을 부리는 모습이로구나.
물아일체이니 흥이 다르겠느냐.
시립문 주변을 걸어 보고 정자에도 앉아 보니
술을 거닐며 시를 읊조리는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에 차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져구나.
풀 밟기는 오늘 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아이에게 일러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데고
천천히 거닐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흐르는 맑은 물에 잔 씻어 들고
맑은 시내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문제 해결 키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봄 경치를 만끽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풍류적 태도를 보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상춘곡」 속 봄날의 풍경 **문항 3 관련**
 「상춘곡」 속에는 봄날의 다양한 광경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봄날의 흥취를 자아내는 풍경
도화행화(桃花杏花), 녹양방초(綠楊芳草)
봄날을 즐기는 일상
답청(踏青), 욕기(浴沂), 채산(採山), 조수(釣水)
봄바람에 의해 촉발된 풍경
청향(清香), 낙홍(落紅)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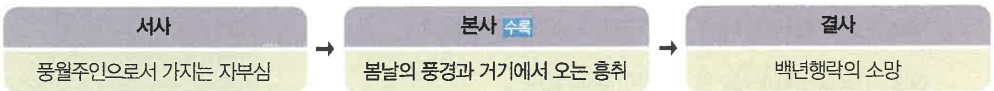
「상춘곡」의 강호기도

- 「상춘곡」에는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음.
- 송순의 「면양정가」나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 작품들에서는,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기쁨을 '군은(君恩)으로 돌리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냄. 하지만 「상춘곡」에서는 '군은(君恩)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상춘곡」의 전체 구조

「상춘곡」은 정극인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가사로, 전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상춘곡」 내 공간의 이동

「상춘곡」은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동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EBS Q&A

Q. '수들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에서 '새'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화자가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객관화하려는 창작 기법입니다. 이때,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은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될 수도 있고 대비될 수도 있습니다. 「상춘곡」에서의 '새'는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으며, 고대 가요 「황조가」의 '피꼬리'는 화자의 감정에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조가

피꼬리는 오락가락	翩翩黃鳥(편편황조)
암수 서로 정다운데	雌雄相依(지웅상의)
외로운 이내 몸은	念我之獨(염아지독)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誰其與歸(수기어귀)

감상 포인트

이 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곧은 나무가 알고 보면 곡목, 즉 굽은 나무였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행세하는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굽을 수도 있는 나무와 오직 곧기만 한 인간의 천성을 대비하여 바른 도를 소유하지 못한 조정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른 사태에 전이시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說) 양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글쓴이와 이웃에 사는 사람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나무의 속성에 견주어 본 인간 세태

이웃에 장생(張生)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장차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재목을 구하였는데 **뻥뻥이 들어 찬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재목을 구하려는 이유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 곧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나무 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로고 왼쪽에서 보아도 **쭈뼛** 유일하게 재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나무 으며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하였다. 그래서 좋은 재목이라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져 쓸 수 없는 나무였다.** 곧은 줄 알았던 나무가 알고 보니 굽은 나무였음. 이에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기를, / “아, 재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무가 곧은 것인지 굽은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움. 그 말을 들어 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삼가며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급기야 큰 번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마니, 국가가 결판나고 마는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사람은 더욱 더 판단하기가 어려움. 결과 속이 다른(표리부동) 조정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 의식

대저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건대,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귀에 의해 해침을 받지 않는 채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뻥뻥으로 커 나가니 쭈뼛 뻥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그만**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나무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방해하는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지게 자라는 경우가 있음.**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물욕(物欲)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利害)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天性)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는 많고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인간의 경우 그 주변의 많은 방해 요인으로 인해 곧은 자가 많지 않음. ▶ 장생의 말: 굽은 나무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 하고는 마침내 이 일을 장자(張子)*에게 이야기하였다. 장자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이러하였다.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 역시 해 줄 말이 있다. 「홍범(洪範)」에서 오행(五行)을 논할 때 **목(木)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曲] 바르다[直] 하였다.** 그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목으로는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지만 하나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히 환란을 면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속성: 바르지만 함. 그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라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곧지 않은 나무는 쓰지 않아도, 곧지 않은 인간은 등용하는 인간사 비판

자네도 큰 건물을 한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서까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재목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公卿)과 사대부(士大夫)로서 화려한 관복(官服)을 입고는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道)를 소유한 자는 보지를 못하였다.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公侯)에 봉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말을 통해서 도 곡사(曲士)가 곡목(曲木)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자: 글쓴이인 장유 자신을 가리킴

▶ 장자의 말: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굽은 나무와 달리 위선적인 사람을 인재로 쓰는 조정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나무의 본성을 바라보는 장생과 장자의 관점이 다름. 나무의 본성을 장생은 곧은 것으로 보지만, 장자는 곧을 수도 있고 곧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나무의 본성에 대한 장생과 장자의 서로 다른 관점 문항 4 관련

장생	장자
<p>나무의 본성은 곧음. (나무의 생장 과정을 ~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 서 밤낮으로 커 나가니 쪽쪽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p>	<p>나무의 본성은 곧을 수도 있고, 곧지 않을 수도 있음. (「홍범(洪範)」에서 오행(五行)을 논할 때 목(木)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曲] 바르다[直] 하였다.)</p>

포인트 2

서술상의 특징

-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른 사태에 전이시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說) 양식의 구조를 취함.
- 글쓴이와 이웃에 사는 사람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함.
- 인간이 재목을 고를 때와 관료를 등용할 때를 대비하며, 그 과정에서 교훈을 이끌어 냄.

나무	인간
조금이라도 굽은 나무는 재목으로 활용하지 않음.	굽은(위선적인) 인간이 조정의 관료가 되어 곧은 인간보다 득세함.

위선적인 인간이 인재로 등용되는 세태 비판

EBS Q&A

Q. 「곡목설」은 설의 양식을 취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효과가 있나?

A. 설(說)은 일반적으로 작가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글입니다. 대부분 2단 혹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에서는 체험이 드러나며 뒷부분에서는 이와 관련된 작가의 주장이 드러납니다. 「곡목설」은 이러한 설(說)의 양식을 취하면서도 작가(장자)와 장생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형식을 통해 독자들은 장생의 입장에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헤어져 있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화자의 한탄을 읊은 사실시조이다. 잠을 깨어 보니 등불만 있다는 표현에서 어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는 것으로 추측된다. 종장의 마지막 구절과 종장에는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주제

입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입에 대한 원망(怨望)

산은 적적 월황혼(月黃昏)에 두견 울어도 입 생각이요 밤은 침침

늦은 밤에도 오로지 입을 생각하고 있음. 대구법

야삼경(夜三更)에 접동이 울어도 입 생각이라

침상편시춘몽중* 하여 배개 위에 빌은 잠은 계명축시(鷄鳴丑時)*

▶ 초장: 밤에 느끼는 입에 대한 그리움

에 놀라 깨니 입의 흔적은 간곳없고 다만 등불만이로다. 그러대로 「식

꿈에서 잠시 입을 만났지만 깨어 보니 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음.

불감미(食不甘味)* 하여 밥 못 먹고 침불안석(寢不安席)* 하여 잠 못

「」;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청하지도 못한.

자며 장장지야(長長之夜)를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獨對) 등축(燈燭)

으로 벼을 삼으니, 뉘 탓을 삼으랴. 설분(雪憤)을 하잔 말가

▶ 중장: 꿈에 잠깐 만난 입으로 인한 고통

주야장천(晝夜長天)에 믿을 곳 없어서 못 살겠구나

입에 대한 믿음도 사라짐. 「

▶ 종장: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

* 침상편시춘몽중(枕上片時春夢中): 침상에서 잠시 봄꿈을 꾸는 중.

* 계명축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새벽 시간.

* 식불감미: 근심과 걱정으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음.

* 침불안석: 걱정이 많아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한.

현대어 풀이

산은 적적한데 황혼에 두견새가 울어도 입 생각이요, 밤은 침침하고 새벽에 접동새가 울어도 입 생각이라.

침상에서 잠시 꾸는 봄꿈은 새벽에 놀라 깨니 입의 흔적은 간 곳 없고 다만 등불만이로구나. 그러매 근심 걱정으로 밥을 못 먹고 잠도 편히 못 자니, 길고 긴 밤을 허송하게 보내며 등불과 촛불을 벼로 삼으니 뉘 탓을 하겠느냐. 분풀이를 하잔 말인가. 주야장천에 믿을 곳이 없어서 못 살겠구나.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작품은 '월황혼(月黃昏)', '야삼경(夜三更)', '계명축시(鷄鳴丑時)' 등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어가 두드러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월황혼(月黃昏)', '야삼경(夜三更)', '계명축시(鷄鳴丑時)'
형각적 이미지의 사용	'두견 울어도', '접동이 울어도'

포인트 2

'꿈'의 의미 문항 4 관련

화자는 입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는 입을 그리워한다. 화자가 입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꿈은 잠시나마 화자와 입을 만나게 해 주는 장치면서, 결국 입과의 재회가 현실이 아님을 부각해 주는 것으로 화자의 고독감을 증폭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입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비교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화자가 있는 한편, 입과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약하는 시조도 있다.

뫼뻬들 갈혀 거거 보내노라 님의손더
자시는 창(窓)밖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님굿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현대어 풀이

뫼뻬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입에게로
주무시는 방의 창밖에 심어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잎이라도 나가든 나를 본 것처럼 여기쇼셔.

→ 이 작품은 기생 홍량이 입에게 온전히 바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뫼뻬들을 정성스럽게 골라 꺾어 멀리 있는 입에게 보내는 행위는 입을 향한 화자의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기약을 의미한다. 이때 뫼뻬들은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생 신분으로서 입과 맺는 연인 관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창안이 아닌 창밖이라는 공간적 제한으로 형상화된다. 그럼에도 뫼뻬들에 새잎이 나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염원한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정조 무렵에 대전별감이라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횡령 사건을 일으켜 추자도로 유배를 간 작가의 실제 경험을 담아낸 장편의 기사이다. 유배지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배되어 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까지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소회를 다양한 수사를 섞어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유배지에서 동냥을 해서 귀가하는 대목과 새해를 맞이하여 느끼는 소회를 읊은 대목이다.

주제

유배지에서 겪는 고난과 사향(思鄕)

그렇저렇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워

동냥을 통해 보리를 얻음. 화자가 스스로 보리를 지고 감.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유배를 온 신세이기에 짐을 들고 갈 노비가 없음.

갓은 숙여 지러니와 홀중치막* 어찌할꼬

주변머리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라

넓은 소매 구겨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둥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 자신이 동냥을 하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라고 있음(현실 부정). 대구법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웁는 듯

대구법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등짐을 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넘어질 것 같음.

머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침배(汗出沾背)하는고야

자신의 처지가 몹시 민망하고 창피하여 땀이 남.

저 주인 거동 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집주인이 등짐을 지고 오는 화자의 모습을 보고 비웃음.

양반도 하릴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 양반의 신분으로 동냥하고 짐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비꼬는 모습. 대구법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 익숙하지 않은 노동의 고통

유배 온 자신에 대한 집주인의 조롱

(중략)

예 못 보던 네모반에 수저 갖추어 장 김치에

「. 설을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풍성한 밥상을 받음.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 토막 풍성하다.

그래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 설날 아침의 풍성함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격년사(隔年事) 되었구나

유배 온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남.

어와 섭섭하다 정초(正初) 문안 섭섭하다

복당 쌍친(雙親)이 백발이 더하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

현대어 풀이

그렇저렇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워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아무튼 한 번
저 보리라.

갓은 숙여지지만 입은 홀중치막은 거추장
스러워 어이할까.

주변머리가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 할 것인가.
넓은 소매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 않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
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높은 상전 집에 출입을 하는 것같이 등에서
땀이 나는구나.

저 주인 의 거동을 보소. 코웃음으로 비웃으며
양반도 소용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한 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네. 등짐까지
지셨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소.

(중략)

예전에 못 보던 네모진 상에 수저까지 갖추
고서 김치에

쌀밥이 수북하고 생선 토막도 풍성하구나.
그래도 설이로다. 배가 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인 줄 알았더니
내 이별과 내 고생이 일 년 전의 일이 되었
구나.

아아 섭섭하다. 정초의 문안 인사가 섭섭하
다.

복당 부모님의 백발이 얼마나 더 느셨고

공규(空閨) 화조(花朝)는 얼마나 늦었고

아내에 대한 걱정

오 세에 떠난 자식 육 세 아이 되었구나

고향에 있는 자식에 대한 생각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설움은 서럽다 하리

자신의 서러움을 강조함

천리일별(千里一別)¹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一字) 가신(家信)을 꿈에나 들었을까

유배 온 이후로 집안의 소식을 듣지 못함

운산(雲山)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 집안 소식을 가로막는 장애물

대구법

의창전(依窓前)^{*} 한매(寒梅)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 설날 아침에 떠올리는 향수

바닷길 일천 리²가 멀기도 하려니와

약수(弱水) 삼천 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이들과는 달리 자신은 온전히 고립 되었음. '청조'와 '기러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 '오작'은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다리를 놓는 새라는 관습적 인식이 있었음.

내 가신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라

흐르나니 눈물이요 짓나니 한숨이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있음.

눈물인들 한(限)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 고립된 자신의 처지로 인한 슬픔을 강조함. 과장법, 대구법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 날 제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함.

▶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고통

* 중치막: 남자들이 입는 소매가 넓고 긴 옷.

* 의창전: 창 앞에 기대어 있음.

현대어 풀이

아내의 텅 빈 방 안의 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다섯 살에 떠난 자식 여섯 살이 되었구나.

내가 아니라 임이라도 내 서러움을 보면 서럽다 하리라.

한번 천 리 밖으로 이별하여 벌써 해가 바뀌도록

한 자의 집안 소식을 행여 꿈에서나 들었을까. 구름과 산이 막힌 듯 강과 바다가 가린 듯

창 앞에 서 있는 매화 소식 물어볼 길이 전혀 없구나.

바닷길 천 리가 멀기도 하겠지만

약수 삼천리에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구만리 은하수에도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고

북해의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오기도 하는데

나의 집안 소식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막혔는가.

꿈에서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다는

원수 같은 잠이 올 때 꿈인들 꾸지 않으랴.

흐르는 것이 눈물이요 짓는 것이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계가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나의 눈물은 모였으면 추자도가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리니.

바닷가에 해가 떨어지고 어촌에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문제 해결기 문항 1 관련

수능특강에 수록된 부분은 유배지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가족과의 단절에서 비롯한 그리움이 부각되고 있음. 이 작품에서는 '천리일별', '바닷길 일천 리'와 같이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단절감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만언사」

- 자연물의 심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함.
- 특정한 절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화자의 정서적 상황을 부각함.
- 일상적 어휘와 대구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동남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냄.
- 인물의 발화를 인용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제시함.

포인트 2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심리의 대비 **문항 2 관련**

설날을 맞아 맛있는 음식이 풍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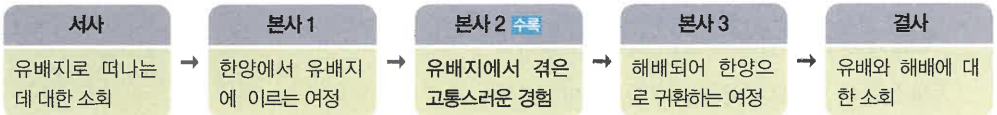
새들은 때를 정해 자유롭게 오고감.
- 청조와 기러기는 소식을 전함.
- 오작은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의 상봉을 가능하게 함.

타향에서 홀로 설을 쇠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함.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과 소식을 주고 받을 수도 없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만언사」의 전체 구성



■ 「만언사」의 작가

「만언사」의 작가는 이본에 따라 안도은, 안도안, 안조환, 안도환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의 1781년 정조 5년 4월 6일 기록에 의하면 ‘죄인 안도환을 추자도에 정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만언사」에 언급된 유배 시기와 안도환의 유배 시기가 일치하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언사」의 작가를 대개 ‘안도환’으로 본다.

EBS Q&A

Q. 「원수의 잠이 울 제 꿈인들 아니 꾸라」에서 ‘원수의 잠’은 무슨 의미인가? **문항 4 관련**

A. 「문항 4」는 <보기>를 참고하여 ‘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화자는 유배지에 고립되어 가족들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화자가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사리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전 시가의 보편적 표현 관습을 고려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잠이 들어야 꿈에서 가족을 볼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들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의 역설을 화자는 ‘원수의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글은 성현이 편찬한 『용재총화』에 실린 이야기로서, 제목은 출제진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세 선비가 꿈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전을 보여 준다. 꿈 이야기의 표면에 드러난 관습적인 의미를 뒤집어서 정반대 방향의 의미로 풀어냄으로써 꿈의 예언적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꿈의 표면적인 의미를 뒤집는 해몽

옛날에 유생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한 사람은 거울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한 사람은 애부(艾夫)가 문 위에 걸린 꿈을, 또 한 사람은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세 사람이 해몽하는 사람 집으로 갔는데, 해몽하는 사람은 집에 없고 그의 아들만 있었다. 세 사람이 아들에게 꿈을 물으니 해몽하기를, “세 가지 모두 불길한 것들이니,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금 이따가 해몽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아들을 꾸짖고 시를 지어 주었다.

▶ 해몽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 선비의 꿈을 관습적인 의미로 풀이함.

아이들이 해몽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

애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요
거울이 떨어지면 어찌 소리가 없겠는가
꽃이 떨어지니 응당 열매가 있을 것이니
세 분이 함께 명성을 얻으리로다

艾夫人所望
애부인소망
鏡落豈無聲
경락기무성
花落應有實
화락응유실
三人共成名
삼인공성명

▶ 해몽하는 사람은 관습적인 의미와 정반대로 꿈을 풀이함.

세 사람이 과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 해몽하는 사람이 세 선비들이 꾸는 꿈으로 미래를 예언함.

* 애부: 집이나 형견 등으로 만든 인간 형상의 물체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해몽하는 방법의 차이 **문항 3 관련**

꿈의 내용	아들	해몽하는 사람
거울이 땅에 떨어짐	모두 불길한 징조이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	거울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를 잔치의 분위기로 볼 수 있음.
애부가 문 위에 걸림		문 위에 걸린 애부를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음.
바람에 꽃이 떨어짐		꽃이 지면 열매를 맺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몽자류 소설과 몽유록계 소설

	몽자류 소설	몽유록계 소설
구조	현실 - (입몽) → 꿈 - (각몽) → 현실	
꿈과 현실의 관계	현실과 꿈은 별개(꿈에서 새로운 인물로 탄생)	현실과 꿈의 연속(꿈속에서도 동일한 인물)
꿈의 기능	현실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	현실 비판의 공간
꿈의 내용의 성격	서사성이 강함.	교술성이 강함.
대표 작품	김만중, 『구운몽』	임제, 『원생몽유록』

감상 포인트

이 글은 문학 작품이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문학은 삶과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혹은 그것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다룸으로써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설 「고가」와 시 「산은 알고 있다」를 예로 들어 그러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고가」는 전쟁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어 오던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은 알고 있다」는 자연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역사적 경험과 분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경험의 특징

전쟁이나 억압적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인 경험은 문학 작품들이 주목하는 소재가 되곤 한다. 신문 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문학 작품은 그 사실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때로는 그 사실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진실들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학 작품들이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경험들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 반성을 위해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됨.는 문학 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을 그려 내기만 하기보다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삶을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이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소설 한 편과 1960년대의 시 한 편을 예로 들어 확인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이 역사적 경험을 형상화하는 방식

1950년대의 문학 작품들은 전쟁 자체에 주목하여 그것이 가져온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이 파괴됨으로써 겪게 되는 물질적 피해나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 전쟁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혹은 전쟁이 없어도 문제가 되었을 전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쟁의 앞뒤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것 한 작품도 있었다. 정한숙의 소설 「고가(古家)」는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나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측면 사회적·문화적 가치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재적인 요인들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합의의 측면 전쟁 전부터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쟁이 가져온 폐해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작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향으로 그려질 수 있는 이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전쟁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 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 또한 전쟁 이후에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에 관심을 갖는 소설

1960년대의 문학 작품들은 4·19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하게 보이기도 한다. 산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된 경험 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시인 신석정의 시 「산은 알고 있다」는 현실 도피를 위한 이상향으로서 현실에 대한 관심은 드러내지 않은 채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간만을 제시함으로써 형상화하는 이상향 의 자연을 그리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오랜 역사를 겪어 온 산을 인간에 비해 영속성을 가진 존재로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향으로 그려질 수 있는 이유 그렸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산은 인간의 현실은 잊은 채 자연에 귀의하여 사는 삶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며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이상향을 만들어 가고자 기울이는 현재의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시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연물을 통해서도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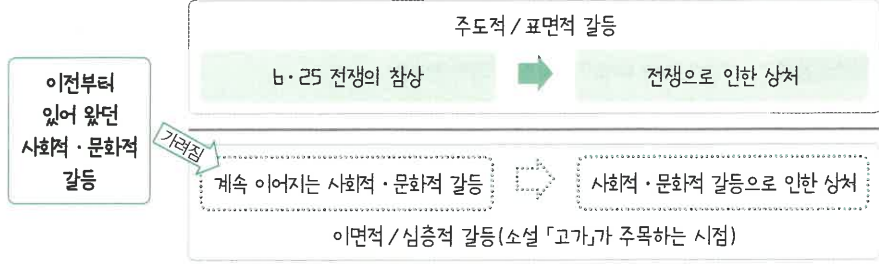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과 가려진 진실 문항 1 관련

-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한편으로는 화합을 이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한 시대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갈등은 포착하기 어렵지 않지만, 다른 갈등들은 주도적인 갈등에 가려지기도 함.
-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가려진 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임.



포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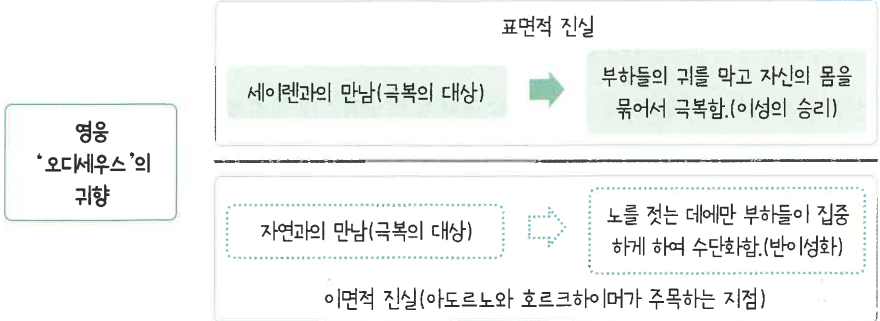
외면의 이상향과 직시(直視)의 이상향 문항 5 관련

- 이상향은 유토피아(utopi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없는(u) 장소(topia)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함.
-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와 과거의 기억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음.
- 이상적인 공간이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곳의 일들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생각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비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지금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
- 비판적 시각과 해결을 위한 실천은 이 세상을 버리고 따로 존재하는 이상향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나마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현상 이면의 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

감추어진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문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물리적 현상 뒤에 감추어진 원리, 사회적 문제 뒤에 감추어진 근본 원인, 영웅적인 이야기 뒤에 감추어진 한계 등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웅적인 이야기 뒤에 감추어진 한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인물의 예로는 아도르노(T.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배를 타고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세이렌의 위험을 극복하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이렌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막고 자신을 묶어 두게 지시함으로써 현명하게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러한 현상 이면에 자연을 극복하면서도 스스로의 귀를 막고 몸을 묶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수단화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음에 주목한다. 이는 현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고도화가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스스로를 다시 반이성적인 상황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변화의 계기를 6·25 전쟁 이전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인공 필재는 종가의 자손이지만 6·25 전쟁 이전부터 가치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종가의 권위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변화를 염망한다.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역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주제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킨 '종가'의 존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재'는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신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해방 후 필재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재의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 운동을 한다. 태식이 종가의 나무를 베어 팔아 버리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이 이루어지자 태식은 필재가 흠모하던 길녀와 함께 떠난다.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 종가의 사람들은 다시 종가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필재에게 서울에서 내려올 것과 함께 지역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하지만, 필재는 종가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종가를 팔아 버릴 다짐을 한다.

[앞부분 줄거리]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재는 일제 강점기이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해방 후 필재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재의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 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 나무들을 베어 팔아 버린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필재가 흠모하던 길녀도 좌익 운동에 가담한다.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태식은 길녀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재의 할머니가 거처하던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태식'이 자신을 온전한 후손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은 종가에 표한 분노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기를 펴지 못해야만 했다.
 필재가 속한 문종의 사람들 ▶ 수복된 마을과 종가의 세력 회복
 필재에게는 그것이 싫었다. 서로 핏고 짝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필재는 무슨 영문인지 골로 붙잡혀 갔다. / 태식으로 인하여 어떤 혐의를 받고 불러 갔을 뿐이었다.
 전쟁 전부터 태식과 가깝게 지내던 상황으로 인해 받은 혐의
 그래도 필재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그의 눈에선 인천 눈물이 고갈된 듯싶었다.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을 위하여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필재는 가슴이 또다시 종가가 오랜 기간 동안 집안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기에 필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을 드러냄.
 무너지는 것같이 문물거렸고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흘렀다.

필재는 더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종친(宗親)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 버리고 말았다.
 ▶ 종가의 피해자로서의 어머니

필재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타다 남은 백여 칸의 집과 거기에 소속된 대지 등을 말짱스레 정리해 버릴 결심으로 내려온 것이다.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재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종가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필재의 운신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 주며 야단법석들이다. / 그러나 필재로서는 이 늙은이들이 전쟁 중에도 변화하지 않은 종가의 문화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실거리며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피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다 우스운 일이다.

필재가 내려온 지 이삼일 후, 이번엔 필재가 집을 정리하러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은 물 끓듯 수군거렸다.

▶ 종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필재

드디어는 필재의 집 사랑방에서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열어야만 했다.

오륙십 명 모여든 그들은 자기들이 돈 백만 환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영리한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진 몰라도 필재에겐 모두가 달갑질 않았다.

그래도 필재는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질 않았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느냐고까지 호소하는 것이었다.

필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득의 근거

임진, 동학 양란에 이 집이 온통 불구덩이가 되었던 것을 선조

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재는 짐작할 수 있었다. / 선조들이 그렇게

가문의 부와 영향력을 키워 나갈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에, 동학 농민 운동은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임. 필재의 가문이 그때부터도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죽음이 많이 생겼거늘 필재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 대는 틈바구니에 앉아서도 필재는 종가와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문중의 노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필재의 모습

“여보게, 두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 그래서 내후년엔 여기서 출마를 하게. 장동 김씨도 한번 불호령하고 살아 봐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 주었으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 성미가 괘괄한 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두말 말고 내려와 입후보를 하라는 것이었다.

▶ 필재를 설득하여 종가를 이어 가려고 하는 문중의 사람들

그러나 필재에겐 모두가 귓등으로만 들리는 소리였다.

밤새껏 앉아 그들의 소리를 들어 봤댔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필재에겐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부터 정치엔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 쳐 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 / 종파(宗派)를 나누고 문중(門中)을 따지고, 모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해서 벌어진 것 같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필재 자기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녀인 것만 같았다. / 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시킬 순 없었다.

서울이라는 지역에 눈에 밝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당대의 인식이 일부 반영됨

종가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일

필재는 끝끝내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곤 밖으로 나와 버렸다.

“종가를 팔아 치운다는 것은 도의상 안됐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겠소…….”

근대적 신문물의 영향으로 필재가 갖추게 된 거점의 근거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기어코 쓰아붙였던 것이었다. / 오십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별안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녀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다.

수목이란 수목이 모조리 잘려 나간 넓은 뜰엔 아직도 뾰대고 고집만을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古家)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 종가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필재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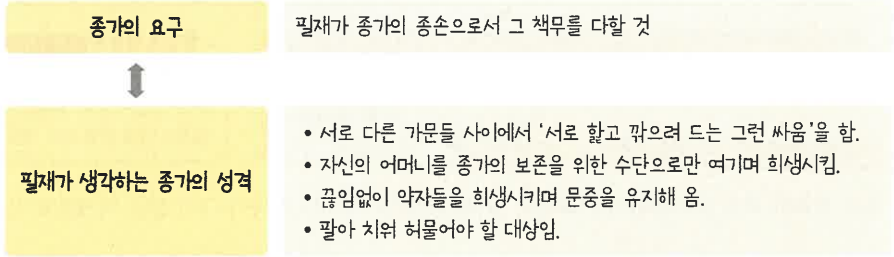


인물들 사이의 관계 문항 1 관련

할아버지와 숙부	할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져 오는 문화를 고수하려는 한편, 숙부는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필재도 그 흐름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
필재와 종가 노인들	필재는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는, 종가의 존속을 위한 움직임이 슬한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노인들은 자신들의 종파와 문중이 종가를 존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필재와 태식	필재는 종가의 종손이고, 태식은 할아버지와 첩 사이의 자식이기에 온전한 후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함. 문중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재와 태식은 충분히 갈등의 관계에 놓일 수 있음. 그러나 필재는 문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태식을 바라보기에 비록 신분이나 추구하는 이념의 측면에서는 서로 대립의 관계에 놓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식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종가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게 됨.



필재가 종가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 문항 2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전쟁의 참상에 주목한 작품들

정한숙의 「고가」는 전쟁 그 자체의 참상보다 전쟁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회적·문화적 모순과 갈등이 여전히 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쟁은 그것을 드러내 주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 자체가 가볍게만 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작품은 커다란 참상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 이면에 이어져 오는 모순과 갈등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을 보여 준다. 전쟁 그 자체의 폐해에 주목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박병우의 시 「휴전선」	'유혈', '독사의 허같이 징그러운 비람', '모진 겨우살이' 등의 표현으로 전쟁의 참상을 표현함.
구상의 시 「초토의 시 3」	전쟁이 지나간 자리의 흔적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며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함.
이청준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	전쟁 이후 겪게 되는 트라우미를 다루며 그 원인은 전쟁 중 겪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에 있었음.

■ 종가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인'의 목적

이 작품에서 종가의 사람들은 필재로 하여금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게 함으로써 문중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아가고자 한다.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큰 변화를 겪는데, 종가의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 또한 자신들의 문중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동 김씨도 불호령 한번 하고 살아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 Q&A

Q.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문항 4 관련

A.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만큼 인물의 성격도 평면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태식'이나 '길녀' 또한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신분이나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그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을 둘러싼 갈등의 축은 전쟁의 축도 있지만 '종가'로 대표되는 신분제와 문벌의 축도 있기에 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목가적 서정시를 써 온 시인으로 알려진 신석정의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며 역사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을 염원함과 동시에 그 흐름에 모두가 동참하여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제

역사에 대한 기록과 증인 의식에 대한 동참

산은 어찌 보면 운무(雲霧)*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 온 피물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
 『 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1연: 역사의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는 산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 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 줌.
 ▶ 2연: 장구한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산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머금은 죽음 삶에 대한 열정을 머금은 죽음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즐기찬 합창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
 ▶ 3연: 민중의 희생을 통해 이룩할 미래에 대한 산의 인식

이슬 젖은 하얀 촉루(觸虬)가 덩구는 저 능선과 골짜기니에는 그리도 술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¹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²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 가는 꿈과 생시³를 산은 잘 알고 있다. 노래하고 흘러가며 움직이는 것들
현재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들 ▶ 4연: 단절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산의 인식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머언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1연의 '저 아득한 하늘'과는 차이를 가지는 대상. 산이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산의 모습 ▶ 5연: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산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화자와 산의 일체감

네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현재의 다짐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모두 강조하는 표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나타냄. 앞 행의 '것'은 산이 알고 있는 대상을 드러내지만,

여기에서의 '것'은 '-는/-은 것이다'로 쓰이면서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냄

▶ 6연: 산의 바람에 응답하는 화자

*운무: 구름과 안개.

*촉루: 실이 전부 색은, 죽은 사람의 머리뼈.

문제 해결 키 문항 5 관련

이 작품의 3연에서는 다양한 시제 표현을 통해 산이 과거를 기억만 하거나 현재를 바라보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음. '알고 있다'는 현재 표현이지만 3연에 나타난 다양한 시제 표현을 확인하여 산과 화자가 아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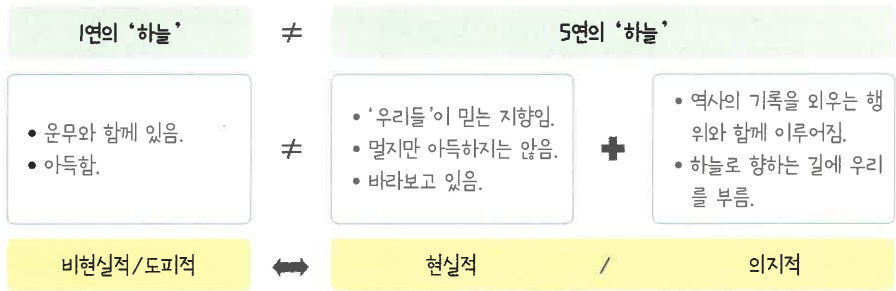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세부 표현을 통해 파악하는 산의 성격 문항 3 관련

이 작품에서 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아득한 하늘’은 ‘운무와 더불어’ 있기에 신비감을 지어내면서도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같지만’은 그러한 산의 성격이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젠가 머연 하늘을 바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연 하늘’은 ‘저 아득한 하늘’과 달리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과 연결됨. • 1연에서 나타난 ‘연모’와는 달리 ‘바라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하늘을 인식하고 있는 산의 모습을 드러냄.



포인트 2

‘산’이 화자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는 이유 문항 1 관련

• 일반적으로 산과 같은 자연은 인간에 비해 유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속성을 지님.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짧은 시간만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유한성 •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비해 개인이 가지는 연약함이라는 유한성
산이 가지는 무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한계에 구속받지 않는 무한성(산은 세상의 처음을 기억할 수 있음.) • 4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연물의 행위를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무한성

- 유한성을 극복하고 산과 함께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체를 이룸.
 - 화자가 바라는 미래는 개인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산의 무한성에 동참할 때 다가갈 수 있음.
 - 화자는 유한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했을 수 있음.
 - 화자가 6연에서는 ‘나’를 강조하지만 산의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들’로 표현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가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감상하기 - 「들길에 서서」

이 작품에서 ‘산’은 신석경이 일제 강점기에 쓴 「들길에 서서」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관여하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이 가지는 고단함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준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山蔘)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들길에 서서」의 특징

-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의지를 담은 작품임.
- 산은 푸른 산으로 나타나며 흰 구름을 지니고 살아감.
- 산은 둥근 지구를 디딜 정도의 호연지기를 상징함.
→ 어려운 시기에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잘 드러난 작품임.

• 「산은 알고 있다」와의 차이점

「들길에 서서」	「산은 알고 있다」
- 삶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 화자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라고 말할. → 「들길에 서서」에 나타나는 푸른 산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향한.	- 「들길에 서서」와 마찬가지로 산도 하늘을 바라봄. - 그러나 그 시선은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까지 바라봄. → 「산은 알고 있다」의 산에게 '생활은 슬퍼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촉루가 당구는' 기억으로 간직되는 구체적인 현실임.

■ 역사와 기록의 관계

역사학자인 카(E. H. Carr)가 이야기하는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나 현재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주목하고자 하는 과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
「산은 알고 있다」의 시인이 주목하는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알고 있다」에서 '나'를 내세우며 피 묻은 역사를 산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함. • 그러한 기록이 작품의 형태로 이루어짐. • 작품은 현재 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담고 있음.



Q. 다양한 독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해석들은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적절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항 4 관련

A. 모든 작품은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자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석정의 「산은 알고 있다」를 「고가의 '필재'가 읽고 해석하는 것은 종가의 노인들이 읽고 해석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재가 기억하는 '피 묻은 역사'와 종가의 노인들이 기억하는 '피 묻은 역사'는 서로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해석이 늘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필재든 종가의 노인들이든 「산은 알고 있다」에 나오는 '합창소리'를 단순히 여가(餘暇)를 즐기기 위한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작품에서 '합창소리'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난 표현인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이기에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은 알고 있다」의 3연에 쓰인 '합창소리'는 '더운 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남긴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끝내 이룩할 대상이기에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가진 역사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도로서의 낯설게 하기 문항 1 관련

- 시는 대상을 일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기도 함.
- 새로운 관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예시
 -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 바람이 분다.
 -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 바람이 댄다.

새로운 의미	'바람이 분다'에 비해 강한 주체적 역동성이 부여됨.
화자의 가치관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아의식을 중요하게 여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전경화와 배경**

- '낯설다'는 개념은 '익숙함'과 관련을 맺음.
- 낯설게 하기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을 배경으로 삼아 새로운 것이 앞으로 나와 두드러져 보이도록 함.



- 특정한 대상이 언제나 낯선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배경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것이 낯선 것인가 아닌가를, 다른 편으로는 독자가 그것에 익숙한가 아닌가에 따라 낯설게 느끼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음.



〈파란 동그라미의 전경화〉



〈하얀 동그라미의 전경화〉

■ **'표현 확인'을 넘어서는 감상의 필요성**

- 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표현은 그 표현 방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감상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직유인가, 은유인가, 의인법인가, 공감각적 심상인가를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가에 주목해야 함.
 - 왜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작품이 말하려는 새로운 진실을 확인하려는 작업이며 감상에서 중요한 요소임.
- 예시: 김광균의 '외인촌'에 나타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 대한 감상
 - '분수처럼 흩어지는'은 직유법, '푸른 종소리'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작품 감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음.
 - 더 생각하고 감상해야 할 지점들(작품 전체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 왜 화자의 눈에 종소리는 다른 색이 아니고 '푸른' 색으로 보였는가?: 푸른색을 통해 제시하려는 진실에 대한 탐색
 - 종소리는 퍼져 나가지 않고 왜 '흩어지는'가?: 흩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려는 진실에 대한 탐색
 - '흩어지는' 모양은 왜 '분수처럼' 보이는가?: 분수의 속성을 통해 제시하려는 진실에 대한 탐색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깅을 하는 화자가 정신적인 고양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구두점과 행의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호흡의 미묘한 변화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깅을 하는 실제의 급박한 호흡에서부터 한 문장이 온전하게 한 행을 구성하는 마지막 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호흡과 정신적 호흡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교차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이 작품의 흐름을 절묘하게 제어하고 있다.

주제

조깅을 통해 느끼는 몸의 변화와 정신적 고양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하! 후, 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화자의 가빠진 호흡

▶ 1연: 조깅을 하는 동안 가빠지는 호흡

땅바닥이 쾅다, 나무가 쾅다.

자상에서 움직이는 수평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

햇빛이 쾅다, 버스가 쾅다, 바람이 쾅다.

창문이 쾅다. 비둘기가 쾅다. / 머리가 쾅다.

▶ 2연: 조깅을 하며 인식하는 주변 상황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이 작품은 제목처럼 지상을 뛰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이는 '쾅다'의 반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햇빛', '바람', '비둘기'의 경우 지상의 존재가 아니기는 하지만 '쾅다'를 함께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주변에서 '쾅다'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 성격을 보임. 그러나 5연에서 등장하는 '독수리'는 '쾅다'와 연결되지 않으며 화자 내면에 자리하는 느낌을 대변하는 시어의 역할을 수행함.

앞 진 나뭇가지 사이

계절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화자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성격을 느낄 수 있음.

하늘의 환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수직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

맨몸이 쾅다. / 허파가 쾅다.

▶ 3연: 조깅을 하며 바라본 하늘의 모습

하, 후! 하, 후! 하후! 하후! 하후! 하후!

여전히 조깅을 하면서 나타나는 화자의 가쁜 호흡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조깅이 지상을 달리는 것이지만 순간적으로나마 도약을 행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 표현

밤새 새로 반죽된 / 공기가 쾅다.

▶ 4연: 조깅을 하는 급박한 호흡 속에서 얻는 의미

내 생(生)의 드문 / 아침이 쾅다.

조깅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과 그것이 화자에게 가지는 의미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 5연: 조깅을 통한 정신적 고양

이것은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국인표 1

2연에서 등장하는 대상들과 '쾅다'의 결합 (문항 1 관련)

'땅바닥, 나무, 햇빛, 버스, 바람, 창문, 비둘기, 머리'와 같은 주어

일반적으로 '쾅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음.

2연에서는 '쾅다'라는 서술어를 결합함.
→ 상황을 낯설게 변화시키는 효과를 얻게 함.

※참고: 최근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둘기들의 행동 변화 추이에 주목하여 "비둘기도 실제로는 뛰어다닌다."와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는 2연 전체의 맥락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의견임.

이 작품에서 문장 부호 및 행 길이의 역할 **문항 1, 3 관련**

1연	빈번한 쉼표의 사용과 강세 지점에서의 쉼표 사용을 통해 거친 호흡을 드러냄. 조깅을 하는 화자의 호흡을 그대로 드러냄.
2연	한 행에서 쉼표와 마침표가 같이 쓰이다가 마침표만 쓰이는 방식으로 변화함. 조깅을 하는 화자의 실제 호흡과는 다른 흐름의 호흡이 나타나기 시작함.
3연	짧은 시행에 마침표만 쓰이며 간결하게 시행이 구성됨. 실제 조깅을 하는 화자의 호흡과는 다른 흐름의 사유가 진행됨.
4연	쉼표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거친 호흡이 다시 나타남과 동시에 정련된 흐름의 사유도 함께 등장함. 화자가 조깅을 하면서 거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련된 사유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연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한 행이 한 연을 구성하며 쉼표는 사용하지 않음. 내적인 사유의 정점에 이르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현대사에서 '운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실제로 노래로 불리기도 하였고 동시에 반복적인 리듬감을 기본적인 형식으로 삼고 있었던 시기와는 달리 최근의 현대시는 노래로 불리기 위해 박자에 맞추어 낭독할 수 있는 리듬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최근의 현대시에서는 쉼표의 사용, 행 길이의 조절,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음절 수의 조절, 특정한 음운의 사용 등을 통해 화자의 내면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 쉼표의 사용이나 행 길이의 조절 등이 언제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작품 전체의 맥락을 살펴 그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할 해석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조깅」을 낭송해 보기

- 실제로 가쁜 호흡을 그대로 살려 낭송하는 것도 작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음.
(잔잔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음.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면 각 연별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화자의 상태를 강조할 수 있음.)
- 2연부터는 쉼표와 마침표에 주목하여 읽기의 완급을 조절하고 짧아지는 시행에 맞추어 긴장감을 살릴 수 있음.
- 3연부터는 맑은 하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밝은 어조로 읽을 수 있음.
- 4연부터는 가쁜 호흡으로 시작하여 정돈되는 호흡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5연은 높은 창공을 활공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읽음으로써 화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낼 수 있음.

EBS
Q&A

Q. 시에서도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문항 3 관련**

A.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를 떠올릴 때 그 내용은 시간이나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간에 나타나는 것인가, 어떤 공간에 나타나는 것인가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정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열린 장소라는 공간적 배경은 조깅을 하는 화자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공기가 널리 그리고 충분히 퍼져 있는 상황을 독자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경건함을 상징하는 '성당의 종소리'가 사실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갈라놓는 견고한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달동네'나 '산동네'라는 표현들은 주로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변화거나 번듯한 지역에 살지 못한 채 도시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쫓겨나듯 밀려나 이루어진 동네를 의미한다. 성당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랫마을의 것일 뿐, '달동네'나 '산동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도달하려는 절대지를 발견하지만, 절대지도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소외된 자들과 평화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경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종소리, 종소리들

그중 하나 대열에서 빠져나와

무리에 속하지 않은, 예외적인 종소리의 행위

몰래 골목, 골목을 돌아

참고 복잡한 이미지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비해 장애물에 막히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음.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찾아 나선다

일반적으로 발전한 도심에서 밀려난 소외된 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을 상징함.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 오르다가 미끄러져

무릎 까져 피 흘리는 하나님¹

예외적인 종소리의 정체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 종소리, 종소리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종소리의 경건함과 평화가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하지 않도록, 혹은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랫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작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줌. 전능한 존재이지만 '몰래' 돌아다니며 '미끄러지'기도 하고 '무릎 까져 피흘리'기도 함.

▶ 1연: 아랫마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의 의미

▶ 2연: 소외된 자들을 차단하는 종소리들의 실제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요인드

주요 표현들을 통해 알아보는 극적인 시상 전개 문항 4 관련

- '종소리, 종소리들' → 종소리가 여러 차례 울리는 것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중 하나'의 출현이 가능한 맥락을 형성함.
- '몰래' → 대열에서 빠져나온 종소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의 극적 효과를 가능하게 함.
-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 절대자가 하늘에 있다는 상식을 참고하면 그 마을에 절대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의 극적 효과를 가능하게 함.
-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 경건하고 평화롭게 생각했던 '성당의 종소리들'이 사실은 '아랫마을'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반전을 제시함.

‘건고한 평화의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 **문항 2, 4 관련**

-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종소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함.
- 심층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다음의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두 마을을 갈라놓는 경계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임.
 -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주객전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보편적인 가치의 지향	주	마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객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성당의 종소리’
전도된 시적 상황 (화자의 시선이 포착한 문제 지점)	주	윗마을을 소외시킨 채 아랫마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지려는 ‘성당의 종소리’
	객	‘대열’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윗마을에 가고자 하나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

■ 절대자를 새롭게 바라보기 혹은 잊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기

- 종교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선을 지향하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특징은 일반적인.
- 예술 작품들은 때로 종교의 절대자를 낫설고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일반적 가치를 환기하고자 함.
-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에서도 절대자는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으로 그려지지만, 이는 절대자에 대한 비하라기보다 기존에 절대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일부 편향되거나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EBS
Q&A

Q. 작품에서 특정 표현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문항 4 관련**

A. 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표현이 언제나 운율감을 형성하거나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반복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 강조: 같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2) 새로운 의미의 추가: 하나의 표현이 처음 나타난 후 다른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다시 처음의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중간의 내용들을 통해 환기된 내용들이 이후의 반복 표현에 추가되어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의미의 약화: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반복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특정 표현이 나열되는 경우는 이의 거꾸로 해당 표현이 가지는 무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글은 현대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에서의 형상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고향은 인간이 나고 자란 곳으로, 현대 소설은 빈곤, 경제적 파산 등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탈,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며 고향의 의미를 탐색해 왔다. 이호철의 「탈향」과 이청준의 「눈길」은 우리의 현대 소설사에서 이러한 고향의 의미를 수준 높게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들이다.

주제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사의 대표 작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고향이다. 고향은 인간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인간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고향은 친밀하고 편안한, 안식의 장소이자 다른 장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고향을 떠나는 이향(離鄉)은 삶의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고향의 집을 잃거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失鄉)은 인간의 내면에 그리움과 상처를 남긴다. 현대 소설은 빈곤, 경제적 파산 등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탈,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며 고향의 의미를 탐색해 왔다.

▶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에서의 형상화 양상

이호철의 「탈향」은 6·25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의 삶을 그린 1950년대의 대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이복이 고향인 네 청년은 전쟁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부산에 도착한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이들의 생각과 관계에서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이청준의 「눈길」은 가난으로 인해 고향과 멀어진 현대인의 삶을 그린 1970년대의 대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오래전 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겪었다. 그 시절의 상처를 대하는 '나'와 '노인'의 모습을 통해 가난의 아픔과 모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현대 소설이 고향을 다루는 양상

「탈향」에서 인물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탈향」의 고향 상실을 통해 드러나는 당대 현실의 문제

「눈길」에서 고향을 통해 체험하는 정서와 깨달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고향의 의미와 의의 문항 1 관련

고향	개념	인간이 나고 자란 곳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함. 고향을 떠나고 잃게 되는 경험은 인간의 내면에 큰 상처를 남김.

포인트 2

우리 문학사에서 고향의 모습 문항 2 관련

빈곤, 경제적 파산, 수탈, 전쟁, 산업화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린다.

「탈향」(이호철)	전쟁으로 인해 이복의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부산에 도착한 인물들의 관계 변화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슬픔을 표현함.
「눈길」(이청준)	가난으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인물의 사연을 통해 가난의 아픔과 모정의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를 표현함.

감상 포인트

1955년에 발표된 작가의 출세작으로, '어둠 속에서', '암야' 등의 제목으로 네 번을 고쳐 쓰다가 현재의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6·25 전쟁의 와중에 단신으로 월남하여 부산에서 노동하며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작가의 체험이 담긴 사실주의적 소설이다. '나', 두찬, 광석, 하원은 이북이고 향이지만 전쟁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 탈향인 부산에 도착한다. 가족처럼 어울리던 이들이 탈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고 떠나는 과정은 전쟁의 고통과 실향의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주제

월남 실향민의 애환과 비애

전체 줄거리

6·25 전쟁의 와중에 중공군의 남하를 피해 배 위에 올라탄 '나'는 고향 사람인 두찬, 광석, 하원을 만난다. 부산에 도착한 빛은 서로를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탈향에서의 어려운 삶을 견디어 나간다. 하지만 피란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점차 서먹해지며 각자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화차에서 뛰어내리다 왼팔이 잘려 나가고, 두찬은 그런 광석을 내버려 두고 가 버린다. '나'와 하원은 광석을 데려왔으나 광석은 이틀날 죽고 만다. 두찬은 '나'와 하원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이들의 관계는 더욱 서먹하고 광석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던 두찬은 술을 먹고 한탄을 하다가 끝내 떠나 버린다. 하원은 돌만 남은 상황에서 '나'에게 함께 열심히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아이와 같은 하원이 부담스러운 '나'는 슬픔을 느껴며 하원에게서 떠날 것을 결심한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두찬이 편이 네댓 살은 더 들어 보였다. 흰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 두꺼운 입술, 술 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약자지껄하지만 여느 때 두찬의 외양 묘사 는 통히 말이 없었다. 광석이는 키는 큰 편이나 조금 여위었고 까무잡잡한 바탕에 오희 선 콧대, 작은 눈, 얇은 입술에 설 새 없이 날름거리는 혀바다하며, 흘가분한 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찡고 보자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석의 외양 및 성격 묘사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밑이어서 열여덟 살이었다. 어디서나 입을 헤에 벌리고 이곤 했다.

▶ 부산에서 함께 지내게 된 두찬, 광석, 하원에 대한 설명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판이라, 바다 위에서 우리 한국 전쟁의 1·4 후퇴 리 넷이 만났을 땐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 야하 너두 탕구나, 너두, 너두. 도무지

뱃간에서 하루인가 이를 밤을 지나, 어느 날 이른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부러이졌다. * 넷이 다 탈향 땅은 처음 이라, 서로 마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이십 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조가 집안끼리 네 명의 인물이 고향에서는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지만 탈향인 고향에서는 어떤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음 였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 “야하,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 광석이는 몇 번이고 거꾸거꾸 중얼거리곤 했다. ▶ 고향을 떠난 배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게 된 네 사람

부산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서로에 대한 태도. 탈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각자 자신만을 우선하여 생각함.

이력저력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도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 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했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조금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엄병엄병 토박이 반원들과 얼려 막걸리 사발이 나 얻어 마시곤 했고, 구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 쌓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나처럼 손을 맞잡고는, / “나왔나!” 탈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교성을 발휘하는 광석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 “버르장머리 몬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은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건너다봐
광석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다른 인물들의 거리감
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얼려 약자지결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머리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부터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암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셋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창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 하원은 자주 울먹거렸다.

“아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살길을 도모하는 광석과 두찬
‘하원에게 ‘눈’은 이복에 있는 고향의 풍경을 대변하는 소재로, 눈이 오지 않는 부산에 대한 아쉬움은 곧 눈이 많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됨.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화차에서 뛰어내리다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하고, 두찬은 내버려 두고 가자며 가 버린다.
‘나’와 하원은 광석을 데려왔으나 광석은 이튿날 죽고 만다. 도망간 두찬이 돌아왔으나 관계는 더욱 서먹해진다.

“요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하다, 말뚱말뚱해. 왜 넌 암말두 안 현. 뛰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
허, 내, 이제 무신 낮짜오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하아.”

광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외면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
두찬이는 별령 자빠져서 화차 안이 찌령찌령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뎠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 광석에 대한 자책감으로 무리에서 사라진 두찬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창간 속에서 하원은 지껄었다.

살의 뿌리를 잃고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는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공간
“야하, 우리 이제 꼽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영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집이라는 ‘안정된 공간’에 대한 바람

제두 일없닝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ㅎㅎㅎ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
나 떨어진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됐시아, 잉. 우린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

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꼽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가 두찬이 형은 못 봤다
구 글자 마, 알 거이 머야, 너까 나만 암말두 안 현 답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 마. 널부터 나 진짜 꼽대
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이렇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
하원은 고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나’가 그를 버리겠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성적 감정에서 벗어나, 타향에서의 생존이라는 더 이상 외
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은 ㅎㅎㅎ 웃었다. 지껄었다.
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해.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복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
‘하원이 기억하는 고향의 낭만적 정경
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아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
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작품 전체에서 하원은 눈에 대해 여러 번 말을 하며 눈을 거의 볼 수 없는 부산과 눈이 오는 고향의 풍경을 대조함.



눈은 고향의 풍경을 대표하는 소재이며, 눈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젖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아하, 눈 보구 싶다, 눈이.**¹⁹
 ▶ 타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음으로 하원을 버리는 '나'

*부리다: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다.

*암생이: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꼭대가리: 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냄.
-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의 전개를 속도감 있게 전달함.
- 인물의 대화에서 방언을 사용하여 인물의 지역적 정체성을 생생하게 표현함.

포인트 2 제목의 의미 **문항 4 관련**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한 사람들을 보통 실향민이라고 부른다. 이 소설의 인물들도 한국 전쟁으로 고향인 이북을 떠나 부산으로 피난했다는 점에서 실향민이다. 그렇게 볼 때 주체의 의지로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를 지닌 탈향은 소설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탈향은 인물이 처한 실향의 상황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의지를 부각하는 제목이다. 전쟁의 상황으로 귀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생활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타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고향을 떠나려는 인물의 의지가 곧 탈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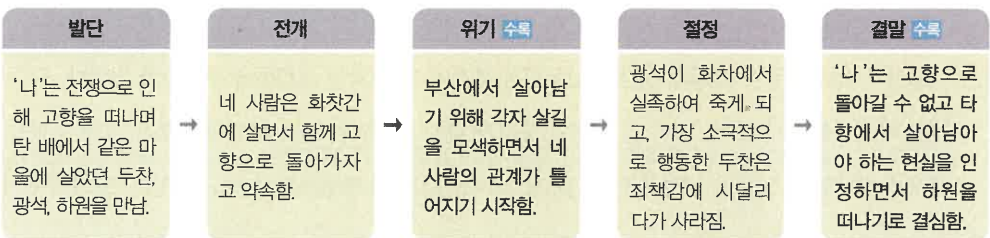
포인트 3 현실에 대한 작중 인물의 태도 **문항 2 관련**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고향을 떠나며 탄 배에서 서로 만나 타향살이를 함께 시작하는 두찬, 광석, '나', 하원이다. 이들은 고향이 같은 동향 의식으로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곧 타향인 부산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는 각 인물이 지닌 성격과 현실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광석은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 타향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교성을 발휘한다. 반면, 무뚝뚝한 두찬은 타향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광석을 못마땅해한다. 하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드러내면서 귀향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에는 하원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두찬	무뚝뚝한 성격으로 타향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광석	타향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교성을 발휘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
'나'	처음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고향에 대한 감상적 그리움에서 벗어나고자 함.
하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드러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의 구조



감상 포인트

197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고등학교 시절 집이 팔리는 작가의 실제 체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다. '나'에게 고향과 집은 아픈 상처이다. 과거 집안의 가장인 형이 가산을 탕진하면서 크고 넓었던 집은 팔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도시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팔린 집에서 어머니와 하룻밤을 보낸 후 눈길을 밟으며 고향을 떠난다. 그 시절의 일들을 잊고자 하면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고 그녀에게 빛이 없음을 애써 강조하는 '나'의 내면이 한결같이 아들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대비되면서 가난의 고통과 값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된다.

주제

값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

전체 줄거리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나'에게 마을의 개량 사업을 통해 지붕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완곡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빛이 없다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한다. 이러한 '나'가 못마땅한 아내는 지붕을 개량하려는 어머니의 속내를 집요하게 묻게 되고 둘의 대화는 눈길에 얽힌 과거의 사연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집안이 망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집에서 '나'가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날 새벽, 눈길을 걸으며 '나'를 배웅한다. 그리고 훗날 다시 눈길을 걸으며 돌아와야 했던 심정을 담담하게 아내에게 들려준다. 잠이 든 척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던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한데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감동을 잘하는 아내가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 수도 많았다면श्य요?”

가족이 함께 살다가 과거에 팔게 된 집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

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갑자기 과거에 팔린 집을 화제로 삼는 아내의 의도에 대한 '나'의 추론 ①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

문제 해결 키 문항 5 관련

'노인'이라는 호칭에 담긴 '나'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노인'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나'가 어머니에게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않았다고 믿으며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함.

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 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런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시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 내게 할 가위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나.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니는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 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 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 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 과거의 집과 현재의 집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부각함. 도 하시겠죠.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예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론지 뉘드린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오

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웠다.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 아내가 과거의 집을 화제로 삼는 이유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말하기와 그 효과가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 드리긴커녕 심기만 점점 더 불편스럽게 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

켜 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런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런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었다.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는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 과거의 집을 화제로 꺼낸 아내의 의도를 의심하는 '나'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과거의 집과 현재의 집을 연결하는 소재, 과거의 집과 관련된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소재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 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 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가었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안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라 말이나.”

팔린 집으로 인해 의기소침할 이들의 자존심을 보듬어 주려는 노인의 노력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 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는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밥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하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 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 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야 비로소 빈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빈집에 옷궤를 남겨 둔 이유

▶ 노인의 배려로 팔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나'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 옷궤를 보면 '나'가 언제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로, '액면가 없는 빛 문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는 점을 암시함.

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 오던 옷궤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를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궤의 허물이 컸을지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지붕 개량 사업을 언급하며 집의 소망을 애둘러 밝히는 '노인'에 대해 불편해하며 모른다. 그녀의 집으로 내려온 지 이틀 만에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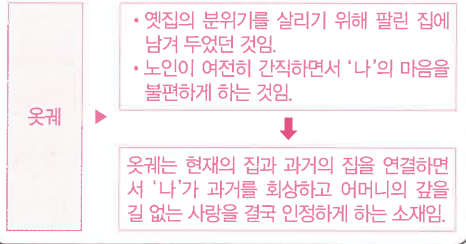
아내도 물론 그 옷궤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펼린 집과 옷궤를 아내가 갑자기 화제로 삼은 이유에 대한 '나'의 추론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콧속을 후벼 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목은 빛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목은 빛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 '나'가 옷궤를 불편해하는 이유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옷궤'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는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눈길**」 →

-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들려주면서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냄.
- 인물 간 대화와 회상을 통해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추리적 구성을 취함.
-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함.
- 눈길, 옷궤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의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포인트 2

‘아내’의 역할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나’와 노인이며, 아내는 부수적 인물이지만 사건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눈길과 관련된 과거의 사연인데, 이에 대해 노인은 들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나’ 또한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아내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노인은 말문을 열고 그날의 사연을 들려 준다.

포인트 3

제목의 의미 문항 5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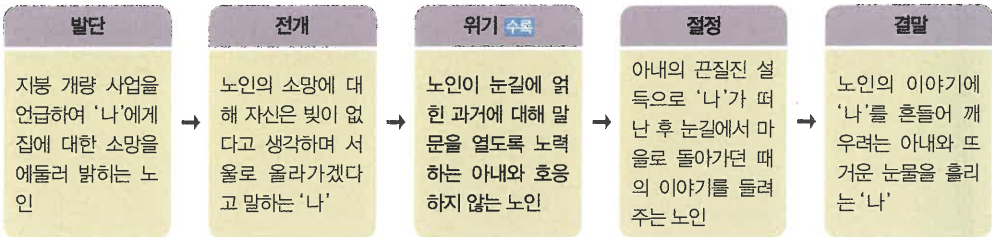
이 소설의 제목인 ‘눈길’은 과거의 공간으로, ‘나’는 팔린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 새벽에 집을 떠나 어머니와 ‘눈길’을 함께 걸으며 차부로 간다. ‘나’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어머니가 그 눈길을 어떻게 되돌아갔는 지는 모르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시련을 깨닫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목인 ‘눈길’은 집안의 몰락으로 집을 떠나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공간이자 아들에 대한 노인의 헌신적인 모정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품의 구조

이 소설은 ‘나’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말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어젯밤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어머니를 향한 ‘나’의 복잡한 심경을 부각하면서 둘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인식

작가 이창준은 한 인터뷰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당신들의 천국」과 함께 「눈길」을 꼽았다. 소설 속으로 자신이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가장 강렬하게 드는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은 작가의 고향과 관련이 깊는데, 작가는 자신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을 꼽았다. 그에게 고향은 자연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이었는데 그러한 고향을 떠나 살게 된 도시의 관계 의존적인 삶을 소설 쓰기를 통해 견디고자 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에는 시골 출신 젊은이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부조리를 많이 썼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의 원형을 찾아가는 소설을 많이 썼다.”라고 말하였다.



III

실전 학습

1회	[01~04]	고공가_허전 / 용사음_최현
	[05~08]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 / 시_박목월 / 살림_이병률
	[09~11]	소대성전_작자 미상
	[12~15]	삼대_염상섭
2회	[01~03]	도산십이곡_이항
	[04~08]	이름 없는 꽃_신경준 / 옹고집전_작자 미상
	[09~11]	아마존 수족관_최승호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_김기택
	[12~15]	산거족_김정한
3회	[01~04]	빌려줄 몸 한 채_김선우 / 맨발_문태준
	[05~08]	잉여 인간_손창섭 / 불신 시대_박경리
	[09~12]	정과정_정서 / 개야미 불개야미 ~_작자 미상 / 애오잠병서_이달총
	[13~15]	옥단춘전_작자 미상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농가의 어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머슴들을 꾸짖는 형식을 통해 나랏일을 게을리하는 신하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가사이다. 화자는 근면했던 예전의 머슴들처럼 현재의 머슴들도 근검 정신으로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랏일을 잘하기 위해 신하들이 갖 추어야 할 덕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해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상기시키면서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진 상황에서도 뉘우칠 줄 모르고 사리사욕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무너져 버린 유교적 이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나랏일에 게으른 신하들에 대한 비판과 각성 촉구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야아

머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음.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내력, 조선의 역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음.

비 오는 날 일 없을 제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제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畠)을 경작하니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8월 동안 갈 만한 넓은 땅으로 조선 팔도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음.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과거의 좋았던 상황을 제시함.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 요사이 고공(雇工)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풍족하게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자신의 이익만 좇으며 다루는 상황을 나타냄.

무슨 일 생각에 **홀깃할깃** 하는 건가 /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서

반목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표현함.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니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世祀)를 어찌하여 치르려노

대대로 지내 오는 제사

김가(金哥) 이가(李哥) 고공(雇工)들아 새 마음 먹으스라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한술에 밥 먹으며 매양의 시기하라 /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스라

한집이 가멸면 옷밥을 걱정하라 /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살아** 벼 세워 던져 두고 /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어스라

쟁기로 일꾼 큰 흙덩이를 썰레질로 잘게 부수어 보드랍게 만들어

산전(山田)도 거칠었고 무논도 우거졌다

씨리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세울세라

농사일에 힘쓰지 않아 씨리와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무성하게 자랄까 두렵다는 뜻. 신하가 나랏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음.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작품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고공'을 화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가: 영화로웠던 과거의 내력을 떠올림.

▶ 송: 머슴들의 다름으로 인해 황폐해진 현실을 언급함.

칠석(七夕)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 새끼 꼬기 뉘 잘하며 섬* 일랑 뉘 엮으랴

너희 재주 헤어려 서로서로 말으스라 / 가을 거둔 후면 성조(成造)를 아니하라

집일랑 내 지을게 음일랑 네 물어라 / 너희 재주를 내 짐작(臆察)하였노라
집터와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정조신. 여기서는 '집 짓는 일'을 의미함.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分別)을 하려무나 / 명석에 벼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별뉘를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짚거든 거칠고도 거친 올벼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빛이나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마한 햇벌의 기운

옥 같은 백미(白米) 뉘 줄 뉘 알아보겠느냐

▶ 전: 머슴들이 각성하기를 촉구함.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관대 /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밥만 다루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저녁 더 해서 먹었는데
외적을 대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은혜일랑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 갈: 시려 깊은 새 머슴이 나타나기를 바램.

* 들먹은: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진 사람.

* 섬: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짐으로 엮어 만든 그릇.

현대어 풀이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머슴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의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러 할 때
어진 마음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싸래,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를 심은 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넉넉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못한지에만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 들어 흥기흥기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득이나 내 세간이 좁아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날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제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이 새 마음을 먹자구나
너희들 젊었느냐 설마 생각 안 하는가
한술에 밥 먹으며 번번이 시기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구나
한 집이 넉넉하면 옷밥을 걱정하라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느냐
발 같고 눈 살아 벼를 심어 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자구나
산밭도 거칠고 무논에 풀도 우거진다
씨리, 피가 말뚝처럼 자랄까 두려워라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뉘 잘하며 섬일랑 뉘 엮으랴
너희 재주 헤어려 서로서로 말자구나
가을걷이 후면 집 짓기를 아니하라
집일랑 내 지을게 음일랑 네 물어라
너희들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생각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벌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짚거든 거칠고도 거친 올벼
옥 같은 백미 뉘 줄 누가 알아보겠느냐
너희들 데리고 새살림 살려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멀리 안 갔다 하는데
너희들 눈귀 없어 그런 줄 모르고서
화살을 제쳐 놓고 옷과 밥만 다루느냐
너희들 데리고 추운지 굶는지
새참에 아침저녁 충분히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시려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서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나랏일을 농사에 비유한 표현 이해 **문항 3 관련**

고공	조정 의 신하
여드레 같이	조선 팔도
밥사발	나라에서 주는 녹봉
화강도	왜적
가산을 탕진하니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파멸해짐
구름 끼어 별뿔을 언제 보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음

포인트 2

현실 비판의 주제 의식 **문항 3 관련**

- 국초(國初)의 백관들이 근검한 일꾼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왜적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사리사욕만 탐하는 관리들의 병폐를 고발하고 있음.
- 양반 가사가 주로 강호 자연, 안빈낙도 연군의 정 등을 주제로 삼은 것에 비해 관료 사회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주제 의식을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고공가」의 사상 전개

기	승	전	결
과거 근검했던 머슴들의 상황	현재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머슴들의 모습	가산을 탕진한 머슴들의 각성 촉구	사려 깊은 새 머슴을 기다림.

국록을 먹는 신하를 머슴에 비유하여 그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개선하려는 충정을 드러냄.

■ 「고공답주인가」와 비교하여 읽기

이원익이 지은 「고공답주인가」는 「고공가」에 화답하는 형식의 가사이다. 「고공가」의 화자는 머슴을 꾸짖는 주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고공답주인가」의 화자는 머슴과 주인에게 경계하는 말을 전하는 어른 종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공답주인가」의 화자는 종들이 일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낮잠만 자기 때문에 곡식 창고가 비고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탄식한다. 더불어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은 종들의 탕도 있지만, 주인이 종들을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주인이 상벌을 분명히 하여 종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려면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공답주인가」에서 어른 종은 벼슬아치 가운데 어른 격인 고위 관료들을, 종은 여러 벼슬아치들을, 주인은 임금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사(政事)를 게을리하는 신하들을 꾸짖고, 임금에게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임진왜란의 상황을 담은 전쟁 가사이다. 갑작스럽게 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화자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게 된 기쁨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벼슬아치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작가의 구체적 체험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주제

임진왜란의 참상과 이기적인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어제 본 듯하건마는 / 예악과 현송(絃誦)*은 찾을 데 전혀 없다
 보후와 신백은 산악(山岳)도 아끼더니* / 섬나라 오랑캐는 그 누가 낳았는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가리킴.
 호랑이와 큰 고래 산해(山海)를 흔들거늘 / 동서남북(東西南北)에 못 싸움 일어나니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은 / 이 좋은 수령(守令)들 물어뜯나니 백성(百姓)이요
 톱 좋은 변방 장수 후벼 파나니 군사(軍士)로다
 재화(財貨)로 성(城)을 쌓으니 만장(萬丈)을 뉘 넘으며 / 고혈(膏血)로 해자 파니 천 척(千尺)을 뉘 건너라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춘풍 쉬이 간다

해도 길건마는 밤놀이는 그 어떨꼬 / 주인(主人) 잠든 집에 문(門)은 어이 열었노뇨

도적(盜賊)*이 엿보거든 개*는 어이 안 짓는고

대양(大洋)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윌었다*

술이 깨더냐 병기(兵器)를 뉘 가지리오

감사(監司) 병사(兵使) 목부사 만호첨사(萬戶僉使)

산림(山林)이 비었던가 수이곰 들어갈사

어리석은사 김수(金睞)*야 빈 성을 뉘 지키라

우스올사 신립(申瑬)*아 배수진(背水陣)은 무슨 일고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싸웠으나 참패하자 강물에 뛰어들어 죽음.
 양령(兩嶺)을 높다 하라 한강(漢江)을 깊다 하라

대책이 어실스니 하늘인들 어찌하리 / 하고한 백관(百官)도 숫자 채울 뿐이려다

왜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관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일석(一夕)에 달아나니 이 시름 뉘 맡을까 / 삼경(三京)이 복몰(覆沒)하고 열군(列郡)이 와해하니

고을 도처에 누릴사 비릴사* / 관서(關西)를 돌아보니 압록강(鴨綠江)이 어드메요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니* 갈 길을 모를노다

삼백이십 주(三百二十州)에 대장부 하나 없듯던가

조선 말도를 지칭함.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 되니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宰相)* 아니려다

▶ 전란에 대한 책임을 위정자들에게 물음.

(중략)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도적'과 '개'의 행동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김수'와 '신립'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일월'이 '무광'한 상황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 시적 상황과 연관 지어 파악해야 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개돼지의 신하'와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한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온 들판 썩발 되니 어드메가 내 고향(故鄉)이고
 백골이 산 이루니 어느 것이 내 골육(骨肉)이고
 옛날의 번화(繁華)를 꿈같이 생각하니 / 산천(山川)은 옛 낮이요 인물(人物)은 아니로다
 주인(周人) 서리가(黍離歌)*로 청사(靑史)에 눈물 나고
 두릉(杜陵) 애강두(哀江頭)*를 오늘 다시 불러 보니
 풍운(風雲)이 애처롭고 초목(草木)이 슬퍼한다
 남아(男兒) 삼긴 뜻이 이렇기야 하라마는
 좀스런 무반(武班) 썩은 선비 한 냥도 채 못 된다
 청총마(靑驄馬) 적토마(赤兔馬) 울면서 구르거늘
 명마를 이르는 말
 막야검(莫耶劍) 용천검(龍泉劍) 흰 무지개 절로 선다
 명검을 이르는 말
 언제야 은하수 헤쳐 이 병진(兵塵)을 씻으려노
 우국충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함.

- * 현송: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음.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교양을 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보후와 ~ 아끼더니: 중국의 명신인 보후나 신백과 같은 훌륭한 인물의 출생에는 하늘이 인색함.
- * 바다가 여위었다: 바다에 왜적의 배가 가득하다는 의미.
- * 김수: 임진왜란 때 경상우감사로 있다가 왜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 도피한 문신.
- * 누릴사 비빌사: 전란으로 인해 죽은 시신들이 가득함을 표현한 말.
- * 주인 서리가: 중국 주나라 평왕 때 한 관리가 옛 도읍지를 지나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읊은 노래.
- * 두릉 애강두: 중국 당나라 현종 때 두보가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곡강에서 지은 노래.

현대어 풀이

의관과 문물을 어제 본 듯하건마는
 예약과 학문은 찾을 데 전혀 없다
 보후와 신백은 산악도 아끼더니
 섬나라 오랑캐는 그 누가 낳았는가
 호랑이와 큰 고래가 산과 바다 흔들어
 동서남북에 온갖 싸움 일어나니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은
 이 좋은 수령들 백성을 몰아붙고
 틈 좋은 변방 장수 군사를 후벼 파네
 재물로 성 쌓으니 만 길 높이를 뉘 넘으며
 살과 피로 성 주위에 둘러 판 못을 파니 천 자 넓이를 뉘 건너랴
 호화로운 잔치에 세월이 쉬이 간다
 낮도 즐지마는 밤에 놀기 그 어떤가
 주인 잠든 집의 문은 어찌 열었는가
 도적이 엿보는데 개는 어찌 안 짚는가
 바다를 바라보니 왜적의 배 가득하다
 술이 갠느냐 무기를 뉘 가지리오
 감사, 병사 등의 벼슬아치들이
 산속이 비었던가 쉽게도 도망가네
 어리석구나 김수야 빈 성을 뉘 지키랴
 우습구나 신립야 배수진은 무슨 일인가
 조령, 추풍령을 높다 하랴 한강을 깊다 하랴
 대책이 어설프니 하늘인들 어찌하리

수많은 관리들도 숫자만 채울 뿐이로다
 하룻저녁에 도망하니 이 시를 뉘 맡을까
 삼경이 함락되고 여러 고을 무너지니
 널려 있는 시신들로 비린내 진동하네
 관서를 돌아보니 압록강이 어디인가
 해와 달, 빛이 없어 갈 길을 모르겠네
 우리나라에 대장부 하나 없었던가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 되니
 황금 띠 돌려매던 옛 재상 아니던가
 (중략)
 온 들판 썩발 되니 어디쯤이 고향인가
 백골이 산 이루니 어느 것이 골육인가
 옛날의 번영을 꿈같이 생각하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물은 아니로다
 주인의 서리가로 역사에 눈물 나고
 두보의 애강두를 오늘 다시 불러 보니
 풍운은 애달파하고 초목은 슬퍼한다
 남자로 태어난 뜻이 이렇기야 하라마는
 좀스러운 무관, 썩은 선비 한 냥도 채 못 된다
 청총마 적토마 울면서 발 구르고
 막야검 용천검 흰 무지개 절로 선다
 언제쯤 은하수 헤치고 이 전란을 씻으리오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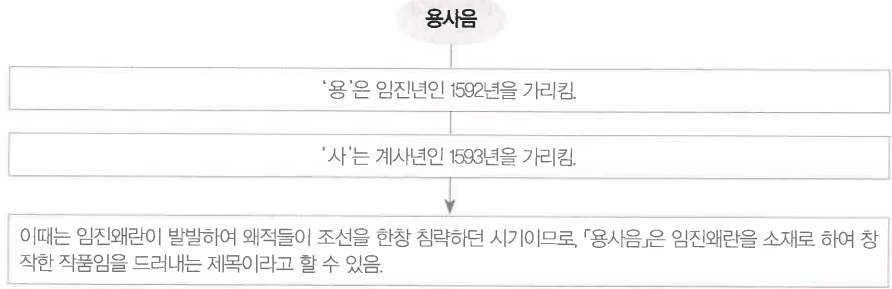
포인트
1

시어를 나란히 제시한 표현 효과 이해 **문항 2 관련**

보후와 신백	-	섬나라 오랑캐	왜적의 세력이 성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부각함.
도적	-	개	왜적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함.
김수	-	신립	관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함.
개돼지의 신하	-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	신의를 저버린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산천	-	인물	인간사의 무상함을 강조함.

포인트
2

「용사음」 제목의 의미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용사음」의 시상 전개

기	승 수록	전	결 수록
갑작스러운 전란에 당황해 함.	전란에 대한 책임을 위정 자들에게 물음.	의병들의 공적을 칭송함.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 함.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수난을 안타까워하고, 전란으로 피해를진 백성들의 참상에 괴로워하는 정서를 사실적으로 드러냄.

■ 시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비참한 전란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작가의 답답하고 분한 마음과 한탄이 잘 드러나 있다. 갑작스럽게 전란을 당한 작가의 황망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전란 초기에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에게 짓밟혀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찾게 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왜적의 침략을 당하고도 당리당락과 가렴주구를 일삼으며 국정을 돌보지 않는 관리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구체적 체험과 날카로운 비판 의식에서 우러난 우국충정을 진솔하게 다룬 고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글은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 표현이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에서 머물기보다는 독자의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읽을 때에는 보조 관념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 표현은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작품 전체의 사상 전개와 맞물리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시에 대한 풍부한 감상을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주제

비유 표현의 속성과 기능

비유는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다.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도 비유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시에서도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해당 비유 표현은 단순히 수식을 위한 표현이거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유 표현을 읽을 때에는 보조 관념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속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작품 전체적인 의미를 읽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한편, 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비유 표현은 작품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품의 한 부분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은 작품의 다른 부분을 전개해 나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의 비유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된 원관념을 A, 보조 관념을 B라고 한다면 B는 이후 나타나는 다른 원관념 C를 B와는 전혀 다른 D나 E가 아닌, B와 관련을 맺고 있는 B'이나 B"이라는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편의 작품은 B-B'-B"의 축을 통해 긴밀한 유기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한 편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핍으로써 더욱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2문단: 비유적 착상을 통한 사상의 유기적 전개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비유의 유사성과 의미의 종합 **문항 8 관련**

- **쟁반같이 둥근 달**: '둥글다'는 유사성 외에 '쟁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까지도 '달'의 속성과 종합을 이루게 됨.
-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정성스레 건네는 마음 / - 쟁반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포인트 2

비유 표현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의 유사성 **문항 6 관련**

- 하나의 비유 표현은 그로부터 연상되는 체계와 맞물려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비유 표현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함.
- **예시**: 운동 경기를 전쟁(戰爭)에 비유할 경우
- 두 번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시합의 첫 부분은 전반전(前半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후반전(後半戰)이 됨.
-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전략(戰略)이 됨.
- 선수나 팀이 운동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량은 전력(戰力)이 됨.
- 감독이나 코치는 심판에게 작전(作戰) 시간을 요청하기도 함.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본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시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시를 성취하는 순간과 생활로 인해 그 성취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절대 균형을 이루려는 시의 세계와 늘 흔들리는 일상 세계 사이의 긴장

<나>는 / 흔들리는 저울대.

균형을 필요로 하지만 좀처럼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

시(詩)는 / 그것을 고누려는 * 추(錘).

저울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대상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 1~4행: '나'와 '시'의 상반된 성격

한 가락의 미소. / 한 줌의 위안. / 한 줄기의 운율.

시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

이내 무너진다. /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진폭이 나타나는 공간의 극단성

아득한 진폭(振幅)*. / 생활이라는 그것.

균형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

▶ 5~8행: 시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

▶ 9~12행: 생활 속에서 다시 무너지는 균형

* 고누다: '겨누다' 혹은 '찌리다'의 방언으로 쓰임. 이 작품에서는 저울에 균형을 맞추려는 추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진폭: 물체가 진동할 때 흔들리며 움직이는 거리.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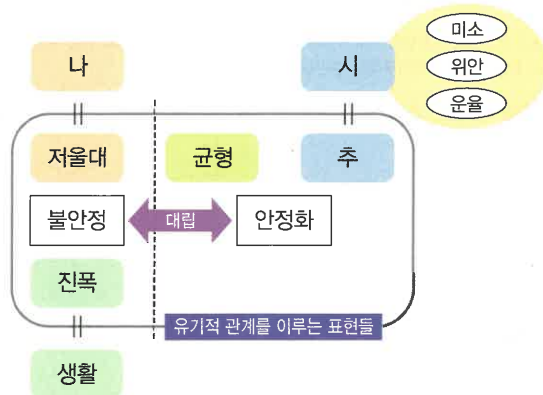
「시」의 구성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까 [문항 5 관련]

· 이 작품을 몇 부분으로 나눌 것인가는 시상 전개와 흐름이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품	구성 파악의 기준과 예시			
	제시되는 대상 및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제시되는 상황의 성격을 기준으로 할 때	현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	'나'의 속성	'나'가 '시'와 맺는 관계의 성격	'나'가 '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현상	
시(詩)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錘).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	균형이 잡히는 상황	'시'를 통해 내가 얻는 균형의 성격		
이내 무너진다.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振幅). 생활이라는 그것.				균형이 무너지는 이유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상
6부분	3부분	2부분		

포인트 2 표현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 **문항 6 관련**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저울대'로 보게 되면서 그로부터 연상되는 것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체언 종결과 서술어 종결의 효과

- 시에서는 하나의 행이나 의미 단위가 종결되는 부분에 다양한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체언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체언으로 주위가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 작품은 대부분 체언으로 한 행이나 의미 단위가 종결되는데, '무너진다.'만 서술어로 종결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은 화자가 시를 통해 겨우 얻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의 운동성을 부각하는 효과로 이어지기도 함.

■ 메타시(meta-詩)란?

- 시인들은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시의 소재로 삼는데, 때로는 자신이 시를 쓰는 행위를 혹은 시라는 언어 표현 방식 자체를 그 대상이나 상황으로 삼기도 함.
-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을 일컫는 용어로 최근에는 '메타시'를 사용하기도 함. '메타(meta)'는 '한 단계 상위의'라는 뜻을 가짐.

EBS Q&A

Q. 시에서 화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항 6 관련**

A. 화자는 작품에 나타난 언어 표현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시에는 화자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화자는 작품에 드러난 언어 표현들을 집약하여 하나로 모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것은 그 시의 화자를 독자의 입장에서 구성해 내고 그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별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별을 '이상'과 연결하던 기존의 발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별을 입정에 비유하여 별의 뒤통수가 뽀족하면서도 가녀린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별들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임을 보여 주고 있어 천체로서의 별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별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3연에서는 다양한 별의 특성을 열거하면서도 그것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4연에서는 별의 생성과 소멸까지 다룬다. 5연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달의 빛으로부터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화자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고, 달을 돌보는 것까지도 화자의 살림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살림에는 뚜렷한 외연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소스해 보이는 살림의 중요성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화자가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보조사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구요

개개의 별들에 관심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사

▶ 1연: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화자가 별들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바라보는 대상의 특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어떤 특색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나 성격이 어떠한지를 추론할 수 있음.

아름답게 박아 놓은 별의 뽀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 2연: 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언급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 별의 생각까지 그어 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명까지 이어 놓은

다양한 별의 공존과 그 별들이 가지는 저마다의 개성 및 특성

험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 주었습니다

화자가 수선을 해야 하는 상황

▶ 3연: 별을 돌보는 활동

오늘은 별을 두 개 묻었고

오늘 있었던 경험이 일반적인 날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보조사. '오늘도'의 '도'와 대비를 이루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짐.

별을 두 개 캐냈다고 적어 두려 합니다

▶ 4연: 별의 생성과 소멸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 주었습니다

▶ 5연: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활동(혹은 달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되는 살림의 범위)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개념

포인트 1

시에서 제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항 7 관련**

- 시의 제목은 그 내용을 대표하거나 시의 주제가 집약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경우가 있음.
- 어떤 작품들은 제목이 작품의 본문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기도 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진행할 수 있음.
 - 작품 속 세부적인 표현들은 제목과 관련된 대상이나 상황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 화자는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

포인트 2

작품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시어의 해석 **문항 8 관련**

- 시에서 사용되는 시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그 다양성은 작품 속에서 전후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일부로만 제한되기도 함.
- 예를 들어 이 작품에 사용된 '물다'라는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별들을 둘러보고', '뽕죽한 뒤통수', '첫 별'과 '끝 별', '캐냈다고' 등과 맺게 되는 관련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별들을 둘러보고'에서는 화자가 '물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별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뽕죽한 뒤통수'에서는 화자가 별을 화려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첫 별'과 '끝 별'에서는 별의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별들이 다양한 상황에 제각각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냈다고'는 '물다'와 대조를 이루어 삶과 죽음 또한 별이 놓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 중 일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EBS Q&A

Q.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문항 7 관련**

A. 독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구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의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화자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 작품의 표현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2) 화자는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있는가?
 - 작품에 나타난 대상들의 속성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시의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폭넓게 익혀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4) 화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언급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말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어휘의 성격을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 5) 화자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들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이다. 영웅 소설의 보편적인 구조로 전개되면서도 주인공 소대성이 밥을 많이 먹고 잠만 자는 평범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웅 소설과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용왕의 아들이 인간계에 하강하면서 태어난 소대성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칠성검, 보신갑 등으로 무장하고 용왕의 도움을 받아 지상계에서의 위기를 극복한다. 또한 천자와 호국 왕의 싸움도 재미성과 악성의 싸움으로 그려지면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명나라 시절 소량의 늦은 자식으로 태어난 소대성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 승상은 소대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딸 채봉과 약혼시키지만, 이 승상의 부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 승상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 승상의 부인과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고 한다. 자객을 물리친 소대성은 이 승상의 집을 나와 방황하던 중 노승을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히게 된다. 호국이 침입하여 황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소대성은 황제를 구하고 공을 세운다. 황제에 의해 노국왕에 봉해진 소대성은 이 승상의 딸 채봉과 혼인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백은 시선(詩仙)으로 불린 시인으로, 천성이 호방하고 술을 좋아한 천재 시인이고, 두보는 시성(詩聖)으로 불린 시인으로, 두 시인을 함께 묶어 '이두'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성이 점점 자라 열 살이 되자,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가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상서는 대성이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기쁘게만 생각지 않았다. ^{편집자적 논평} 흥진비래, 곧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사인지라, 이런 뛰어난 아들을 두었으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상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성을 잘 길러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 주오. 그러면 후일 구천에서라도 부인의 노고를 치사하리다.”

또 대성을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인명재천, 곧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랴. 다만 이 아비는 네가 장성한 후 봉황의 짝을 찾아 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슴에 맺혀 한스럽구나.”

소대성이 혼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냄.

끝내 상서가 세상을 등지니, 온 가족이 한없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온 집 안에 진동했다. 이 와중에 부인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여 온몸의 힘이 빠진 듯 힘없는 목소리로 대성에게 일렀다.

“세상에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도 죽고 말았다. 소대성이 어려서 고아가 되는 위기 상황을 겪게 됨.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도 죽고 말았다. 소생은 양친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설움에 여러 번 혼절하니, 비복들이 그를 어렵사리 보살피고 돌보았다. 소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엿볼 수 있음.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지내었으니, 비록 열 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 ▶ 소대성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게 됨.

삼년상을 치르고 나자, 가산이 거의 탕진되어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졌다. 소생은 조금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맡기고, 백금 오십 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향했다. 서주 지경에서 날이 저물자, 소생은 한 주막으로 들어가 잠자려 했다. 그때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절로 슬퍼지고 쓸쓸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소생이 간밤에 울었던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소생이 그 연유를 물었다.

문제 해결 키 문항 9 관련

상서가 대성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노인께서는 무슨 연유로 밤새도록 통곡하셨나이까?”

“나는 올해 육십이옵는데, 금년 봄에 구십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 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뒷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골을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나이다.”

소생 역시 부모 여윈 마음을 아는지라 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양친을 잃은 사람이더이다. 노옹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한지라, 이것이 비록 약소한 재물이나 부
악자를 배려하는 소대성의 너그러운 성품을 엿볼 수 있음.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받고서 몇 번이고 절하며 고마워했다.

“공자가 적지 않은 재물을 주시니 노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을 터, 비로소 죄인을 면할 수 있겠으니 이 은혜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나이다. 후일 이 은혜를 보답코자 하오니 거처를 알려 주사
백골난망(白骨難忘)

“노옹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지시한 것이니, 값지 않으셔도 되나이다. 어서 장사나 평안히 치르소서.”
소대성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소생과 노인이 이별하는데, 서로 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정이 비할 데가 없었다.

각설,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낭탁이 비었으나 조금도 그것을 아깝다 생각지 않으니, 그의 도량이 창
여행할 때 노자나 행장을 담아 다니는 전대나 주머니
해를 견줄 바였다.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남의 외양간을 쳐 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 주기도 하며 겨우 굶주림을 면했으나, 해사한 기남자였던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굶주린 거
용모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남자
지풀이 되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 소대성이 불쌍한 노인을 돕고 굶주리는 처지가 됨. 편집자적 논평

[중략 부분 줄거리] 기이한 꿈을 꾸 이 승상은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 승상은 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딸 채봉과 혼인시키고자 한다.

그날 이후에 승상이 길일을 잡아 인륜대사를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불과 대역섯 달 뒤에 승상이 갑자기 병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 여기서는 혼사를 의미함.
났는데, 갖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승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내 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이제 내 나이 일흔이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딸아이의 혼사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함이 한이라오. 내가 죽으면 집안의 대소사는 부인이 주장해야 할 것이니, 딸아이의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인륜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 주오. 황천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한이 없게 해 주오.”

이어 승상은 채봉을 불러서 말했다.

“내 너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니, 그 한이 가슴에 맺

히는구나. 그러나 삼 년 후에도 중헌에서 지은 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너의 성정을 아나니 달리 부탁할 말은 없구나.”

이는 왕 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승상은 소생을 불렀다.
부인이 소대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있음.

🔑 문제 해결 키 문항 10 관련

승상이 부인에게 부탁하는 내용과 승상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는지라 이를 거역할 순 없으니, 내 자네를 만나 회포를 다 풀지도 못하고 황천길을 떠나네. 딸아이의 일생은 자네에게 달렸으니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내치지 않으며, 세 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

이 승상은 자신의 자식들이 부족하여 소대성을 과롭게 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

말을 마친 승상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 승상의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여 집 안에는 곡소리가 진동했다. 소생은 승상이 운명하자 입관하고 성복하기까지의 의례를 극진하게 지냈다. 소생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 승상의 아들들이 승상의 부고를 듣고서 밤낮으로 달려와 승상의 영전에 통곡했다. 소생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니, 이들은 소생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냐고 왕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이 소생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들은 단지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따름이라.

▶ 소대성을 도와준 이 승상이 죽음.

며칠이 지난 후 서당에서 나와 위문할 때, 소생이 이생 등을 보니 누구도 그 부친의 명감이 없는지라 생각에 잠겼다.

뛰어난 식견

‘이제 승상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소생은 그 이후로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폐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았다. 그러다 승상의 장례 치를 날이 되자 마지못해 의관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이 승상의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극진히 모셨다. 그러고는 또 서당에 누워 일어나지를 앓았다. 이에 왕 부인이 아들들과 소생에 대해 자주 의논했다.

“소생의 거동이 아주 태만하구나.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자기만 일삼으니 어찌 공명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오. 채봉과의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기를

“이제 아버님은 아니 계신지라 어머님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하시니, 소자들에게 하문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저희들이야 소생을 잠깐 보았지만 단정한 선비는 아니었습니다. 필시 채봉에게 흠이 될 것이옵니다.”

이 승상과 달리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범인임을 알 수 있음.

“본디 빌어먹는 걸인을 승상께서 취중에 망령되이 이 집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소생을 내칠 방도를 찾아보아라.”

소대성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왕 부인이 소대성을 내치고자 함.

포인트
1

「소대성전」의 인물 관계 **문항 9 관련**

소대성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나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난을 겪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능력을 기르게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

이 승상
부모를 여의고 방황하는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딸 채봉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혼인 전에 죽게 됨.



왕 부인
이 승상의 부인으로, 소대성의 누추한 겉모습만으로 소대성을 판단하여, 이 승상이 죽은 후에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고 함.

채봉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소대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어머니 왕 부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중에 노왕이 된 소대성과 결혼하게 됨.

포인트
2

「소대성전」에 반영된 영웅의 일대기 구조 **문항 11 관련**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소대성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용왕의 아들이었지만 비를 잘못 내린 죄에 대한 벌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남. 소상서 부부가 자식이 없어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하고 소대성을 낳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범한 능력을 지님. 	어려서부터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가에 능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아가 됨. 죽을 고비를 맞음. 	10세에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력자의 도움을 받음.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본 이 승상의 도움을 받아 보살핌을 받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정하여 위기를 겪음. 	이 승상이 죽자 왕 부인과 그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를 극복함. 	이 승상 태을 떠나 무술을 연마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소대성전」의 이원적 구조

「소대성전」은 영웅의 일생을 담은 군담 소설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드러나 있다. 소대성은 본래 용왕의 아들로 죄를 짓고 인간 세계에 격강한 인물이다. 소대성이 지상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용왕의 도움을 받고, 청룡사 노승을 만나 능력을 기른다. 여기에는 지상에서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상과의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원 천자와 호국 왕과의 싸움을 재미성과 익성의 싸움이라고 하고, 천상 상제가 익성을 죄 주어 인간에 두지 말라고 하는 장면에서 익성인 호국 왕의 패배는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설정은 후대 귀족적 영웅 소설에서 자주 나타난다.

■ 소대성과 다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이 승상이 죽고 그의 부인과 아들들은 소대성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지만, 소대성은 도술로 자객을 죽이고 집을 떠난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홍길동이 초란이 보낸 자객을 도술로 물리치고 집을 떠나는 전개와 유사하다. 홍길동은 스스로 도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술을 만나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후대 영웅 소설의 주인공인 조웅이나 유충렬 등과는 구별되는데, 소대성은 홍길동처럼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홍길동과 달리 소대성은 도술을 지녔으면서도 다시 도술을 만나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후대 영웅 소설의 조웅이나 유충렬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한편 소대성은 이 승상이 죽은 후에 무기력하게 지내는 나약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영웅 소설의 주인공들이 비범한 모습만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소대성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3대로 이루어진 조씨 일가의 삶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인물 설정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당대 시대 현실의 총체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유지되고 물려 내려오던 관습과 윤리가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갈등을 통해 본 당시의 사회상

전체 줄거리

유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 등과 만난다. 덕기는 조부(조 의관)와 그의 후처인 수원집을 비롯한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한다. 수원집과 그녀를 조 의관에게 소개해 준 최 참봉 등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모략을 꾸민다. 조 의관이 독살되자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집안의 갈등이 심화되지만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원집 일행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된다.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망연해한다.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 속 공부보다 집안일을 중시하는 조부의 태도가 나타남.

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림없지만 생각해 보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 ‘열쇠’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사당’은 구시대적 가치를 상징한 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⁴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 덕기에게 살림을 맡기고자 하는 조부

“살림은 아직 아변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덕기의 아버지인 조상훈을 말함.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나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걸식을 하든 조부가 자신의 아들인 조상훈을 신뢰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어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덕기에게 열쇠를 맡기고자 하는 조부의 의지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 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 조부와 덕기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수원집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열린 집어 들고 일어서 버렸다. ▶ 조부와 덕기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수원집

“애아범, 잠깐 거기 앉게.” /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 놓고서 따지려는 것이어서 덕기가 성큼 넘어 버리는 것을 보니

수원집의 목적이 ‘열쇠’를 손에 넣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인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앞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라면 머리카락 철쭉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 볼 틈을 타면 일

조부의 금고

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

의 몸이 빨랐던지 ‘사자’의 몸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미미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어쨌든 인제는 만사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음.

휴의(萬事休矣)다!

“이 댁 살림을 누가 맡든지 그거야 내 아랑곳 있으나, 하지만 지금 말씀 눈치로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기시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나더러는 어떻게 하라실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수원집은 암상이 발끈 난 것을 참느라고 발갠 얼굴이 파랗게 죽는다.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음.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인가?”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대꾸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댁에서 나가라면 그야 하는 수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 영감계선 안 할 말씀으로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영감만 먼저 가시는 날이면 저는 이 집에 한시를 머물 수 없을 게 아닙니까. 저년만 없으면야 영

영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수원집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가 나타남.

감이 가시면 나도 뒤쫓아 가기로 원통할 게 무에 있겠습니까마는 요 알뜰한 세상에 무얼 바라고 누구를 바라

고 더 살려 하겠습니까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 사정도 생각해 봐 주셔야 아니합니까!”

수원집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었다.

“그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슈?”

덕기가 탄하였다.

“내 말이 그른가? 자네도 생각을 해 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끄찍이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집안 사람들이 수원집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수원집은 코멘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다. 덕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어찌면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도 나올까 싶었다.

덕기도 조부 사후에 가족들이 수원집을 돌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요. 또 내가 살림을 떼맡는 자국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는 도무지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덕기는 타이르듯이 달래었다.

▶ 조부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 달라 하는 수원집

(중략)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이 써 주었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여기 와서 덕기는 깜짝 놀랐다.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 하는 짐작이 들었다.

상훈이 조부의 도장을 훔쳐 유서를 위조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아마 그런 듯도 해요.”

덕기가 부친을 싸고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덕기를 입으로는 으르르딱거리면서도 속으로 제 아비보다 낫다 부장은 덕기가 부친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고 생각하였다.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 운동자!”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꺼떡대려는 위인이니만치 밧게 보던 차에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 차반이로구나 — 하는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에 단단히 골려 주려는 것이다.

부장은 상훈이 종교 사회 운동에 앞장서는 듯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위선적 인물이라고 생각함.

대접하여 주자면 교분이 있는 고등 과장이 사건을 맡아 가지고 아무쪼록 유리하게 무사타침을 못 해 줄 것은 아니겠지만 고등 과장은 발을 빼고 사법계로 넘겨서 절도, 인장 도용, 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대 자가웃이 나 되는 기다란 죄명을 붙여서 용수를 씌울 예정이다. 형편 보아서는 사건을 또 한번 뒤집어서 그가 그런 범죄를 한 동기는 독립 자금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체면 좋게 뒤집어씌워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등계로 넘기게 될 것이요, 치안 유지법이나 보안법으로 두둑한 철갑옷을 입혀 주게 될 것이다. 사건이 ‘고등’이 되고 상

주로 민생 치안을 다루는 부서

상훈이 조부의 도장을 훔쳐 유서를 위조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주로 사상범을 다루는 부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등계에서 주로 다룸.

▶ 상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고등 과장

어쨌든 사건이 두셋씩 겹쳐서 두서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훈이 사건부터 집어 치우려는 것이다.

부장은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펴 놓으며,

“이것이 뉘 필적인가?”

하고 묻는다. 조부의 유서다. 뉘 손으로 꺼냈는지 이것을 보면 부친은 잡힌 모양이다.

조부가 직접 작성한 유서

조부의 유서를 부친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다음에 또 한 장 내놓았다.

“그럼 이것은?”

덕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 것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이다. 물론 필적도 같다.

상훈이 위조한 유서

“조부의 필적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였다.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것이니 잘 생각해 말을 해. 조부의 도장은 어디 있었나?”

“금고 속에 넣어 두었는데 아버지가 달라서 드렸습니다.”

“언제? 왜 달라던가?”

“정미소 명의를 고치시느라고 그랬던 것이겠지요.”

“언제 주었어?”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 외척 이 날까 보아서 좀 뻥뻥하다. 그러나 수원집에게 태평통 집문서를 내어 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대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덕기가 상훈에게 실제로 준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음.

“지난 달이던가요?”

하고 부장의 눈치를 보았다.

부장은 더 추궁하지 않고 옆에 앉았는 부하에게 눈짓을 한다. 부하는 슬쩍 일어나 나갔다.

‘부친을 불러다가 무릎맞춤을 안 하나?’

대질 심문을 의미함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면 어쩌나 하는 겁이 났다. ▶ 조부의 유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덕기와 고등 과장

오 분도 못 지나서 문이 펄쩍 열린다. 획 돌아다보던 덕기는 목덜미에 칼이 들어오는 것같이 고개를 툭 떨어 뜨리며 뛰어 일어났다.

그 꼴!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차마 못 볼 노릇이다. 수갑을 질러서 포승을 허리를 질끈 동이고 훑이 뒤발을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정서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한 모자를 채플린식으로 씌웠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채플린식이다. 그러나 결코 연극이 아니다. 추악하고도 잔인한 현실이다. 자식의 이런 꼴을 부모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이런 꼴을 보고 먼저 앞서는 것은 뼈저린 애정보다도 장상의 위신이 모독되는 점에 대하여 일종의 허무감과 동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 창피는 자기 개인과 맞상대자까지를 포함한 일문일족의 씨족적 불명예를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덕기가 구시대적 가족 윤리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함을 알 수 있음.

▶ 상훈의 비참한 모습에서 불명예를 느끼는 덕기

*외착: 착오가 생기기 서로 어그러짐

🔑 문제 해결 키 문항 12 관련

세부적 사실 이해

- 조부는 덕기가 공부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보기를 바람.
- 수원집은 덕기가 일찍 온 것을 아쉬워함.
- 덕기는 조부 사후에 가족들이 수원집을 돌보지 않으리라 생각함.
- 부장은 상훈이 평소 해 왔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함.
- 덕기는 상훈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 특징 문항 13 관련

전자적 시점의 서술자

- 다른 인물은 인지하지 못하는 특정 인물의 행동을 서술함.
- 특정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냄.
- 특정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판단을 서술함.
- 특정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서술함.

포인트 2

두 장의 '유서' 문항 14 관련

조부가 작성한 유서

- 조부의 필적과 같음.
- 조부의 도장이 찍혀 있음.
- 상훈이 위조한 유서보다 먼저 작성됨.
- 상훈이 가지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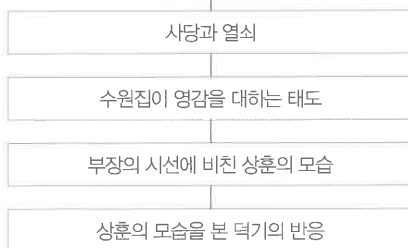
상훈이 위조한 유서

- 조부의 필적과 같음.
- 조부의 도장이 찍혀 있음.
- 정미소를 상훈에게 준다는 내용이 포함됨.
- 상훈이 가지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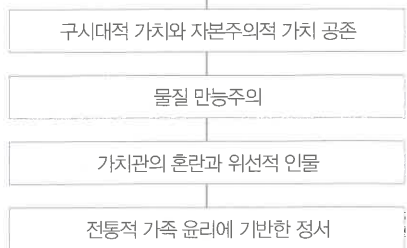
포인트 3

'삼대'를 통해 본 당대 사회 현실 문항 15 관련

'삼대'에 나타난 풍경



당대 사회 현실



→

■ 「삼대」의 전체 내용 구조

발단	일본 유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 등을 만남.
전개	족보 문제를 둘러싸고 조 의관과 상훈이 충돌하고, 조 의관의 첩인 수원집과 덕기의 어머니, 상훈과 덕기의 갈등 등이 나타남.
위기	조 의관의 병환이 급해지면서 귀국한 덕기에게 조 의관은 사망과 금고 열쇠 관리를 중용함. 수록 수원집과 그 일파는 조 의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모략을 꾸민.
절정	조 의관이 사망하고, 재산 문제로 집안의 갈등이 심화됨. 덕기의 친구 병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관련 인물들이 검거되고, 상훈 역시 조 의관의 유서 위조 등의 문제로 검거됨. 수록
결말	무혐의로 풀려난 덕기는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함.

■ 읽어 읽기: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태평천하」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여러 점에서 염상섭의 「삼대」와 비교된다. 두 작품은 모두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삼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사 소설로 분류된다. 또한 돈과 가문을 중시하여 가문을 돈으로 산 인물(조 의관과 윤 직원)이 등장하고, 그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아들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당대의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다만 염상섭의 「삼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고 있을 뿐, 작가의 가치 판단이 최대한 배제된 반면,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뚜렷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 '가족사 소설'이란 무엇인가요?

A. '가족사 소설'은 한 가족의 여러 대에 걸친 흥망성쇠를 다룬 소설을 말합니다. 가족 내의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의 움직임과 변화 양상을 중시하며, 여러 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기 때문에 연대기 소설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전형성을 띤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시대의 총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작가가 만년에 은퇴하여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 있고, 후 6곡 언화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자연 귀의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유교적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관념적 성향이 짙다. 작가는 「도산십이곡」 발문을 통해 우리말 가곡에 상스러운 것이 많은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도록 함으로써 나쁜 마음을 씻어 버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서 「도산십이곡」은 문학의 교술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창작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학문 수양의 길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름하랴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

<제1수>

▶ 제1수: 자연 속에서 살기를 원함.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안개와 노을 멋진 자연의 풍치를 뜻함.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¹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허물이나 없고자'라는 표현은 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점 중 하나임을 파악해야 함.

<제2수>

▶ 제2수: 자연 속에서 살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람.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듣기 도해

그윽한 난초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기 도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²을 더욱 잊지 못하여

'저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피미일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제4수>

▶ 제4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임금을 그리워함.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다

'대'는 높고 넓은 터를 의미함 여기서의 조대, 즉 누시터를 뜻함.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皎皎白駒)³는 멀리 마음 두는고

현인이나 성자가 타는 새하얀 말이지

여기를 버리고 탄 데 뜻을 지니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를 지남.

물을 뿌려 쓸어 낸 듯이 맑고 깨끗함.

천운대(天雲臺) 돌아들어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한데

도산서원 언저리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의 이름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무궁(無窮)하야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⁴를 닮아 모름하랴

소요하는 즐거움, 이리저리 걸어도니는 재미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교교백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따라 시적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함.

<제5수>

▶ 제5수: 자연을 멀리하는 것을 안타까워함.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왕래풍류'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제7수>

▶ 제7수: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함.

만 권이나 되는 많은 서적을 쌓아 두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치는 일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옛 성인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고인의 발자취를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뜻임.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냄.

<제9수>

▶ 제9수: 옛 성인들의 길을 따르고자 함.

당시(當時)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오고

학문 수양에 소홀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있음.

이제나 돌아오나니 **탄** 데 마음 마로리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제10수〉

▶ 제10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학문 수양을 다짐함.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르름,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태도를 지함함.

〈제11수〉

▶ 제11수: 학문 수양에 대해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함.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늪**는 줄을 몰라라

학문 수양에 매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

〈제12수〉

▶ 제12수: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냄.

※ 천석고황: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의 고질병.

※ 완락재: 도산 서원에 있는 서재 이름.

현대어 풀이

〈제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
랴
더구나 자연을 버리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고쳐 무엇하
랴

〈제2수〉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아
태평스러운 세상에 병으로 늪어가지만
이 중에 바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

〈제4수〉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피었으니 자연이 향기를 풍기고
흰 구름이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가 좋네
이 중에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하네

〈제5수〉

산 앞에 높은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떼를 지어 나는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는데
어찌하여 희고 깨끗한 말은 멀리에 마음을 두는고

〈제7수〉

천운대를 돌아 들어간 곳에 완락재는 깨끗한데
많은 책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무궁하구나
이런 가운데 이따금 바깥을 거니는 재미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제9수〉

옛 어른(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을 보지 못하네
옛 어른을 보지 못해도 그분들이 행하던 길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

〈제10수〉

그 당시 학문 수양에 힘쓰던 길을 몇 해씩이나 버려두고
어디를 헤매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는 탄마음을 먹지 않으리

〈제11수〉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저 물같이 그치지 말고 저 산같이 언제나 푸르게 살리
라

〈제12수〉

어리석은 사람도 알아서 행하니 학문의 길이 얼마나 쉬운가
성인도 다하지 못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는 중에 늪는 줄을 모르겠다

이것만은
꼭
악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교교백구』와 『멀리』의 의미에 대한 이해 **문항 2** 관련

교교백구	멀리	마음 두는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 • 은거를 선택한 타인 	속세	교교백구가 속세에 마음 두는 상황을 드러냄. 교교백구가 속세에 마음 두는 것을 경계함.
	현실 정치의 장	교교백구가 현실 정치를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냄. 교교백구가 현실 정치에 마음 두는 것을 경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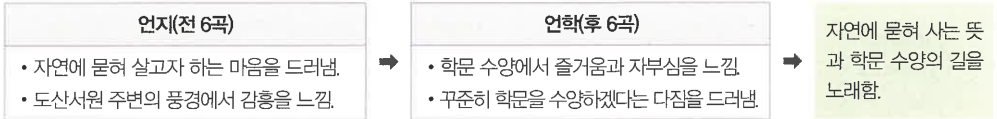
포인트 2

〈제1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문항 1** 관련

- 초장: 달관적 삶의 태도가 엿보임.
- 중장: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화자의 겸손한 태도가 드러남.
- 종장: 자연 속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고질병에 비유함으로써 자연을 벗어나며 살아가는 자부심을 드러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도산십이곡』의 시상 전개



■ 『도산십이곡』의 창작 동기

이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까닭은 우리나라의 가곡이 대개 상스러워 말할 거리가 못 되기 때문이다. 저 『한림별곡』 같은 것은 문인들이 부른 것이지만, 호기를 뽐내며 방탕한 데다가 무례하고 장난기가 섞여 근자로서 숭상할 바 못 된다. 근세에 이별의 ‘육가’가 널리 전해졌거니와 차라리 이것이 『한림별곡』보다 나은 듯 하나, 이 역시 세상을 회롱하여 공격하는 뜻이 없고, 온유하고 인정 두터움의 실(實)이 적으니 애석한 일다. (중략)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유행하는 좋아도 노래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노래로 부르려면 우리말로 지어야 되니, 이는 국속(國俗)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별의 ‘육가’를 본으로 삼아 ‘도산육곡’ 둘을 지으니, 그 첫째는 ‘지(志)’를 말한 것이고, 둘째는 ‘학(學)’을 말한 것이다. 이를 조석(朝夕)으로 아이들에게 익히 부르게 하며, 외자에 기대어 듣기도 하려니와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게 되면, 모두에게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 『도산십이곡 발』 중

■ 『도산십이곡』 더 감상하기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저마리
인성(人性)이 어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한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한가 (제3수)

현대어 풀이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로다
사람의 본성이 어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로다
천하에 수많은 영재를 숙여서 말씀할 것인가

춘풍(春風)에 화만산(花萬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萬臺)라
사시 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구름의 그림자와 밝은 햇빛 만물이 천성을 얻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함.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
슬고 (제6수)
고기는 뛰고 솔개는 난다 라는 말로 연못에 뛰는 고기와
하늘을 나는 솔개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가득하다는 뜻.

현대어 풀이
봄바람에 산 가득 꽃이요, 가을밤에 달빛이 누각
에 가득하구나
네 계절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천광이야 어찌 끝이 있을까?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글쓴이가 고향 집 정원의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고전 수필로, 사물의 이름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신경준은 고향 집의 정원을 가꾸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순원화책잡설(淳園花卉雜說)」, 즉 '순원의 꽃과 나무에 대한 글'로 묶었는데, 이 작품은 그중 한 편이다. 글쓴이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실학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름 없는 꽃을 통한 사물의 이름과 본질에 대한 사색

순원(淳園)의 꽃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글쓴이의 고향인 순창에 있는 정원 사물의 이름은 사람에게 의해 붙여짐.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 가: 이름 없는 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명분과 형식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물 그 자체, 실질 여기에 맞난 회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 보기만 하면 된다. 명분과 형식의 예 ① 먹어 배가 부르면 명분과 형식의 예 ②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르다 생선의 이름: 명분과 형식의 예 ③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으니 입어 보기만 하면 된다. 명분과 형식의 예 ④ 입어 보고 따뜻하면 명분과 형식의 예 ⑤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르다 명분과 형식의 예 ⑥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고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명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승: 이름은 단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문제 해결 키 문항 8 관련

- 명분 =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
- 실질 =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
- ↳ '음식 이름', '옷의 이름', '무슨 생선의 살인지',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는 모두 이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명분'에 해당함.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사물의 실질 가치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사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이름 때문이 아니므로, 사물의 실질과 그 이름은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가치를 알았다면 이름이 필요하지 않음.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이름이 필요한 이유 형태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작은 것이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물들의 형태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름이 될 수 있음. 땅을 가지고서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물들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름이 될 수 있음.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방향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름이 될 수 있음. 멀리 있으면 '저기'라고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사물들의 원근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저기' 모두 이름이 될 수 있음. 이름이 없어서 '무명(無名)'이라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이름이 있고 없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명' 역시 이름이 될 수 있음.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문제 해결 키 문항 5 관련

- 어부는 '어부'라는 친한 명칭으로 불렸음에도 굴원과 함께 후세에 이름이 전해지는 이유가, 어부의 이름이 아닌 어부의 말과 행적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함.

위패를 사당, 서원 등에 모심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굴원(屈原)과 함께 배향하였다. 고사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굴원은 「초사(楚辭)」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칙(正則)이니 영균(靈均)이니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굴원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런데도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백대(代)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 유방(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하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 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 주어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름이 없이 직업으로 불리므로

유방(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 전: 이름이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으며, 이름이 없어도 됨.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글쓴이와 입장이 다름. 되었는가?”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라서 없는 것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이 있고 없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음.

▶ 결: 모르는 것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음.

명분보다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키 문항 4 관련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었는가?’라는 ‘어떤 이’의 물음에 대해 ‘나’는 ‘~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반문함. 이를 통해 ‘이름’에 대한 ‘어떤 이’와 ‘나’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4, 5 관련

물음의 형식을 통해 이름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함.	~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사물의 구별하는 말과 이름의 관계를 제시함.	(형태 / 색깔 / 땅)을 가지고 본다면 ~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고사를 인용하여 사물의 이름보다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백대(代)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여 이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드러냄.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었는가?”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사의 내용	초나라의 충신인 굴원은 초나라가 간신배들의 횡포와 외적의 침입으로 몰락하자, 현실에 절망하여 돌을 품고 먹라강에 몸을 던졌음. 굴원의 「어부사(漁父詞)」는 굴원과 한 어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 굴원이 세상의 더러움을 한탄하자, 어부는 굴원의 고고한 처세를 비판함. 초나라 사람들은 굴원뿐만 아니라 어부의 말에도 감동하여 어부를 굴원과 함께 기렸다고 함.
고사의 의미	‘어부’가 굴원과 함께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부’라는 이름 때문이 아닌, 어부의 말과 행적 때문임.
작가의 의도	사물의 이름은 굳이 아름다울 필요가 없으며, 없어도 무방하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한문 양식 ‘설(說)’

‘설’은 어떤 대상을 풀이하거나 이치를 논증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다. 설은 ‘기(起)-승(承)-전(轉)-결(結)’의 구조를 이루는데, 설 중에는 대상에 대한 풀이가 두드러지는 실용적 성격의 글이 있는가 하면, 대상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적 소재나 인간의 삶과 밀접한 소재를 다루면서 문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한다.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거정, 「수직(守職)」	세상의 모든 물은 각기 직책이 있으므로, 자신의 직책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고전 수필로, 명분론적 사고와 관련하여 글쓴이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음.
‘소재’를 중심으로	김진섭, 「명명(命名) 철학」	평범한 대상인 ‘이름’의 의의와 역할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 현대 수필로, 이름이라는 소재에 대한 글쓴이들의 생각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음.
‘경험’을 중심으로	이덕무, 「칠십 리 눈길을 걷고」	여정 중에 마주친 설경과 그에 대한 감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고전 수필로, 일상생활의 경험을 어떻게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지어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음.

EBS
Q&A

Q.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을 조선 시대 후기의 실학사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문항 8 관련**

A.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신분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名分)’을 내세워 개인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요했지요. 이때 ‘명(名)’은 이름을, ‘분(分)’은 처지를 나타내는데, 결국 ‘명분’이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즉 ‘양반’ 신분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양반답게, ‘노비’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노비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름 없는 꽃’의 글쓴이는 사물의 이름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름 그 자체보다는 사물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실질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 등장한 실학사상은 사물의 실질을 주목하고 실생활의 가치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이 작품을 실학사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상 포인트

이 작품은 불교적 설화가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늘부형 인간인 응고집의 개과천선 과정을 통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율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응고집은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패륜적 인물에 해당하는데,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남에게 몫할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전체 줄거리

웅진골에 살고 있는 응고집은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며, 팔십 노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이자 승려와 거지를 무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어느 날 월출봉 비치암의 학 대사가 응고집을 찾아가지만, 응고집은 학 대사를 문전박대한다. 이에 도승은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 가짜 응고집(헛옹기)을 만든다. 이후 헛옹기는 진짜 응고집(참옹기)의 집에 찾아가고, 헛옹기와 참옹기는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게 된다. 둘은 원님을 찾아가 진위를 가려 달라는 송사를 하고, 원님은 세간살이와 집안 족보를 잘 안다는 이유로 헛옹기를 진짜 응고집으로 인정한다. 집에서 쫓겨난 참옹기는 도승을 찾아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도승이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참옹기가 부적을 던지자 헛옹기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이에 참옹기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기로 한다.

헛옹가가 허허 웃으며 하는 말이,

“너도 이 집 옹가라 하고 나도 이 집 옹가라 하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주가 명관이니 송사(訟事) 하여 보자.” 하니, 참옹가가 대답하되, / “그리 하자.” 하고 억울한 심정을 글로 지어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참옹가가 소지(所志)를 올리니, 형방이 이를 받아 고할 때,

소장(訴狀). 청원이 있을 때 관청에 내는 서면

“삼가 뜻하는 바를 펴고자 하는 것은, 본 백성이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하였는데, 천만의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며칠 전에 안마당에 갑자기 들어왔거늘, 그 옹모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얼굴과 같고 제 모양과 같기에 그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응고집이라 하고 저의 세간을 탈취하오니, 이런 흉악한 놈이 있사오리까? 원통하게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원님께 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원님께서는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흉악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기를 우러러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지방 관아 형방의 아전을 가리킨 '형방'은 법률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임.
 형방이 보고하니 원님이 분부하되, / “너도 옹가요 저도 옹가라 하니,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
참옹가와 헛옹가의 외모가 같기에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움.

이 없다.” / 하실 때, 헛옹가가 또 소지를 올리니 하였으되,

“삼가 뜻을 펼쳐 보이게 된 것은, 고금천지 간에 성명 생년과 생월생시가 같사와 비록 분간하기 어려우나, 저는 맹랑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저 옹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어찌 헛되이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명관(名官)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참상이 신후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옵고, 저놈을 더 한층 엄한 형벌로 다스리시어 저의 분한 일을 풀어 주옵소서.”

하였거늘, 형방이 다 고한 후에 헛옹가가 여쭙되,

“제 소지에도 하였거니와 이 일이 답답하옵고 애달프오니 밝게 처분하여 사실을 밝혀 주옵소서.”

문제 해결기 문항 7 관련

- 참옹가의 소지: 소를 올리는 이유 + 헛옹가에 대한 징벌을 요구
- 헛옹가의 소지: 자신의 내력 + 원님의 덕 칭송 + 참옹가에 대한 징벌 요구
- ⇒ 참옹가와 헛옹가의 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함.

▶ 참옹가와 헛옹기는 누가 진짜 응고집인지를 밝히기 위해 송사를 함.

원님이 분부하되, /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다. 너희는 각각 집에 돌아가라.” 하고,

참용가와 헛용가 중에서 누가 진짜 용가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리라.” 참용가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는 백성의 부모요 백성의 하늘이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원님이 분부하되, / “너희 원정을 보고 너희 모양을 보니 옥석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너희 집 세간을 각각 의

위 바치라.” / 헛용가의 거동 보소. 동원 마당에 설설 기어 들어와 아뢰되, 며. 침으로 날을 촘촘히 걸어서 만든 그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 당시의 세태를 반영함. 온갖 남세를 통틀어 일컬음. 룩의 하나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쓰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등 눈을 헤아리면 일백여돈당 설지기로, 구실은 마련하면 백여돈세 먹이요 땅 지

(地) 자 일등 밭이 삼백서른두 말이요, …… 황소 세 필, 암소 세 필과, 적토마, 자루마, 사족밭이 합 열 마리오,

황구, 백구가 열 마리오, 황계와 백계가 백여 수 되나이다.” 법시 한 섬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외 넓이 털빛이 밤빛과 같은 말

황구, 백구가 열 마리오, 황계와 백계가 백여 수 되나이다.” 중국 삼국 시대 관운장이 탔다는 말 이름으로, '걸음이 몹시 빠른 말'을 일컬음. 네 굵이 흰 말

황구, 백구가 열 마리오, 황계와 백계가 백여 수 되나이다.” 『』 소송에서 헛용가가 이기는 이유 ①: 집안의 세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

원님이 분부하되, / “너는 세간살이를 자세히 아는구나. 그것은 그러하거니와 저 용가 아뢰어라.”

헛용가 곁에 섰다가 급히 재촉하니, 참용가가 기가 막혀 연기 마신 고양이같이 집 세간을 대강도 알길 없어 목

‘연기 마신 고양이’는 ‘무엇이 못마땅하여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목히 섰을 적에, 좌우 나졸이 참용가의 당혹스러운 심리를 드러냄.

“바빠 아뢰어라.” 하니, 경황이 없는 중에 가산을 외우되 밀도 끝도 없이,

기름지고 양분이 많은 밭

“문전옥답이 굉장히 많고 오려는 닷 마지기, 개똥밭 열 마지기요, 집안 세간은 여편네가 아옴지 저는 알지 못

올벼를 심은 논. ‘올벼’는 보통 벼보다 이르게 익는 벼 참용가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냄.

하나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 헛용가와 달리 참용가는 원님의 분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함.

“네 사조(四祖)를 말하라.” 하니, 참용가가 영겁결에 아뢰되,

4대 조상.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를 말함.

“증조, 고조를 모르고 할아버지 모르고, 부모는 더욱 모르옵니다.” 원님이 분부하되,

“네 이놈,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상놈이로다.” 헛용가가 아뢰는 말이,

가문을 중시했던 당시 사회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저 미친 놈이 어찌 저의 사조를 알겠습니까? 제가 아뢰오리다. 저의 고조는 용송이요, 증조는 망송이요, 할아

소송에서 헛용가가 이기는 이유 ②: 사조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

버지는 승송이요, 외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장인은 상송이로소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용송, 망송, 승송, 송송, 상송 하니 너는 참용가요, 저놈은 헛용가로다. 헛용가 올려 때라.” ▶ 원님은 헛용가를 진짜 옹고집이라 판결함.

[중략 부분 줄거리] 참용가는 원님에게 매타작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려 친구네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도 가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다. 참용가는 월출암 도승을 찾아가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는

월출산에 들어가니 과연 도승이 있는데, 용가가 문밖에 엎드려 대죄하니 도승이 말하기를,

“네 죄를 아느냐?” 용가가 말하기를, / “과연 모르오니 덕분에 살려 주십시오.”

도승이 말하기를, / “내가 인간 세계에 나갔을 때 네가 한 죄를 모르느냐?”

옹고집을 찾아가던 도승을 문전박대한 일

용가가 말하기를, /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 주십시오.”

하되, 도승이 상좌를 불러 쑥 한 짐 저다가 주먹만큼 비빈 후, 용가의 옷을 벗기고 불기를 삼천 대 때리고 땀을

뜨니, 용가가 반만 죽었거늘,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警戒)하여 말하기를,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내가 너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불도가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하겠는가? 이것이 다 경계하는 술법이라. 어찌

사람을 천 장이나 땀을 떠서 죽지 아니하겠는가?”

옹가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볼기를 만져 보니 겨우 뜨뜻할 뿐이었다.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 주며 말하기를, 옹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 부적을 가지고 네 집에 돌아가 방 안에 붙이고 왼발을 구르면서 주문을 외우면 네 집에 있는 옹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쉼이 될 것이니, 네가 집안 세간을 다 찾아 살되 불측한 뜻을 다시 먹지 말라.”

하니, 옹가가 백배사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부적을 던지면서 왼발을 구르고 주문을 외우니, 이때 등축을 밝히고 손님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허수아비 자빠지니, 모든 손님이 크게 놀라 얼른 사람은 기절하고 겁내는 사람은 똥 싸더라. 그제서야 참용가가 전과 다름없이 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이 무안하여 열없어하고, 처자 노복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보고, 다 얼굴을 가리며 코를 쥐며 서로 탄식함을 마지아니 하였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의식이 매우 구차하고 가난하게 되고 곳간집이 전혀 없더라. 백발이 원수이다. 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옹가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는 점에서, 서술자가 여전히 옹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르는 물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은 잠깐이라. 풀잎의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가련하다.

세상 사람이 제 본심을 가져 남에게 몹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을 면하느니라.

작품의 주제 의식

▶ 참용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 집으로 돌아오고, 헛용가는 참용가가 부적을 던지자 사라짐

문제 해결기 문항 6 관련

- 헛용가가 '허수아비'로 변한 것: 참용가로 추정되는 경쟁자가 사라진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것이 참용가로 추정되는 경쟁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보기>에 제시된 '복제 불가 조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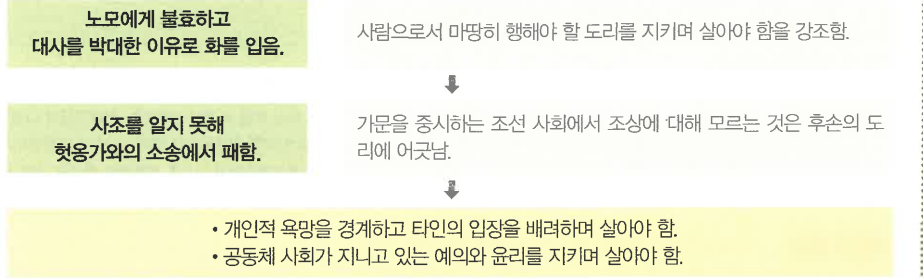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소지'에 나타난 참용가와 헛용가의 원심 설득 전략 문항 7 관련

참용가	자신이 소를 울리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	• 천만의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며칠 전에 안마당에 갑자기 들어왔거늘 • 대답하여 말하기를 옹고집이라 하고 저의 세간을 탈취하오니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의 특징을 언급함.	• 그 용모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얼굴과 같고 제 모양과 같기에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함.	• 원님께서서는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원님의 판결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함.	•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기를
헛용가	맹랑촌에서의 거주 사실을 언급함.	• 저는 맹랑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과 자신과의 차이점을 언급함.	• 저 옹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함.	• 위로는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명관이 있으니
	원님의 판결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함.	• 저의 분한 일을 풀어 주옵소서

‘옹고집’의 고난을 통해 살펴보는 작품의 주제 의식 **문항 8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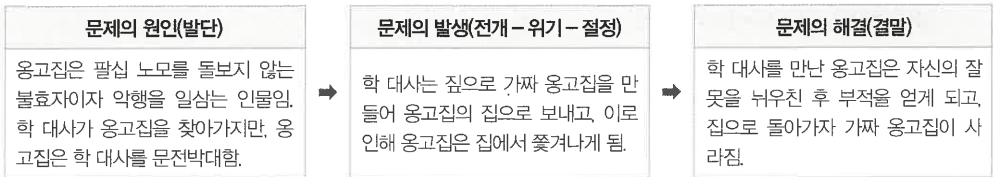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옹고집전’의 근원 설화: ‘장자못 설화’

내용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포악한 장자 성을 가진 부자인 장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자, 장자는 쌀 대신 쇠똥을 바랑에 넣어 주었는데 중은 그냥 받아 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서 바랑에 담아 주었다. 그러자 중이 “당신이 살려면 지금 나를 따라오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금기를 주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나혹은 기르던 개를 데리고, 아기를 업고, 베를 이고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참고 돌아보지 않았으나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집이 못이 되었으므로 놀라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지금도 그 부자의 집터가 변한 못과 바위가 남아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옹고집전’과의 공통점	‘옹고집’과 ‘장자’ 모두 자신의 집을 찾는 도승(중)을 박대해서 화를 입게 됨.
‘옹고집전’과의 차이점	‘장자못 설화’: 장자뿐만 아니라 집안사람 모두 화를 입게 됨. ‘옹고집전’: 옹고집 개인만 화를 입게 되며, 옹고집은 도승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됨.

■ 문제 해결 관점에서 바라보는 ‘옹고집전’의 서사 구조



EBS Q&A

Q. 작품이나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이 외적 준거로 제시되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문항 6 관련**

A. 일반적으로 문학 문항에서는 외적 준거로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작가와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지만, ‘문항 6’처럼 작품이나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접하던 외적 준거의 형태에서 벗어나기에 당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외적 준거로 제시된 내용이 제시문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적 준거로 작품이나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이 제시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항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문항 6’에서는 ‘개인 동일성 문제’에 관한 글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옹고집전」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기>에서는 ‘개인 동일성 문제’를 신체 이론, 심리 이론, 복제 불가 조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이론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면, 자신이 진짜 옹고집이라고 주장하는 참용가와 헛용가의 주장,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원님의 판단이 각각 어느 이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아마존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중반부까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삭막한 모습을 묘사하며, 그 속에서 총족되지 않는 열대어들의 근원적 욕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황폐한 분위기는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행위로 인해 반전을 이룬다. 후반부에서 화자가 보여 주는 아마존의 원시적 이미지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한 내면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도시 문명 속의 황폐한 삶과 시적 상상력을 통한 치유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드러냄.
 세검정 길
도시 문명이 펼쳐진 공간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도시의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로 인한 냄새, 삭막한 이미지를 환기함.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자동차들
 질주하는 여름밤

사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대상, 2연의 '후리자아 꽃'과 대비를 이룸.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은유적 표현, 세검정 길 건물들의 철근과 간판을 표면적 유사성을 매개로 아마존의 밀림과 열대에 각각 빗댄.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역설적 표현, 중요한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줌.
 변기 같은 콧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도시의 소음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현대인들의 시적 상상력을 일깨움.

▶ 1연: 도시 공간에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함.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후리자아 꽃'의 이미지와 조응하여 상상의 공간인 아마존의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환기함.

아마존 강변에 후리자아 꽃들이 만발했다.

중만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

'시'적 상상력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현대인들의 내면

▶ 2연: 생명력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이 나타남.

문제 해결 키 문항 9 관련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가 세검정 길과 아마존의 본질적 유사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님을 파악해야 함. 이는 세검정 길의 철근과 간판, 아마존의 밀림과 열대가 표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데 착안한 표현이지만, 정작 세검정 길은 아마존의 생명력이 부재하는 삭막한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묘사는 도시 공간의 삭막함을 반어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대립적 시어와 공간 이미지 문항 10, 11 관련

세검정 길,
아마존 수족관,
철근, 간판,
열난 기계들, 종이꽃
삭막한 도시 공간의 이미지

아마존,
아마존 강물,
밀림, 열대,
노란 달, 후리지아 꽃
생명력이 충만한 원시적 공간의 이미지

포인트
2

시상 전개 방식 문항 11 관련

열대어들이 도시 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이 제시되고, 화자가 이들에게 시를 선물하자 시상의 반전이 이루어져 생기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이 펼쳐진다. 여기에서 화자가 시를 선물하는 행위는 열대어들의 상상력을 일깨워 그들이 아마존의 모습을 상상하게끔 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열대어들이 도시 속에서 갈등을 느낀

아마존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 펼쳐짐.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 작품이 실린 시집 『세속 도시의 즐거움』에 대하여

도시 환경에 대한 사람의 정서적 반응은 체험 내용과 삶의 배경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 왜곡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부정적 양상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종말론적 위기의식에 닿을 때가 많다. ‘도시 시’나 ‘문명 비판 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테면 ‘세속 도시’의 내면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의미를 복원하는 시적 탐색의 길을 걸어온 최승호(崔勝鎬, 1954~)의 『세속 도시의 즐거움』에는 일일이 늘어놓기 어려울 만큼 현대 도시 문명을 뒤덮고 있는 온갖 병적 현상, 죽임과 죽음의 문화 체험에서 비롯된 공동(空洞), 기괴한 죽음이 가득 차 있다.

-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4』

EBS
Q&A

Q. ‘우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작품에서 ‘우의적 형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우의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열대어 자체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열대어에 빗대어 현대인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즉 1연에서 열대어들을 둘러싼 세검정 길의 모습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열대어들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황폐한 삶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아 치유를 경험하게끔 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자연에 존재하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텔레비전'은 화자의 감각을 가득 채우는 문명의 힘을 보여 주며, 이를 끄자 화자는 비로소 그동안 지나쳐 왔던 자연의 소리를 지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낸 작은 생명체들에 대해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상상의 과정에서 자신의 무감각하고 메마른 내면을 자각하고, 아주 작은 벌레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에 담긴 생명의 힘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고자 한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지는 상황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겪은 화자의 내면 상태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문명적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과의 교감

텔레비전을 끄자

현대 문명의 이기(利器)

풀벌레 소리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청각의 시각화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1~5행: 텔레비전을 끄고 벌레 소리에 귀 기울임.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귀뚜라미나 여치의 울음보다도 작은 풀벌레의 울음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작은 풀벌레들의 귓구멍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울음을 통해 교감하는 작은 풀벌레들의 마음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6~12행: 울음소리를 만들어 낸 벌레들의 작은 귀와 여린 마음에 대해 생각함.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한 원인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화자와 풀벌레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문제 해결 키 문항 10 관련

'풀벌레 소리'의 형상화 방법

'벌레 소리들 환하다'는 청각을 시각화하여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 울음소리들은 ~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 떨어졌을 것이다' 등은 '풀벌레 소리'를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처럼'을 활용해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청각의 시각화, 화자와 풀벌레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을 강조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자연적인 것들을 지각하고자 하는 노력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를 느낌.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풀벌레들의 소리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내면

▶ 13~20행: 벌레 소리가 화자 자신의 귀에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것이라 짐작함.

▶ 21~23행: 밤공기를 들이쉬며 벌레 소리로 인해 내면이 환해짐을 느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대립적 시어

부정적	긍정적
텔레비전, 발뒤꿈치, 현란한 빛, 벽, 전등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 어린 마음들, 밤공기

작품에서 문명적인 것, 장애물의 기능을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 쓰인 반면, 자연적인 것, 생명과 관련된 것은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

포인트
2

'귀'의 형상화 문항 10 관련

풀벌레들의 귀는 '작은 귀', '까맣고 좁은 통로'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두근거리며 매달린 어린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화자에게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들'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풀벌레들은 '귀'를 통해 서로의 어린 마음을 나누면서 작지만 맑고 생기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화자의 귀는 이와 대조적으로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두껍게' 채워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귀'의 형상에는 문명에 젖어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데 대한 화자의 반성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의 의미 문항 11 관련

이 시에선 밤의 시간에까지도 텔레비전이라는 인간과 문명의 소리에 매달렸던 시인이 불현듯 그 소리를 꺼 버립니다. 그러자 방 안 가득히 어둠과 풀벌레들의 소리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인간의 소리와 욕망을 거둬 내자, 그의 빈방 속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의 빈방 속으로 밤의 주인공들인 어둠과 풀벌레들과 달과 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밤의 주인공들이 찾아든 방 안에서 환한 기운을 느낍니다. 텔레비전에 눈멀었던 그의 눈에 어둠이 보이고, 별빛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풀벌레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들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은 밝아진 것이고, 밝아진 그의 눈은 이들의 존재에서 환한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 정효구, 「풀벌레들에게도 작은 귀가 있습니다」

EBS
Q&A

Q. <보기>를 바탕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11 관련

A.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문학 작품이 한 세트의 묶어 출제되는 경우 작품들을 묶은 의의가 드러나도록 세트가 설계됩니다. <보기>에 외적 준거를 제시하여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도록 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보기>에는 작품들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작품들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두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것인지 개별 작품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구별하여 이해하고 각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판자촌인 '마삿등'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을 위해 식수원을 개발하여 정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준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이들의 저항

전체 줄거리

마삿등 판자촌에 사는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물을 쓰는 산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의 산이므로 수도를 철거할 것을 통보한다. 황거칠 씨가 이에 불복하자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지게 된 황거칠 씨는 결국 물과 수도를 빼앗긴다. 이에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황거칠 씨는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수도를 연결하지만 또 다시 국유지를 불허받았다는 산 임자가 나타나면서 마삿등 사람들은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하 취소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황거칠 씨는 내쳐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작량(情狀酌量)¹⁾도 법을 권 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팽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끓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팽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벌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편치에 코피가 터졌다. ▶ 집달리 일행과 마삿등 사람들 간의 충돌

경찰은 발포를—다행히 공포였지만—해서 겨우 균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 집행 방해에다, 산주(山主)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이유보다는 오로지 무력 행사와 같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 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써,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난 황거칠 씨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 일행이 구룽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²⁾

▶ 호동팔에게 넘어간 마삿등의 물

‘죽일 놈!’

문제 해결 키 문항 14 관련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실제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삶의 공간이 순식간에 사유화되면서 물과 같이 생존의 중요한 조건 역시 쉽게 사유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이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성격이 잘 드러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쉽게 타협하거나 뜻을 굽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황거칠 씨는 벼락 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호동팔 측의 제안을 거절한 황거칠 씨와 그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알 수 있음.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 호동팔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는 황거칠 씨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마삿등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을 쓰게 된 상황으로, 산 수도 철거를 빌미로 산에서 나오는 물을 독점하려던 호동팔의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

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 호동팔의 물을 쓸 수밖에 없는 마삿등 사람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문제 해결기 문항 14 관련

마을 사람들은 마삿등에 염연한 주소를 갖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관리는 받고 있었으나 쓰레기 수거, 수도 시설 등의 기본적인 거주 지원은 받지 못한 상태였음. 마삿등 사람들이 직접 산 수도를 설치하고 우물을 판 것은 실제로 마삿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예의 쇠작대기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암 뿔선 뒤 굴밤나뭇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새로운 물을 끌어오기 위해 결심하고 나서는 것으로, 고난과 시련에 쉽게 굴하지 않는 황거칠 씨의 강인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산에서 물을 찾기 시작한 황거칠 씨

그러나 그는 굴밤나뭇골을 그냥 스쳐서, 낙동강 하류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산정으로 곧장 올라갔다. 그 산정의 양지바른 곳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다.

—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선인들의 무덤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이야기하기로 하자.

아무튼 그는 길도 또렷하지 않은 산길을 더위잡았다.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거기서부터는 수목도 거의 없고, 대신 풀이 무릎 위까지 자라 있었다. 역새는 벌써 자줏빛 꽃순을 내밀었고, 마타리랑 뚜껑도 키 겨릅을 하듯 노랑 쪽지, 흰 쪽지들을 바람에 흐늘거려 댔다. 그러한 키다리들 틈에 끼어, 참취, 개썩부쟁이, 도라지, 등골나무, 산들개, 산박하…… 이루 셀 수 없는 조국의 어여쁜 꽃들이 산을 온통 수놓듯 했는가 하면, 찌르르 하는 풀벌레 소리들이 한결 가을을 느끼게 했다. 물럭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황거칠 씨는 문득 조국의 향기를 맡는 듯했다. 숲제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황거칠 씨의 지사적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단지 자신만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다수의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 되어 하는가?’ 하는 노여움에 다시 사로잡혔다.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줌

지리지도 못한 백성들이란 생각을 더욱 절실히 가지면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고향 산천이 있을 먼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 새롭게 물을 찾아다니며 결심을 다지는 황거칠 씨

(중략)

‘저 짝간 집들에도 나 같은 소년, 아니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이 필연코 있으리라…….’

문제 해결 키 문항 15 관련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황거칠 씨의 열망은, 소수의 권력층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초라한 집들이 자기의 고향을 연상케 하는 데다, 듣던 대로 이렇다 할 농지도 없고 그저 산이나 뒤져 가면 연명들을 해 가는 것 같아서, 황거칠 씨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는 몽클한 채 일어섰다. 굴밤나뭇골로 되돌아온 그는 바삐 산으로 싸들었다. 냉큼 물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
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는 반드시 특수한 종류의 멧풀들(가령 개구리갯이니 쇠스랑개비
등속의 습지 생풀들을 그는 통틀어 물풀이라고 불렀다.)이 나 있었다. ▶ 굳은 결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물을 찾는 황거칠 씨

그럴 만한 곳을 한참 쏘다닌 끝에 다행히 그는 그럴싸한 자리를 몇 군데 찾았다. 물풀이 나 있었다. 그는 반색
을 하며 쇠작대기로 땅을 쿡쿡 찌러 보았다. 한 곳은 토질도 물러 보였다. 그는 용기를 얻었다.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 나는 특수한 종류의 풀들을 발견하고 난 후 새로운 수도 시설을 또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게 됨.

용기를 얻은 황거칠 씨는 물풀이 한결 짙어 보이는 곳에 퍼져 앉아서 담배를 연거푸 두 개비나 태웠다. 물풀이
있는 곳을 쉬 찾은 것은 좋았으나 이윽고 일껏 만들었던 수원을 빼앗긴 일, 그러고서 다시 새 우물을 파야 할 일
들을 생각하면 새삼 입맛이 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허덕이는 조국과 더불어 겪어야 될 시련의 하나라니 생각하면서 발끝에 있는 물풀을
황거칠 씨가 시련을 소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물풀을 손에 가득 움켜쥔 채 산을 내려가는 장면은 황거칠 씨의 행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함
한 음침 푸짐하게 뜯어 쥔 채, 뚜벅뚜벅 산을 내려왔다. ▶ 물풀을 거머쥔 채 우물 파기를 결심하며 산을 내려오는 황거칠 씨

* 정상직량: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요인 1

등장인물의 특징 및 관계 문항 15 관련

황거칠 씨

- 이름의 의미: '거칠다'는 뜻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지난함을 함축함.
- 할아버지는 3·1 운동으로 옥사하였으며, 아버지 역시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옥사함.
- 공동의 수도를 만들어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인물

호동팔

- 일제 강점기 친일을 일삼았던 이의 후손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
-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적산 임야를 불하받은 형 호동수의 힘을 빌려 마을의 사설 수도를 철거하려 함.
- 마을 사람들의 처지와 생존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법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



포인트 2

제목 '산거족(山居族)'에 대한 이해

-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 산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장소나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해 개발되지 않은 산을 찾아온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포인트 3

'마삿등'이라는 공간 **문항 14 관련**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삿등'은 자본에 의해 밀려난 변두리 인간들의 애환과 현실에서 고통받는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다.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삿등 주민들에게 마삿등은 그들의 생존권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반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경우 마삿등이라는 공간은 재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일 뿐이다. 이러한 두 개의 이질적인 가치가 하나의 공간에 나타나면서 갈등이 촉발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법 만능주의 사회에서 법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김정한의 「산거족」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에서도 법적 근거가 운운되는 낯선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웃 간의 인정이나 도덕성보다는 오로지 법적 정당성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문제 해결 역시 개인 간의 화해와 조정보다는 법적 판결만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마땅히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할 수도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호동수, 호동팔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주민들이 마냥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에게는 법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마삿등 사람들에게는 수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반해 호동수, 호동팔 형제는 어쪼잖게나마 법률 지식을 가진 이들이었다.

법이 판단하는 것은 오직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일 뿐 개인의 도덕성이나 삶의 내력에는 관심이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자력으로 마련한 수도를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가로채려는 이들의 행동이 공동체의 질서나 인정, 도덕에는 어긋나는 것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제 것'이 되고, 그때 비로소 실제 법의 힘이 발휘된다. 문제는 어려운 법 조항과 규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이러한 법의 힘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산거족」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사회의 법은 모든 이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지식에 밝은 이들의 편에서만 복무하는 기형적 형태로 그려진다.

EBS
Q&A

Q. 소설의 인물에 대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물은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가의 특정한 의도와 계획 등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작가는 인물을 핵심 요소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따라서 작가의 일정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 창작되고 구성된 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곧 소설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자는 작품 속의 다양한 정보들을 근거로 삼아 인물의 외면이나 성격, 특징 등을 추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물은 소설 속의 다른 인물들과도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습니다. 따라서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일으키는 갈등이나 사회 역사적 현실에 반응하는 양상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인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배추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배추가 원래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란다고 생각하다가, 배추가 나비와 벌레에게 자신의 몸을 주며 속이 차오르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인간의 삶에서도 나눔과 희생이 있어야 삶이 완성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물을 동일시하여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

나눔과 희생으로부터 얻는 생명력

속이 짙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질 자란 생명 처음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 」: 화자가 배추를 관찰하기 이전에 지녔던 배추에 대한 인식(깨달음 이전의 상황)

▶ 1~2행: 배추의 성장에 대해 품었던 이전의 생각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 」: 배추의 성장 과정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단단하게 웅이지 않은 상태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結球)*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나눔과 희생으로부터 얻는 생명력

알볼*을 달듯 속이 차 오는 거라,

배추의 속이 차오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과 마음의 방향을 겪고 있는 화자의 모습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 3~9행: 배추에서 결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 본 후에

채마를 심어 기꾸는 밭

알게 된 것이다

▶ 10~13행: 배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

「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 배추 모종을 심어 본 후에 얻게 된 깨달음: 나눔과 희생을 실천해야 성장할 수 있음.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나눔과 희생을 실천한 후에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제가 드러남.

▶ 14~17행: 배추를 통해 깨달은 나눔과 희생의 중요성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 알볼: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은 불등걸

* 공양간: 절의 부엌을 이르는 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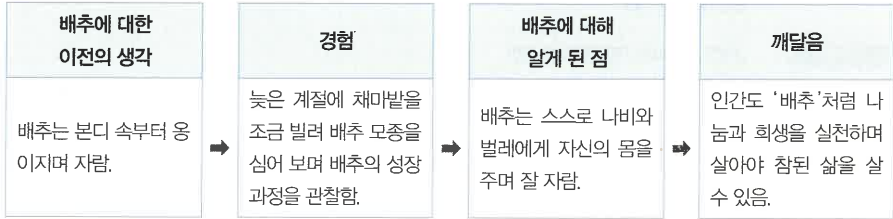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배추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얻게 된 깨달음을 밝히고 있음.
- '~는 거라'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

포인트 2

'경험 - 깨달음'의 구조 [문항 4 관련]



'배추'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의 의미 [문항 2 관련]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은 '빌려줄 몸'과 연결되어 타인에게 자신이 지닌 것을 나누어 주거나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등불'은 나눔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생명력 또는 진정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눔과 희생 없이는 생명을 완성하거나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는 '속이 짝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호응되어 진정한 생명, 또는 참된 삶은 희생과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김선우 시와 생태주의

생태주의란 일원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합일, 자아와 세계의 합일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이는 인간 위주의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음식을 찌꺼기며 설거지물이며 버릴 것 없이 모아 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오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 김선우, 「신(神)의 방」 중

내 죽은 담에는 뇌들 선산에 묻히지 않을란다
깨끗이 화장해서 찹쌀 석 되 곱게 땡아
뺏가루에 섞어 달라시는 엄마 바람 좋은 날
시루봉 너럭바위 위에 훌뿌려 달라시는

들집승 날집승들 꺼려할지 몰라
찹쌀가루 섞어 주면 그네들 적당히 잡순 후에
나머진 바람에 실려 천·지·사·방·혈·혈
가볍게 날고 싶다는
찹쌀 석 되라네! 도대체 언제부터
엄마는 이 괴상한 소망을 품게 된 걸까

- 김선우, 「엄마의 뼈와 찹쌀 석 되」 중

김선우의 시에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타자의 먹이가 되는 생명체의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유지되는 생태계의 모습이 드러난다.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도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생해야 한다는 시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부르든 맨발을 지니고 살아가는 개조개의 모습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맨발로 살아가는 개조개를 사랑을 잃고 슬픔을 견디는 사람, 가난한 가정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 등과 동일시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하며 인간의 힘겨운 삶도 이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고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줌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적 상황: 화자는 개조개를 관찰하고 있음.

성찰의 동기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비유적 표현

떨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든 맨발

▶ 1~3행: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내민 맨발을 응시함.

고단한 삶의 흔적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개조개에 대한 연민. 위로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 4, 5행: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함.

개조개의 삶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개조개의 삶이 천천히, 오랜 기간 흘러왔을 것이라 짐작함.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개조개의 삶이 힘겨웠을 것이라 짐작함.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홀로 인생의 고통을 인내했을 것이라 짐작함.

아— 하고 집이 올 때

식구들이 배고픔에 올 때

부르든 맨발로 양식을 탁발^{*} 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견디며 가족들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가정의 모습이 드러남.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

가난의 냄새가 별별별별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후각의 시각화를 통해 가난한 상황을 형상화함.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6~15행: 개조개의 삶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함.

청각의 시각화

『: 개조개를 통해 인간의 고단한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탁발: 도를 닦는 승려가 경문(經文)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이것만은
꼭
악하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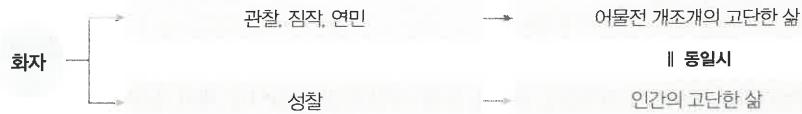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표현 방법		해당 부분	효과
비유적 표현		움막 같은 몸, 움막 같은 집	→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형상화함.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 개조개에 대한 화자의 연민, 위로의 마음을 드러냄.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 홀로 시련과 고통을 인내한 개조개의 삶을 보여 줌.
청각적 이미지		아— 하고 집이 울 때	→
공감각적 이미지	후각의 시각화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
	청각의 시각화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포인트
2

시적 대상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 **문항 4 관련**

이 시에서 화자는 '어물전 개조개'가 몸 밖으로 내민 '부르튼 맨발'을 보며, 개조개의 힘겨운 삶을 짐작하며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며 인간도 개조개처럼 시련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EBS
Q&A

Q. 화자가 개조개가 내민 맨발을 보고, 죽은 부처의 발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 2 관련

A. 화자는 어물전에서 개조개가 내민 맨발(조갯살로 짐작됨.)을 보며 열반에 든 부처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맨발을 내밀었던 일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며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맨발은 곧 그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펠과 물속에 오래 있어 부르튼 개조개의 맨발은 개조개가 살아온 시간과 길, 즉 개조개의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유사하고, '맨발'이라는 공통된 소재가 존재하므로 화자는 개조개를 보며 부처의 일화를 떠올린 것입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각박해진 세대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주인공 만기의 치과 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만기와 그의 친구들인 익준, 봉우 등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에 무능력한 '임여적' 인물형들을 그려 내는 동시에, 도덕성이나 선량함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우선시되는 전후의 부조리한 세대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휴머니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전후 사회의 인간 소외와 휴머니즘적 극복

전체 줄거리

치과 의사인 서만기의 병원에는 그의 친구들인 채익준과 친봉우가 매일 찾아온다. 익준은 사회의 부조리를 담은 신문 기사를 보며 분노하고,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우는 매사에 무기력한 채 간호원인 홍인숙을 짝사랑하여 그녀를 쳐다보거나 앉아서 낮잠을 잔다. 봉우의 아내는 병원 건물의 소유주로, 가난한 치과 의사인 만기를 돈으로 유혹하려 한다. 봉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만기는 일주일 이내에 병원과 시설 일체를 내어 달라는 봉우 아내의 편지를 받는다. 익준이 없는 사이, 익준의 아이가 병원으로 찾아와 익준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한다. 만기는 봉우의 아내에게 장례 비용을 융통하여 익준의 아내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익준을 만난다.

“그래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니?”

“접대 아버지하구 돈 꾸러 왔됐어요.” / “돈 꾸러? 여길?”

“네, 아버지가 엄마하구 무슨 얘기하다가 올었어요. 그리구 나 데리구 여기까지 왔됐어요.”

“그래서 돈은 꾸어 왔니?”

익준이 만기에게 돈을 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아니요. 나보구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구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구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구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 갖구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보구 조금만 더 참구 기다리라구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근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감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익준의 궁핍한 사정을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냄.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꾸어 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 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비쳐 본 일조차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익준이 만기에게 돈을 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만기가 '소년'을 통해 익준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모르고 있었다.

“너 몇 학년이니?” / “학교 그만뒀어요.” / “그럼 놀고 있어?” / “신문 장사해요.”

익준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함.

익준의 아들로 인해 익준의 형편을 알게 된 만기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 그는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열 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곤 만기뿐이니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만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입는 일만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의 학비까지 당해 내야만 했다. 대학이 하나, 고등학교가 둘,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장남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지출이었다. 피를 짜내듯 해서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 밖에 늙은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이 아득바득하고 있는 처가에도 다달이 쌀말 값이라도 보태 주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하기는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동란 이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네 생활이 그만치라도 지탱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익준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현실에 무기력함을 알 수 있음. 기도 했다. 익준은 취직을 단념하고 있었다. 익준이 취직을 단념하고 있는 이유 왜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특수한 기술도 뾰도 없는 데다가 나 이마저 삼십 고개를 반이나 넘어섰고 보니 취직이란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 줌. 남달리 정의감과 결백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실사 어떤 직장이 얻어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 있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익준의 성격. 익준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유 지 못했을 것이다. 사변 전에도 직장다운 직장을 오래 가져 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그러한 그의 성격 탓이었 다. 그렇다고 장사를 하자니 밑천도 없었거니와 이 또한 고지식한 그에게 될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생각다 못 해 노동판에도 섞여 보았다. 그 역시 해 보지 않던 일이라 한몫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 줌.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 줌. 입을 속여 먹는 줄 알게 되자 대뜸 쫓아가서 시비 끝에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기 최근 일 년 동안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 먹고살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 사회에도 이익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며 그는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그가 말하는 국가 사회에도 보익(補益)하며 먹고 보태고 돌려 도움이 되게 함. 살 수도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 잡화 및 식료품 상회였다. 그의 친지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친지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 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 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의 195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 줌.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 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도 외국인 자신들이 절실 히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준은 단박 얼굴이 벌게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나고 탄식했던 것이다. ▶ 생활에 시달리는 만기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익준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주요 인물의 성격과 태도 문항 5 관련

익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함. • 현실 생활에서 무능력함.
만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준에게 연민을 느낌 •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버겁게 생각함.

포인트 2

'소년'의 서사적 역할 문항 6 관련



익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함.

시대상	→	작품 속에 반영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치는 타락한 인간상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인간 • 부조리한 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판의 가난한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 먹는 사무실 사람들 • 동란 이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 • 외국인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는 한국 상인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잉여 인간」 전체의 구조

발단	치과 의사인 서만기의 병원에 친구인 익준과 봉우가 매일 찾아와 시간을 보냄.
전개	봉우는 병원의 간호사인 인숙을 짝사랑하고, 병원 건물 소유주인 봉우의 아내인 만기를 유혹함.
위기	만기는 봉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병원에서 쫓겨날 걱정을 함.
절정	만기는 봉우 아내에게서 병원을 비워 달라는 편지를 받고, 익준의 아들이 익준이 없는 사이 병원에 찾아오고, 수목 머지않아 익준의 차가 죽음.
결말	만기는 돈을 융통하여 익준의 처 장례를 치러 주고, 내려오는 길에 돈을 구해 온 익준과 마주침.

■ 전후 소설

전후 소설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작가가 겪은 전쟁과 그 이후의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을 이른다. 우리나라의 전후 소설은 주로 1950년대에 6·25 전쟁과 전쟁 직후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일컫는데, 대표적인 작가는 손창섭, 장용학, 박경리, 이범선, 오상원, 선우휘, 황순원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쟁의 참상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참상으로 인한 인간들의 광기, 타락상 등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성찰을 시도한 작품들이 많다. 또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막연한 휴머니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EBS
Q&A

Q.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A. 소설에서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자,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상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물의 외양이나 옷차림 등에 대한 묘사를 살펴본다.
- 인물의 말과 행동의 특성을 살펴본다.
- 인물에 대한 다른 인물이나 서술자의 평가에 주목한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박경리의 전쟁 체험이 담겨 있는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전후의 사회 현실이 초래한 궁핍과 정신적 황폐화는 인간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사나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타락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불신'이 만연한 시대 현실과 그 시대가 인간성을 어떻게 훼손시키는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혼란기의 부정적 사회상에 대한 분노와 고발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외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진영은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죽어 간 아이의 울음소리를 잊기 위해 종교에 매달려 본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시주 받은 쌀을 착복하는 중과 도적 맞을까 봐 신발을 싸 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뿐이었다. 진영은 그들로 인해 아이의 영혼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진영은 그 부당함에 항거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며, 죽은 아이의 사진을 불사르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 “오십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
계를 통해 빚을 지고 있던 아주머니가 갚돈을 유용해 비밀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함.
 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였었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이야
아주머니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음.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밀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 주고 싶었다.

▶ 돈을 떼이고 진영에게 도움을 청하려 온 아주머니

진영은 아주머니가 갚돈을 유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상배 아버지
 전무였으며 5월달에 빌려 간 오십만 환의 이자라고는 한 폰도 받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

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 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
아주머니가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편인 김 씨가 일을 봐주겠노라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 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어음을 김 씨가 받아 줌.

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 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 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 돈을 떼인 경위를 설명하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받았다던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갑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간다.
상배와 그 아버지가 아주머니가 종교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했음을 알 수 있음.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상배가 영세를 받은 것은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음.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단순하여 사기를 당한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교로 이용당해 돈을 떼인 아주머니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예요?” /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김 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영은 김 씨가 아주머니의 일을 봐준 이유가 어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렇지만 어음을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판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런 김 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내가 좀 협조해 줄 수 없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해 보일 것 같아…….”

아주머니의 말투는 애원이었다. / “글쎄…….”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뒤에 거절을 해 버리는 것이 무슨 악마 취미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 “같이 저도 가지요.”
▶ 아주머니의 돈 문제를 도와주기로 한 '나'
불의한 일을 당한 아주머니를 외면하지 못하는 진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 왔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여러 가지 잡담을 꺼냈다.
▶ 아주머니가 단순한 성격임을 알 수 있음.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젠 영 겁이 나서 남 출 생각이 없어.”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마시고 돈 찾거든 장사하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하다 안 되면 거리서 빵이라도 구워 팔아야지요.”

“너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할려면 취직 못할 것 없잖아. 난 정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 벌기론 계가 제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아주머니의 심리를 알 수 있음.
일이야. 힘 안 들고…….”

아주머니는 손갈을 놓고 성냥 가지로 이빨을 찌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그런 배짱이면……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惡)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머니
돈을 제일로 여기는 아주머니의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짐작할 수 있게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인물의 성격과 태도 **문항 5 관련**

진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머니에게 반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낌. • 부정한 상황과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짐.
아주머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도 남편도 없어 진영에게 도움을 요청함. • 세상에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포인트 2

작품의 세부적 내용 이해 **문항 7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은 아주머니가 계를 해서 빚을 뒤집어쓴 줄 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은 아주머니가 켄돈을 유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머니가 상배가 영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배 아버지를 믿고 돈을 빌려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어음을 김 씨가 받아 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은 김 씨가 아주머니의 일을 봐준 이유가 어음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함.

포인트 3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현실 **문항 8 관련**

<p>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의 분위기 •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 	→	<p>작품 속에 반영된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도와주는 신자의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주머니 • 돈이 제일이라는 아주머니의 말
---	---	---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불신 시대」 전체의 구조

발단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진영은 아들인 문수를 의사의 무성익한 치료로 잃게 됨.
전개	약 분량을 속이고, 건달이 의사 행사를 하는 등 전후의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임.
위기	문수의 위패를 모신 절의 스님들의 타락한 모습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주머니가 종교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사건 수확 등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진영의 불신은 더욱 증폭됨.
절정·결말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와 태움으로써 삶의 의지를 다짐.

EBS Q&A

Q. 이 장면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설 속 대화는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사건의 흐름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시된 장면에서 대화의 서사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물 사이의 관계 파악(인물에 대한 태도)
- 인물의 성격 파악
-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독해 포인트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지은 향가계 고려 가요이다. 역모에 가담했다는 참소 때문에 동래로 귀양을 가게 된 정서는 자신을 곧 다시 부르겠다는 임금(의종)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예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정서의 호가 과정(瓜亭)이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의 제목을 '정과정'이라 했다. 유배 문학의 효시로 꼽히며, 국문으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진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자신의 결백 주장

내 입을 그리워하여 울더니

고려 의종

산(山)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감정 이입의 대상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저에 대한 모함이 사실이 아니다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실 것입니다

새벽녘의 달과 별,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들

낮이라도 입과 한곳에 가고 싶여라 아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충정이 드러남.

우기시던 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모함하던', '이간질하던' 등의 의미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

무리들의 말입니다 / 슬프도다 아으

화자를 힐뜯던 이들 감정의 직접적 표출

입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아 입이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입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남.

내님들 그리스와 우나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 기(1~4행):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결백함

녁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히마리신더* / 슬웃분더 아으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 서(5~10행):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해명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 결(11행): 임에 대한 애원

* 혼디 녀져라: '함께 지내고 싶어라'로 풀이하기도 함.

* 벼기더시니: '어기시던 이', '다짐하시던 이' 등으로 풀이하기도 함.

* 물히마리신더: '허황된 말씀이시도다',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네', '편안케 하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만두신 것이로구나' 등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함.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작품 창작의 배경 이야기 **문학 9 관련**

「고려사」 권97을 참고하면, 정서는 외척(外戚)과 혼인을 맺어 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이 내시랑중에 이르렀는데, 성질은 비록 경박하나 재능과 기예가 있었으며 대녕후 왕경과 친밀하여 항상 함께 놀았다. 1146년(의종 1)에 의종의 동생을 왕에 세우려고 했다는 김존중 일파의 모함 때문에 동래로 추방되었는데, 의종이 그를 떠나 보내면서 "오늘 가게 된 것은 조정의 의론에 물려서이다. 머지않아 소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정서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소환 명령을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가사가 몹시 처량했다. 정서는 스스로 과정(瓜亭)이라고 호를 지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그가 지어 부른 노래를 「정과정」이라고 했다.

포인트 2

감정 이입 **문학 11 관련**



포인트 3

문학사적 의의

- 고려 가요 중에서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
- 유배 문학의 효시이자 충신연주지사의 원류
- 10구체 향가의 흔적이 엿보이는 향가계 고려 가요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등이 부러진 불개미에 관한 과장된 헛소문을 소재로 삼아, 결백을 호소하는 화자가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즉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근거하여 타인의 말을 수용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남을 헐뜯는 거짓말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주장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 초장: 등이 부러진 불개미에 대해 언급함.

a-a'-b-a' 구조로 리듬감 형성

앞발에 정중(疔腫)*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새재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몰어 추켜

들고 북해(北海)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 중장: 불개미에 대한 과장된 헛소문의 존재를 임에게 알림.

모든 온갖

「」: 반복과 극단적인 과장으로 해학성을 높이고 의미를 강조함.

임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종장: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고 잘 판단해 달라고 임에게 당부함.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화자를 비방하는 말을 의미함.

허튼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호소하고 싶은 대상

*정중: 단단하고 뿌리가 깊으며 형태가 못과 같은 부스럼.

**가람: 몸에 어롱어롱한 줄이 있는 범.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1

시적 상황과 주제 문항 9, 11 관련

〈화자 ≙ '불개야미'〉

과장된 거짓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님.



〈화자 → '임'〉

'온 놈'이 헐뜯더라도 '임'이 화자의 결백을 믿어 주길 바라는 마음

포인트 2

표현상 특징 문항 10 관련

- 초장에서 대상인 '개미'의 범위를 점차 한정해 가는 반복적 표현으로 리듬감을 발생시킴.
- 중장에서 극도의 과장을 통해 자신에 대한 '온 말'도 순전히 헛소문일 뿐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해학성을 높임.
- 종장에서 청자인 '임'에 대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

■ 종장에 담긴 관습적 표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라는 종결은 이 작품 이외에도 정철의 장시조 '심의산 세 네 바위'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관습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결을 보이는 몇몇 작품은 표현의 관습에만 한정하지 않고, 작품의 구성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화자와 임 사이에 생겨난 오해와 억울함을 과장된 우의를 통하여 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호소가 그것이다.

- 김진영 외, 『한국 시조 감상』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고려 말의 유학자 이달총이 지은 글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 각 평가의 내용이 귀담아들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평가를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작가는 ‘아니다’, ‘없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유비자(有非者)’와 ‘무시옹(無是翁)’이라는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사람다움에 관한 평가를 대하는 올바른 관점

유비자(有非子)가 무시옹(無是翁)에게 찾아가서 말하였다.

“근자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왜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남이 나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 처음: 무시옹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관해 유비자가 질문을 던짐
‘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무척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무시옹의 생각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무시옹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
 /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나는 기뻐할 일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입니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주제

그러므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 중간: 무시옹이 타인을 평가하는 이가 먼저 갖추어야 할 사람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함.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무시옹이 이것으로 잠(箴)*을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자도(子都)*의 어여쁨이아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 역아(易牙)*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뜻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맛이라는 뜻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는 /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리오. ▶ 끝: 무시옹이 자신을 깨우치는 글을 지음.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릴 때는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설의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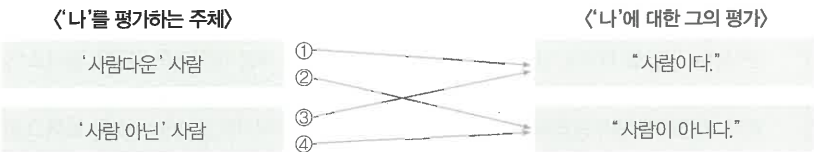
*잠: 훈계하는 뜻을 적은 글의 형식.

*자도: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미남자.

*역아: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신하로서 음식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였음.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

포인트 무시옹의 생각 문학 12 관련



무시옹은 ‘나’에 대한 평가 내용 그 자체보다 우선 ‘나’를 평가하는 주체의 인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함. 따라서 ①과 ④는 기뻐할 일이지만 ②와 ③은 두려워할 일이라고 봄.

이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다. 이혈룡과 김진희는 양반으로서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안 감사가 된 김진희는 이혈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혈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다. 옥단춘은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혈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를 대별하여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남주인공의 출현 장면 등과 같이 내용 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 감사가 되지만, 이혈룡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에 이혈룡은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는다.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결인 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가는다. 김진희는 옥단춘의 도움으로 이혈룡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둘을 죽이려 한다. 이에 이혈룡은 암행어사로 출몰하고, 김진희를 치죄한다. 이후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르고 옥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부귀를 누린다.

“평안 감사 김진희야, 이혈룡을 모르느냐?”

두세 번 큰소리 내니 감사 듣고 한참 보다가 호장 불러 호통하니, 호장 수령 겁을 내어 일시에 달려들어 **뺨도** 치며 등도 밀고 상투 들어 부복하니, 사또 부부하되,

이를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이혈룡을 함부로 대함.

“너 이놈, 들어라. 웬 미친놈이 와서 휘욕하느냐?”

혜방을 놓고 욕을 함.

하거늘, 혈룡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오냐, 내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었다가 **통기** 못하여 **일삭**이나 지나더니,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날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더니 이다지 팔세 하니, 대대 친구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나 같으면 이다지 팔시 아니 하겠다. 다만 전백(錢百)이라도 주었으면 부모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기벌을 보내어 알게 함. 한 달

결의형제를 맺은 김진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자 화를 내고 있음.

이혈룡이 김진희를 찾아온 궁극적 이유

하며 대성통곡하여 우는 말이,

“이 똥쓸 김진희야, **푼전** 노수 없어 한양 천 리 어이 가리.” / 하니, 사또 분을 내어 호통하되,

돈을 빌려주지 않는 김진희를 원망하고 있음.

“미친놈이로다.”

이에 이혈룡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무시함.

하며 대동강 사공을 불러 알,

“**이놈**을 배에 싣고 **강중**에 던지어라.”

이혈룡이 겪게 되는 시련

▶ 친구인 이혈룡의 부탁을 외면하고 죽이려는 김진희

하고 분부 지엄하니, 사공들이 영을 듣고 물러 나와 혈룡을 결박하여 배에 실을 적에 옥단춘이 넋지시 보매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다.

인물됨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옥단춘

불쌍히 생각하고 감사 전에 여쭙오되,

“**소녀** 금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혈룡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하니, 감사 이르는 말이,

“그러하면 물러나가 치료하라.” / 하거늘, 옥단춘이 물러 나와 사공을 급히 불러 알,

문제 해결 키 문항 14 관련

김진희와 이혈룡이 결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는데, 장차 성장하여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를 대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함.

“저기 가는 저 사공아, 잠깐 머물러라.”

하니 사공이 머물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값을 후히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은 모양으로 모래 속에 은신하고 오라.”

이혈룡을 위기에서 구하는 옥단춘

하니, 사공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한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리오.”

▶ 위기에 처한 이혈룡을 구해 주는 옥단춘

[중략 부분 줄거리] 이혈룡은 자신을 구해 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옥단춘의 후원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 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된다. 이혈룡이 걸인 행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김진희에게 찾아가자 김진희는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을 치죄하려 한다.

옥단춘이 일평생 그런 일을 안 보다가 오늘날을 당하여 네 수족을 벌벌 떨며 어사또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낭군님아, 이것이 웬일이요. 집 보라고 하였더니 귀신 들려 여기 왔소, 살매 들려 여기 왔소. 내 집

이혈룡 집에 머무르라는 말을 어기고 김진희를 찾아온 이혈룡을 보고 당황함.

재물 가졌으면 호의호식 지낼 것을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고. 애고애고 낭군님아, 어허이고 낭군님아. 어찌하여 사잔 말가. 죽을 목숨 살리어서 백년해로 언약하고 사셨더니, 일 년이 못 지나서 영별 죽음

김진희를 다시 찾아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혈룡의 상황을 표현함.

한단 말가. 애고애고 낭군님아, 야속하오 낭군님아.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 번 못 해 보고 황천객이 되단 말가. 원통하고 가련하다, 낭군 팔자 내 팔자가 전생 무슨

이혈룡이 어사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음.

죄목으로 이다지 험하기도 험하다. 사주팔자 이러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미진한 우리 정을 백년해로 살아 보사이다. 남아 남아 서방님아, 어찌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옥단춘

여 사잔 말가. 아무리 원통하여 후세에 서로 만나 살자 한들 죽어지면 허사로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뉘 아니 설위하며 뉘 아니 불쌍타 하리오.

작가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 논평함.

어사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네 울음 한 마디 내 간장 다 녹는다. 내 죽고 네 살거든 내 원수를 내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거든 네 원수를 내 갚으마.”

어떻게든 김진희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김진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혈룡과 옥단춘

이렇듯이 당부할 제, 순사또 분부하되 사공을 호령하니,

김진희

“저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내 보는 데 대동강 깊은 물에 던지어라.”

이진과 같은 시련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이혈룡

추상같이 호령하니, 사공이 영을 듣고 물러 나오니, 또다시 영을 놓아,

“북소리 세 번 들리거든 연놈을 한데 죽이어라.”

이혈룡과 옥단춘의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함.

하며 형리 놈을 또다시 호령하니 형리 없디어 아뢰되,

“과연 사또 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일후 거행 보옵소서.”

무수히 애걸하니, 순사또 분을 풀어,

“물리치라.” / 하시더라.

이때에 어사또 사공에게 끌려 배에 잡혀 오를 적에 탄식하여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이전에 너와 나와 사생동거(死生同居)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칠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김진희의 처사에 대한 한탄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목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다. 이혈룡과 김진희는 양반으로서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안 감사가 된 김진희는 이혈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혈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다. 목단춘은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혈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를 대별하여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남주인공의 출현 장면 등과 같이 내용 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 감사가 되지만, 이혈룡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에 이혈룡은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 목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는다. 목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같은 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간다. 김진희는 목단춘의 도움으로 이혈룡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둘을 죽이려 한다. 이에 이혈룡은 암행어사로 출도하고, 김진희를 처치한다. 이후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르고 목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부귀를 누린다.

“평안 감사 김진희야, 이혈룡을 모르느냐?”

두세 번 큰소리 내니 감사 듣고 한참 보다가 호장 불러 호통하니, 호장 수령 집을 내어 일시에 달려들어 뺨도 치며 등도 밀고 상투 들어 부복하니, 사또 분부하되,

고을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이혈룡을 함부로 대함.

“너 이놈, 들어라. 웬 미친놈이 와서 휘욕하느냐?”

책방을 들고 옥을 함.

하거늘, 혈룡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오냐, 내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었다가 통기 못하여 일삭이나 지나더니,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날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더니 이다지 팔세 하니, 대대 친구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나 같으면 이다지 팔시 아니 하겠다. 다만 전백(錢百)이라도 주 었으면 부모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 한 달

결의형제를 맺은 김진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자 화를 내고 있음.

이혈룡이 김진희를 찾아온 궁극적 이유

하며 대성통곡하여 우는 말이,

“이 뭍쓸 김진희야, 푸른 노수 없어 한양 천 리 어이 가리.” / 하니, 사또 분을 내어 호통하되,

돈을 빌려주지 않는 김진희를 원망하고 있음.

“미친놈이로다.”

이에 이혈룡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무시함.

하며 대동강 사공을 불러 왈,

“이놈을 배에 싣고 강중에 던지어라.”

이혈룡이 경계 되는 시련

▶ 친구인 이혈룡의 부탁을 외면하고 죽이려는 김진희

하고 분부 지엄하니, 사공들이 영을 듣고 물러 나와 혈룡을 결박하여 배에 실을 적에 목단춘이 넋지시 보매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다.

인물됨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목단춘

불쌍히 생각하고 감사 전에 여쭙오되,

“소녀 금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혈룡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하니, 감사 이르는 말이,

“그러하면 물러나가 치료하라.” / 하거늘, 목단춘이 물러 나와 사공을 급히 불러 왈,

문제 해결 키 문항 14 관련

김진희와 이혈룡이 결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는데, 점차 성장하여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를 대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함.

“저기 가는 저 사공아, 잠깐 머물러라.”

하니 사공이 머물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값을 후히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은 모양으로 모래 속에 은신하고 오라.”

이혈룡을 위기에서 구하는 옥단춘

하니, 사공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한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리오.”

▶ 위기에 처한 이혈룡을 구해 주는 옥단춘

[중략 부분 줄거리] 이혈룡은 자신을 구해 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옥단춘의 후원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 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된다. 이혈룡이 걸인 행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김진희에게 찾아가자 김진희는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을 치죄하려 한다.

옥단춘이 일평생 그런 일을 안 보다가 오늘날을 당하여 네 수족을 벌벌 떨며 어사또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낭군님아, 이것이 웬일이오. 집 보라고 하였더니 귀신 들려 여기 왔소, 살매 들려 여기 왔소. 내 집

이혈룡 집에 머무르라는 말을 여기서 김진희를 찾아온 이혈룡을 보고 당황함.

재물 가졌으면 호의호식 지낼 것을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고. 애고애고 낭군님아, 어허이고 낭

군님아. 어찌하여 사잔 말가. 죽을 목숨 살리어서 백년해로 언약하고 사졌더니, 일 년이 못 지나서 영별 죽음

김진희를 다시 찾아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혈룡의 상황을 표현함.

한단 말가. 애고애고 낭군님아, 야속하오 낭군님아.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

로 생겨나서 공명 한 번 못 해 보고 황천객이 되단 말가. 원통하고 가련하다, 낭군 팔자 내 팔자가 전생 무슨

이혈룡이 어사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음.

죄목으로 이다지 험하기도 험하다. 사주팔자 이러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미진한 우리 정을 백년해로 살아 보사이다. 남아 남아 서방님아, 어찌하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옥단춘

여 사잔 말가. 아무리 원통하여 후세에 서로 만나 살자 한들 죽어지면 허사로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뉘 아니 설워하며 뉘 아니 불쌍타 하리오.

작가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 논평함.

어사또 하는 말이,

“우지 마라. 네 울음 한 마디 내 간장 다 녹는다. 내 죽고 네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거

어떻게든 김진희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든 네 원수를 내 갚오마.”

▶ 김진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혈룡과 옥단춘

이렇듯이 당부할 제, 순사또 분부하되 사공을 호령하니,

김진희

“저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내 보는 데 대동강 깊은 물에 던지어라.”

이전과 같은 시련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이혈룡

추상같이 호령하니, 사공이 영을 듣고 물러 나오니, 또다시 영을 놓아,

“복소리 세 번 들리거든 연놈을 한데 죽이어라.”

이혈룡과 옥단춘의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함.

하며 형리 놈을 또다시 호령하니 형리 엮디어 아뢰되,

“과연 사또 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일후 거행 보옵소서.”

무수히 애걸하니, 순사또 분을 풀어,

“물리치라.” / 하시더라.

이때에 어사또 사공에게 끌려 배에 잡혀 오를 적에 탄식하여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이전에 너와 나와 사생동거(死生同居)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김진희의 처사에 대한 한탄

석같이 믿었더니, 살기는 고사하고 죽이기를 일삼으니 무심하고 야속하다. 오를 박대하고 보면 양급자손(殃及子孫)하나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로, 여기서는 '봉우유신'을 이룸.

화가 자손에게 미침.

대동강 맑고 맑은 물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여 왈,

“대동강 맑은 물아, 날과 무슨 원수 있어 한 번 죽기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참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대동강에 맑을 하는 방식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옥단춘이 또한 어사또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며 애통하여 왈,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다 살고 어복(魚腹) 중의 혼이 되니 이 아니 원통할까. 명천(明天)은 감동하와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무수히 통곡할 제 한 번 북소리 들리거늘 옥단춘이 더욱 기가 막혀,

“애고애고 이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할꼬. 남아 남아 낭군남아, 어찌하여 살아날꼬.”

어사또 하는 말이, /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암행어사인 자신이 옥단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 복선의 기능

북소리 두 번 들리거늘 옥단춘이 또다시 놀라면서,

“남아 남아 서방남아, 이제는 못 살겠소. 살려 주오 살려 주오.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덕분 살려 주오. 아무 죄도 없나이다.”

무수히 통곡할 제 세 번째 북소리 들리거늘 사공이 재촉하되,

위기감의 고조

“어서 물에 들어가옵소서. 일사라도 지체하면 내 목숨이 죽을 터이니 어서어서 들어가소서.”

성화같이 재촉하는지라. 옥단춘이 냇을 잃고 정신없이 하는 말이,

“여보 사공남아 들어 보소, 그대도 사람이지 무죄한 이 인생을 어찌 그리 죽이랴오. 나는 자결할 것이니 우리 낭군 살려 주오.” / 저 사공 대답하되,

죽는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옥단춘

“아무리 야속한들 명령이 엄숙하니 살릴 묘책 없나니, 다 어서 바빠 조처하라.”

하거늘, 옥단춘이 하릴없이 하는 거동 보소.

눈을 아주 질끈 감고 치마로 머리 쓰고 이를 바짝 갈며 벌벌 떨며,

“애그머니, 나 죽는다.”

한 소리에 펄쩍 뛰어들려 하는지라, 어사 또한 깜짝 놀라 옥단춘의 손목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 죽음을 앞두고 탄식하는 옥단춘을 위로하는 이혈룡

하며 잡아 앉히고 연광정을 건너다보며,

“서리, 역졸들 어디 갔느냐?”

어사출도를 위해 부름.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 떼같이 내달으며 달과 같은 저 마패를 일월같이 높이 들고 우레 같은 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의를 강조함.

“암행어사 출도하십시오, 하십시오.”

사건의 극적 반전

▶ 암행어사의 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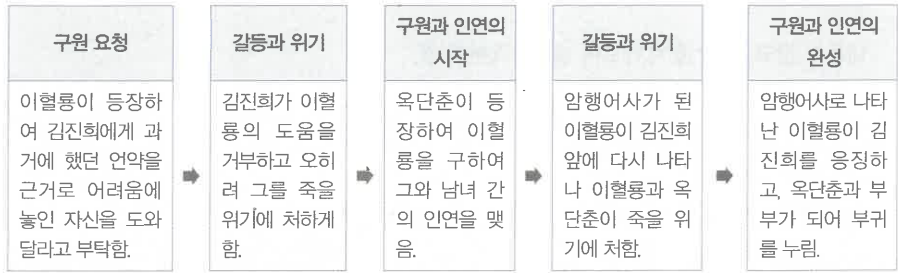
문제 해결 키 문항 14 관련

이혈룡과 옥단춘이 동시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남녀의 신의, 즉 사랑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함.

이것만은
꼭
악하자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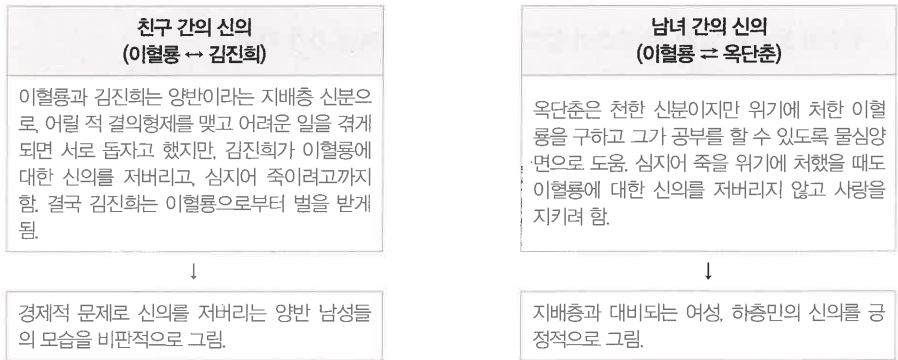
포인트
1

작품의 서사 구조('이혈룡'을 중심으로) 문항 13, 14 관련



포인트
2

작품에 나타난 '신의' 문제 문항 14, 15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옥단춘전」과 「춘향전」의 연관성

고전 소설 「옥단춘전」과 「춘향전」은 모두 조선 숙종 때를 배경으로, 양반과 기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암행어사 화소가 쓰이고 있다는 점, 암행어사의 출몰에 의해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뿐만 아니라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도 유사하다. 다만 「옥단춘전」은 남자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위기 극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춘향전」은 여자 주인공이 겪는 위기 극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BS
Q&A**

Q. 고전 소설에서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14 관련

A. 대개 고전 소설에서 외적 준거로는 작품에 쓰인 화소, 공간적 배경의 의미, 소재의 기능, 인물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역사적 평가가 제시됩니다. 바로 이런 준거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보기>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외적 준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한 후, 각각의 요소들과 작품에 나타난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항 14'의 <보기>에는 '신의'라는 윤리적 평가 요소를 남남과 남녀, 지배층과 하층민의 신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에 따라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면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작품으로 찾아보기

ㄱ

강변역에서 _ 정호승	118
강호사시가 _ 맹사성	291
개야미 불개야미~ _ 작자 미상	375
겨울 나들이 _ 박완서	201
계우사 _ 작자 미상	160
고가 _ 정한숙	304
고공가 _ 허전	326
곡구름 우는 소리에~ _ 오경화	49
곡목설 _ 장유	295
구부러진 길 _ 이준관	268
국선생전 _ 이규보	131
그리운 그 사람 _ 김용택	94
금 따는 콩밭 _ 김유정	270
길 _ 신경림	102

ㄴ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_ 작자 미상	256
낙치설 _ 김창흠	226
낙화 _ 조지훈	88
남은 다 자는 밤에~ _ 송이	50
'낮설게 하기'와 시의 표현	310
너와 나만의 시간 _ 황순원	189
논 이야기 _ 채만식	180
누룩 _ 이성부	104
누항사 _ 박인로	53
눈길 _ 이청준	320
님의 침묵 _ 한용운	80

ㄷ

달밤 _ 이태준	168
덴동 어미 화전자 _ 작자 미상	60
도도한 생활 _ 김애란	211
도봉 _ 박두진	92

도산십이곡 _ 이황	346
도요새에 관한 명상 _ 김원일	197

ㄹ

만연사 _ 안도환	298
맨발 _ 문태준	366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14
명량한 밤길 _ 공선옥	204
모란이 피기까지는 _ 김영랑	82
무너진 극장 _ 박태순	33
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적 경험	302

ㅁ

바다와 나비 _ 김기림	108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_ 김소월	76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_ 작자 미상	13
박씨전 _ 작자 미상	18
배를 매며 _ 장석남	114
별을 굶다 _ 김혜순	122
본조 아리랑 _ 작자 미상	65
봄은 고양이로다 _ 이장희	8
불모지 _ 차범석	233
불신 시대 _ 박경리	371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_ 신영복	247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	332
빌려줄 몸 한 채 _ 김선우	364
뿌리 깊은 나무 _ 김영현 · 박상연	240

ㅂ

사랑이 거짓말이~ _ 김상용	50
사씨남정기 _ 김만중	257
산거족 _ 김정한	360
산곡 - 함주시초 5 _ 백석	78
산민 _ 김창협	72

산은 알고 있다 _ 신석정	307
산은 적적 월황혼에~ _ 작자 미상	297
산촌 여정 _ 이상	244
살림 _ 이병률	335
삼대 _ 염상섭	341
상춘곡 _ 정극인	293
서경별곡 _ 작자 미상	42
서재야회록 _ 신광한	138
서투른 도적 _ 현진건	176
설생전 _ 오도일	142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100
세 선비의 꿈 _ 성현 엮음	301
소대성전 _ 작자 미상	337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_ 박태원	172
소전 _ 박제가	289
소현성록 _ 작자 미상	149
송반궁도우구복 _ 작자 미상	146
수레 제도 _ 박지원	219
수정가 _ 박재삼	32
쉽게 씌어진 시 _ 윤동주	86
습수요 _ 이달	71
시 _ 박목월	333
신고산 타령 _ 작자 미상	68
ㅇ	
아마존 수족관 _ 최승호	356
아주 느린 시간 _ 최일남	207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희길	281
안개의 나라 _ 김광규	110
알 _ 이강백	229
애오잠병서 _ 이달총	376
양주 별산대놀이 _ 작자 미상	215
어부단가 _ 이현보	74
어이 못 오더냐~ _ 작자 미상	50
얼은 강을 건너며 _ 정희성	106

연행가 _ 홍순학	253
열하기유 _ 서호수	250
육단춘전 _ 작자 미상	377
응고집전 _ 작자 미상	352
용사음 _ 최현	329
용소와 머느리바위 _ 작자 미상	128
울타리 밖 _ 박용래	10
월곡답가 _ 정훈	45
유리창 1 _ 정지용	28
유산가 _ 작자 미상	63
의산문답 _ 홍대용	261
이름 없는 꽃 _ 신경준	349
이별 이후 _ 문정희	116
이생규장전 _ 김시습	134
임이 헤오시매~ _ 송시열	50
잉여 인간 _ 손창섭	368

ㅈ	
자도사 _ 조우인	56
잔등 _ 허준	185
장마 _ 윤희길 원작, 윤삼육 각색	237
적벽가 _ 작자 미상	157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성격	285
정과정 _ 정서	374
정시자전 _ 석식영암	286
정직한 사기한 _ 오영진	22
제망매가 _ 월명사	40
제석본풀이 _ 작자 미상	164
조깅 _ 황인숙	312
조침문 _ 유씨 부인	26
존재의 테이블 _ 나희덕	265
종소리 _ 이재무	314
주몽 신화 _ 작자 미상	124
짚방석 내지 마라~ _ 한호	47

㉨

찬기파랑가_총담사	38
참깨를 털면서_김준태	112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_작자 미상	12
청초 우거진 골에~_임제	48
최척전_조위한	277
추사 글씨_김용준	263
춘향전_작자 미상	29

㉩

탈향_이호철	317
토막_유치진	273
통곡헌기_허균	223

㉪

파발 가에서_김수영	120
폐가에 부쳐_김관식	98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_김기택	358
플라타너스_김현승	90

㉫

향아_신동엽	96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316
황새결승_작자 미상	153
황혼_이육사	84
후송_서정인	193

memo

